청운대학교
홍성학연구소

국민이 지킨 역사
국민이 이끌 나라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및 3·1만세운동 100주년

홍성의 독립운동사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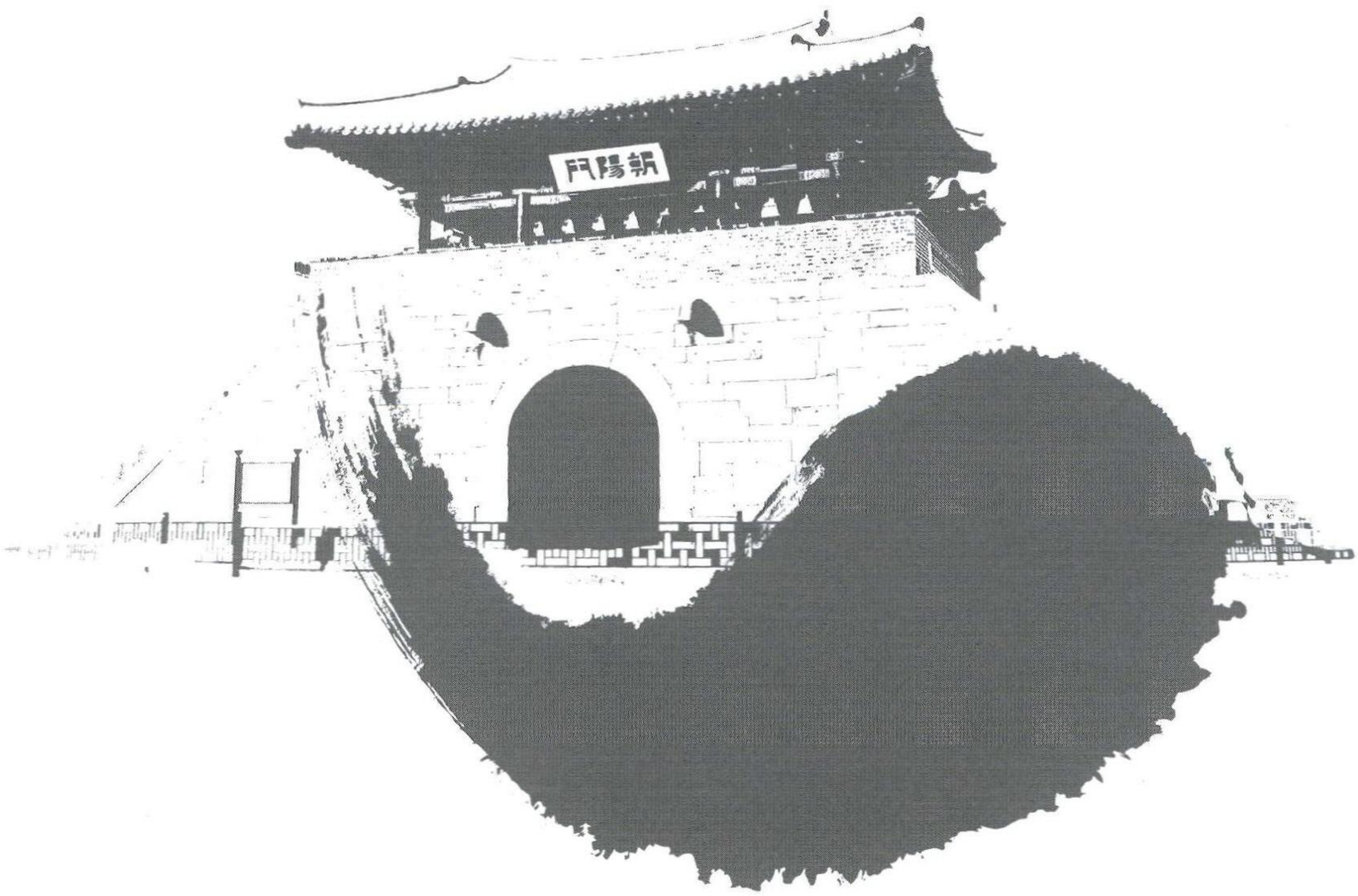


홍성군
HONGSEONG-GUN

표지사진 **조양문**

홍성의 독립운동사 1

홍성의 독립운동사 1





어제의 홍성에 날줄과 씨줄로 엮인 '독립운동', 오늘과 내일을 밝히다

2018년은 홍주 지명 탄생 천년과 성삼문선생 탄생 600주년, 2019년은 일제의 강점에서 벗어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3·1독립만세운동 100주년, 2020년은 청산리전투 승전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일제강점기 우리 선조들은 종교와 이념, 지역과 계층을 넘어 모두가 하나되어 민족의 자주독립을 세계만방에 외치며, 갈등과 반목을 넘어 화해와 상생의 시대를 열기 위해 분연히 일어섰습니다.

우리 홍성은 지난 천년 동안 많은 흔적이 켜켜이 쌓여온 역사와 문화의 고장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충남 서북부지역의 행정과 정치, 경제와 산업, 군사의 중심지로 평택에서 서천까지 22개 군을 관할하던 내포의 중심지였으며, 한말에는 전국 최대 규모의 의병전쟁과 격렬한 무

장투쟁이 전개되었던 지역입니다. 나라와 민족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분연히 일어나 구국운동을 전개하였던 충절의 고장인 것입니다.

최근 거듭되고 있는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와 독도 영유권 주장 등 과거사를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면서, 일제강점기에 우리 지역 곳곳에서 전개된 독립운동과 수많은 독립운동가의 희생을 떠올리게 됩니다. 독립운동가들의 피와 땀의 대가로 쟁취한 고귀한 독립은 어떤 일이 있어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의병전쟁, 3·1독립만세운동, 청년운동, 농촌운동, 신간회운동, 애국계몽운동, 해외 독립전쟁 등 괄목할만한 독립운동이 쉼 없이 전개되었습니다. 이에 일제는 홍주의 맥을 끊기 위해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홍주'라는 이름을 '홍성'으로 개명하고, 동헌 앞의 내삼문을 철거하였으며, 주산인 백월산 혈에 쇠말뚝을 박아 놓았습니다.

그동안 우리 지역에서 활발한 독립운동이 전개되었음에도 체계적인 정리와 연구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3·1독립만세운동 100주년을 맞아 지역의 독립운동사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발간하게 된 홍성지역 3·1운동 및 독립운동사는 지역의 역사성과 정체성 확립 및 독립정신을 이어가는데 소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역사란 어제의 일을 바탕으로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일의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따라서 본 독립운동사는 우리 지역의 과거와 현재를 진단하고, 바람직한 미래로의 지향점을 찾는데 매우 소중한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적 통합과 민족공동체 정신의 확립이 필요한 요즘, 우리 지역의 역사성과 독립운동정신을 온 군민이 공유하여 자랑스러운 홍성의 역사로 계승·발전되기를 기대합니다.

본 과제를 수행해 주신 김경수 청운대학교 홍성학연구소장님과 옥고를 제출해주신 김상기 충남대 국사학과 명예교수님, 김형목 독립운동사연구소 연구원님, 이성우 충남대 충청문화연구소 연구원님, 김진호 충남대 충청문화연구소 연구원님, 김용달 전) 독립운동사연구소장님, 박걸순 충북대 사학과 교수님, 조성진 독립운동사연구소 연구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홍성지역 독립운동사 연구서 발간을 계기로 아직도 규명되지 못한 자랑스러운 향토사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12. 20

홍성군수 김 석 환

목차

제1장 홍성지역 독립운동의 전개와 의의

| 1 | 머리말 _15

| 2 | 한말 국권회복운동 _16

1) 홍주의병의 전개 _16

2) 애국계몽운동 _25

| 3 |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_28

1) 3·1운동과 파리장서운동 _28

2) 국내독립운동 _33

3) 해외에서의 독립운동 _38

| 4 | 맺는말 _43

제2장 한말 홍주의병

| 1 | 머리말 _49

| 2 | 홍주의병의 배경 _50

1) 정치사회적 배경 _50

2) 사상적 배경 _53

| 3 | 홍주의병의 전개 _54

1 1895년 홍주의병 _54

2) 1906년 홍주의병 _65

| 4 | 맺는말 – 홍주의병의 특성과 의의 _91

제3장 한말 홍성지역 근대교육운동과 국채보상운동

| 1 | **시세 변화에 부응하다** _97

| 2 | **민중의식이 심화되다** _101

1) 민중이 각성하다 _101

2) 기호흥학회 홍주지회가 변화를 이끌다 _112

| 3 | **근대교육이 가치관을 변화시키다** _119

1) 근대교육이 발흥하다 _119

2)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다 _132

| 4 | **국채보상운동이 들불처럼 확산되다** _142

1) 참여로 사회적인 책무를 절감하다 _142

2) 자신감을 배가시키다 _149

| 5 | **홍성인을 각성시키다** _155

제4장 1910년대 국내독립운동

| 1 | **1910년대 국내독립운동과 홍성인** _161

| 2 | **독립의군부와 홍성인** _165

| 3 | **광복회와 홍성인** _170

| 4 | **조선민족대동단과 홍성인** _179

| 5 | **혁신단·암살단과 홍성인** _183

| 6 | **주비단과 홍성인** _187

| 7 | **대한건국단·광복단 충청도지단과 홍성인** _189

목차

제5장 홍성지역 3·1독립운동

| 1 | 3·1독립운동의 전파 _198

| 2 | 3·1독립운동의 전개 _200

1) 독립만세운동 _200

2) 횃불독립만세운동 _206

3) 파리장서운동 _210

| 3 | 3·1독립운동에 대한 일제의 탄압 _214

| 4 | 3·1독립운동의 의의 _224

제6장 1920~1940년대 홍성의 독립운동

| 1 | 홍성의 청년학생운동 _235

| 2 | 홍성의 사상단체 무공회 활동 _242

| 3 | 신간회 홍성지회의 활동 _245

| 4 | 홍성지역의 농민운동 _249

| 5 | 홍성지역의 노동운동 _270

제7장 홍성인의 국외독립운동

| 1 | 홍성인의 독립운동 현황 _293

1) 홍성 출신의 독립유공자 _293

2) 홍성인의 국외독립운동 _296

| 2 | 만주방면 활동 _297

1) 만주지역의 독립운동 _297

2) 만주에서 활동한 홍성인 _301

| 3 | 중국방면 활동 _311

1) 중국 관내지역의 독립운동 _311

2) 중국 관내에서 활동한 홍성인 _314

| 4 | 대한민국임시정부 활동 _316

1)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조직과 활동 _316

2)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활동한 홍성인 _319

| 5 | 한국광복군 활동 _322

1) 한국광복군의 창군과 활동 _322

2) 한국광복군에서 활동한 홍성인 _326

| 6 | 한용운의 국외 순유 _326

| 부록 | 참고문헌 _337



홍성의 독립운동사 1

홍성지역에서의 독립운동은 1895년 일어난 홍주의병 이후 여러 분야에 걸쳐 해방 때까지 지속적으로 전개되었다. 홍성인들은 1895년 항일의병을 봉기하고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음에도 1906년 의병을 재기하였다.

제 1 장

홍성지역 독립운동의 전개와 의의

1. 머리말
2. 한말 국권회복운동
3.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4. 맺는말

제 1 장

홍성지역 독립운동의 전개와 의의

| 1 | 머리말

차령산맥의 서북부 지역에 서해를 연해 위치하고 있는 홍성 지역은 충남 서부 지역의 교통과 행정의 중심지였다. 역사적으로도 고려말 명장 최영과 조선조의 사육신 성삼문을 비롯하여 걸출한 인물들을 배출하였다. 또한 척화파 김상용의 아들 김광현이 터를 잡은 곳이며, 이몽학의 난을 평정하는데 공을 세운 청난공신 임득의의 탄생지이다. 그리고 척이단 이념에 철저한 호론(湖論)의 주창자 남당(南塘) 한원진(韓元震)의 학문적 영향이 깊게 자리하고 있는 의향(義鄕)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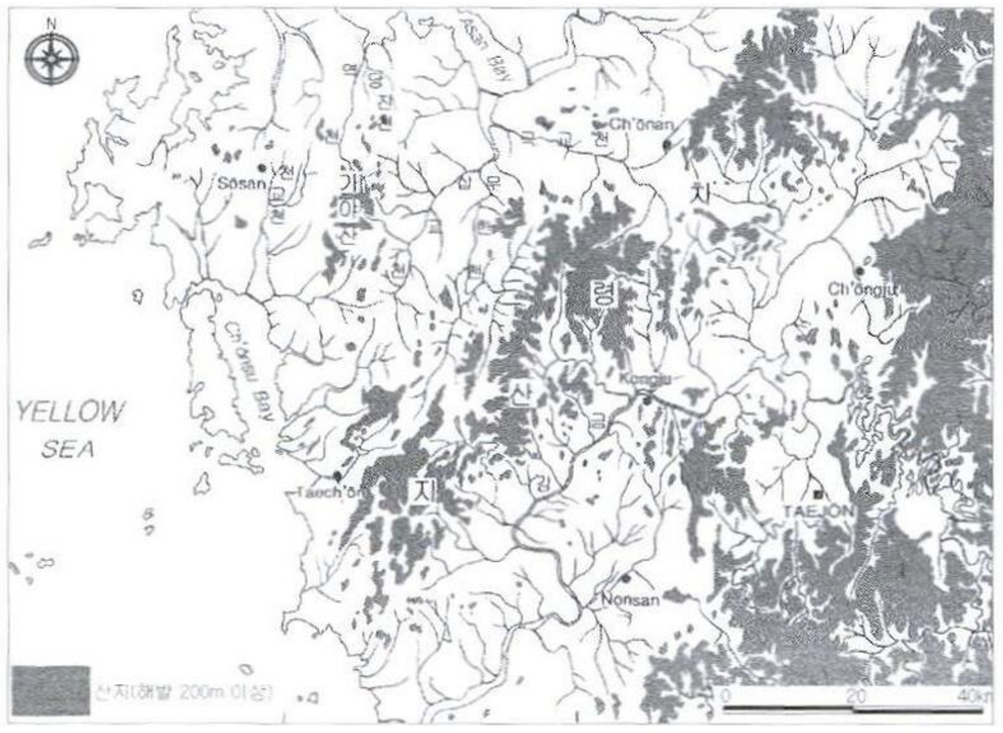


사진 1 | 충남 서북부 지형

홍성지역은 이러한 지역적 특성으로 한말 일제하 항일민족운동이 활

발했던 것으로 밝혀져 주목되어 왔다. 1895년과 1906년 두 차례에 걸쳐 의병이 일어났다. 그 중에서 1906년 홍주의병은 중기의병 중에 최대의 전과를 올린 점에서 한말 의병사에서 대표적인 의진으로 평가된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도 다른 지역에 비하여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1919년 전국적인 3·1운동이 전개될 때 홍성에서는 3월초 읍내에서 시위가 시작된 이후 4월초까지 거의 전 지역에서 일제의 식민통치에 저항하여 민족의 독립을 요구하며 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이후에도 청년운동과 학생운동, 농민들의 소작쟁의 운동과 신간회 운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민족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동안 홍성지역 독립운동에 대한 연구는 지역의 관심과 학계의 노력으로 많은 부분 이루어졌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한말 홍성지역 의병전쟁과 국채보상운동 등 국권회복운동과 일제강점기 3·1운동을 비롯한 독립운동을 실증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아울러 김좌진을 비롯한 홍성인들이 국외에 망명하여 전개한 독립운동에 대하여도 서술하고자 한다.

| 2 | 한말 국권회복운동

1) 홍주의병의 전개

(1) 1895년 홍주의병

홍주의병은 홍성과 인근 지방의 유림들의 지도하에 2차에 걸쳐 전개되었다. 1895년 일어난 제1차 홍주의병은 홍성의 김복한과 이설, 홍주향교 전교로 화성출신인 안병찬, 청양향교 전교 이창서 등 유학자들이 주도하여 대일결전론을 실천에 옮긴 반일투쟁이다.

홍주의병은 1895년 4월 안창식의 모병운동에서 부터 비롯되었다. 홍주군 화성(현 청양군 화성면)에 거주하는 안창식은 개화파들의 갑오경장

을 반역행위로 인식하고 1895년 4월(음력) 광천에서 임정학 등과 함께 상인들을 동원하여 의병봉기를 시도하였다. 안창식을 비롯한 박창로, 이봉학, 이세영 등은 장곡에서 모여 의병을 일으킬 것을 협의하고 6월 9일 청양 장터에서 거의하기로 하였다. 이들은 명성황후가 시해당한 후인 9월 하순에 이세영 집에서 재집결하여 군사 모집과 무기 수집 등의 구체적인 행동 개시에 들어갔다. 그리고 그해 11월 15일 단발령이 공포되자 안창식은 채광묵 등과 함께 1895년 11월 28일 화성에서 향회를 실시하였다. 이 향회에 홍주지역의 유생들이 참석하여 군사 활동을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180여명의 민병이 모집되었으며, 다음 날 안병찬과 채광묵이 이들을 인솔하여 홍주성에 입성하였다. 12월 1일 저녁에는 이봉학, 이세영, 김정하 등 수백 명이 성안으로 들어왔다. 12월 2일 안병찬의 척숙 박창로가 사민 수백 명을, 청양의 선비 이창서는 청양군수 정인희의 명령을 받아 수백 명을 인솔하고 각각 홍주관아에 집결하였다. 여기에 민병 180여명이 대기하고 있었다.

홍주 일대의 민병세력에 김복한(金福漢)과 이설, 홍건 등의 전직 고관들이 합세하였으므로 그 기세가 더욱 치솟았다. 김복한 등은 안병찬, 이봉학, 이상린 등과 비밀히 연락을 취하면서 관찰사 이승우를 만나 의리정신을 들어 여러 차례 거의할 것을 권유한 바 있다. 김복한은 12월 2일 수백 명의 민병이 관아에 집결하였을 때 "거사하기에 앞서서 강호선과 함인학 두 역적의 목을 베어 높이 걸어서 관찰사의 뜻을 굳혀야 한다."고 지시하였다. 이 지시에 민병들이 경무청을 부수고 이들을 동문 밖으로 끌어내어 결박하고 구타하였다. 관찰사는 이들을 살려줄 것을 호소하고 의병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다음날 홍주관아에 창의소를 설치하고 김복한을 의병장으로 추대하였다. 김복한은 홍주부 관할 22개 군과 홍주군내 27개면에 통문을 띄웠으며, 각 고을 대표들은 집을 순회하며 노약자와 독자를 빼고 각 호에 한사람씩 응모하기를 청하였다.

김복한은 송병직, 채광묵, 박창로, 정제기 등에게 의병 초모와 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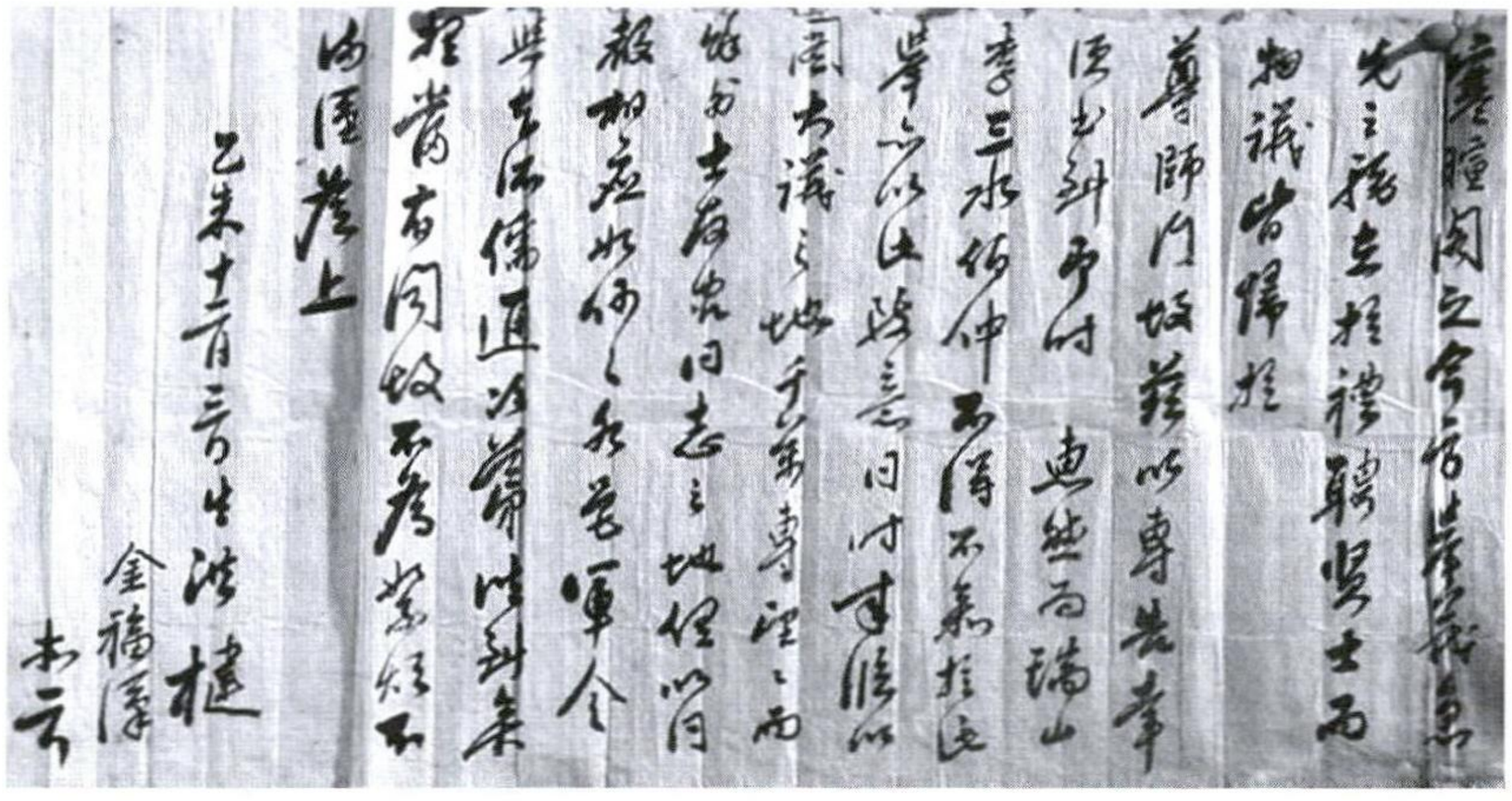


사진 2 | 1895년 홍주의병 통문

수리를 지시하였다. 청양군수 정인희는 창의소를 별도로 청양읍내에 설치하고 홍주부에 연락을 취해 포군 5백 명과 화포 1천정을 관찰사에게 요청하였다. 그러나 창의소를 차린 지 하루만인 12월 4일 관찰사 이승우가 배반하고 말았다. 그는 유생들의 권유와 위협에 마지못해 의병에 참여하였으나 실패를 두려워하였다. 이때 전승지 송언희와 아전 이주승, 그리고 홍주부 경무관 강호선과 참서관 함인학이 중지할 것을 요청하자 관찰사는 뜻을 번복하고 김복한 등 23명을 구금시켰다. 12월 7일 서울에서 신우균이 군사 250명을 이끌고 내려와 이들로부터 진술서를 받았다. 12월 30일 수감자 23명은 결박당한 채 서울로 압송되었다. 80~90여명의 순검에 의해 압송되어 가던 이들은 1896년 1월 1일 신례원에 도착하였다. 이때 이승우는 아관파천과 김홍집의 처형 소식을 듣고 홍주관아로 돌아와 이들을 감옥에 구금시켰다. 집권세력의 붕괴에 사태의 추이를 주시하고자 한 때문이었다. 그리고 김복한을 비롯하여 이설, 홍건, 안병찬, 송병직, 이상린(이상 6명을 홍주의병 6의사라 칭함) 이외의 17명은 모두 석방시켰다. 김복한 등 6명은 법부의 훈령에 따라 압송되어 1월 17일 한성재판소에 이송되었다. 이들은 2월 25일 고등재판소

재판장 이범진에 의해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임금의 특지로 전원 사면 석방되었다.

이와 같이 이승우의 배반으로 1895년의 홍주의병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그러나 홍주지역 유생들은 오랫동안 준비했던 기회를 그대로 포기하지 않았다. 의병의 재기를 시도한 것이다. 이근주는 서산 태안 방면으로 가 의병을 모집하던 중 의병장들의 석방 소식을 듣고 중지하였다. 그 후 청양으로 전 수사 조의현을 찾아 거의하려고 계획하였다. 그는 1910년 국치를 당하여는 왜놈의 백성이 될 수 없다고 자결하였다. 안창식은 관찰사의 소행과 더욱이 장자인 안병찬의 자결 기도 소식을 듣고 의병의 재기를 시도하였다. 12월 6일 주위에 연락하여 창리(현, 청양군 화성면 창말) 앞 주점에 집결토록 하였다. 청양군수 정인회는 12월 6일 정산읍에 진을 치고 일어났다. 12월 7일 공주를 향해 진격하던 중 정산의 철마정 일대에서 공주부에서 파견한 구완희 부대와 전투를 벌였다. 이세영은 홀로 홍주를 빠져나가 재기를 준비하였다. 1896년 아관파천 후 그는 남포에서 의병을 다시 일으켰다. 이때 같이 거의한 인사에는 황재현과 이관, 김홍제 등이 있다. 이 거사 역시 성공을 보지 못하고 패하고 말았지만 이세영 등 홍주지역 유생들의 끈질긴 항쟁의 모습을 알 수 있다(이상 일자는 음력).

(2) 1906년 홍주의병

1895년 홍주의병을 봉기했던 안병찬, 채광묵, 박창로, 이세영 등은 을사조약의 늑결 소식을 듣고 의병을 재기하였다. 이들은 정산에 거주하고 있는 전 참판 민종식을 찾아가 총수의 책임을 맡아줄 것을 청하였다. 을미사변 후 관직을 버리고 정산의 천장리에서 은거 중이던 민종식(閔宗植)은 이를 기꺼이 수락하였으며 박토 10여 두락을 팔아 5만 냥을 군자금으로 제공하기도 하였다. 민종식은 대장에 추대되어 의진의 근거지를 천장리로 삼고 항쟁에 돌입하였다. 주요 인물로는 안병찬, 채광묵, 박창



사진 3 | 홍주성 성곽

로, 이용규, 홍순대, 박윤식, 정재호, 이만직, 성재평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각국의 공사에게 청원문을 발송하고 각지에 의병 참여를 호소하는 통문을 보냈다.

홍주의병은 1906년 3월 15일(음, 2월 21일) 예산의 광시에서 의병 봉기의 첫 깃발을 들었다. 이들은 대장단을 세우고 천제를 올리고 홍주성을 향해 진격하였다. 동문 밖 하우령에 진을 치고 홍주성을 공격하였으나 관군의 저항에 후퇴하였다. 다음날 의진은 광시 장터에 집결하여 공주를 공격하기로 하였다. 의진의 선두가 묵방에 이르렀을 때 공주의 관군과 경병, 일본군이 청양읍에서 휴식중이라는 척후병의 보고가 들어왔다. 의병진은 진로를 화성으로 옮겨 합천일대에 진을 쳤다. 이날 관군과 일본군은 오후 6시 먹고개에 도착하여 이를 탐문하고 10시경 합천 인근에 들어와 잠복하였다. 다음날 오전 5시경 의진을 공격함에 의진에서는 안병찬과 박창로를 비롯한 주요 인사들이 체포되었다.

의병장 민종식은 간신히 탈출하여 각지를 잠행하다가 이용규 등과 의병을 재기하였다. 이들은 5월 9일 충청남도 홍산군 지치동(현 부여군 내산면 지티리)의 주막에서 의병을 재봉기하였다. 이때의 부대는 그의

처남인 이용규가 초모한 의병이 중심이 되었다. 민종식은 대장에 추대되어 선봉장에 박영두, 중군장에 정재호, 후군장에 정해두를 임명하였다. 이들은 홍산을 점령한 뒤 서천으로 행군하였다. 이튿날 비를 무릅쓰고 문장동에서 묵은 뒤 5월 13일 서천읍에 도착하였다. 서천 관아에 돌입한 의병 부대는 서천군수 이종석을 감금시키고 양총 70여정을 획득하였다. 이때 의병수가 1천여 명에 달하였다. 다음날 비인을 함락하고 남포에서 유준근을 초청하여 유병장으로 삼았으며 유회군을 영입하였다. 의병은 요해지인 남포읍성에서 4일간의 전투 끝에 승리하였다. 남포군수를 감금시키고 병사 31명을 의병진에 귀순시켰다. 남포 부근의 용동에서 일본인 석공 2명을 체포하여 그 중 한명을 총살하였다. 그 후 광천을 거쳐 결성으로 진군하여 하루를 지내고 5월 19일(음, 4월 26일) 홍성 시내에 들어왔다. 홍성의 삼신당리에서 일본군과 싸워 이긴 의병부대는 구식 화포 2문을 선두에 내세워 홍주성을 포위 공격하였다. 의병은 남문에서 일본 헌병과 총격전을 벌여 물리쳤다. 의병은 20일 아침에 홍주성을 점령한 후 총기와 탄약, 그리고 우편국에 있는 금품을 확보하였다. 홍주성을 함락시키자 신보균·신현두·이식·안항식 그리고 김상덕·유호근 등 각지 인사들이 차례로 집결하였다. 의병진에서는 진용을 정비하고 소를 잡아 천제를 지냈다. 민종식은 홍주성을 점령하고 나서 인근의 각 군수에게 훈령을 내려 양식과 군기의 징발과 징병의 일을 지시하였다. 이때 해미 군수가 포군 10명과 약간의 군자를 보냈다. 민종식은 홍주성을 점령하고 나서 고종에게 올리는 상주문을 작성하여 이민학에게 주어 올리게 하였다. 상주문의 내용에는 을사5적과 이토 히로부미를 주륙할 것을 포함시켰으며, 거병한 이유를 들면서 거의한 뜻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홍주성에서 패주한 일본군은 공주 병력을 지원받아 홍주성을 둘러싸고 공격을 감행하였으나 의병 부대는 이를 격퇴시켰다. 21일은 수원헌병대에서 파견된 헌병과 경찰의 공격을 물리쳤다. 22일에는 서울 경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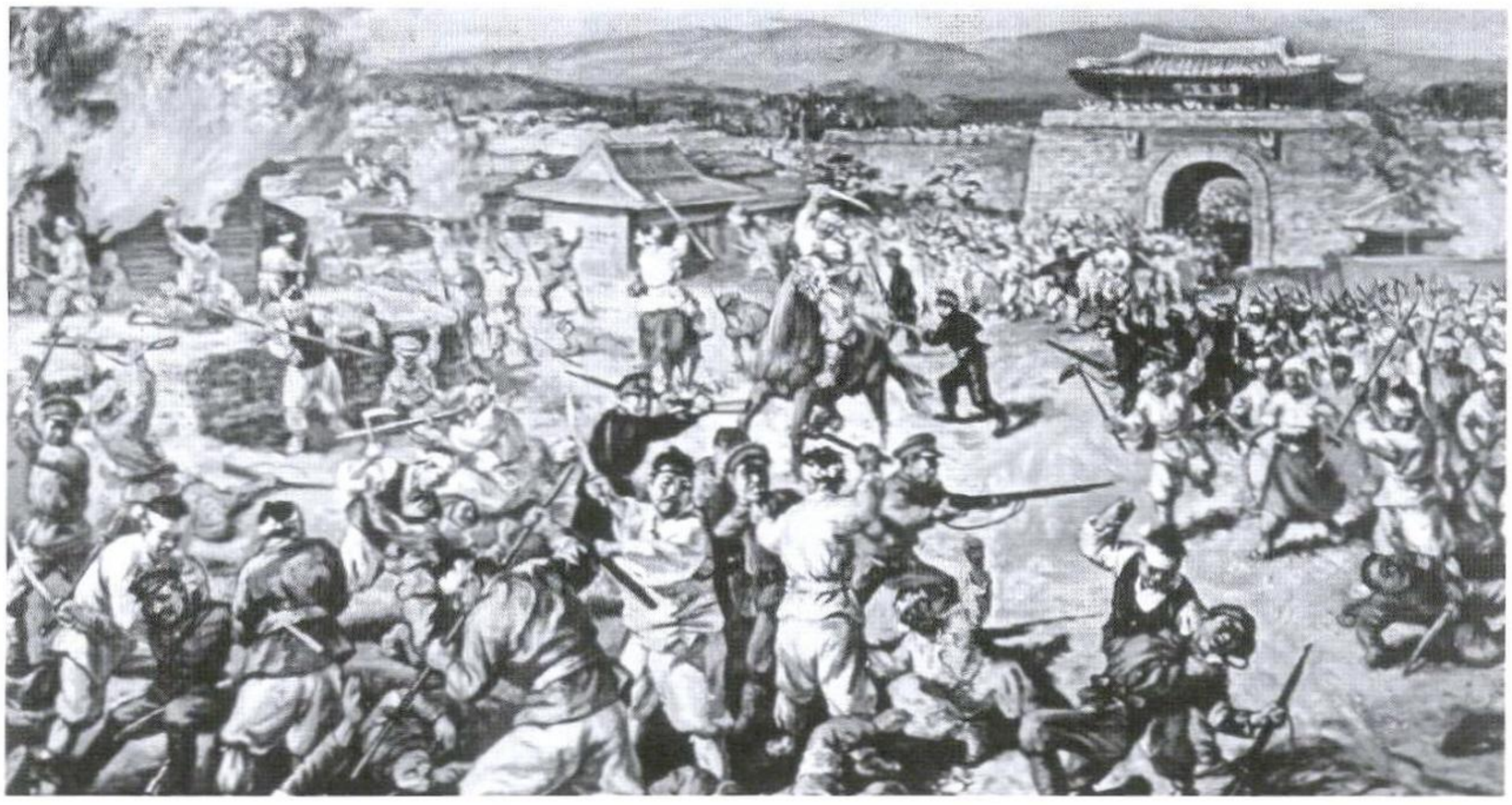


사진 4 | 홍주성전투 기록화

고문부의 키리하라(桐原) 경시와 조선 경무관 및 그 부하 20명이 증파되었다. 이들은 24일 공주 경무진위대에서 파견한 57명의 관군과 함께 의병을 공격하였다. 그러나 의병은 27일 히지카타(土坊) 경부를 비롯한 일본 경찰을 체포하였으며, 이때 체포된 일본인 3명과 일진회원 2명은 민종식의 명령에 따라 5월 29일 밤에 처형되었다. 29일에는 곽한일과 남규진의 부대 400여명이 홍주성에 입성하였다.

이와 같이 몇 차례의 일본 경찰과 헌병대의 공격에도 전세가 의병 측에 유리하게 전개되자 통감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는 주차군 사령관에게 군대 파견을 명령하였다. 주차군 사령관은 포병과 기병, 헌병 및 보병 2개 중대를 홍주에 파견하면서 경찰과 헌병 그리고 진위대에게 협조하도록 훈령하였다. 일본군 보병 제60연대 대대장 다나카(田中) 소좌 지휘 하의 보병 2개 중대는 기병 반개 소대와 전주수비대 1개 소대와 합세하여 5월 30일 홍주성을 포위하였다. 의병 측에서도 방어 태세를 정비하였다. 그러나 일본군은 우세한 화력과 전투 경험이 많은 병사들이었다. 이들은 다나카 소좌의 지시에 따라 30일 밤 11시에 동문에서 약 500미터 지점 숲속에 잠복하였으며, 31일 오전 2시 반 기마병 폭발반이

동문을 폭파시켰다. 이를 신호로 일본 보병과 헌병대, 경찰대가 기관포를 쏘며 성문 안으로 진입하였다. 또한 2중대 1소대와 4중대 1소대는 각각 갈매지 남쪽고지와 교동 서쪽 장애물 도로 입구에서 잠복하여 의병부대의 퇴로를 차단하였다. 31일 오전 4시경 홍주성은 일본군에 의해 완전히 장악되었다. 일본군은 기마병을 시켜 의병을 추격 사살케 하였다. 이때 양민 역시 다수 희생되었다. 이 전투에서 일본군 측이 10여명 사살된 반면 의병측은 참모장 채광묵 부자와 운량관 성재평과 전태진, 서기환, 전경호를 비롯하여 300여명이 전사한 것으로 보인다. 체포된 의병의 수는 145명에 이른다. 그중에 김상덕 등 78명은 서울로 압송되었다. 이들은 일본군 사령부의 심문을 받고 윤석봉 등은 7월에 석방되었다. 그러나 유준근, 안항식, 이상구, 신현두, 이식, 남규진, 최상집, 문석환 등 9명은 쓰시마로 유배되어 감금생활을 하였다. 이세영은 6월 체포되어 겨울에 종신 유배형을 선고받고 황주의 철도에 유배되었다. 민종식 등은 성을 빠져나와 재기의 계획을 세웠다. 그해 7월에 이용규는 청양의 추티에서 의병을 재집결하여 부여와 노성 등지를 행군하여 연산의 부흥리에서 일본군과 교전하였다. 이때 조병두는 중상을 입고 체포되어 대전역에서 사망하고 말았으며 채경도 오상준 등은 공주부에 갇혔다.

1906년 10월에는 예산 현곡(지금의 대술면 상항리)에 있는 이남규(李南珪) 집에서 이남규, 이용규, 곽한일, 박윤식, 김덕신, 이석락 등이 모여 거의를 계획하였다. 이들은 11월 20일 예산을 공격하여 활동의 근거지로 삼기로 결정하고 민종식을 다시 대장에 추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그러나 일진회원의 밀고로 11월 17일 새벽에 일본헌병 10여명과 지방병 40여 명, 그리고 일진회원 수 십 명의 포위 습격을 당하여 곽한일, 박윤식, 이석락 등이 체포되었다. 이남규, 이충구 부자도 함께 체포되어 온갖 악형을 당하였다. 이때 체포된 곽한일을 비롯하여 박윤식, 김덕진, 정재호, 황영수, 박두표 등은 종신 유배형을 받고 전라도 지도로 유배되었으며 홍순대와 김재신은 고군도로 유배되었다. 한편 안병찬과 박창로,

최선재, 윤자홍 등 수십 명은 공주감옥에 감금되었다. 민종식은 11월 20일 체포되어 1907년 7월 3일 교수형을 선고 받았으나 다음날 내각회의에서 종신유배형에 처해져 진도에 종신 유배되었다. 이로써 예산에서의 재기는 좌절되고 말았다. 우군관 홍순대는 1906년 11월초 부여군 은산면에서 80여명을 규합하여 의병을 재기하였다. 이때 또한 남포의 성문에는 '의병대장 송'이라는 이름으로 군수 이철규의 처단을 경고하는 방문이 나붙는 등 각지에서의 의병 봉기는 끊이지 않았다. 이와 같은 의병의 재기 움직임에 일제는 불안을 느끼고 이 지역의 중요 인물들에 대한 감시와 학대를 강화하였다. 1907년 9월에는 일본기마대 1백여 명이 이남규 부자를 체포해 가던 중 귀순 강요를 거부함에 온양의 평촌 냇가에서 이들을 학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11월에는 김복한이 거의를 밀의하였다고 하여 구속하여 악형을 가하였다.

홍주의병은 조선말 전국적인 항일의병투쟁을 선도해 간 대규모 무장투쟁이며 한민족의 주권을 회복하고자 한 독립전쟁이었다. 김복한과 민종식 부대는 의병을 일으키고 통문과 격문을 발표함은 물론 각국 공사에게 독립청원서를 제출하였으니 이는 국제적으로 일본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고 의병전쟁을 전개한 것이다. 홍주의병은 타 의진에 비하여 유생적 성격이 강하게 나타난다. 이는 병사층에 유회군이 다수 참여하고 있으며, 편제에서도 유병장 제도를 두어 남포의 유학자 유준근을 초빙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홍주의병의 투쟁은 경술국치 이후에도 독립전쟁으로 계승됨을 볼 수 있다. 김복한을 비롯하여 이세영, 안병찬, 이용규, 김덕진, 전양진, 임한주 등의 항일투쟁은 그 대표적인 사례인 것이다. 이와 같이 홍주의병은 강렬한 반침략 무장투쟁을 전개하여 타 지역의 의병 봉기에 끼친 영향이 크며 1910년대 독립전쟁과 나아가 3·1운동으로까지 인적 사상적으로 계승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역사적 의의는 크다 할 것이다.

2) 애국계몽운동

애국계몽운동이란 서구 문물을 수용하여 부국강병을 꾀하고 실력을 양성하자는 운동을 말한다. 1904,5년 시작된 애국계몽운동은 신교육을 받은 개화지식인이 주도하였는데, 홍성지역에서는 관리나 재야의 개신유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이 운동을 펼쳐나갔다. 이들은 기호흥학회의 지회를 설립하고 근대학교를 설립하였으며, 일제한테 빌린 국채를 갚자는 국채보상운동을 전개하였다.

기호흥학회는 1908년 설립된 계몽운동단체로 각 지역에 지회를 설치하였다. 충남지방에서는 1908년 5월 서산지회가 설치되었다. 홍성지회는 공주, 목천, 연산, 당진에 이어 1909년 1월 설치되었다. 홍성지회는 충남 지회 중 가장 활발히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다. 지회장에 서병태(徐丙台), 부지회장에 김시원(金始元), 평의원 김교흥(金敎興) 외 10명, 총무 서승태, 교육부장 장이환, 재정부장 이남종, 회계 현석동, 서기 이윤호·이철배, 간사 한영욱·이찬세 등이었다. 이후 임원 중 지회장은 김병수, 부회장은 김열제로 교체되었다. 지회원은 김좌진, 김시원, 현석동 등 53명에 달하였다. 지회의 주요 활동은 근대교육기관 설립과 주민에 대한 근대의식 계몽이었다. 홍성지회에서는 '삼면일교(三面一校)' 제 시행을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홍성지역에서는 홍주팔명(洪州八明)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근대 교육기관의 설립이 활발했다. 1907년 홍주군 주곡면 월현리에 김병목과 김시원 등의 노력으로 홍명학교(洪明學校)가 설립되었다. 김시원이 자가를 교사로 제공하고 윤자정과 김병목이 재정을 지원하였다. 교사로는 이강인과 이약우가 있었다. 학생이 100여명에 달해 갑, 을, 병 3개반으로 나누어 가르쳤다. 이 학교는 1908년 제1회 졸업생을 배출하는 등 이곳을 대표하는 교육기관이었다. 그러나 운영비 부족으로 폐교에 직면하자 학생 이상봉, 조인호, 유학진, 조성희 등 9명은 단지동맹을 결행하고 군수와 기호흥학회 홍성지회에 학교 운영비 지원을 요청하기까지 하였다. 홍성지회원인 김좌진, 김병익, 김병수 등은 갈산리



사진 5 | 갈산공립보통학교 제1회 졸업기념 사진, 뒤쪽 건물이 호명학교이다.

유지 김병구, 김선규 등과 1908년 호명학교(湖明學校)를 세웠다. 이들은 60여 명을 모집하여 중등과와 소학과로 나누어 가르쳤다. 이 학교에서는 신학문 외에도 법률전문과를 설치한 것이 특기할만하다. 서승태와 군수 윤필 등은 1908년 궁경면 덕정리에 덕명학교를 설립하였다. 이 학교는 박창병, 이충호, 서태석 등의 활동과 주민들에 의해 운영되었는데, 기호흥학회 홍성지회에서는 덕명의숙을 모범학교로 본회에 보고하였다.

1909년에는 최병창 등이 금난의숙(金蘭義塾)을 설립하였는데, 기호학교의 지교로 인가받았다. 일본유학생 유석우는 정리학원(整理學院)을 설립하여 부진한 근대교육을 보급시키고자 하였다. 오사면 화전에 거주하는 황기연은 면장 김봉희 등과 화명의숙(華明義塾)을 설립하였다. 화성면에서는 유림들을 중심으로 광명의숙(光明義塾)이 설립되었으며, 홍동면에는 1910년 동명학교(東明學校)가 설립되었다.

한편 홍성 주민들은 일제로부터 빌린 차관을 금연과 금주를 통해 상

환하여 재정적 자립을 이루자는 국채보상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일제의 차관 공세에 따른 대한제국의 국채가 1907년 1월 당시 1300만원에 달했다. 이러한 상황에 1907년 1월 대구 광문사에서 시작된 국채보상운동은 요원의 불길처럼 전국적으로 퍼져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국채보상운동이 퍼져나갔다. 홍성지역에서도 마을 단위로 또는 학교별, 기관별로 활발한 모금운동이 벌어졌다. 오사면에서는 성상리, 진방리, 송암리, 죽상리, 가동리, 가중리, 죽하리, 죽중리, 광제리, 모산리, 오서리 등 마을 단위로 의연금을 모금하였다. 홍주세무소 임직원들도 37환을 모금하여 황성신문사에 보냈다. 사립홍명학교 임직원과 학생들도 의연금을 냈다. 이와같은 분위기 속에서 홍성지역민들은 의연금 납부에 적극적이었다. 광천면에서는 이돈헌 등 천여 명이 338환 90전을, 홍주군 지수소(支收所)에서는 제1회 수합금으로 425원 8전을 홍주의 이윤영 등 천여 명이 646원 59전 4리를 의연하였다.

광천 일부와 홍동 일부 지역인 번천면에서는 국채보상기성회를 조직하고 의연금 모금운동을 전개하였다. 유학 주태환과 전 진사 황윤수가 발기인으로 주도하였는데, 이들은 취지서를 발표하여 주민들의 참여를 호소하였다.

홍주군 번천면 국채보상취지서

무릇 사람이 사람다운 까닭은 오륜보다 큰 것이 없다. (중략) 신하와 아들이 임금을 위하고 부모를 위함에 비록 만번 죽더라도 오히려 피할 수 없는 바 이어든 하물며 힘써 미칠 수 있는 일인 재물은 죽음과 비교하여 그 경중이 하늘과 땅의 차이니, 부모가 빚이 있음에 자식이 어찌 갚지 않고, 임금이 빚이 있음에 백성이 어찌 갚지 않으리오. (중략) 우리가 적은 나라로 경장이후 많은 지출에 씀씀이가 부족하여 알지 못하게 국채가 1300만환

에 이르러 만약 보상을 못하면 나라의 앞길이 힘듦은 겹겹이 쌓아올린 달걀처럼 위태로울 뿐 아니라 실로 존망에 관계됩니다.(후략)

이들은 임금을 위해 죽음도 무릅써야 하거늘 죽음과 비교 할 수 없이 가벼운 재물일진대 어찌 백성으로서 임금의 빚을 갚지 않겠느냐고 동참할 것을 호소하였다. 이들의 활동은 임금을 위해서 일어났다는 점에서 여전히 전근대적인 충군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동시에 국채를 갚지 못하면 나라의 존망과 관계된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점에서 전근대이면서도 동시에 근대적인 이념을 공유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3 |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1) 3·1운동과 파리장서운동

미국과 영국 등 제국주의 국가의 지원 하에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제는 한인의 강력한 반일투쟁을 무력으로 탄압하고 대한제국을 식민지화하였다. 그러나 한인들의 항일투쟁은 지속되었다. 1919년 일어난 3·1운동은 그중에 대표적인 독립운동이다. 제1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미국 윌슨 대통령의 민족자결주의 원칙의 발표, 그리고 동경 유학생들의 2·8독립선언과 고종의 갑작스런 서거와 독살설의 유포가 기폭제가 되어 거족적인 독립만세운동이 전국적으로 전개되었다. 서울에서의 3·1운동은 천도교계의 손병희와 기독교계의 이승훈, 그리고 불교계의 한용운 등에 의해 주도되어, 3월 1일 탑골공원에서 학생과 일반 대중들에 의해 시작되었다.

홍성에서의 만세운동은 3월 7일 홍성읍 시장에서 김종진 등에 의해



사진 6 | 한국유림독립운동파리장서비(홍성읍 대교리)

일어난 것이 처음으로 알려진다. 이날 김종진은 체포되고 홍북면의 박군상은 좌측 고막이 터지는 부상을 당했다. 이보다 하루 전인 3월 6일 광천에서는 이명종(李鳴鍾) 등이 광천리의 박원식 집에서 박세화(朴世和)가 서울에서 가지고 온 독립선언서를 보고 만세운동을 협의하였다. 이들은 3월 8일 선언서의 내용을 적은 유인물 2장을 광천시장과 옹암리에 붙였다. 16일에 박원식은 스승인 서승태에게 선언서를 요약하여 줄 것을 부탁하고, 18일 새롭게 작성한 선언서 50매를 복사지에 등사하여 이명종, 성배호, 오인섭 등이 광천리와 옹암리 일대에 가정에 배포하였다. 그리고 21일 광천시장에서 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같은 날 은하면의 대천리에서도 만세운동이 있었다.

홍성에서의 3·1운동은 4월초에 집중적으로 일어났다. 4월 1일 금마면의 가산리에서는 민영갑(閔泳甲) 등이 주도하였는데, 민영갑은 이재만(李載萬)과 협의하여 이원교의 집에서 당일 저녁 8시경 연극공연을 하

기로 하고 공연을 보러 온 군중들과 함께 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들은 다음 날에는 홍성시장에 나아가 군중 속에서 독립만세를 불렀다. 4월 4일에는 금마면은 물론 홍동면, 홍북면, 구항면, 장곡면의 주민들이 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이들은 금마면에서는 철마산, 장곡면에서는 매봉산, 그리고 다른 지역은 마을 뒷산에 올라 각기 횃불만세운동을 전개하여 일제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구항면에서는 서성모, 조종필, 이신훈, 전순영, 서성준, 서은모 등이 대정리 뒷산에 올라 횃불만세운동을 전개하였으며, 홍동면에서는 다음 날인 4월 5일 밤에도 마을 뒷산에 올라 횃불을 올리고 대한독립만세를 불렀다.

4월 7일에는 장곡과 구항에서 만세운동이 재기하였다. 장곡면에서는 화계리에서 김동하(金東河)의 주도하에 주민들이 마을 앞산에 모여 면사무소로 행진하였다. 밤에는 화계리, 광성리, 가송리 주민들이 면사무소 뒷산인 응봉산에 집결하여 만세를 부르고 면사무소의 정문 기둥을 쓰러뜨리는 등 격렬한 시위를 하였다. 장곡에서의 시위는 다음 날 까지 이어져 도산리에서는 밤 11시에 면사무소를 습격하며 만세운동을 벌였다. 구항면의 황곡리에서는 4월 7일 의병장 이설의 제자인 이길성(李吉成)과 황문수(黃文秀)가 주도하여 월산에 올라 '대한국 독립만세' 의 깃발을 세우고 횃불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이길성은 체포되어 공주지방법원에서 4월 28일 징역 6월형을 선고받고 상고했으나, 기각당하여 형이 확정되었다. 고등법원의 판결문에 의하면, 그는 조선의 민족으로서 정의와 인도에 기초한 의사를 발동한 것이라면서

스승인 李僎이 乙巳勒約時에 討逆을 抗疏하여 囹圄의 몸이 되어 이상한 병이 갑자기 생겨 다행히 죽음을 면했으나, 출옥한 후 다시 일어날 수 없었으니, 어찌 徹天의 怨恨이 아니리오. 아픔을 참고 분함을 머금고 오늘에 이르렀으니 실로 事力을 다할 뿐이오 구차히 살기를

도모할 계획이 없다.

라고 하여 스승 이설이 옥고로 죽은 것에 대한 원한이 사무쳐 봉기하였음을 밝혔다.

4월 8일은 홍동면과 갈산면에 만세운동이 있었다. 홍동에서는 황윤성이 주도하여 만세를 부르고 주재소를 습격하였다. 같은 날 갈산면의 상촌리에서 갈산보통학교 학생들이 교정에서 독립만세를 불렀다.

일제는 홍성 3·1운동에 참여한 인사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을 감행하였다. 이 중에 체포되어 재판을 받아 태형 90도에서부터 징역 2년6월형까지 받은 이가 모두 39명에 달한다. 그리고 재판을 거치지 않고 홍성경찰서에서 태형을 받은 이가 금마면이 176명, 홍동면이 50명, 장곡면이 12명, 은하면이 11명, 구항면이 7명 등 모두 256명에 달한다. 그리고 일제의 무차별 발포로 사상자가 나왔다.

이상과 같이 홍성지역에서의 3·1운동은 3월초부터 4월 8일까지 1개월여 전개되었다. 이 기간 동안 홍성읍내를 비롯하여 광천, 은하, 금마, 홍동, 홍북, 장곡, 구항, 갈산 등 각 면에서 주민들의 만세운동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특히 4월 4일 있었던 6개 면의 횃불만세운동은 일제에게 큰 충격을 주었으며, 이후 각지에 만세운동을 파급하게 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편, 홍주의병장 김복한은 병으로 만세시위에는 직접 참여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는 미국대통령 윌슨의 민족자결주의가 발표되고 프랑스 파리에서 제1차 세계대전 승전국들이 강화회의를 개최하고 있음을 전해 듣고, 의병의 동지들과 연명하여 파리강화회의에 글을 보내 독립을 요구하는 장서운동을 계획하였다. 김복한은 장서를 작성한 후 임한주를 비롯하여 의병의 동지였던 안병찬 등의 서명을 받았다. 이어서 홍성의



사진 7 | 홍주의병장 김복한

최중식, 전양진, 이길성, 전석윤, 황윤성, 청양의 안병찬을 비롯하여 김덕진과 임한주, 서산의 김상무와 김봉제, 보령의 백관형, 유호근, 신직선, 김지정, 논산의 이내수, 부여의 김학진 등으로부터 서명을 받았다. 김복한의 제자 황일성은 서명에 참가는 안했으나 비용 일체를 조달하였던 것으로 알려진다. 김복한은 제자인 황일성, 이영규, 전용학 등을 서울로 보내 역시 제자인 임경호와 협의하여 만국강화회의가 열리고 있는 프랑스의 파리로 장서를 보내도록 하는 장서운동을 독자적으로 전개하였다. 이때 김창숙을 비롯한 영남 지역 유생들도 곽종석을 수반으로 하여 같은 장서운동을 전개하였는데, 전국의 유림들과 연락을 취하던 중에 임경호와 만나게 되었다. 이들은 서로의 목적이 같음을 알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양 지역 유림의 장서운동은 통합하기에 이르렀다. 다만 장서의 내용을 비교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영남본의 뜻이 간명하다 하여 김창숙은 영남본을 가지고 상해로 떠났다. 이 장서운동은 일경에 탐지되었으며, 김복한 등 서명자들이 체포되기에 이르렀다. 김복한은 8월(음, 윤7월) 공주 감옥에 구속되었다. 그는 구속되기 전인 7월 대구감옥에서 궐석재판을 받았다. 김복한은 이 재판에서 이들 중에서 가장 중형인 징역1년형을 선고받고 7월 31일 형이 확정되었다. 최중식과 전양진은 8개월 형에 2년 집행유예, 안병찬, 김덕진, 김봉제, 임한주 등은 6개월 징역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김복한은 파리에 장서를 보낸 일로 화서학파의 일부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유인석의 제천의병 참모로 활약했던 박주순(朴胄淳)의 문인인 신태구(申泰求)는 김복한에게 글을 보내 장서의 일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복한은 『주자강목』의 예를 들어 회신하였다. 즉, 그는 오랑캐인 거란이 주(周)를 공격한 일과 돌궐이 수(隋)를 공격한 것을 입구(入寇)라고 써야 마땅하나, 천금공주(千金公主)와 북한(北漢)의 요청으로 침공한 것이라 하여 주자는 이를 벌(伐)이라고 써 포상하였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와 마찬가지로 일제를 구축하기 위해 서양을 끌어들이려는 장서운동

이 "비록 정례(正例)는 아니나 주자의 강목에 따른 변례(變例)로서 강목의 정신에 어긋나지 않는다"면서 일제를 토벌하여 원수를 갚는 것이 더 중요하고 급하기 때문에 부득이한 결정이었다고 이해를 촉구하였다.

2) 국내독립운동

(1) 청년학생운동

홍성지역 청년운동은 3·1운동 후 홍성 엡윗청년회가 창립되면서 시작되었다. 홍성 엡윗청년회는 1920년 홍성읍에서 감리교계의 청년들을 중심으로 조직되었다. 주요 임원은 안성호, 손재학, 이병승, 김기인, 유병수 등이었는데, 이들은 전도 사업을 하면서 토론회와 순회강연회 등을 개최하였다. 1922년 9월에는 종로중앙청년회 종교부 간사인 홍병선을 초빙하여 「우리의 낙원」, 「시대관과 우리의 각오」, 「우리의 할 바 사업」 등을 주제로 한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1924년에는 회장 이정진의 사회로 「조선 사회에 적응한 교육은 가정인가 학교인가」란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는 100여명이 참석하는 등 성황리에 끝났다.

1922년 8월에는 광천청년회가 설립되었으며, 11월에는 홍성청년회가 조직되었다. 이들은 '지방의 발전'과 '민지 계발'이라는 목표 아래 계몽운동을 벌여나갔다. 서울에 유학 간 홍성출신 학생들은 홍성학우구락부를 조직하였다. 이들은 방학을 이용하여 고향으로 내려와 신사조를 전파하는 강연 활동을 하였다. 이러한 영향으로 홍성청년회는 1926년 10월 혁신총회를 개최하고 신임 회장으로 김재한을 추대하였다. 이들은 홍성 전 지역의 청년간담회를 개최하고 면 단위의 청년회를 조직하고 여성운동과 노동운동, 소년운동 등에 대한 토론회를 갖는 등 활동 영역을 넓혀갔다.

홍성 지역에서의 학생운동은 6·10만세운동과 광주학생운동의 영향으로 식민지 교육에 대한 반대운동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홍성공립보



사진 8 | 홍성장날(1920년대)

통학교 학생들의 동맹휴교가 1926년 5월 있었다. 학생들은 순종의 승하에 망곡을 하고자 하였으나, 일본인 교사가 이를 저지하면서 "조선인이 죽었는데 무슨 상관이냐"라고 학생들을 야단쳤다. 이러한 조선에 대한 멸시 행위에 학생들은 동맹 휴학하고 망곡의 예를 올렸다. 홍성에서의 본격적인 동맹휴학은 홍성공립공업전수학교에서 일어났다. 학생들은 학교 설비의 충실과 갑종학교로의 승격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학교와 도 당국에 제출하였으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1928년 12월 13일부터 맹휴에 들어갔다. 다음 해 광주학생운동이 전국적으로 파급됨에 1930년 1월 19일 "광주학생들을 석방하라"라는 격문을 수천 매 시가에 살포하고 홍성 장날에 시위를 계획하였다. 이 활동은 신간회 홍성지회를 비롯하여 조선일보 홍성지국장을 맡은 박원식, 광천노동조합 간부 우성근, 그리고 기독교 전도부인회의 황현숙 등 지역의 인사들과 연관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2) 노동농민운동

홍성노동조합은 1920년대 전반부터 활동하고 있었던 인력거조합을

모체로 하여 1927년 3월 창립되었다. 조합원은 조합장 김예경 이하 8백여 명에 달했다. 같은 해 7월에는 광천시장을 중심으로 광천지부를 설립하였는데, 지부장 박원식 이하 조합원이 6백여 명에 달했다. 9월에는 용호시장을 중심으로 용호지부가 설립되었다. 조합원이 500여명이었으며, 김구한을 지부장에 선임하였다. 홍성노동조합에서는 노동 문제 만이 아니라 점차 정치, 사회 문제까지 다루어 메이데이 기념행사나 원산총파업을 후원하는 등 활동 영역을 넓혀갔다. 노동조합 설립 초기 홍성지역에서 조직적인 노동 쟁의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1930년대 초반부터 광산노동자들이 출현하면서 다소 변화를 보였다. 이들은 산업 재해나 일본인 감독의 구타 등에 항의하여 동맹파업을 벌였다. 1933년 5월에는 결성의 금광에서 동맹파업이 있었으며, 1934년 6월에는 광천 황보금광 광부들의 파업이 있었다.

홍성지역에서의 소작쟁의 역시 1930년대 초반에 활발했다. 1930년 5월 장곡면의 부재지주 손재신의 소작지에서 쟁의가 일어났다. 1933년 4월에는 서울의 대지주 민대식의 소작지가 있던 홍동, 장곡, 광천, 은하, 결성, 구항 등지에서 마름이 소작권을 박탈하는 문제로 쟁의가 일어났다. 1934년에도 5월까지 42건의 소작쟁의가 있었으며, 1935년에는 6월까지 70여건, 1936년 3월까지 20건의 쟁의가 일어나는 등 일제의 농업 수탈과 악덕 지주의 무리한 소작권 이동에 대한 농민들의 저항은 계속되었다.

(3) 민족운동 단체 활동

① 유교부식회

홍성 유림들은 1927년 유교부식회(儒敎扶植會)를 설립하였다. 김복한의 장자인 김은동(金殷東)과 문인인 오석우, 이우직, 김노동, 성원경, 전용욱 등은 1927년 4월 15일 홍성군 서부면 이호리의 김은동 집에 모여 유교부식회의 설립을 발기하였으며, 5월 5일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회장에 이상린을 추대하였다. 김은동과 오석우가 총무를 맡았다. 김은동은 기관지인 《인도(人道)》지의 간행업무를 총괄하는 등 주도적인 활동을 하였다. 전용욱이 서기를 맡았으며, 그의 부친인 전양진은 고문을 맡았다. 유교부식회는 유교를 진흥시켜 '대공(大公)' 또는 '대동(大同)'의 세계를 건설하고자 함에 설립 목적이 있었다.

유교부식회는 1927년 9월 10일에 홍성읍 오관리에 본부회관을 설치하면서 활동을 개시하였다. 첫 활동은 9월 16일 홍주향교의 명륜당에서 강연회를 실시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이 강연회에는 400여명이 참석하는 대성황을 이루었다. 1928년 1월 21일부터 2월 2일까지는 홍성 지역의 순회 강연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유교부식회는 활동 영역을 넓히고자 공주의 반포면과 태안군, 홍주의 화성면 등지에 지회를 설치하였다. 아울러 기관지인 《인도》를 창간하기로 하고 1929년 1월 26일 이를 담당할 인도를 설립하였다. 사무실은 홍성 오관리에 두었으며, 김은동이 편집부장, 황일성이 영업부장, 정태복이 서무부장을 맡았다. 《인도》지는 1929년 6월 15일 창간된 이래 매월 간행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뜻대로 이루어지지는 못하였다. 제2호가 7월에 나오고 9월에 가서야 제



사진 9 | 홍주향교

3,4호를 합집으로 간행하였다. 제5호부터 제7호까지는 매월 1회씩 간행될 수 있었다. 《인도》지는 창간호부터 일본 경찰의 검열로 원고의 일부가 삭제당하는 등 탄압을 받았다. 제3,4합집호의 독자투고란에 술회란 글은 전문이 삭제되었다. 제5호의 경우에도 「포병공창 파업」과 「단어사림(短語辭林)」은 전문 삭제되었고, 황일성의 「문명의 야만」은 10행, 김은동의 「학부형 소망의 착오에 대하여」는 11행이 삭제되었다. 《인도》지는 일본 경찰의 탄압과 재정문제로 1931년 3월호를 끝으로 정간된 것으로 보인다. 유교부식회에 참여하였던 홍성지역의 유림들은 신간회 홍성지회와 무공회(無空會) 등의 사회단체를 조직하여 활동하기도 하였다.

② 신간회 홍성지회

신간회는 1927년 2월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이 제휴하여 민족협동전선의 통일을 표방하고 창립한 민족운동 단체이다. 전국에 지회를 설치하였는데, 홍성지회는 1927년 8월 25일 창립되었으니 충남에서는 가장 빨랐다. 회장에는 윤대영(尹大榮), 부회장은 윤익중(尹益重)이 추대되었다. 면 단위까지 조직을 확대하여 1929년 1월 현재 200여명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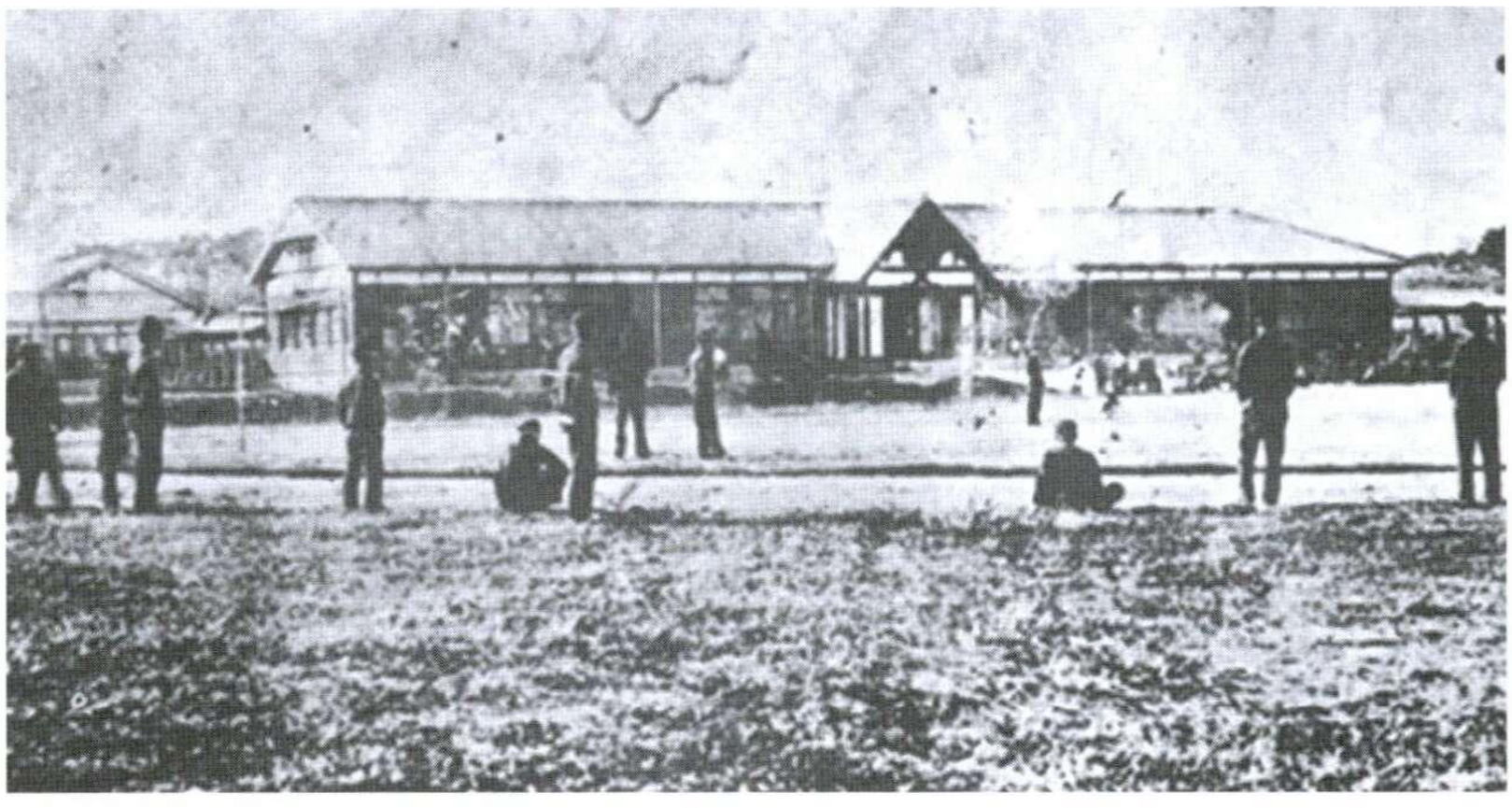


사진 10 | 홍성공립공업전수학교(1927년, 현재의 홍성의료원 자리)

회원을 확보하였다. 1928년 12월에 부회장이 이성래로 교체되고, 간사에 조선일보 기자 박원식, 동아일보 홍성분국장 손재학, 김복한의 아들 김은동 등 민족주의 계열의 인사와 화요회 계의 김연진과 서울청년회 계의 김재한, 홍성청년회장 정동량, 그리고 한보국 등 사회주의 계열의 인물들이 망라되었다.

홍성지회는 결성 이후 홍성지역 사회운동 단체간 연대를 통하여 민족운동을 전개해 갔다. 1930년 1월 홍성공립공업전수학교의 동맹 휴교에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다. 1929년 6월 개최된 중앙의 복대표 회의에는 충남을 대표하여 김연진이 대의원으로 파견되기도 하였다. 이후 1931년 5월 신간회 해소 문제로 전국대회가 소집되자 홍성지회는 신간회 해소에 반대하는 결의를 하였다. "이론상으로는 타당하나 시기상 부적절하다"는 것이 이유였다.

3) 해외에서의 독립운동

홍성인으로 국외로 망명하여 항일투쟁을 전개한 대표적인 인물로 김좌진이 있다. 김좌진(1889~1930)은 한말에는 계몽운동가로 국망 이후에는 만주지역 독립군으로 활동하였다. 그는 한학을 수학하였으나 서울에 올라가 개화사상을 수용한 뒤 가노를 해방시켰으며, 가산을 팔아 호명학교를 설립하고 기호흥학회 홍성지회에 참여하여 활동하였다. 신민회에 가입한 그는 1909년 서간도 이주를 계획하고 서울에 이창양행과 영창양행을 설립하고 석유나 석탄을 판매하여 자금을 확보하면서 연락 거점으로 이용하였다. 1915년 광복회의 부사령이 되어 활동했으며, 1917년 만주본부의 책임을 맡고 만주로 망명하였다. 1919년 2월(음) 대한독립선언서에 서명하였으며, 길림군정사의 참모로 활동하였다. 1919년 11월 대한군정서의 사령관이 되어 사관연성소를 설치하고 사관생도와 병사를 양성하였다. 1920년 10월 일본군과의 청산리전투에서 홍범도부대 등과 연합하여 대승을 거두었다. 청산리대첩 후 주력부대를 러시아



사진 11 | 청산리전투 승리 기념 사진

령 이만으로 들어갔다가 북만주로 돌아왔다. 1922년 중러 국경지대인 동녕현에 대한독립군단을 조직하였으며, 1925년에는 영안현에 신민부를 창립하였다. 신민부는 북만주 일대의 한인들을 이끌며 독립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정부 조직체였다. 관할 구역내의 친일파를 처단하였으며, 한인 자제를 대상으로 무상 교육을 실시하였다. 신민부가 민정파와 군정파로 분열되자, 그는 군정파를 이끌고 1929년 해림으로 가서 김종진이 이끄는 재만조선무정부주의자연맹과 연합해 한족총연합회를 조직하였다. 한족총연합회에서는 농촌자치조직을 결성하고자 하였다. 또한 친일파와 공산주의 세력을 숙청하는 일도 하였다. 그러나 1930년 1월 자신이 운영하던 정미소에서 암살당했다. 범인은 정미소에서 일하던 조선청년당 만주총국 화요계 요원 박상실이었다. 이로써 청산리대첩 이후 신민부와 한족총연합회에 이어진 그의 한국 독립을 위한 투쟁은 종결되고 말았다.

김좌진의 정치이념은 대종교에 바탕을 둔 것으로 이해된다. 이에 따라 그는 신민부를 조직하면서 단군을 중심으로 한 민족정신을 배양하여 이상국가인 배달국을 건설하고자 하였다. 김좌진은 또한 공화주의를 추구하였다. 그는 북만주 지역에 널리 퍼진 공산주의에 대하여는 배척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는 새로운 항일투쟁을 위하여 폭력혁명과 사회부조(社會扶助)를 강조하는 아나키즘을 수용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그는 민족주의에서 아나키즘으로 이념을 변화시키면서 독립을 위한 투쟁에 전 생애를 바쳤다.

김좌진의 활동은 그의 친동생인 김동진과 친족인 김종진과 김우진 등을 독립운동의 전선에 나서게 하였다. 김동진(金東鎭, 1891~1938)은 1920년 6월 비밀결사 주비단(籌備團)에 가입하여 군자금 모집 활동을 벌였다. 일경에 체포되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1921년 12월에 다행히 면소 석방되었다. 1922년 10월에는 의용단에 참가하여 군자금 모집 활동을 하다가 만주로 망명하였다. 1928년 1월 김동삼이 위원장인 군민혁신의회의 민사위원으로 선임되어 활동하였다. 1929년 초에는 김좌진과 함께 한족총연합회를 조직하였다. 1937년 7월 중일전쟁이 일어난 뒤 일군에게 체포되어 국내로 압송되어 모진 고문을 당하는 옥고 끝에 1938년 3월 순국하였다.

김종진(金宗鎭, 1901~1931)은 1919년 3·1독립운동이 일어나자 3월 7일 홍성읍내에서 시위하다가 구속되어 옥고를 겪고 그해 6월에 석방되었다. 그후 상경하여 중동중학 속성과에 학적을 두고 지하운동에 전념하다가 1920년 4월 만주로 망명하였다. 상해임시정부 법무총장 신규식의 소개로 운남성 군관학교 교도대에 입대하여 교육과정을 밟고 1925년 9월에 졸업하였다. 졸업 후 상해로 돌아와 무정부주의자들과 연계되어 활동하였다. 1926년 봄에 남경·한구·무창 등지를 돌아다니면서 동지규합에 나섰으며, 1927년 10월에 북만주로 김좌진을 찾아갔다. 이곳에서 그는 신민부의 군사위원 등으로 참여하면서 1929년 7월 재만조선무정부주의자연맹을 조직하고 그 대표가 되었다. 그해 8월에는 김좌진과 함께 교민의 자치단체인 한족총연합회를 결성하고 조직부 위원장 겸 농무부 위원장으로 사상계몽과 적색분자제거, 농민의 집단정착 등의 활동을 하였다. 1930년 봄에는 북경에서 개최된 재중국조선무정부주의자

대표대회에 북만주 대표로 참석하여 한족총연합운동에 참여할 것을 결의케 하였으며, 그 결과 민중운동이 크게 활기를 띠게 되었다. 그러나 위협을 느낀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1931년 8월 중동선 해림역 교외에서 살해되었다. 김좌진이 암살당한지 1년여가 지난 후였다.

김우진(金宇鎭, 1890~1952)은 1919년 3월 서울에서 3·1운동에 참가하여 시위하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그 후 상해로 망명하여 임시의정원 의원으로 활동하였다. 1924년 1월 대한청년동맹회의 후보감찰위원으로 선임되었으며, 의경대(義警隊)에 참여하여 활동하였다. 그는 김원봉이 이끄는 의열단에 가입하여 간부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1925년 8월경 중국 북경으로 건너가 한인 학생들을 규합하여 학생회를 조직하고 연설회를 개최하여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등 활동을 하여 일제의 요주의 인물로 선정되어 체포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결성 출신의 남중희(南重熙, 1873~1945)도 김좌진과 함께 활동한 인물이다. 그는 1927년 김좌진 밑에서 신민부의 경무부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나 1928년 2월 일본 경찰대의 공격을 받고 경리부 위원장 유정



사진 12 | 조선의용대 성립 기념 사진(1938년 10월 10일)

근 등과 함께 체포되었다. 그는 이 일로 1929년 징역 2년을 받아 신의주 감옥에서 옥고를 치렀다.

홍성 출신으로 의열투쟁을 한 인물로 노을룡과 윤익중, 정설교 등이 있다. 노을룡(盧乙龍, 1895~1944)은 홍성 오관리 출신으로 1919년 상해로 망명한 뒤 김원봉의 의열단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김원봉이 군대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1926년 3월 황포군관학교에 입교하였는데, 노을룡 역시 박효삼 등과 함께 황포군관학교 제4기생으로 입교하였다. 그는 보병과에 소속되어 전술학·군제학·병기학·정치공작 등을 학습하였다. 졸업 후 중국의 국민혁명군 초급장교로 임관한 그는 김원봉과 함께 광동에 머물며 그해 12월 일어난 광주봉기(廣州蜂起)에 박건웅 등과 함께 참여하였으며, 1927년 8월에는 남창봉기(南昌蜂起)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1932년 장개석의 원조로 김원봉이 남경 교외의 탕산(湯山)에 조선혁명군사정치간부학교를 설립하자, 1932년부터 1933년까지 제1기생 교관으로 사관생도를 양성하였다. 1933년 말에는 남경 중앙육군군관학교 교육총대 제4대 교관으로 근무하였다. 1935년 북경에서 의열단원 김시현 등과 함께 한인 부일배를 처단하였으며, 하남성 개봉(開封)에서 일제의 비밀 정보원인 중국인을 처단하는 등 활동을 전개하다가 1944년경 일경에 피체되어 순국하였다.

윤익중(尹益重, 1896~1963)은 장곡면 화계리 출신이다. 그는 1919년 휘문고보 졸업반 때 광천 출신의 정설교와 함께 김상옥의 혁신단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1920년 3월에는 구국민단 사건에 연루되어 체포되었으나, 10월 26일 예심종결로 풀려났다. 1921년에는 김상옥 주도의 암살단에서 활약하다가 체포되어, 같은 해 11월 15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 김상옥 등과 군자금을 모집하였다. 김상옥의 종로경찰서 폭탄투척사건에 연루되어 또 다시 체포된 그는 1923년 10월 10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1년 6개월간 옥고를 치렀다. 윤익중은 출옥 후 신간회 홍성지회 설립에 참여

하였으며, 초대 부회장에 추대되기도 하였다.

정설교(鄭卨敎, 1894~1969)는 보성고보 재학 중인 1919년 4월 김상옥의 혁신단에 가입하였다. 1920년 그는 단원들과 요인암살을 계획하고 암살단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1923년 김상옥의 종로경찰서 폭탄투척의거와 삼판동 사건에 연루되어 체포된 그는 1923년 10월 경성복심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 4 | 맺는말

홍성지역에서의 독립운동은 1895년 일어난 홍주의병 이후 여러 분야에 걸쳐 해방 때까지 지속적으로 전개되었다. 홍성인들은 1895년 항일의병을 봉기하고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음에도 1906년 의병을 재기하였다. 홍주성을 점령하고 일제의 정규군인 주차일본군과 치열한 항전을 수행하였으나 홍주성을 빼앗기고 수많은 의병이 학살되었다. 홍성의 관리나 재야의 개신 유학자들은 실력을 양성하여 일제를 구축하자는 애국계몽운동을 펼쳐나갔다. 이들은 기호흥학회의 지회를 설립하여 근대학교를 설립하였으며, 일제한테 빌린 국채를 갚자는 국채보상운동을 전개하였다.

일제강점기 일제의 가혹한 식민통치에 저항한 독립운동은 여러 분야에 걸쳐 전개되었다. 1919년 전국적으로 일어난 3·1운동은 그 중에 대표적이다. 홍성에서의 만세운동은 3월 7일 홍성읍내에서 김종진 등에 의해 일어난 이후 4월초에 걸쳐 광천, 은하, 금마, 구항, 장곡, 홍동, 갈산 등 각 면에서 일어났다. 특히 4월 4일 있었던 6개 면의 횃불만세운동은 일제에게 큰 충격을 주었으며, 이후 각지에 만세운동을 파급하게 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홍주의병장 김복한은 미국대통령 윌슨의 민족자결주의가 발표되고 프랑스 파리에서 제1차 세계대전 승전국들이 강화회의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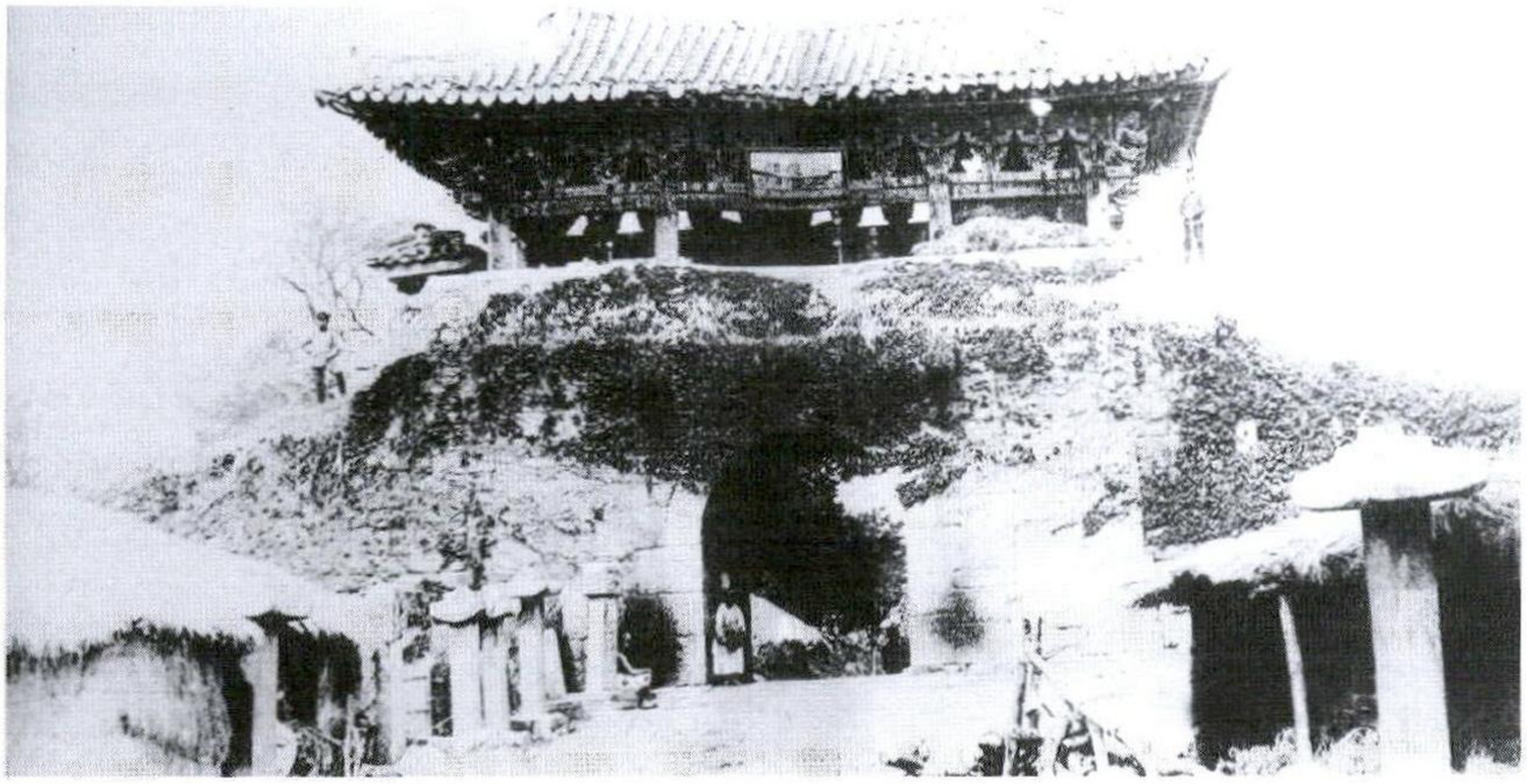


사진 13 | 조양문(1910년대)

개최하고 있음을 전해 듣고, 의병의 동지들과 연명하여 파리강화회의에 글을 보내 독립을 요구하는 장서운동을 전개하였다.

홍성의 청년들은 엡윗청년회와 광천청년회, 홍성청년회 등을 조직하여 지역인의 민지개발과 민족의식 고취에 노력하였다. 홍성지역 학생운동은 6·10만세운동과 광주학생운동의 영향으로 식민지 교육에 대한 반대운동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홍성공립보통학교 학생들의 동맹휴교가 1926년 5월 있었으며, 홍성공립공업전수학교 학생들의 맹휴는 1928년 12월과 1930년 1월에 있었다. 인력거조합을 모체로 하여 1927년 3월 홍성노동조합이 설립되었다. 홍성노동조합에서는 노동 문제 만이 아니라 정치, 사회 문제까지 다루어 메이데이 기념행사나 원산총파업을 후원하는 등 활동 영역을 넓혀갔다. 홍성지역 농민들 역시 1930년대 초반부터 일제의 농업 수탈과 악덕 지주의 무리한 소작권 이동을 반대하여 소작쟁의를 일으켜 저항하였다. 신간회 홍성지회는 1927년 8월에 충남에서는 가장 먼저 창립되었다. 홍성지회는 결성 이후 홍성지역 사회운동 단체간 연대를 통하여 민족운동을 전개해 갔다. 홍성의 유림들은 1927년 유교부식회를 설립하여 유교의 보급과 이를 통한 민족정신의 고취에 힘썼다.

홍성인으로 국외로 망명하여 항일투쟁을 전개한 대표적인 인물로 김좌진이 있다. 소년기 노비를 해방했던 김좌진은 만주로 망명한 이후 만주 독립군의 총사령으로 활동하였으며, 신민부와 한족총연합회를 조직하여 재만 한인의 자치조직을 통한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김좌진의 활동은 그의 친동생인 김동진과 사촌동생 김종진, 친족인 김우진, 그리고 결성 출신의 남중희 등을 독립운동의 전선에 나서게 하였다. 노을룡과 윤익중, 정설교 등은 국내에서 또는 망명하여 김원봉과 김상옥 등과 함께 의열투쟁을 전개하였다.

홍주의병에서부터 시작된 홍성인들의 항일독립투쟁은 일제강점 하에서도 지속적으로 전개되었다. 척왜론과 대일결전론에 바탕한 홍주의병의 무장투쟁은 일제의 식민통치를 저지하였으며, 만주에서의 청산리대첩과 의열투쟁은 일제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였다. 그 과정에서 홍성인들은 일제 식민통치의 불법성과 강압성, 그리고 한국인의 자주독립정신을 전 세계에 알렸으니, 홍성 지역 독립운동은 한국독립운동사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 **김상기** | 충남대 국사학과 명예교수



홍성의 독립운동사 1

일제의 을사늑약에 항거하여 1906년 홍주의병은 다시 봉기하였으며 일본 정규군과의 치열한 홍주성전투를 치렀다. 홍주성전투는 중기의병 의진 중에 최대의 전과를 올렸으며, 전국적으로 의병전쟁을 폭발하게 한 도화선이 되었다.

제 2 장

한말 홍주의병

1. 머리말
2. 홍주의병의 배경
3. 홍주의병의 전개
4. 맺는말 - 홍주의병의 특성과 의의

제 2 장

한말 홍주의병

의병이란 외적의 침략에 자발적으로 무장봉기한 민군을 말한다. 조선말 의병전쟁은 1894년의 갑오변란과 을미사변, 을사늑약과 같은 일제의 침략행위에 대항하여 20여 년간에 걸쳐 전개한 한민족의 반침략 전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의병전쟁은 국권침탈 이후 독립전쟁과 3·1운동의 연원이 되었으며 한민족독립운동의 선구가 된다는 점에서 그 역사적 의의는 실로 크다 하겠다.

홍주의병이란 홍성군을 비롯한 홍주문화권에서의 의병을 말하는 것으로, 1895년과 1906년의 2차에 걸쳐 전개되었다. 1895년 홍주의병은 정부의 개화정책과 일제의 침략행위에 반대하여 1895년 4월부터의 모병단계를 거쳐 단발령공포 직후 봉기하였다. 주도자들이 모두 체포되어 옥고를 치르는 등 탄압을 받았지만, 일제의 을사늑약에 항거하여 1906년 홍주의병은 다시 봉기하였으며 일본 정규군과의 치열한 홍주성전투를 치렀다. 이 홍주성전투는 중기의병 의진 중에 최대의 전과를 올렸으

며, 전국적으로 의병전쟁을 폭발하게 한 도화선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 홍주의병에 관한 연구는 후손들과 지역 향토사가들의 관심 속에 비교적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 글에서는 이와 같은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2차에 걸친 홍주의병의 배경과 전개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 2 | 홍주의병의 배경

1) 정치사회적 배경

홍주의병의 봉기를 가능하게 한 정치적 사회적 요인으로는 갑오변란과 을미사변, 변복령(變服令)과 단발령 공포, 을사늑약 등을 들 수 있다.

일제는 1894년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나자 이를 조선 침략을 위한 기회로 삼아 군대를 파견하였다. 일본 공사는 일본군을 불법적으로 서울로 이동시켜 놓고 조선정부에 내정개혁안을 강요하였다. 조선정부는 이를 반대하며 일본군의 철수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일본군은 1894년 6월 21일(양, 7월 23일) 경복궁을 무력으로 점령하는 갑오변란을 일으켰다. 갑오



사진 1 | 홍주아문(1910년대)

변란은 일제가 조선 침략의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침략사건이었다.

홍성지역의 유생들은 갑오변란을 일제에 의한 침략행위로 간주하였다. 홍주 화성 출신의 안창식을 비롯한 박창로와 이세영 등은 1895년 4월에 청양의 장곡에서, 6월에는 청양 시내의 장터에서 기병하기로 하는 등 을미사변 직전까지 의병 봉기를 준비하였다. 이들은 을미사변 직후인 1895년 9월부터 의병 초모와 무기 수집을 추진하여 1896년 1월초 김복한 등과 함께 홍주의병을 일으켰다.

1895년 8월 20일(양, 10월 8일) 일제는 경복궁을 침입하여 명성황후를 시해한 을미사변을 저질렀다. 일제는 갑오변란 이후 조선을 장악하고 개화를 구실로 한 침략정책을 수행하던 중 명성황후의 반대에 직면하자 시해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는 조선을 식민지화 하려는 침략의 일환으로 취해진 국제적 범죄 행위이다. 너무나 비참한 왕비의 시해소식을 접한 인민들은 일제와 친일정권에 대하여 적개심이 솟구치지 않을 수 없었다. 더욱이 친일적 김홍집 내각은 1895년 11월 15일(음) 단발령을 공포하였다. 이때 내세운 단발의 명분은 '위생에 이롭고 작업에 편리하기 때문' 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유교 윤리가 백성들의 생활에 깊이 뿌리 내려 있는 조선사회에서 상투는 곧 인륜의 기본인 효의 상징으로 인식되었다.

단발령이 내리자 유생들은 이를 신체적 박해로 더 나아가 인륜의 파멸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 반감은 극에 달했다. 갑오변란 직후에 사직하고 낙향해 있던 김복한과 이설은 지역 유생과 민중세력들을 규합하여 반개화 반침략의 항일의병을 전개하기에 이르렀다. 이조참판으로 재직하고 있던 민종식 역시 관직을 사직하고 정산에 내려와 있다가 1906년 안병찬과 이용규 등의 추대로 의병장이 되어 홍주의병을 지휘했다.

1906년 홍주의병은 을사조약의 늑결이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다. 일제는 을사조약을 늑결하기 1년여 전부터 한국의 주권을 빼앗는 일련의 조치를 취하였다. 일본공사 하야시(林權助)는 1904년 나가모리(長森藤吉郎)를 내세워 이른바 황무지개척권을 요구하였다. 이는 50년간 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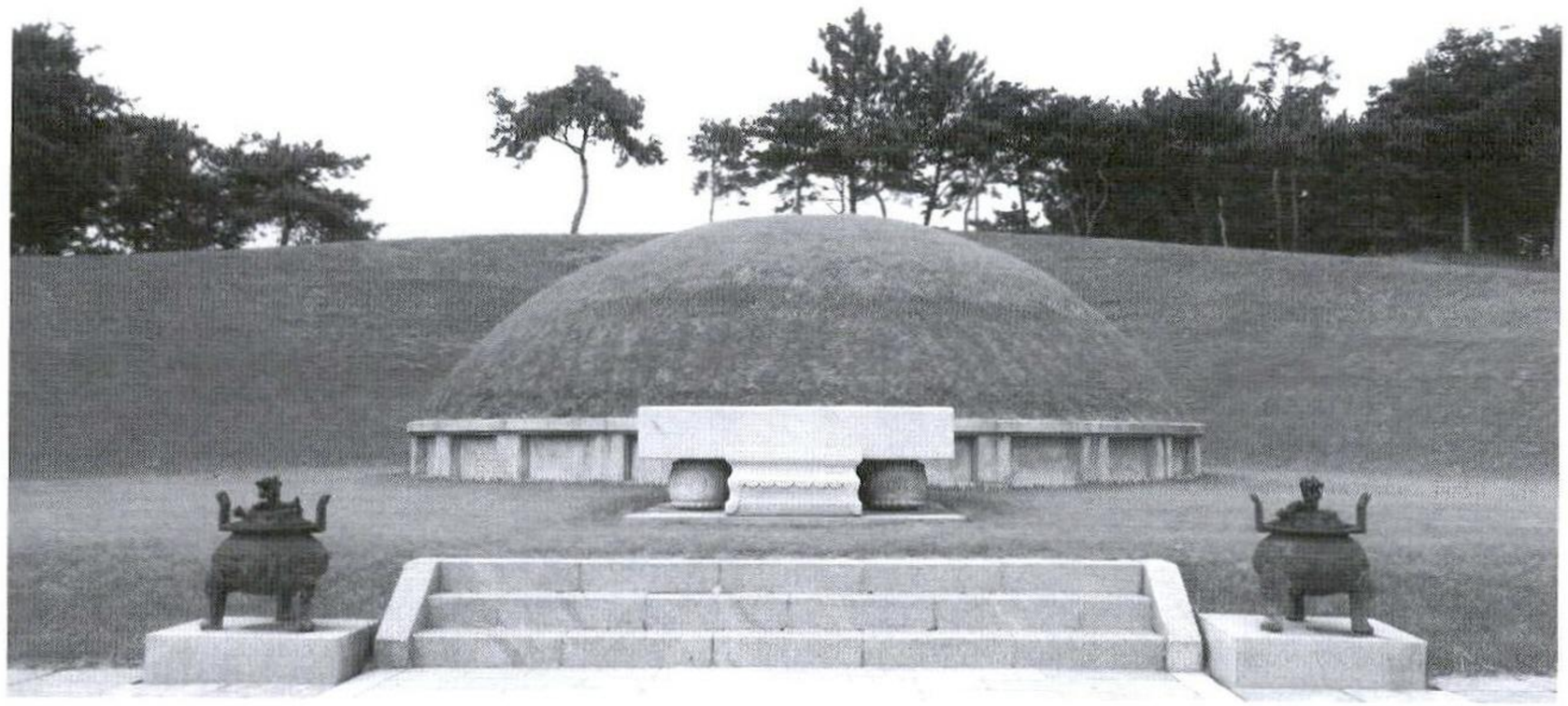


사진 2 | 홍주의사총

전국토의 3할에 달하는 진황지의 개간 및 정리, 척식 등 일체의 경영권과 기타 모든 권리를 넘기라는 것이다. 이설은 1904년 황무지개척권 요구의 소식을 듣고 일본을 배척하는 통문을 발표하여 일본이 땅을 빌린다고 하는 '차지(借地)'는 곧 '망국'이라면서 기필코 이를 막아야 한다고 하였다. 그는 이어서 전 국민이 대궐 앞에 나가 항쟁할 것을 주장하였다. 김복한 역시 일제의 황무지개척권 요구에 송병선을 비롯한 이설, 민종식 등과 대책을 세우고자 하였다. 그는 송병선에게 글을 보내어 "요즈음 저 원수들이 산림천택을 저들 것으로 만들려는 것은 우리의 땅을 모두 저들의 것으로 하려는 뜻"이라고 일제의 저의를 지적하면서 민종식·이설 등과 함께 의론하고자 하니 좌장이 되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일제는 러일전쟁에서 승리하자 곧이어 한국의 병합을 위한 사전 정책으로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는 을사늑약을 강제하였다. 이로 인해 한국은 이른바 준식민지 상태에 빠지고 말았으며 한국인의 주권은 일제에 의해 박탈당하기에 이르렀다.

일제의 을사조약 늑결은 지역인들을 격분시키기에 충분하였다. 이설은 을사조약의 늑결 소식을 듣고 내종제인 김복한에게 편지를 띄워 "신

하된 자 죽음만이 남을 뿐이나 죽음도 의리가 아니다"라며 상소를 올릴 것을 권하고 같이 상경하였다. 그는 12월 2일 올린 상소에서 "5적의 목을 베어 사방의 의혹을 풀어 주시고 만고의 강상을 붙잡아 주기를" 주청하였다. 김복한은 이설과 함께 상경하여 상소를 올려 을사5적의 매국행위를 맹렬히 성토하였다. 그는 상소에서 을사5적을 처벌할 것과 의병을 모집하여 일본 세력을 축출하고 왕실을 회복할 것을 주청하였다. 또한 소위 신조약 5조 반포와 각국 주차공사 소환 건이 과연 재가되어 시행되었는지 알지 못하겠다면서 일본과 맺은 조약의 파기를 주장하였다. 이어서 국토가 일본에 떨어져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다면서 최익현, 송병선, 전우, 곽종석과 같은 명망 있는 유생들을 불러 나라를 지탱할 방책을 얻을 것을 건의하였다. 이설과 김복한은 상소를 올린 지 2일 만인 12월 4일 경무청에 체포되어 옥고를 치르게 되었다.

감옥에서 풀려난 이설과 김복한은 홍주 지역의 안병찬 등에게 민종식을 의병장에 추대하여 의병을 일으킬 것을 권유하였다. 안병찬은 이용규와 이세영 등과 함께 민종식을 총수로 추대하고 1906년 홍주의병을 봉기하여 국권회복을 위한 무장투쟁을 전개하기에 이르렀다.

2) 사상적 배경

1895년 홍주의병의 사상적 배경은 주자학의 의리론과 화이론에 입각한 위정척사론에서 찾을 수 있다. 위정척사론은 19세기 중, 후기 척사 유생들의 중심 이념으로 작용하였으며 1894, 5년 이후 의병의 지도 이념이 되었다. 홍주 지역 위정척사론의 연원은 조선후기 기호학파의 종장이라 할 수 있는 남당 한원진(1682~1751)의 호론적 학풍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호론이란 인(人)과 물(物)은 성(性)이 다르다는 인물성이론(人物性異論)을 말한다. 이와 같은 인물성이론은 유(儒)와 석(釋), 인(人)과 수(獸) 그리고 화(華)와 이(夷)의 구별을 엄격하게 하는 이단론으로 발전하였다. 한원진의 사상은 우암 송시열의 '직(直)'의 심학(心學)을 계승

발전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은 한원진의 이단론과 송시열의 직 사상이 동향의 후배들에게 전수되어 생사를 초월하여 의병을 일으키도록 한 것이다. 그 대표적 인물로 김복한과 이설을 들 수 있다.

이와같은 위정척사론은 홍주일대에 팽배하였다. 오페르트의 남연군묘 도굴사건은 이를 더욱 확산시켰다. 서해안에 이양선의 잦은 출몰은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으며 척사 분위기는 고조되었다. 1871년 홍주군 구항면에 세워진 척화비(斥和碑)는 이러한 척사 의식의 소산물이라 할 것이다. 1881년 이만손(李晩孫) 등 영남유생들이 만인소(萬人疏)를 올려 위정척사운동을 전개하자 보령의 황재현은 충청도 대표로 척사 상소를 올렸다. 상소문에서 그는 일본의 침략에 대비한 민보책(民堡策)을 주장하였다. 보령 출신 백낙관은 1880년 개화를 반대하는 상소를 올려 체포된 바 있으며, 1882년 5월에는 남산에 올라 봉화를 올리고 척사소를 올리기까지 하였다, 결국 백낙관은 체포되어 1883년 처형당하였으나 이 지역인들은 그를 백충신이라 하여 추앙하였으니 의병투쟁의 가능성은 잠재되어 있었다.

이러한 유학자들의 위정척사론은 홍주 일대의 사민들에게 영향을 끼쳐 살신성인의 의병을 일으키도록 한 주요 이념적 기반이 되었다. 홍주의병을 일으킨 김복한, 이설, 임승주, 임한주, 유호근, 김상덕 등 남당학파와 유준근, 곽한일 등 화서학파 계열의 유학자들이 대표적인 위정척사 계열의 인물들이다.

| 3 | 홍주의병의 전개

1) 1895년 홍주의병

(1) 주도자와 참여 인물

홍주의병에서 의병을 초모하고 봉기를 추진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담



사진 3 | 1919년 파리장서운동으로 옥고를 치른 후의 김복한(전열 중앙)과 그의 문하생들

당한 신분층은 거의 양반유생으로 보인다. 이를 다시 세분하면 김복한과 이설을 중심으로 한 관료유생집단과, 안창식·이세영·채광묵을 중심한 지방 유생층이 있다. 이 세력 중에서 의병병사를 모집하고 군사 활동을 전개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 것은 전자보다 오히려 후자집단으로 보인다. 후자집단은 화성에 거주하는 안창식·안병찬 부자, 청양의 이세영, 홍주 매평리의 채광묵, 예산 광시의 박창로, 공주의 이상린 등으로 거의가 관직 경력이 없는 재야유생들이다.

안창식(安昌植, 1838~1899)은 홍주군 화성면(현 청양군 화성면)에서 출생하였다. 그의 6대조가 이곳에 살면서 세거하게 되었다. 당색은 김복한·이설 등과는 달리 소론이다. 학통 역시 그들과는 계통이 다르나 대대로 충효정신을 중히 여긴 유학자 집안으로 보인다. 그의 아버지 용(溶, 1812~1884)은 성균관 생원이었으며 성근묵(成近默, 1784~1852)의 문인으로 학행과 절의정신이 뛰어났다 한다. 그가 소론의 영수인 윤증의 사숙문인인 성근묵의 문인이 된 것 역시 그의 가문이 소론인 것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 안창식은 1895년 4월 광천에서 의병봉기를 시

도하였다. 그는 5월에는 박창로·이세영·이봉학·정제기 등과 함께 청양에서 의병봉기를 계획 추진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1895년 8월 을미사변 직후 그 활동을 더 적극화하여 무기 수집과 병사 모집의 일을 추진하였으며, 단발령 공포 직후인 1895년 11월 28일 강변의 이인영 집에서 '향회'를 실시하고 180여 명의 민병을 모집하였다. 이 부대가 홍주성을 점령하고 경무관 강호선, 참서관 함인학을 체포, 구타하자 관찰사 이승우가 의병봉기에 참여한 것이다.

안병찬(1854~1929)은 안창식의 장자로 태어났다. 그는 조부한테 한학을 수학하였는데 10여 세에 시·서·예에 뛰어났다. 성품이 강직하였으며 책 속에 절의 대목에 이르면 대장부라면 마땅히 이래야 한다고 감탄하였다. 그의 학통은 부친의 경우에서 보여주듯이, 조부가 성근묵의 문인인 것을 보아 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그는 특별히 그 학통을 잇는 것으로 자처한 적은 없다. 다만 조부로부터 기호유림의 유학사상을 수학하였을 것이며, 부친의 투철한 절의정신에 영향을 받음이 큰 것으로 보인다. 그는 39세 되던 1892년 과거에 응시하였다. 그러나 과거시험장의 문란상 등 부패상을 목도, 통탄하고 뛰쳐나왔다. 이와 같은 문란상의 목도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으니, 조선왕조의 멸망과 주자학 질서의 붕괴를 예고하는 것으로 보였을 것이다. 그는 1894년부터는 홍주향교의 전교로 향약을 베풀고 강회를 열어 향리의 교화에 힘썼다. 같은 해 동학세력이 홍주일대에 일어나자 홍주목사 이승우를 도와 동학세력을 물리쳐 향리에서 주자학질서를 지키고자 했다. 이와 같은 관계로 이승우를 1895년의 홍주의병에 가담시켰으나 끝내 의지가 굳지 못한 이승우는 개인의 영달과 안전만을 생각하고 변심하고 안병찬 등을 구금하였다. 안병찬은 옥중에서 구차하게 살아 뭇 소인들로부터 욕을 당하느니 차라리 머리를 온전히 하여 죽는 것이 낫다고 칼로 목을 찔러 자결을 기도하였다. 임승주의 극진한 간호로 깨어난 안병찬은 문종이를 찢어서 목에서 난 피로 혈시를 지어 이승우에게 보냈다. 안병찬은 서울로 압송되어 재판을 받아 징

역 3년형을 선고받았으나, 고종의 특지로 석방되었다.

이상린(李相麟, 1856~1946)은 공주의 우성 출신이다. 1895년 김복한의 연락을 받고 홍주의병에 참여하였다. 김복한은 의병 총수에 추대된 후 이상린을 비롯한 홍건·안병찬과 함께 창의소에서 대책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창의소를 설치한 후 하루만인 12월 4일 관찰사 이승우가 배반하고 말았다. 이승우는 김복한과 이상린을 비롯한 총 23명을 구금하였다. 홍주부는 서울에서 내려 온 친위대의 지배하에 들어갔다. 이상린은 12월 7일 신우균의 취조를 받고 홍주부에 수감되었으며, 서울로 압송되어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으나 고종의 특지로 석방되었다.

한편 전자인 전직 관료층에는 전 승지 김복한과 이설이 있다. 김복한과 이설은 철저한 화이론에 입각하여 '척왜론'을 주장하던 이들은 일본군에 의해 경복궁이 짓밟히고 조선군이 무장 해제되고 국왕이 허수아비가 되는 사태를 목도하고 국망의식을 강하게 느꼈다. 이들이 군사초모와 무기수집과 같은 군사 활동을 추진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중앙정계에서 요직을 역임하였으며 학문적으로도 뛰어난 이들의 참여는 지방 유생들을 크게 고무시켜 홍주의병을 가능하게 하였다.

김복한(1860~1924)은 홍주군 조휘곡에서 김봉진의 장자로 태어났다. 병자호란 때 강화성의 함락에 순절한 문충공 김상용(1561~1631)의 12대손 종손이니, 그 절의정신과 척화정신은 그의 의병정신으로 이어졌다 할 수 있다. 1871년부터 덕산의 유학자 농은 이돈필의 가르침을



사진 4 | 대원군 척화비(구항면 오봉리)

받기 시작했다. 이돈필(1834~1902)은 선조 때 대사간과 이조참판을 지낸 이효원의 후손이다. 이돈필의 증조는 이건운은 남당의 사숙문인 정혁신(鄭赫臣, 1719~1793)의 문인이다. 한원진의 학통을 이돈필을 통하여 전수받은 김복한은 한원진을 주자에 버금가는 선생으로 존모하였다. 김복한의 사상은 절의정신과 척사론에 입각한 화이론이 그 핵심을 이룬다 할 수 있다. 33세 때 문과에 급제한 뒤, 중앙관직을 두루 역임하다가 1894년 6월 갑오변란 때 승지직을 사직하고 낙향, 홍주의병을 일으킨 것이다. 김복한은 단발령공포 후 홍주지역 유생들과 잦은 접촉을 하면서 홍건과 함께 이승우의 의병 참여문제에 대하여 여러 차례 협의하였다. 이상린·이봉학·안병찬 등과도 연락을 취했다. 11월 27일 그를 찾아온 안병찬에게도 거의를 권유하였다.

이설(李偰, 1850~1906)은 인조반정의 정사공신 이귀(李貴)의 10대 후손이다. 1822년에 복시, 1888년에 알성과에, 그 다음해는 전시에 급제하여 1894년 승지에 이르렀다. 그러나 1894년 3월의 변복령, 6월의 갑오변란 등 일련의 일제의 침략 정책에 저항하여 사직소를 올리고 고향인 홍주부 결성군에 낙향하였다가 홍주의병에 참여하였다. 김복한이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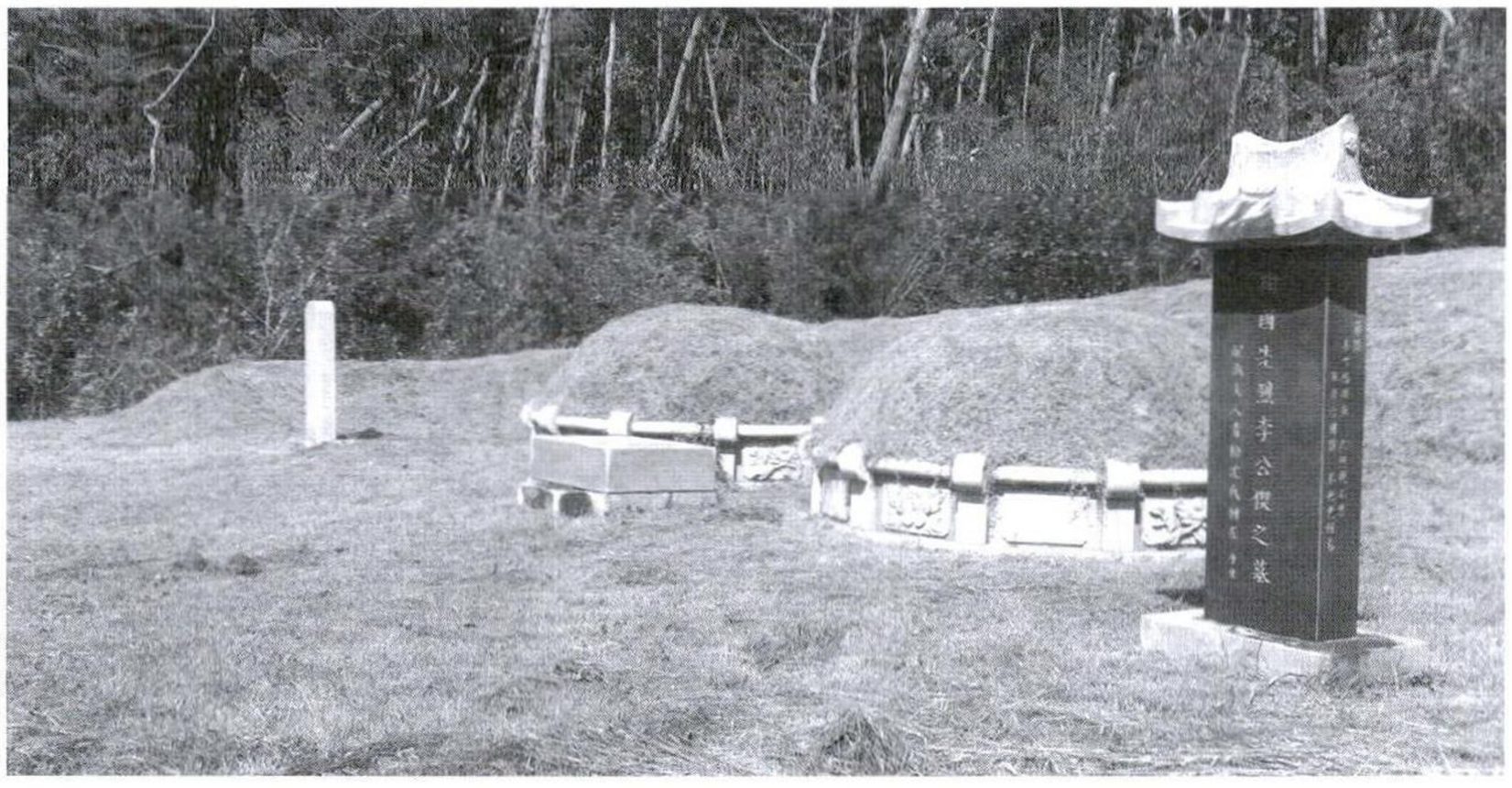


사진 5 | 이설 묘

설을 율곡과 남당의 충신이라 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역시 한원진의 학통을 이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남당의 학문적 영향을 받은 이설의 사상적 특성 역시 화이론과 절의 정신이 강한 특성이 있다. 이설은 관찰사 이승우의 변심으로 체포되어 서울로 압송되었다. 뒤이어 국왕의 특명으로 사면, 석방되어 고향에 돌아온 그는 먼저 한원진 묘소에 찾아가 제문을 바쳐 남당이 말한 유석(儒釋)과 화이(華夷)의 분별이 없어졌음을 통탄하였다. 관료 출신으로 이들 외에 홍건이 있다. 그는 원래 이승우의 책실이었으나 동학농민군 진압의 공으로 승진되어 홍주지역 영장을 지냈다. 퇴관 후 고향인 남양에 있으면서 단발령공포 소식을 들었다. 그는 홍주에 와서 김복한과 함께 이승우에게 의병참여를 권유하였다.

이와 같이 두 집단이 비록 지위와 당색 등에서는 차이가 있으나 일제 침략군 축출과 이에 추종하는 부일 개화파 세력 타도를 공동목표로 한 의병투쟁에 적극 합류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의병봉기 후 아무런 이의 없이 김복한을 의병의 총수로 추대하였다. 이는 이 지역이 충남 동남부 지역에 비하여 비교적 개방적이어서 당색에 덜 철저하였던 점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홍주의병의 병사층에는 어느 신분층이 주로 참여하였는지 분명히 제시해 주는 자료를 찾기는 쉽지 않다. 단지 임한주의 『홍양기사』와 최근에 공개된 『을병록』 등에서 향회를 실시하고 민병을 모집했다고 하였다. 이로 보아 농민 세력이 함께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농민 중에는 소작농민도 의병에 참여하였다. 임피현령 오영석이 이승우의 생질인 남씨에게 이승우의 의병참여를 요구하면서 이승우가 거의할 경우 집안 일꾼 백 명과 군자금 만 냥을 준비하여 동참할 것을 말하고 있는 점에서 알 수 있다. 홍주의병 초기단계에서는 홍주부 소속의 관군도 의병에 참여했다. 비록 '2일천하'로 끝나고 말았지만 서산·남양·대흥 군수가 군사 수백 명씩을 거느리고 오기까지 하였다. 청양군수 정인희는 청양군내의 관군을 보내 의병에 참여하였으며, 이승우의 변심 후 의병지도층이 체포된

후에도 공주부 경무관 구완희가 이끄는 관군과 전투행위까지 하였다. 이는 의병사에서 흔치 않은 것으로 주목된다.

홍주의병에 보부상이 참여하고 있어 주목된다. 『간호일기(艮湖日記)』 1895년 11월 28일자에 정산·부여 등지에서 수십 명의 선비들이 먼저 들어오고, 이어서 출정 군인과 보부상들이 속속 들어왔다고 하여 보부상의 의병참여 사실을 알게 해준다. 홍건의 『을감일기(乙坎日記)』에서도 관찰사 이승우가 의병참여를 승낙하고 부서를 정해주면서 이세영에게 부상을 이끌고 청양군수 부대를 도와 공주로 향할 것을 명령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후기 홍주의병의 경우이지만, 민종식부대에서 운량관이었던 전의관 박두표의 판결선고서에 의하면, 그가 해미군에 양곡을 보관해 두라는 명령을 받고 부상 7명과 장교 8명으로 하여금 양곡을 지키게 하였다고 진술하였음을 볼 수 있다. 보부상은 등짐장수와 봇짐장수를 일컫는 말로 국가 중대사 또는 국난에 사역되기도 하였다. 1866년 병인양요시 강화도의 문수산·정족산성 전투에서 이들이 프랑스군과 전투를 벌였던 것이 그 예이다. 충청도 지역에서 활약한 보부상 가운데는 충남의 저산팔읍(苧産八邑)의 보부상단이 유명하였다. 이들이 1894년 홍주관군과 함께 동학군을 진압하는 데 활약하였다. 관에 의해 사역을 당하던 보부상의 의병참여는 홍주의병이 초기에 관민 주도로 추진된 사실과 관계가 있는 듯하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1895년 홍주의병의 병사층에는 유생 외에 평민 집단인 농민·관군·보부상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이 바로 1894년 동학농민군이 홍주성을 공격할 때 이를 방어한 세력이기도 하였다. 이때 홍주향교 전교인 안병찬 등이 유회군(儒會軍)을 조직하여 관군을 도왔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은 홍주의병에 동학농민군의 참여를 허용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2) 전개과정

1895년 홍주의병은 김복한 등 관료유생들과 안병찬 등 지역의 유생

들이 연합하여 추진되었다. 홍성 출신의 김복한과 이설은 문과를 급제하고 승지의 직임을 띠고 고종을 측근에서 보좌하고 있었다. 그러나 갑오변란과 청일전쟁 이후 일제의 침략이 노골화하자 1894년 6월 관직을 사퇴하고 낙향하였다. 두문불출하던 이들은 을미사변과 단발령의 공포에 의병을 일으키게 되었다. 김복한과 이설은 홍주부 영장 홍건을 만나 의병 일으킬 것을 협의하였으며, 홍주부 관찰사 이승우를 만나 거병을 권하였다. 그는 이승우의 거절을 받고 11월 27일 홍주향교 전교 안병찬을 만나 의병을 협의하였다. 이미 부친 안창식과 함께 의병 준비를 하던 안병찬은 김복한과 의기투합되어 다음 날 화성의 강변에 사는 이인영 집에서 향회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김복한은 별도로 이봉학, 이상린과 청양군수 정인희에게도 글을 보내 의병에 참여할 것을 권하였다.

11월 28일의 향회에는 100여 명에 이르는 홍주 일대 유생들이 참석하여 의병 봉기를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180여 명의 민병을 모집하였으며, 다음날 안병찬과 채광묵이 이 부대를 인솔하여 홍주성에 들어갔다. 안병찬은 관찰사에게 의리정신에 입각하여 의병에 참여할 것을 호소하였으며, 다음날 다시 관찰사에게 단발시킬 수 없음을 내부에 건의할



사진 6 | 안회당(홍주목 동헌)

것을 요구하였다. 이날 유생 이근주도 임승주·임한주 등 선비들의 연명을 받아 관찰사에게 서신을 보내어 단발을 통렬하게 반대하였다. 12월 1일 저녁에는 정산과 청양의 이봉학·이세영·김정하 등 수백 명이 나그네 또는 장사군으로 가장하고 성안에 들어왔다. 12월 2일, 안병찬의 척숙 박창로가 사민 수백 명을, 청양의 선비 이창서가 청양군수 정인희의 명령을 받아 수백 명을 인솔하고 각각 홍주부에 집결하였다. 여기에 안병찬·채광묵의 민병 180명이 대기하고 있었으니 그 군세는 홍주부를 위압하기에 충분하였다. 김복한은 수백 명의 민병이 관아에 집결하였을 때 관찰사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경무사 강호선과 참서관 함인학의 목을 베고자 하였다. 민병들이 경무청을 부수고 이들을 동문 밖으로 끌어내어 결박, 구타하기에 이르렀다. 관찰사는 이들을 살려줄 것을 호소하고 결국 의병에 참여하기로 승복하였다. 이어 '존화복수(尊華復讐)'라고 쓴 기를 세우고 방략을 협의하였다.

다음날(12월 3일) 홍주성내에 창의소가 설치되었으며, 김복한이 총수에 추대되었다. 김복한은 홍주부 관할 22개 군과 홍주군내 27개 면에 통문을 띄워 노약자와 독자를 빼고 매호마다 한 사람씩 의병에 응모하기를 청하였다. 집집마다 이를 피하지 않고 죽을 것을 맹세하고 자진 응모하였다. 한편 관찰사 이승우는 '홍주목사 겸 창의대장'이란 이름으로 절제사에게 관내에 명령을 내려 당일로 군사를 모집하여 오게 하였으며, 이설에게 임금께 보고하는 장계(狀啓)와 각국 공사관에 보내는 격문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창의소에는 김복한과 이설·안병찬·이상린이 잔류하였으며, 의병 초모와 산성 수리를 위하여 송병직·채광묵·이창서·이세영·이봉학·이병승·조의현·박창로·정제기 등을 파견하였다. 청양군수 정인희는 별도로 창의소를 청양읍내에 설치하고 홍주부에 연락을 취하여 포군 500명과 화포 1천 자루를 관찰사에게 요청하였다. 비록 홍주부로부터 이를 지원받지는 못하였지만 현직 군수인 정인희의 기병은 홍주의병사에서 주목된다.

그러나 창의소를 설치한 후 하루만인 12월 4일 관찰사 이승우가 배반하였다. 그는 처음부터 의병을 일으킬 마음이 없었다. 유생들의 권유와 위협에 마지못해 의병에 참여하기는 하였으나 실패를 두려워하였다. 이때 강호선과 함인학, 그리고 아전 이주승과 이종응 등이 회유하자 뜻을 번복하고 말았다. 그는 김복한과 이설을 불러들여 "문석봉이 비록 패하였지만 그래도 몇 백 명을 모아보기는 하였는데, 나는 어찌하여 한 사람도 모아보지 못하고 이 지경에 이르렀느냐"고 하면서 동지였던 이들의 구류 명령을 내렸다. 이어 홍건·안병찬·이상린·송병직·임승주 등 총 23명을 구금하였다. 구금된 안병찬은 구차하게 살아 뭇 소인들로부터 욕을 당하느니 차라리 머리를 온전히 하여 죽는 것이 낫다고 칼로 목을 찔러 자결을 기도하였다. 임승주의 극진한 간호로 이튿날 새벽에 깨어난 안병찬은 문종이를 찢어서 목에서 난 피로 혈시를 지어 이승우에게 보냈다. 의병의 체포 소식을 듣고 군사를 인솔해 오던 서산 군수 성하영은 해미에서, 남양 부사 남백희는 서해상에서, 대흥 군수 이창세는 홍주군 경내에서, 전승지 김병억은 홍주 서문 밖에서 모두 회군하고 말았다.

12월 7일 서울에서 신우균이 군사 250명을 이끌고 내려와 김복한 등으로부터 진술서를 받았다. 12월 30일 수감자 23명은 결박당한 채 서울로 압송되었다. 압송되어가던 이들은 1896년 1월 1일 신례원에 도착하였다. 이때 이승우는 아관파천과 김홍집의 처형소식을 듣고 이들을 다시 홍주감옥에 구금시켰다. 집권세력의 붕괴에 사태의 추이를 주시하고자 한 때문으로 보인다. 김복한·이설·홍건·안병찬·송병직·이상린(이상 홍주6의사) 이외의 17명은 모두 무죄 석방되었다. 이때 동문(현 조양문) 위에는 "천지에 면목 없는 승우, 일월같이 빛나는 6군자"라는 글이 나붙었다. 1월 12일 김복한 등 6명을 압송하라는 법부의 훈령에 이들은 1월 17일 서울에 도착하여 한성재판소에 이송되었다. 남로선유사 신기선은 이 사건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에 온 지 한 달이 지난 2월 23일 고등재판소 재판장 이범진이 공초를 하였으



사진 7 | 홍주감옥

며, 같은 달 25일 김복한에게 유배 10년, 홍건·이상린·송병직·안병찬은 징역 3년, 이설에게는 장60을 선고하였다. 이어서 판사 김교헌은 이들을 불러들여 임금의 특지에 따라 전원 사면 석방시켰다. 이들이 홍주로 귀향함에 이승우는 이미 관찰사의 직을 떠나 있었다. 이설은 귀향한 즉시 한원진의 묘소에 제문을 바쳤으며 김복한은 보령의 산속인 길현으로 이사하여 후학을 지도하였다.

한편 관찰사한테 체포되지 않은 홍주지역 유생들은 의병의 재기를 시도하였다. 안창식은 관찰사의 소행과 더욱이 장자인 안병찬의 자결 기도 소식을 듣고 의병의 재기를 시도하였다. 1895년 12월 6일(음) 주위에 연락하여 창리(현, 청양군 화성면 창말) 앞 주점에 집결하도록 하였다. 청양군수 정인희는 12월 6일 정산읍에 진을 치고 의병을 일으켰다. 12월 7일 공주를 향해 진격하였으며, 정산 철마정 일대에서 공주부에서 파견된 관군과 전투를 벌였다. 정인희 부대에는 그가 이끄는 청양 관내의 군인 외에 김정하·이병승 등 유생들이 참여하였다. 이들은 철마정 전투에서 패퇴한 뒤 각기 흩어졌다. 이세영은 1896년 2월 아관파천 후 남포에서 의병을 일으켰다. 이때 같이 거의한 인사에는 황재현·이관·김홍제 등이 있다.

이 거의 역시 성공을 보지 못하고 패하고 말았으나 황재현의 참가는 의미하는 바가 크다. 황재현(1848~1903)은 1878년 무과에 합격하여 선전관에 올랐으며 1881년 이만손 등의 영남만인소에 이어 충청도 대표로 홍시중과 함께 척사소를 올렸던 인물이다. 그는 『조선책략』을 불태울 것을 비롯한 시무책을 주청하여 다른 상소자들과 함께 전라도 지도에 유배되었다. 1894년에는 동학군을 진압하기도 하였다. 그가 이세영과 함께 남포전투에 참여한 것이다. 홍주 유생 이근주는 김복한 등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진하여 구금당하려 하였으나 노모 때문에 형들에게 중지되었다가 서산 태안 방면에서 의병을 모집하던 중 의병장들의 석방 소식을 들었다. 그 후 청양으로 수사 조의현을 찾아 거의하려고 계획하였으나 수사마저 체포되어 뜻을 펴지 못하고 말았다. 그는 1910년 국치를 당하여는 왜놈의 백성이 될 수 없다면서 부모의 묘 앞에 '존화양이(尊華攘夷) 척사부정(斥邪扶正)' 이란 8자를 써놓고 자결하였다.

이와같이 1895년 홍주의병은 대의관과 척왜론에 입각하여 '거의소청(擧義掃淸)' 의 적극적인 태도로 반제국투쟁을 전개한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전기의병기 홍주의병의 민족보전의 투쟁정신은 일대의 유생층을 비롯한 농민층에게 민족의식을 고취시켜 주어 대규모 항일투쟁인 1906년의 홍주성전투를 가능하도록 하였다.

2) 1906년 홍주의병

(1) 의병의 봉기와 합천전투

1895년에 홍주의병을 주도하였던 안병찬·채광묵·박창로·이세영 등은 을사조약의 늑결 소식을 듣고 적극적인 의병투쟁을 통한 국권회복운동을 전개할 것을 다짐하였다. 특히 안병찬은

> 왜놈들에게 대권이 옮겨져 있으니 비록 천장의 상소와 백장의 공문서를 올린들 무슨 유익한 일이 있겠는가.

> 한갓 소용없는 빈말만 할진대 차라리 군사를 일으켜 왜
> 놈 하나라도 죽이고 죽는 것만 못하다.

라고 1906년 초부터 의병봉기를 추진하였다. 그는 동지들과 함께 의병을 초모하는 동시에 정산에 거주하고 있는 전 참판 민종식을 찾아가 총수의 책임을 맡아줄 것을 청하였다. 이때 안병찬은 이설·김복한 등과 먼저 협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설은 의병의 뜻을 묻는 안병찬에게 "목의 피가 이미 빠지고 다시 뿌릴만한 피가 없어서 그러는가" 라며 1896년 의병 후 체포되어 목을 찔러 자결을 기도했던 안병찬에게 적극적으로 의병을 권하였다. 또한 이설은 민종식에게도 편지를 보내 안병찬과 임승주 등이 영수로 모시고자 하니 이를 수락하여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책임을 맡을 것을 권하였다.

민종식은 을미사변 후 관직을 버리고 정산의 천장리에서 은거 중이었다. 그 역시 을사늑약의 소식을 듣고 상경하여 반대상소를 추진하였다. 그는 이설과 김복한이 묶고 있는 집에 찾아와 상소문을 기초해줄 것을 부탁한 바 있으나, 이들이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자 정산으로 내려와 있었다.

안병찬과 박창로·이세영은 3월 11일(음, 2월 17일) 정산의 천장리에 거주하는 민종식을 찾아가 이용규를 비롯한 지인들과 함께 민종식에게 의병대장 직에 오를 것을 청하였다. 안병찬과 박창로·이세영은 1906년 2월 28일 이세영 집에서 만났으며, 다음 날인 3월 1일(음, 2월 7일) 이들은 정산의 천장리에 거주하는 민종식을 찾아가 시사를 토론하였다. 이들이 3월 11일(음, 2월 17일) 천장리에 다시 그를 찾아갔을 때는 이미 많은 인사들이 그의 집에 와 있었다. 아마도 이들은 민종식이 그의 「심문조서」에서 밝히고 있듯이, 처남 이용규(李容珪)를 비롯한 민종식의 지인들이 아닌가 한다. 안병찬 등은 이들과 합세하여 민종식을 대장 직에 추대한 것으로 보인다.

민종식은 3월 15일(음, 2월 21일) 이를 받아들여 의병장에 올랐으며 박토 10여 두락을 팔아 5만 냥을 군자금으로 내놓았다. 민종식은 의진의 근거지를 정산의 천장리로 삼고 항전에 돌입하였다. 의병에 참여한 주요 인물로는 안병찬·이세영·채광묵·박창로 등과 이용규·홍순대·박윤식·정재호·이만직·성재한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격문과 각국의 공사에게 보내는 청원문과 통문을 작성하였다. 그중에서 현재 통문만이 전해진다. 이 통문은 안병찬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며 인근 사민들에게 보내어 의병참여를 호소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천지가 개벽한 이래로 나라가 망하고 땅을 잃은 일이 한없이 많지만 일찍이 군사는 있으되 한 번도 피를 흘리지 않고 활 한번 쏘아보지 않고서 담소하는 사이에 온 나라를 빼앗기는 오늘과 같은 일은 없었도다. 불쌍한 우리 국민들은 농사를 지으려 해도 경작할 땅이 없고 장사를 하려 해도 기술을 쓸 데가 없으니 장차 그놈의 노예가 되고 그놈들의 고기밥이 될 것이다. 아! 오늘날의 화를 누가 불렀는가. 진실로 그 이유를 캐보면 6, 7명의 적신들이 안에서 화를 만들어 나라를 들어다 남에게 준 것 아님이 없다. 동방의 피 끓는 남자로서, 누가 그놈들의 살을 씹어서 한을 씻고자 아니 하겠는가. (중략) 우리는 조석으로 분격하지만 한 손으로 하늘을 떠받들 힘이 없으므로 이에 큰 소리로 외쳐 팔방의 여러 뜻있는 군자들에게 고하노라. 원컨대 눈앞의 안일에만 끌리지 말고 바싹 다가온 큰 화를 맹성하여 하나하나가 사기를 진작하고 동성상응(同聲相應)하여 단체를 만들어 충신의 갑옷을 입고 인의의 창을 잡아 먼저 적신의 머리를 베어 저자에 걸어 조금이라도 신인(臣人)의 분함을 씻으며 만

국의 공사公使와 화합하여 일차 담판하되 우리의 자주적 국권을 잃지 말자. 장차 무너질 종묘사직을 붙들며 죽게 될 백성을 구하여 후세에 할 말이 있도록 한다면 천만 다행이리라.

민종식은 의진을 편성하고 광수장터(현, 예산군 광시면)로 진군하였다. 이들은 이곳에서 편제를 정하고 대장단을 세워 천제를 올렸다. 이때 편성한 의병 조직은 다음과 같다.

창의대장	민종식		
창의대장 종사관	홍순대	중군사마	박윤식
참모관	박창로	행군사마	안병찬
유회장	유준근	운량관	성재풍



사진 8 | 의병장 민종식

이들은 이튿날 바로 홍주로 향하여 동문 밖 하고개에 진을 쳤다. 그리고 홍주성 안에 살고 있는 일본인을 잡아오면 머리 하나에 1천 냥을 상금으로 주겠다고 하면서 홍주성공격을 명하였다. 그러나 관군의 저항에 오히려 대장소가 위태롭게 되어 다시 마을 밖으로 나와 진을 쳤다. 다음날 이세영이 의진에 도착하였다. 1896년 홍주의병에 참여한 후 군대에 들어가 계급이 부위에까지 오른 그의 참여는 의진으로서 큰 힘이 되었다. 의진은 다시 광시장터로 집결하여 군제를 바로잡고 병사들을 훈련시켜 공주를 공격하기로 하였다. 선두 부대가 묵방(일명 먹고개, 현재 청양군 비봉면 중묵리)에 이르렀을 때 공주부의 관군과 경병 2백여 명이 청양읍에서 휴식 중이라는 척후병의 보고가 들어왔다. 의병진은 진로를 화성으로 옮겨 합



사진 9 | 홍주성 안내판

천(현, 청양군 화성면 합천)에 진을 쳤다. 이 소식을 듣고 공주 주재 일본 헌병대가 급파되어 홍주군 관군과 함께 오후 6시 먹고개에 도착하여 탐문하고 10시경 합천 인근에 들어와 잠복하였다. 다음날인 3월 17일(음, 2월 23일) 오전 5시 의진은 이들의 공격을 받아 안병찬과 박창로를 비롯한 주요 인사들이 체포되어 의진은 해산되고 말았다. 이 합천전투에 대하여 《황성신문》은 자세히 보도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이 전투에서 체포된 의병은 정산군 출신이 5명, 홍주군 출신이 23명으로 모두 28명에 달했다. 정산군 출신 5명 중에 우사준과 정윤보는 범법 행위가 없었다 하여 곧바로 풀어줬지만, 서덕현, 이종봉, 이은명과 홍주군 출신 23명을 일 헌병이 압송하여 갔다. 이들 28명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정산군 출신 : 徐德玄 李宗鳳 李殷明(3명), 禹士俊 丁允甫
(2명은 현장 석방)

홍주군 출신 : 閔泳玉 李季化 禹在明 朴亨鎭 朴溫伊 崔利基
徐善明 崔景三 林相春 李春吉 吳正三 朴文

淑 尹澤善 徐景春 方煥德 姜順業 李斗星 韓
平心 朴用達 安炳瓚 朴宰煥 洪永燮 鄭德西

지금까지 안병찬의 기록을 토대로 안병찬이 체포되어 공주 감옥에 갇힌 것만을 알았으나, 이 기록을 통하여 그 외에도 28명의 명단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일본 헌병들은 이후에도 홍주 일대의 의병을 체포하였는데, 그 중에 홍주군 주동에 살고 있던 전판서 조동희가 의병의 운량관을 하였다 하여 그를 체포하여 공주부 감옥에 구속시키고 가택 수색을 하여 집안의 휴지까지 몰수해 갔다 한다.

(2) 홍산 지치에서의 재봉기

합천전투에서 패퇴한 의병들은 보령, 예산 등 각지로 흩어져 활동을 계속하였다. 이들 의병들은 이후에도 보령, 청라 등지에서 활동을 계속하였으며, 4월 중순에는 공주에서 파견된 순검에 의해 강경포에서 의병 곽건순과 심상관이 체포되기도 하였다. 의병들은 5월초에도 남포군 일대에 모여 있었다. 공주진위대 대장 이병은이 5월 4일 군부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남포군에 의병 4백여 명이 둔취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어서 의병들은 남포와 홍산 일대로 집결하였으며, 드디어 5월 9일(음, 4월 16일) 충청남도 홍산군 지치동(현, 부여군 내산면 지티리)의 주막에서 의병을 재봉기하기에 이르렀다.

의병장 민종식은 합천전투에서 탈출하여 각지를 잠행하다가 전주에 거주하는 친척 민진석 집에서 은신하던 중 이용규 등과 재기를 협의하였다. 곧이어 이용규가 초모한 의병을 중심으로 의병을 재기하였다. 이용규는 합천싸움에서 패한 뒤 전주, 진안, 용담, 장수, 무주 등지를 돌아다니며 의병을 모집하였다. 그는 여산에서 의진을 결성하고 지치로 와서 민종식을 대장에 재추대한 것이다. 민종식은 다시 대장에 추대되어 부대

를 정비하였다. 민종식은 이때 선봉장에 박영두, 중군장에 정재호, 후군장에 정해두를 임명하였다. 이들은 홍산 관아를 점령한 뒤 서천으로 행군하였다. 이튿날 비를 무릅쓰고 문장동으로 가서 묶은 뒤 5월 13일(음, 4월 20일) 서천읍에 도착하였다. 관아에 돌입한 의병부대는 서천군수 이종석을 감금시키고 양총 70여정을 획득하였으며 비인을 함락하고 남포에 가는 도중에 일본인 한명을 체포하였다. 의병은 남포에서 대대적인 전투를 벌였다. 남포의 관군은 공주부의 관군과 합세하여 요새인 남포성을 의지하여 반격하였다. 5일간이나 전투가 이어졌으며 의병부대는 남포성의 함락에 성공하여 남포군수를 감금시키고 병사 31명을 의병진에 귀순시켰다. 유회군 33명도 영입하였다. 의병부대는 이어서 남포 부근의 용동에서 일본인 석공 2명을 체포하여 그 중 한명을 총살하고 광천에 들어갔다. 광천에서는 유학자 서승태(徐承台)의 권유로 지역 부호인 박익병이 곳간을 열어 의병의 군량미를 제공하였다.

홍주의병은 결성으로 진군하여 하루를 지내고 5월 19일(음, 4월 26일) 홍주로 들어갔다. 홍주의 삼신당리에서 일본군과 싸워 이긴 의병부대는 구식 화포 2문을 선두에 내세워 홍주성을 포위 공격하였다. 의병



사진 10 | 홍주병오의병 주둔 유적비(구항면 황곡리)

은 남문에서 일본 헌병과 총격전을 벌였다. 오후에 서문으로 부대를 진격시키자 일본 헌병들이 동문을 통해 덕산 방면으로 도주하였다. 드디어 의병들은 5월 20일 아침에 홍주성을 점령하였다. 이때 신문천과 천학순이 하수구를 통해 성에 들어가 4대문을 열어 의병의 입성을 가능하게 했다고 한다. 일본군의 보고에 의하면 이때 의병은 5백여 명에 달했다. 의병은 홍주성을 점령한 후 총기와 탄약, 그리고 우편국에 있는 금품을 확보하였다. 홍주성을 함락시키자 신보균·신현두·이식·안항식·김상덕·유호근 등 각지 인사들이 차례로 집결하였다. 의병진에서는 진용을 정비하고 소를 잡아 천제를 지냈다. 이때 새로 조직한 편제는 다음과 같다.

표 1 | 홍주의병 편제표

대장	閔宗植
군사장	金商悳*
참모장	金光佑 趙羲洙 蔡光默
중군장	鄭在鎬 黃英秀 李世永
유격장	蔡景燾(崔景燾*) 金光鉉 尹相培 李萬植*
좌군장	尹弼求 尹炳日 宋淳默
우군장	李秉季 李範九 洪淳大
소모장	池禹範 朴斗杓* 崔相集* 申錫休* 金尹植*
소모관	李晩稙
수문장	崔璇在
수성장	趙炳舜
선봉장	李南珪 朴永斗
후군장	鄭海斗
서기	文奭煥
운량관	成載斗* 朴齊順*
향관	朴允植
좌익장	李相九 金成鎭*
우익장	申鉉斗 李鳳奎*

참모	安炳瓚 朴昌魯 安恒植 申輔均 李容珪*
유병장	柳濬根
유병소향관	閔廷植
참모사	李忒
돌격장	南奎鎭 安炳琳 郭漢一

참조 | 이름 뒤에 * 표시한 이는 「민종식심문조서」에 기록된 인물임.

민종식은 홍주성을 점령하고 나서 인근의 각 군수에게 훈령을 내려 양식과 군기의 징발과 징병의 일을 지시하였다. 이때 해미 군수만이 포군 10명과 약간의 군자를 보낸 것으로 나와 있다. 또한 민종식이 체포된 후 진술한 바에 따르면, 그는 홍주성을 점령하고 나서 상주문을 작성하여 이민학에게 주어 고종에게 올리도록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상주문의 내용에는 을사5적과 이토 히로부미를 주륙할 것과 거의한 뜻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한다. 그러나 이민학이 서울에 도착하기 전에 홍주성이 일본군 수중에 떨어지고 말아 이 계획은 중지되고 말았다. 홍주의병에 대한 고종황제의 태도는 호의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고종이 의병의 홍주성 점령을 듣고서 의병이 의로움을 지켰다



사진 11 | 병오항일의병 기념비(홍주성 남산공원)

면서 의병을 '늑멸' 해서는 안되고 효유할 것을 지시한 것을 보아 짐작된다. 이에 따라 관군의 적극적인 진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일본군의 대응은 무자비한 군사적 진압작전이었다.

(3) 홍주성전투와 일본군의 의병학살

일본군은 5월 20일부터 공주의 고문부 경찰과 수원의 헌병부대가 증파되어 홍주성을 공격하였다. 그러나 의병은 굳건한 성벽을 이용하여 이들의 총격에 잘 대응하였다. 당시 일본의 보고서에 의하면, 일본 경찰대는 3정(약 327미터) 떨어진 언덕에서 홍주성을 공격하였으나 의병의 저항이 거셌다.

5월 21일 일본 경찰대에서 경부와 보좌원 순검 13명이 성을 향해 총을 쏘며 공격하였지만, 의병 측에서는 대포를 쏘아 이들을 공격하여 물리쳤다. 일본 경찰대는 대흥 지역으로 패퇴하였는데, 이 전투에서 순사 사다케(佐竹)가 부상을 당하여 서울로 호송되었다. 22일에는 서울 경무고문부의 키리하라(桐原) 경시 등 총 21명이 증파되었다. 이들 일 헌병은 24일 공주진위대에서 파견한 57명의 조선병과 함께 의병을 공격하였으나 역시 패퇴하였다. 이날 통감부 경무고문 마루야마(丸山重俊)가 홍주로 내려와 의병의 형세를 살폈다. 그러나 의병은 27일에 히지카타(土方源之助)경부와 송규석 총순을 비롯한 일본 경찰을 체포하였으며, 이때 체포된 일본인 3명과 일진회원 2명은 민종식의 명령에 따라 5월 29일 밤에 처형되었다. 친일정부에서는 홍주의병을 진압하기 위하여 공주에서 20명을, 청주진위대에서 위관 1명과 병정 50명을 홍주로 파견하였다.

이와 같이 몇 차례의 일본경찰과 헌병대의 공격에도 전세가 의병 측에 유리하게 전개되자 통감 이토는 주차군 사령관에게 군대파견을 명령하였다. 사령관 하세가와(長谷川好道)는 5월 27일 대대장의 지휘 아래 보병 2개 중대를 홍주에 파견하여 경찰과 헌병 그리고 진위대에게 협조토록 훈령하였다. 이에 보병 제 60연대의 대대장 다나카(田中) 소좌 지



사진 12 | 조양문(홍주성 동문)

휘 하에 보병 2개 중대(약 400명)와 기병 반개소대 그리고 전주수비대 1개 소대가 합세하여 30일 홍주성을 포위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의병 측에서도 방어태세를 정비하였다. 29일에는 곽한일과 남규진의 부대 400여명이 홍주성에 입성하였다. 홍주성의 포위정보를 듣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달려온 것이다.

그러나 일본군은 우세한 화력과 전투경험이 많은 병사들이었다. 이들은 다나카 소좌의 지시에 따라 30일 밤 11시에 동문으로부터 약 500미터 지점의 숲속에 잠복하였다. 31일 오전 2시 반 공격을 개시하여 3시경에 기마병 폭발반이 동문을 폭파하였다. 이를 신호로 하여 일본 보병과 헌병대, 경찰대가 기관포를 쏘며 성문 안으로 진입하였다. 또한 2중대 1소대와 4중대 1소대는 각각 갈매지 남쪽고지와 교동 서쪽 장애물 도로 입구에서 잠복하여 의병부대의 퇴로를 차단하였다. 이때 의병 측에서는 성루에서 대포를 쏘면서 대항하였으나 북문도 폭파되어 일본군이 들어왔다. 의병은 치열한 시가전을 감행하면서 방어했으나 결국 일본군의 화력에 밀려 많은 사상자를 내고 처참하게 죽어갔다. 일본군이 홍주성을 점령하고 나서 탈취한 의병 측의 무기를 보면, 대포 79문, 소총 236

자루, 총신 340개, 창 574자루, 환도 50자루, 그리고 깃대 80개가 있었다. 이로 보아 홍주의병의 화력은 결코 약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미 러일전쟁 등 실전 경험이 있는 일본 정규군 2개 중대 이상의 공격에 몇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패전하였다.

전투가 있은 다음 날인 6월 1일 쓰루하라(鶴原) 총무장관이 이토 히루부미에게 전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 방금 홍주성에 출정중인 지휘관 岩田 소좌로부터 다음과 같은 전보가 도달하였습니다. 예정대로 어제 30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정찰을 실시한 다음 오늘 오전 3시에 동문 및 북문의 두 성문을 파괴하고 약간의 격렬한 시가전을 치른 후 오전 7시 반에 성 전체를 점령했음. 우리 측의 사상자는 경상자가 2명이고, 적의 사망자는 60명임. 현재의 포로는 127명이고 또한 계속하여 포획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賊將은 아직 찾지 못함. 서남쪽으로 도주한 의심이 감. 패잔병에 대하여는 현재 이들을 계속 추격하고 있음. 노획품의 수는 조사 중임. 포로의 말에 의하면 적병의 수는 약 1천명이라 함. 적에게 잡혔던 일본인은 참살되어 있는 것을 발견함.

이에 의하면 의병의 총수는 1천여 명이었으며, 이 중에 전사자가 60명, 포로가 127명임에 비해 일본군의 피해는 경상자 2명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6월 4일에는 의병 포로를 145명으로, 전사자 수를 82명으로 수정하여 보고하고 있다. 또한 홍주성전투 직후 부임한 홍성군수 윤시영의 일기에 의하면, 홍주성이 일본군에 의해 점령된 후 자신이 군수로 부임한 후에도 일본군이 의병을 형틀에 매달고, 또 총살하는 것을 보았다

고 기록하고 있으며, 의병 전사자 83명을 매장하였는데, 윤4월 17일(양, 6월 8일)에도 또 목 잘린 자 15인을 찾아내어 매장하였다고 적고 있다. 이로보아 일본군이 82명이라고 제출한 보고서는 신빙할 수 없다.

홍주성전투에서 희생된 의병의 수에 대하여 자료마다 적게는 80여명에서 많게는 1천여 명이라 하여 상이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의병의 중심에 있었으며, 체포된 직후 기록한 유병장 유준근의 『마도일기』에서 3백여 명이 전사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이 전투에서 참모장 채광묵 부자와 운량관 성재평과 전태진, 서기환, 전경호를 비롯하여 300여 명 이상이 전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이 희생자가 많이 나온 것은 일본군의 무자비한 학살 작전 때문이지만, 한편으로는 홍주의병 지휘부의 전술상의 실책이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의병 1천여 명이 좁은 홍주성에 웅거하고 있었는데, 결국 실전 경험이 많은 일본군의 우세한 화력과 치밀한 공격으로 단일 전투 중에서 최대의 희생자를 내고 말았다.

홍주성 전투에서의 의병의 참상은 일본경찰의 보고서에서 "적이 혼비백산하여 난사하는 한밤의 포성은 우리의 함성과 서로 어우러져 그 처절함은 말로 형언하기 어렵다"라고 표현하고 있듯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 더욱이 일본군은 기마병을 시켜 의병을 추격 사살케 하였으며, 체포된 의병을 고문하고 심지어는 '작살 (斫殺)' 하는 잔인한 짓을 저질렀다. 홍주 군수 윤시영의 일기에 의하면 이때의 참상이 잘 나타나 있다.

> (윤4월) 초9일, 새벽에 홍주성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는데 사상자는 몇 백 명인지 알 수 없으며, 4방 수십 리 지경 이내는 인적이 끊기고 잡힌 사람이 160여명인데 모두 차례로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들으니 심히 참혹하였다.
>
> 12일, (전략) 성에 수십 보 가까이 가니 일 헌병이 서서 막고 물리친다. 명함을 보이고 입성하니 안팎에 우리

백성은 하나도 없고 첩혈모인(踕血冒刃)이라. 먼저 객사를 봉심한 즉 일병이 잡스럽게 거처하고 양초(糧草)를 쌓아두고, 또 형을 틀고 포살(砲殺)하는 등 더럽기 이를 데 없더라.

> (중략) 길옆에 서서 거처를 알지 못하여 수서기(首書記)에게 명하여 겨우 빈집 하나를 얻었다. 촛불을 들고 방에 들어가니 피비린내가 코를 찌르고 창과 벽 사이에 피 자욱이 난자하니 이곳이 사람을 작살(斫殺)한 곳임을 알겠더라.

라고 하여 몇 백 명의 사상자가 나왔으며, 체포된 자도 살육하였으며, 심지어는 밀폐된 방에서 의병을 '작살' 하기까지 하였음을 알려주고 있다.

일본군은 계속하여 의병을 체포하였다. 그 중에 유준근과 윤석봉 등 78명을 서울로 압송하였다. '충청남도지휘관' 이기홍이 '광무10년 6월 5일' 자로 군부대신 이근택에게 올린 '보고 제2호'에 의하면 다음의 78명의 명단과 나이, 거주지, 그리고 의병 직책이 나와 있다.

표 2

번호	이름	나이	거주지	비고	번호	이름	나이	거주지	비고
1	趙元熙	26	홍주 大石面		11	安恒植	49	홍주 화성면	유배,애국장
2	張基玉	29	충주 庄院		12	孫永萬	33	홍주 서문외	(禮吏)
3	徐致爵	44	대흥 남면		13	洪致先	37	홍주성내	
4	鄭行畯	20	신창 대서면		14	尹南甫	25	홍주 서문외	
5	尹容元	47	남포 웅천면		15	俞永元	35	홍주 남문외	
6	尹明甫	27	홍주 亭子洞		16	金永泰	35	공주 元面	
7	金現佑	45	임천 加火面	?	17	李尙童	23	태안성내	
8	崔日成	44	홍주 海城里		18	文奭煥	36	비인 浦城	유배,애국장
9	李熙哲	33	결성 土山	의병20인장	19	崔重一	59	남포 篁洞	
10	李三奎	64	덕산 남면	의병	20	李命錄	40	홍주성내	

번호	이름	나이	거주지	비고	번호	이름	나이	거주지	비고
21	金道三	45	홍주 동문외		50	柳濬根	47	결성 淡山	유배,애국장
22	李聖三	35	홍주 북문		51	申鉉斗	21	홍주 화성면	대마도유배
23	崔元燮	40	공주 白塔洞		52	金甲得	28	홍주 서문외	간첩
24	李敬八	32	홍주 洪元面		53	金秀明	53	덕산 羅村面	집창
25	金永郎	17	홍주 동문외		54	趙德昌	64	덕산 남면	
26	崔成集	43	홍주 남문외	유배(崔相集), 애족장	55	申元甫	53	정산 大峙	
27	朴元順	28	홍주성내		56	李萬伊	38	당진 校洞	
28	朴煥鎭	49	홍주성내		57	林鵬魯	21	대흥 남면	
29	李順成	28	홍주 북문외		58	金順汝	32	경 서소문외	
30	申周龍	19	홍주 삼거리		59	梁道心	30	연산 於乙里	
31	孫太正	50	홍주 서문외		60	姜成京	38	남포 大德동	
32	李泰鎬	50	결성 杜里		61	洪致云	50	온양 松鶴洞	槍組
33	金永煥	50	덕산 鷹峙		62	李定輔	30	홍산 外北面	
34	俞圭煥	44	홍주 동문외		63	田明淑	24	결성 龍月面	
35	崔元成	26	홍주 서문외		64	李載鈞	32	홍주 得峴	
36	李在鳳	37	홍주성내		65	申輔鈞(均)	48	홍주 동면	유배,애국장
37	吳興萬	25	홍주성내		66	林德元	45	덕산 서문외	
38	韓聖寅	26	홍주 동문외		67	黃致道	34	덕산 陽村	炊飯夫
39	禹聖七	43	부여 元塔		68	高昌辰	33	덕산 성내	
40	李順甫	43	홍주 동문외		69	李洛吉	50	홍주 성내	
41	李汝享	19	홍산 海岸面		70	李喜龍	65	홍주 북문외	
42	黃月奉	17	홍주 남문외		71	吳命善	50	면천 漁川	
43	金聖必	57	홍주 川邊里		72	朴汝三	44	대흥 남면	모사
44	金成夏	32	홍주 板溪洞		73	車聖國	37	서천 남면	閔대장 마부
45	李鍾玉	45	결성 柿谷		74	金順吉	27	결성 銀河面	초병
46	李鳳鍾	22	홍주 동문외		75	高雙錫	27	결성 江川面	
47	南敬天	44	예산 今平面	중군장,유배(남규진)	76	李相斗	65	홍주 於洞	탄약제조, 유배(李相龜), 애국장
48	尹錫鳳	65	남포 웅천면	참모	77	李鍾煊	34	홍주 서문외	
49	李伋	38	정산 聖嘉洞	유배,애국장	78	李宗祿	23	홍주성내	



사진 13 | 홍주9의사 유폐지(하치만신사 뒤편의 민가)

이들 포로들은 윤시영 군수의 기록에 의하면, 모두 "'하등인' 이었으며 똘똘한 자는 10명에 이르지 못했다"라 한 것으로 보아 약간의 유생들이 있으나 대부분은 평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일본군 사령부의 심문을 받고 7월에 석방되어 귀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유병장 유준근을 비롯하여 소모장 최상집, 좌익장 이상구, 참모 안항식, 돌격장 남규진, 참모 신보균과 이식, 서기 문석환, 그리고 우익장 신현두 등 9명(홍주 9의사)은 8월 6일(음, 6월 17일) 대마도로 유배되어 이즈하라(嚴原)에서 감금생활을 하였다. 이들의 대마도 유배는 통감 이토히로부미의 지시에 의해 자행되었다. 이토는 체포된 홍주의병 중에서 4, 5명을 사형에 처하고자 하였으나, 가혹하다는 비판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이들을 종신형에 처하고 이들을 포함하여 9명의 의병장을 대마도에 유폐시키기로 한 것이다. 이들 9명 중에 유준근과 이식, 남규진, 신현두는 7월 17일 종신형을 선고받았으며 이상구는 15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이 이토가 언급한 4, 5명으로 보인다. 여기에 최상집, 문석환, 신보균, 안항식 등 4명이 추가되어 모두 9명이 대마도에 유폐되었이

다. 이들은 8월 7일 부산으로 이동하여 대마도 행 선편을 이용하여 8월 8일 대마도 이즈하라항에 도착하여 감금되었다.

일본군은 이후 홍성에 1년 이상 주둔하면서 부녀자를 농락하고 동물을 잡아먹는 등 야만적인 행태를 자행하였다. 심지어는 갓 결혼한 신부를 잡으려고 대낮에 이집 저집을 뒤지는가 하면, 돌아다니는 닭을 보면 총질을 하여 닭을 잡아가는 등 행패를 벌였다. 일본군은 이 전투에서 양민을 학살하였으며 홍주지역에 일본인을 이주시킬 것을 계획하기까지 하였다. 《대한매일신보》에서는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다.

> 홍주군 정형을 들은즉 일본군대가 의병을 습격할 때 의병은 기미를 알고 흩어져 모두 제거하지 못하고 무고한 거주민을 남기지 않고 도륙하고 일로전쟁시 만주를 점령함과 같이 일본인민을 점차 이주케 할 계획이라 하니 한 사람의 무고한 백성을 죽이고 천하를 얻어도 사람들이 참지 못하는 바이어 늘 하물며 한 州의 무고한 생명을 학살하고 한 성을 점령했으니 이를 가히 참을 수 있겠는가. 우리는 너무나 비참하고 눈물이 흘러내려 할 말을 잇지를 못하겠다.

이 신문 기사의 내용대로, 실제로 홍성시내에는 일본인이 이주되어 행세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대하여 손재학은 홍주성전투 직후에 홍성시내에 일본인이 배로 늘어났다고 회고하였다.

(4) 홍주성전투 후의 의병 재기와 항일투쟁

홍주성전투에서 탈출한 홍주의병들은 이후에도 부여, 정산, 당진 등지로 흩어져 산발적으로 의병투쟁을 지속한 행적들이 여러 곳에서 나타난다. 민종식을 비롯한 지휘부는 성을 빠져나왔다. 이용규는 그해 7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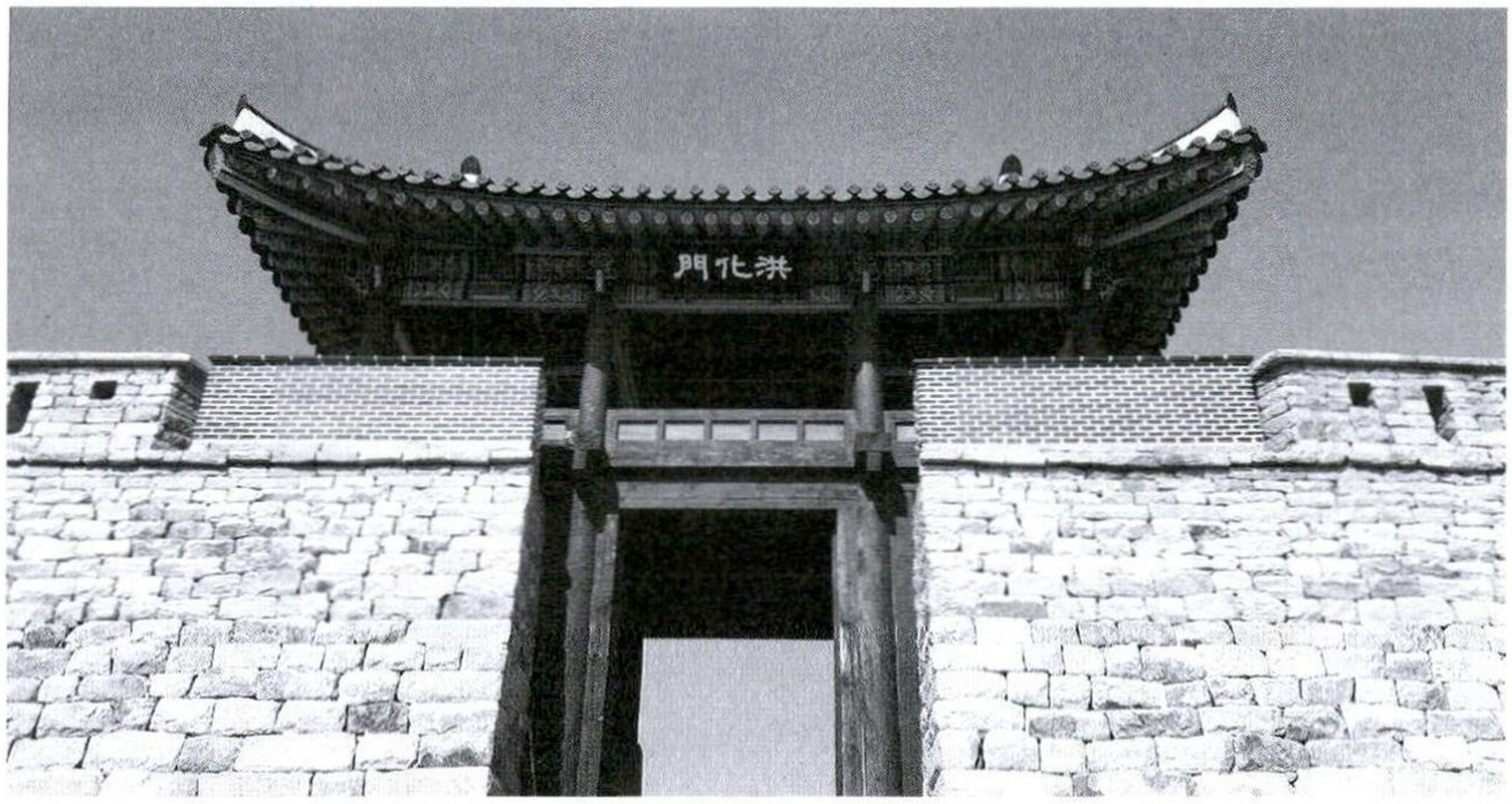


사진 14 | 홍화문(홍주성 남문)

에 청양의 추티에서 의병을 재집결하여 부여와 노성 지역을 행군하여 연산의 부흥리에서 일본군과 교전하였다. 이때 조병두는 중상을 입고 체포되어 대전역에서 사망하고 말았으며, 채경도 오상준 등은 공주부에 갇혔다. 이용규는 그해 10월경에 예산 현곡(지금의 대술면 상항리)에 있는 이남규의 집으로 가서 민종식 등을 만나 재기를 추진하였다. 이때의 지휘부는 대장에 민종식, 중군장에 황영수와 정재호, 운량관에 박윤식, 참모에 곽한일·이용규·김덕진으로 편제하였다. 이들 외에도 이남규·박덕일·안병찬·박창로·이세선·윤병일·윤필구·조희수 등이 참여하였다. 이들은 11월 20일 예산을 공격하여 활동의 근거지로 삼기로 결정하고 민종식을 다시 대장에 추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그러나 일진회원의 밀고로 11월 17일 새벽에 일본헌병 10여명과 지방병 40여명, 그리고 일진회원 수십 명의 포위 습격을 당하여 곽한일·박윤식·이석락 등이 체포되었다. 이남규·이충구 부자도 함께 체포되어 온갖 악형을 당하였다. 이때 체포된 곽한일을 비롯하여 박윤식·김덕진·정재호·황영수·박두표 등은 종신 유배형을 받고 지도(전라도 신안군)로 귀향갔으며, 홍순대와 김재신은 고군도(전북 옥구군 미면)로 귀양갔다. 한편 안병찬·박창로·최

선재·윤자홍 등 수십 명은 공주감옥에 감금되었다. 민종식은 미리 신창군 남상면의 성우영 집으로 대피하였다가 다시 공주 탑곡리 쪽으로 피신하였다. 일본경찰대는 신창에서 김덕진과 신창규를 체포하여 고문 한 끝에 민종식의 은신처를 알게 되어 결국 민종식은 11월 20일 체포되어 공주부에 잡혀 갔다. 그는 서울로 압송되어 1907년 7월 3일 교수형을 선고 받았으나 다음날 내각회의에서 종신유배형에 처해져 진도에 종신 유배되었다. 이로써 예산에서의 재기는 좌절되고 말았다.

한편 우군관 홍순대는 1906년 11월초 부여군 은산면에서 80여명을 규합하여 의병을 재기하였다. 남포의 성문에는 '의병대장 송' 이라는 이름으로 군수 이철규의 처단을 경고하는 방문이 나붙었다. 청양의 안병찬과 박창로, 면천의 이만식, 서산의 맹달섭, 전라도 출신인 강재천 등도 홍주성전투 후에 충청도와 경기도 일대에서 항쟁을 지속하였다. 서산의 성연 출신인 맹달섭은 1906년 5월 홍주의병에 투신하여 북문의 수비대장이 되어 히지하라(土方) 경시를 죽인 공을 세운 인물이다. 그는 홍주성전투 후 박창로, 이만식, 강재천 등과 함께 정산의 칠갑산에 근거지를 두고 활동하였다. 그는 칠갑산전투에서 일본수비대와 격전을 벌여 패주하였으나, 이때 체포된 의병 신여도 외 1명을 부여주재소 유치장에서 탈옥시켰으며, 1907년 1월말 경에는 김광옥 등 70여명의 의병을 이끌고 부여군의 일본인 가옥을 습격하여 일본인 3명을 사살하였다. 그는 일본군의 추격을 받아 경기도 죽산의 쌍령으로 가서 1907년 음2월 21일 윤필구 의병과 합세하고 서울의 해산군인을 받아들여 자신이 '포대장'이 되어 광주, 용인, 안성, 양성 일대에서 활동하였다. 일본군의 공격에 당진으로 피신하였으며 풍도와 안면도 부근에까지 이동하면서 활동하였으며, 1907년 음5월 7일에는 당진주재소를 습격하여 일본인 순경 1명을 사살하였다. 그는 일본군의 추격을 피하여 의병 15명을 이끌고 공주군 신상면 탑산 산속으로 피신하여 있던 중 민창식·이교철 등과 다시 재기하여 대흥, 서산, 해미, 직산, 안성 등지에서 활동하다가 1910년 3월

11일 청양군 점주리 이장 박동훈 집에 은신해 있다가 유구파출소 순경에 의해 체포되었다. 청양의 장곡 출신인 김동락과 김무경도 1906년 3월부터 민종식 의진에 참여하였다가 홍주성전투 후에도 정산과 청양·부여 등지에서 계속 의병 투쟁을 전개하다가 1909년 7월 일본 헌병대에 의해 체포되었다. 또한 홍주성에서 패한 차상길 등 15명은 당진 소난지도에 들어가 의병투쟁을 계속하였다. 면천 출신의 최구현 의병장의 묘지명에 의하면, 최구현이 당진의 기지시에서 창의하여 소난지도에서 웅거하고 있을 때, "윤4월 15일(양, 6월 6일, 필자) 차상길 등 15명이 도착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어 홍주성전투 후의 차상길 등의 활동상을 알려준다.

이와 같은 의병의 재기 움직임에 일제는 불안을 느끼고 이남규와 김복한 등 이 지역의 중요 인물들에 대한 감시와 학대를 강화하였다. 이남규(李南珪)는 민종식의 제의를 받고 홍주의병에 참여하였으며, 의병이 홍주성전투에서 패하자 예산에서 의병 재기를 준비하였다. 그러나 일진회원의 밀고로 1906년 11월 17일 새벽에 체포되어 공주감옥에서 온갖 악형을 당하였다. 일제는 1907년 9월 26일 기마대를 보내 그를 체포하여 서울로 압송해 가던 중 온양의 외암리에서 학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김복한에 대해서도 1906년 11월 민종식과 의병을 밀의하였다고 하여 구속, 악형을 가하였다. 김복한은 그해 11월말 풀려났으나 1907년 10월 보령군의 순사보조원 2인과 순검 1인에 의해 또 체포되어 보령군의 관노청에 구금되었다. 죄명은 민심선동죄였다. 더욱이 이들에 의해 공주 감옥으로 이송되는 도중 조현에서 보조원들이 의병의 소재지를 대라면서 구타하고 총을 쏘아 죽이려 하였다. 다행히 순검 정원조가 총대를 밀쳐서 탄환이 빗나가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 김복한은 풀려난 후 1910년 국망을 당하자 죄인으로 자처하여 은거생활을 하다가 3·1운동에 유림계의 인물이 민족대표에서 빠진 것을 수치로 생각하고 파리장서운동을 전개하였다. 이 장서에 김복한 외에 안병찬, 김덕진, 전양진, 임한주 등 의병의 동지들이 서명하였으니 홍주의병은 3·1운동으로 계승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의병장의 활동

1906년 홍주의병은 많은 희생자를 낳았다. 그중에 홍주성전투에서 전사한 채광묵, 서기환 등이 있으며, 일본 기마대에 끌려가다가 학살당한 이남규 부자도 있다. 또한 체포되어 옥고를 치르거나 대마도에 유폐되었던 인물들 중에서 이세영, 이용규, 곽한일, 이식 등과 같이 국망 후 만주로 망명하여 무장투쟁을 전개하거나 국내에 남아 독립운동을 전개한 이들도 있다. 이들의 활동을 살펴보기로 한다.

채광묵(蔡光默, 1850~1906)은 홍주 매평리에서 태어났다. 부친 동식東軾은 시문에 뛰어나 향리사람들이 화남선생(華南先生)이라 칭하였다. 채광묵은 1895년 8월 을미사변이 발발하고 단발령이 내리자 안창식과 함께 거의할 것을 서약하고 민병 180명을 모집하여 12월 1일(양력 1896년 1월 5일) 홍주성으로 들어갔다. 12월 3일 김복한을 총수로 추대하고 이창서와 함께 남면 소모관으로 파견되었다. 그러나 이승우가 이속들의 유혹에 넘어가 이튿날 김복한·이설 등을 체포한 후 의병관계자들을 차례로 구속하였다. 채광묵은 마침 소모 차 외지에 나가 있었으므로 화를 면할 수 있었다. 1905년 을사조약이 늑결되자 안병찬과 협의하여 의병을 일으키고 전 참판 민종식을 의병장에 추대하였다. 홍주성을 공격하고 합천전투에서 패퇴했으나, 1906년 5월 11일(음 4월 18일) 홍산 지치에서 재기하였다. 홍주의병은 남포전투에서 승리하고 5월 20일 아침에 홍주성을 점령하였다. 민종식은 의진을 재편성하였는데, 채광묵은 김광우·조희수와 함께 참모장에 임명되었다. 홍주의병은 일본 경찰대의 공격을 대포를 쏘아 이들을 물리쳤다. 그러나 주차군 사령관 하세가와의 명령에 따라 파견된 일본군 2개 중대가 5월 30일 홍주성을 포위, 공격하였다. 채광묵은 병으로 힘든 상태였으나 연일 공방전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치병에 힘 쓸 형편이 못되었다. 채광묵의 아들 규대(奎大)도 부친을 쫓아 함께 참전하였다. 일본군은 다나카 소좌의 지시에 31일 새벽 2시 반 공격을 개시하여 3시경에 기마병 폭발반이 동문을 폭파시켰다. 이

때 의병 측에서는 성루에서 대포를 쏘면서 대항하였으나 북문도 폭파되어 일본군이 쳐들어왔다. 의병은 치열한 시가전을 감행하면서 방어했으나 일본군의 화력에 밀려 수백 명의 사상자를 내고 홍주성을 일본군에 점령당하고 말았다. 이 전투에서 채광묵 부자는 성중으로 들어오는 적을 막다가 불에 타 순국하였다. 그의 유해를 확인할 수 없어 의복을 수습하여 청양의 신왕리 압수동 산록에 장사지냈다.

서기환(徐基煥, 1849~1906)은 홍성군 광천 출신으로 본관은 연산이다. 이남규의 문인으로 알려진다. 1906년 홍주의병에 참전하여 민종식으로부터 동문 영관에 임명되었다. 일본 군경은 홍주성을 공격하였으나 홍주의병은 이를 물리치고 일본 경찰을 체포하여 처형하였다. 마루야마(丸山) 경무부의 고문이 비밀리에 홍주에 내려와 의병의 형세를 살피고 돌아갔다. 통감 이토(伊藤博文)는 보고를 받고 주차일본군 사령관에게 일본 수비대의 파견을 명령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군 보병 제60연대의 대대장 다나카 소좌가 인솔하는 보병 2개 중대 약 400여명과 기병 반개 소대 그리고 전주수비대 1개 소대가 합세하여 5월 30일 홍주성을 포위 공격하였다. 의병대는 성루에서 대포를 쏘면서 대항했으나, 일본군은 남문과 북문을 폭파하고 성안으로 쳐들어왔다. 시가전이 벌어졌으며, 일본군의 화력에 밀려 수많은 의병들이 희생되었다. 유병장이었던 유준근의 기록에 의하면, 이 홍주성전투에서 3백여명의 의병이 희생되었다 한다. 서기환은 동문을 수호하며 끝까지 용맹하게 항전하였으나 장렬히 전사 순국하였다.

이남규(李南珪, 1855~1907)는 고종 19년(1882) 4월 문과에 응시한 이후 성균관 교수, 동부승지 등으로 있으면서 위정척사론의 입장에서 개화정책을 비판하였다. 그는 개화파의 이른바 개화를 '왜화(倭化)'로 보았으며, 결국은 일제에게 종속될 것을 경계하였다. 특히 1894년 이후 일제의 조선침략이 노골화되자 민족의 자주독립을 위한 대일결전론을 주장하였다. 그는 일본군에 의한 경복궁 점령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나라 군



사진 15 | 수당 이남규 고택

대가 도성 안에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편안히 앉아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라면서 갑옷을 수선하고 병기를 손질하여 일본군의 침략에 대비할 것을 주청하였다. 영흥부사로 있던 때인 1895년에 을미사변의 비보를 접하고 관찰사에게 '토적복수' 할 것을 청하였으며, 고종에게 상소를 올려 '주욕신사(主辱臣死)' 의 정신으로 반드시 복수해야 함을 피력하였다. 그리고 일본군을 물리칠 것을 주청하였다. 그는 결국 자신의 뜻이 관철되지 못할 것을 탄식하면서 관직을 버리고 낙향하였다. 낙향해 있던 그에게 조정에서는 1896년 3월 4일 안동관찰사의 직을 제수하였다. 그에게 안동의병을 진압하고 주민을 위무해달라는 개화정권의 주문이 숨어 있었다. 이남규는 조정의 명을 거역하지 못하고 임지를 향해 떠났다. 그러나 그는 안동관아에 들어가기 전에 일본군에 의해 안동의 민가 1천여 호가 소각되는 만행을 목도하였다. 그리고 상소를 올려 관찰사의 직을 사직하고 귀향하였다. 1905년 11월 19일 을사조약이 늑결되자 병중이었으나, 생애 마지막의 반일상소를 올렸다. 여기에서 그는 일본을 우리의 '대대의 원수' 라고 분명히 규정하면서 "동맹 각국에 포고하고 군신상하가 일대 결전을 벌이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일본과의 결전을 건의하였다. 홍주의병이 일어나자 그

는 민종식의 제의를 받아들여 의병에 참여하였다. 우선 홍주의병의 핵심 인물인 안병찬의 구명운동을 전개하였다. 그의 노력으로 안병찬은 민종식이 홍산의 지티에서 재기하기 4일전인 5월 5일 석방되어 민종식 의진의 참모사로서 다시 종군할 수 있었다. 홍주의병이 홍주성을 점령하였을 때 이남규는 선봉장의 직임을 맡았다. 그러나 5월 31일 새벽, 통감 이토의 명령으로 파견된 일본군의 대공격이 있었다. 의병은 결사 항전했지만 다수의 희생자를 내고 홍주성을 빼앗기고 말았다. 이남규는 예산에서 의병 재기를 준비하였다. 그러나 일진회원의 밀고로 1906년 11월 17일 새벽에 체포되어 공주감옥에서 온갖 악형을 당하였다. 일제는 의병의 재기 움직임에 불안을 느끼자 1907년 9월 26일 일본기마대를 보내 예산의 이남규 집을 급습하고 공주감옥에서 석방된 지 10여일도 안된 그를 다시 체포하러 온 것이다. 이남규는 사당에 들어가 조상에게 예를 올리고 가족에게도 영결을 고했다. 그를 서울로 압송해 가던 일본군은 그에게 단발할 것과 귀순할 것을 강요하였으며, 이를 강하게 거부하는 이남규를 온양의 외암리에서 학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그의 장자는 일본 병이 휘두르는 칼을 몸으로 막다가 부친과 함께 숨졌다. 이어 두 종이 맨손으로 덤벼들다가 그 중 김응길은 현장에서 주인을 따라 일본 병에 의해 숨졌다. 또 다른 종인 가수복은 김응길과 함께 이남규를 방어하다가 중상을 입고 다행히 목숨을 건졌다. 이남규의 피살 소식은 전국으로 퍼져 나갔다. 당시 신문 중에서는 대표적인 항일민족지였던 『대한매일신보』에서 이 사실을 게재하여 민족적 분개심을 고취하였다. 이남규 부자의 순국 사실은 순식간에 전국에 알려졌다. 그 결과 전라도에서 은거하고 있던 황현이 『매천야록』에 그 사실을 자세히 싣고 있으며, 조희제 역시 그의 『염재야록』에서 이남규의 순국 사실을 자세히 기록하였다.

이세영(李世永, 1869~1938)은 아산 출신으로 1895년 의병에도 참여했던 홍주의병의 중심 인물이었다. 그는 홍주성전투 후에 체포되어 황도에 유배되었다. 1908년 유배에서 풀려나자 정산에 성명학교를 설립

하고, 1909년에는 부여에 대한협회 지부를 조직하는 등 애국계몽운동을 전개하였다. 1910년 국망 이후 국내에서의 활동에 한계를 느끼고 1913년 압록강을 건너 서간도로 망명하였다. 신흥무관학교 교장으로 취임하여 무관을 양성하였으며, 그후 한교교육회 이사장, 대한통군부 군사부장 등을 맡아 활동했다. 1930년에는 북경에서 조성환 등과 한족동맹회를 조직하여 활동하는 등 만주지역에서 독립투쟁을 선도해 갔다.

이용규(李容珪, 1859~?)는 부여 출신으로 민종식의 처남이다. 1906년 3월 15일 민종식이 예산의 광시에서 홍주의병을 일으킬 때 안병찬 등과 함께 의병진 편성의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그는 청양의 합천전투에서 체포를 피해 전주, 진안, 용담, 장수 등 전북지역에서 의병을 모집하였다. 여산에서 의진을 결성하고 부여의 지티로 와서 민종식을 다시 대장에 재추대하였다. 그는 참모사가 되어 의병의 홍주성 점령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5월 31일 일본군의 대대적인 공격으로 홍주성이 함락되자 다시 청양의 추티에서 의병을 수습하여 400명의 병력으로 부여·노성을 지나 연산에 이르러 교전하였다. 그는 예산의 이남규 집에서 재거를 계획하고 거사 일을 10월 5일로 정하였다. 일단 민종식을 성우영의 집으로 피신시키고 예산 관아를 습격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10월 2일 일진회원의 밀고로 이들의 계획이 드러나 관군에게 포위되어 그를 비롯하여 이남규 부자와 곽한일 등이 체포되었다. 그는 이 일로 재판을 받아 1907년 2월 평리원재판소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며, 7월 2일에 평리원 고등재판소에서 감일등되어 소위 내란죄로 종신유배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도에 유배되었다가 11월에 특사로 풀려났다. 1911년 10월에는 옥천에서 전 승지 노병직, 전 참의 장남기, 송순태 등과 의병을 일으킬 논의를 하였으나 1912년 4월 밀고로 30명이 함께 잡혔다가 8월에 풀려났다. 그 뒤에도 계속 독립운동을 전개하다가 1917년 4월에 잡혀 통영 욕지도로 유배되었다. 1918년 12월 파리강화회담에 보낼 자료를 준비하던 중 예심원 감옥에 수감되었다. 그 뒤 1919년 한성임시정부

수립에 참가하여 충청남도 대의사가 되었으며, 서울시민에게 보내는 취지문을 인쇄하여 배포하다가 붙잡혔다. 그는 이 일로 1919년 8월 30일 경성지검에서 공판에 부쳐졌으며, 경성지검에서는 그에게 12월 19일 징역10월형을 구형하였다. 그러나 1920년 3월 5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원판결을 취소하고 무죄를 선고하여 풀려났다.

곽한일(郭漢一, 1869~1936)은 아산 출신으로 면암 최익현의 문인이다. 1906년 5월 남규진과 더불어 예산에서 기병하고 민종식 의진이 홍주성을 점령한 소식을 듣고 홍주의진에 합류하였다. 곽한일은 돌격장으로 임명되어 일본군과의 홍주성전투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5월 31일 새벽에 일본군의 대공세로 홍주성이 함락되고 의진이 궤멸하고 말았다. 곽한일은 성을 탈출하여 예산 지방을 중심으로 재기를 계획하였다. 그는 예산의 한 곡에 살고 있는 이남규의 집에서 민종식을 대장으로 추대하기로 하고 참모의 직임을 맡았다. 그러나 일진회원에 의해 기밀이 누설되어 거사 계획이 일본헌병대에 알려졌다. 10월 2일 새벽 적의 기습을 받고 곽한일은 이남규 부자와 함께 체포되었다. 그는 공주 경무청으로 압송되었다가 경성평리원으로 이감되어 문초를 받았다. 그는 종신유배형을 선고받고 전라남도 지도에 유배되었다가 1912년에 풀려났다. 사면되어 귀향한 후 1913년 2월에는 독립의군부의 총무총장에 임명되어 재정 지원을 약속하고 온양 일대에서 모금을 계획하였다. 그러나 독립의군부의 계획이 발각되면서 체포되어 1913년 8월 13일 경성지방법원에서 1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출옥 후에도 군자금 모집에 주력하다가 1916년에 체포되어 종신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1936년 작고할 때까지 일경의 감시를 받았다.

이식(李栻, 1873~1936)은 청양군 정산 출신으로 본관은 연안이다. 1901년 정산으로 내려 온 면암 최익현을 찾아가 사제의 예를 맺고 한학을 수학하였다. 1905년 을사조약의 강제로 체결되자 김동필 등과 함께 13도유약소를 세우고 5조약의 무효를 주장하였다. 그는 이 일로 구금되었으며, 이듬 해 3월에 풀려나 고향으로 내려왔다. 그는 1906년 5월 홍

주의병이 홍주성을 점령하였을 때 신보균·신현두 등과 함께 의병에 참전하였는데, 신보균등과 함께 참모의 직을 맡아 항전하였다. 그러나 이식은 홍주성전투에서 체포되고 말았다. 이식은 유병장 유준근을 비롯하여 최상집, 이상구, 남규진, 남규진, 문석환, 신현두 등과 함께 대마도로 유배되어 이즈하라(嚴原)에서 유폐 생활을 하였다. 1909년 1월 풀려난 그는 귀국하여 1912년 9월 독립의군부에 참여하였다. 그는 임병찬(林炳瓚)으로부터 고종황제가 친히 내린 밀조를 전달하라는 임무를 수행하였으며, 격문을 전달하고 동지를 불러 모으는 등 조직을 호남지방으로 확대시켰다. 독립의군부는 일제의 관헌에게 국권반환요구서를 제출하여 '한일합방' 의 부당성을 천명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일본 경찰에 발각되어 1914년 5월 임병찬 이하 관련자들이 대거 검거 당하였다. 이식 역시 이때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석방된 후에는 전국 각지를 유리 방랑하다가 경기도 용인에서 사망하였다 한다.

이외에도 홍주의병에 참가하였던 이들 중에 김한종, 장두한, 신현두, 성달한, 윤병일, 성문영, 유창순, 한훈 등이 광복회의 설립을 주도하고 1910년대 이후 국내 항일비밀단체운동에 적극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다.

| 4 | 맺는말 – 홍주의병의 특성과 의의

홍주의병은 홍성, 청양, 보령, 예산, 서산 등 홍주문화권 지역에서 봉기한 대표적인 항일의병이다. 전기의병기 홍주의병은 1895년 을미사변과 단발령 공포에 항의하여 일어났다. 김복한을 총수로 추대한 홍주의병은 홍주성을 점령하고 항일전을 준비하였으며, 산성을 수리하여 장기전에 대비하였다. 관찰사의 배반으로 체포, 해산되고 말았지만 체포되지 않은 안창식, 이세영, 황재현 등이 재기하여 항전하였다. 홍주의병은 무기, 전략전술 그리고 지휘체계 등의 미비로 인하여 성공하지 못하였다.

또한 주도층이 유학자들이 중심이어 동학농민군의 의병참여가 구조적으로 차단되어 있던 점은 일정한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그러나 홍주의병의 민족보전의 투쟁정신은 지역의 유생층을 비롯한 농민층에게 민족의식을 고취시켜 주어 대규모 항일투쟁인 1906년의 홍주성전투를 가능하도록 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안병찬을 비롯한 사민들은 을사조약의 늑결 소식을 듣고 의병을 재기하였다. 이들은 정산에 거주하고 있는 전참판 민종식을 대장에 추대하고 1906년 3월 15일 광시장터에서 홍주의병을 봉기하였다. 청양의 합천전투에서 패하였으나, 부여의 지티에서 의병을 재기하였으며, 남포 전투에서 승리한 후 홍주성을 점령하는 등 기세를 올렸다. 그러나 일본군에 의해 대대적인 탄압을 받았다. 일본군은 홍주성전투시에 의병들을 잔인하게 학살하였으며, 그 후에도 홍성에 주둔하면서 부녀자들에게 행패를 저지르는 등 야만 행위를 저질렀다. 또한 홍주시내에 일본인을 이주시켜 홍성시내를 일본인 거리로 만들고자 획책하였음도 확인된다. 이와 같은 홍주의병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첫째, 홍주의병은 성패를 떠나 불굴의 정신으로 민족의 독립을 위한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1895년 의병의 주도자들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1906년 의병을 재기하였다. 1906년에도 합천전투와 홍주성전투에서 수백 명이 전사하고 백여 명이 체포되었으며, 이들 중에 유준근 등 홍주9의사는 대마도에 끌려가 유폐되기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체포되지 않은 이들은 인근의 청양, 남포, 당진, 부여 등지에서 일본군과 항전을 계속하였다.

둘째, 홍주의병은 각지에 통문과 격문을 발표하여 의병을 모집함은 물로, 각국 공사에게도 독립요구서를 제출하였으니 한민족의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 국제적인 지원을 요구하며 독립전쟁을 수행하였다 할 수 있다.

셋째, 홍주의병은 홍주 일대의 유생과 민중들이 연합하여 조직되었으며, 노론과 소론, 남인 등 당색의 차이와 남당학파, 화서학파, 간재학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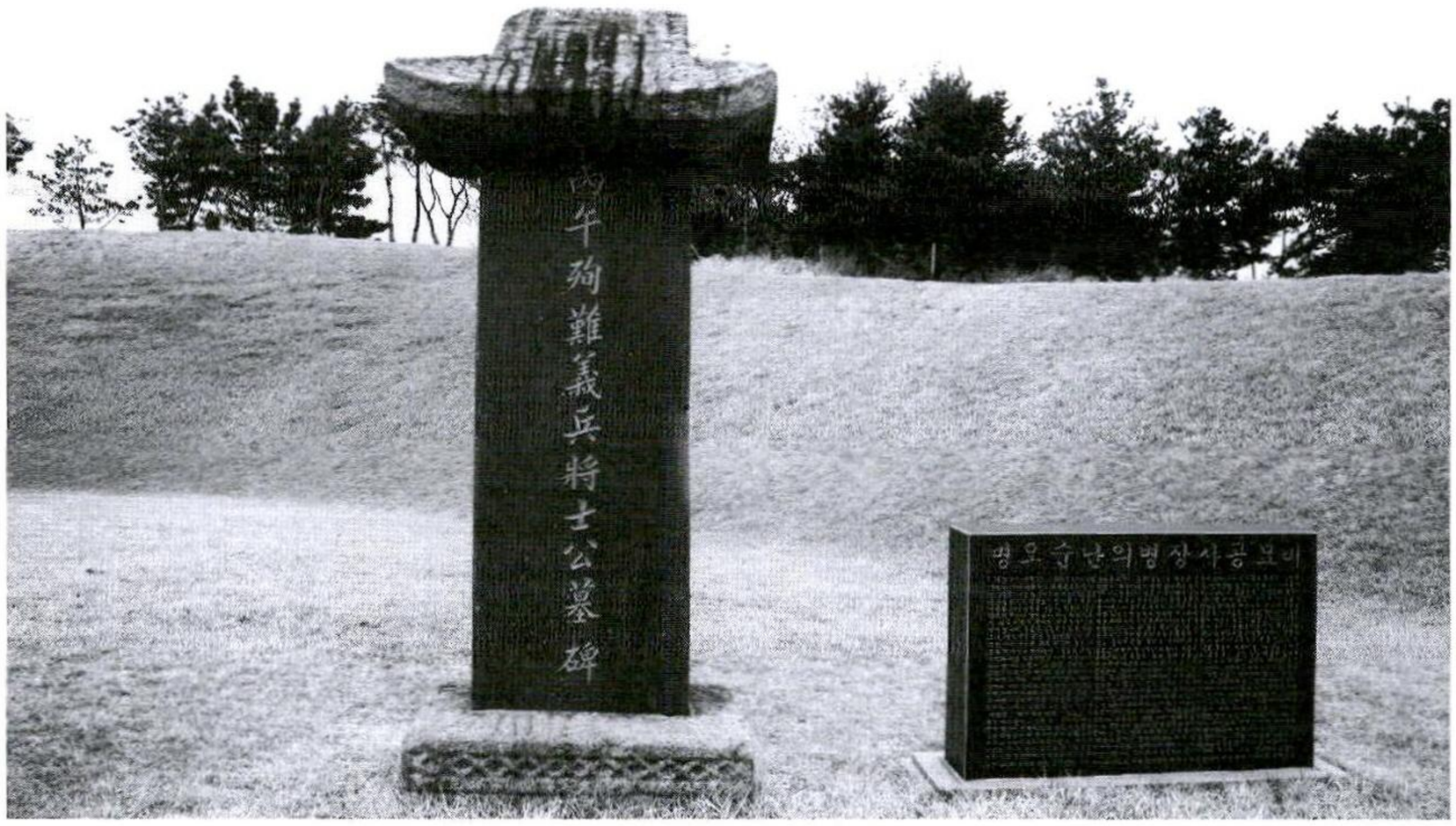


사진 16 | 병오순난의병장사공묘비(홍주의사총)

등 학파의 차이, 그리고 신분의 차이를 극복하고 투쟁한 민족 통합적인 항일부대였다.

넷째, 홍주의병은 전국적인 항일의병을 선도해 간 대규모 무장투쟁이며 한민족의 주권을 회복하고자 한 독립전쟁이었다. 홍주의병의 항일활동은 국망 후에도 독립전쟁으로 계승되었으니, 홍주의병에 참가하였던 의병 중에 김한종·장두한·신현두·성달한·윤병일·성문영·유창순·한훈 등이 광복회의 설립을 주도하고 1910년대 국내 항일비밀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 또한 이 지역 3·1운동을 거세게 일어나게 하였으며, 김복한 등 의병 참여자들은 파리장서운동을 전개하여 대한의 독립을 국제적으로 요구하였다.

이와 같이 홍주의병은 강렬한 반침략 무장투쟁을 전개하여 타 지역의 의병봉기에 끼친 영향이 크며, 1910년대 독립전쟁과 나아가 3·1운동으로까지 인적, 사상적으로 계승되고 있는 점에서 그 역사적 의의는 크다 할 것이다.

| **김상기** | 충남대 국사학과 명예교수



홍성의 독립운동사 1

홍성지역 교육·계몽운동과 국채보상운동 참여의 소중한 경험은 사회적인 책무를 일깨우는 밑거름이었다. 소통에 의한 강한 현실인식 공유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자각하는 결정적인 요인 중 하나였다.

제 3 장

한말 홍성지역 근대교육운동과 국채보상운동

1. 시세 변화에 부응하다
2. 민중의식이 심화되다
3. 근대교육이 가치관을 변화시키다
4. 국채보상운동이 들불처럼 확산되다
5. 홍성인을 각성시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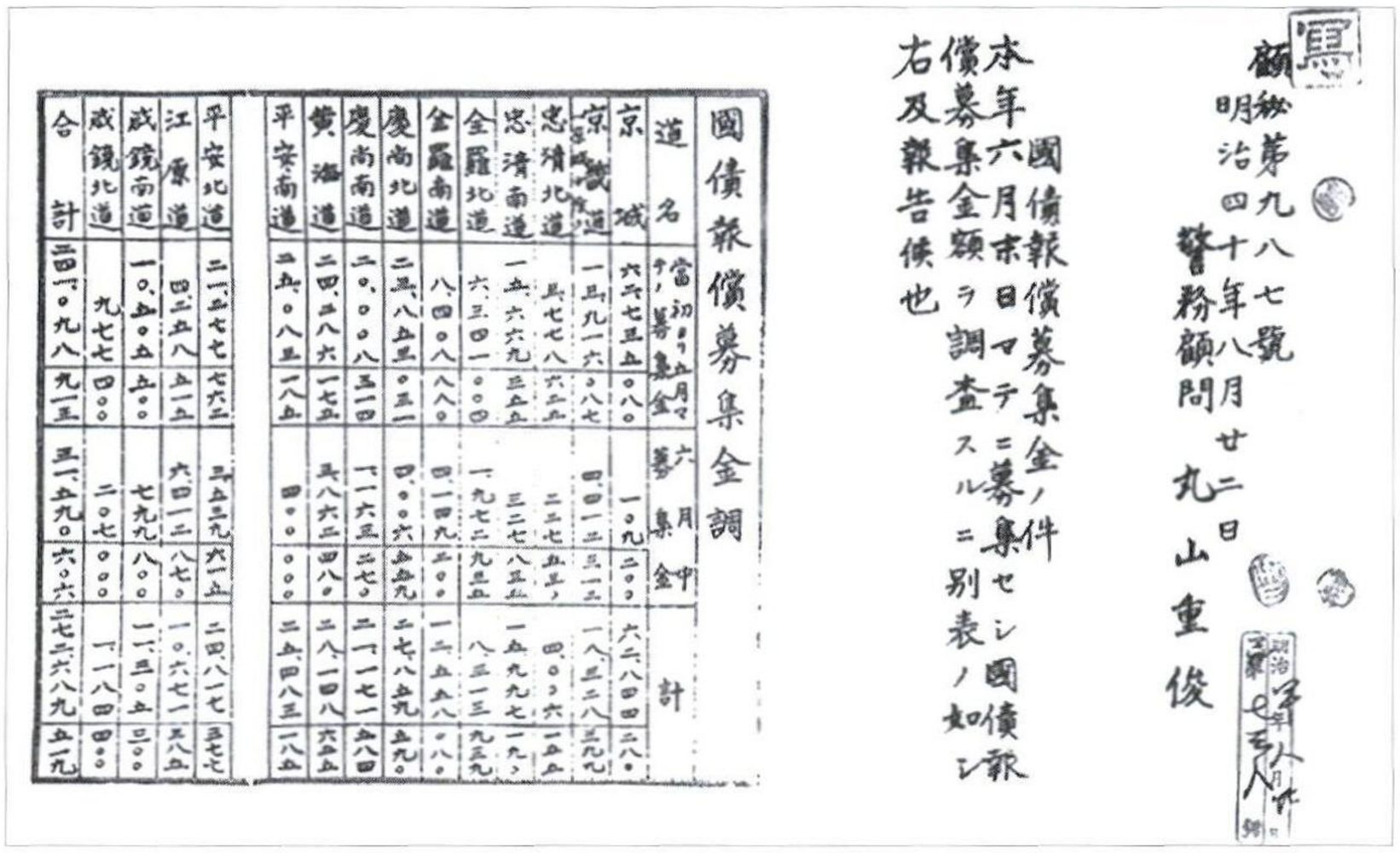
제3장

한말 홍성지역 근대교육운동과 국채보상운동

| 1 | 시세 변화에 부응하다

개항 이래 제국주의 열강은 한반도를 둘러싸고 치열한 각축전을 벌였다. 계급모순과 민족모순의 이중적인 질곡(桎梏)은 한국 근대사의 파행적인 전개로 귀결되었다. 마침내 일제 식민지화는 이러한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역사적인 '대참극' 이었다. 변화에 대한 대응책은 사회구성원의 계급적인 입장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1910년 강제병합 이전까지 대체적인 흐름은 무력 항쟁에 의한 의병전쟁과 실력양성론에 입각한 개화자강운동으로 크게 구분된다. 양자는 대립과 갈등, 때로는 보완하는 가운데 민족해방운동의 분화와 발전을 추동하는 원동력이었다. 일제강점기 국내외에서 전개된 조국광복을 위한 힘찬 진군은 이와 같은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한민족 저력을 상징한다.

충남 홍성지역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지역적인 특성을 반영한 민족해방운동의 전개양상, 운동



秘第九八七號
明治四十年八月廿二日
警務顧問 丸山重俊

國債報償募集金調

道名	當初ヨリ九月マデノ募集金	六月中募集金	計
京城	六、七五五、〇八〇	二〇〇	六、二、八四四、二八〇
京畿道	一、五、九一六、三八七	三、一二	一、八、三二八、三九九
忠清北道	五、七七八、六二五	二二七、五五〇	四、〇、六、二、七五五
忠清南道	一五、六六九、三五五	八五五、三二七	一五、九九七、一九二
全羅北道	六、三四一、〇〇四	九五五	八、三一三、九三九
全羅南道	八、四〇八	八八〇	一二、五五八、〇八〇
慶尚北道	二三、八五五、〇三一	二、七八五、九	二七、八五九、五九〇
慶尚南道	二〇、〇〇八、三一四	四、〇〇六、五五九	二四、〇一四、八七三
黃海道	二四、三八六、一七五	三八六、四八〇	二八、一四八、六五五
平安南道	二五、〇八五、一八五	四〇〇	二五、四八三、一八五
平安北道	二一、五七七、七六二	三、五三九、六一五	二四、八一七、三七七
江原道	四、二五八、五一五	六、四一二、八七〇	一、〇、六七一、五八五
咸鏡南道	一〇、五〇五、五〇	八〇〇	一一、三〇五、五〇
咸鏡北道	九七七、四〇〇	二〇七、〇〇〇	一、一八四、四〇〇
合計	二四、〇九八、九一五	六、〇六二、六八九	三〇、一六〇、五九九

國債報償募集金ノ件ニ募集セレ國債報償ニ別表ノ如シ
本年六月末日マテニ募集金額ヲ調査スルニ
右及報告候也

사진 1 | 한말 일제가 작성한 국채보상운동 도별 모금액(1907년 8월)

주체나 성격, 시기별 변화상 등은 분명 달랐다. 여기에는 현지의 주·객관적 상황이 반영됨으로 지역사 이해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홍성을 중심으로 하는 내포지역은 항일투쟁을 상징하는 크나큰 2차례에 걸친 의병전쟁, 일본인 상인들에 의한 유통망 장악 등으로 주민들 배일의식은 다른 지역보다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 개신유학자(改新儒學者)의 사회적인 영향력도 여전한 가운데 근대교육운동은 사실상 이들에 의하여 주도되었다. 주요 활동가들은 특정한 문중, 현지에 부임한 지방관, 그리고 일부 신지식인 중에서 배출되어 변화에 부응하였다. 교육·계몽운동과 국채보상운동은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요인이자 진전을 이끄는 결정적인 밑거름이었다. 이는 일상사 변화와 더불어 전통적인 가치관을 크게 변화시키는 에너지원이나 마찬가지였다. 특히 동학이나 개신교 전래는 비록 '절대자 앞에서 평등'이라는 일정한 한계를 지녔으나 여성들을 사회구성원으로서 각성시키는 든든한 기반이었다.

시세 변화에 따른 계몽활동은 민중을 각성시키는 동시에 자신감을 일깨우는 요인 중 하나였다. 장시망(場市網) 변화와 근대적인 상인층 등

장, 외세에 대한 인식 변화, 지배체제 이완과 농민층 저항 등은 사회변동을 초래하는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했다. 특히 홍주의병에 대한 무차별적 탄압은 주민들에게 야만적이고 포악스러운 일제의 실상을 경험하는 현장이었다. 배일의식의 자연스러운 증폭과 아울러 스스로 강해져야 한다는 자강의식(自强意識)은 이와 같은 상황과 맞물려 확산되는 분위기였다. 국채보상기성회나 기호흥학회 홍성지회 조직과 활동은 역사적인 변동에 대응하려는 일환이었다. 후자는 사실상 이곳 교육·계몽운동을 주도하는 중심단체로서 확고한 자리매김을 했다. 회원들은 사립학교를 통한 민지(民智) 계발에 노력하는 동시에 국권 회복을 위한 강연회나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른바 유지신사로 일컬어지는 지역명망가들 활동은 주민들과 소통으로 이어지는 등 강한 유대감으로 결속될 수 있었다. 주민들의 경쟁적이고 자발적인 사립학교설립운동이나 국채보상을 위한 의연금 참여는 이러한 인식 변화 속에서 진행되었다.

을사늑약 이후 식민지화에 대한 위기의식은 상상을 초월할 수 없을 만큼 커다란 충격으로 성큼 다가왔다. 사립학교설립운동이나 야학운동은 지적인 실력양성에만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일제 침략에 대응하는 국권 수호나 회복을 위한 대안 중 하나는 바로 근대교육 보급에 의한 능력배양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다. 전통적 학풍이 강한 지역이었으나 인근 지역과 비교해도 근대교육운동이나 계몽활동 등은 전혀 부진하지 않았다. 다만 지역적인 특성을 반영하듯이 충청지역 근대교육운동은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다. 충청인이 지닌 보수성으로 근대교육기관 설립에 의한 근대교육은 20세기 초반까지 비교적 소극적이었다. 전국적인 평균과 비교할 때 설립된 교육기관은 실제로 많지 않았다. 이는 설립·운영된 사립학교 등 근대교육기관의 수적인 '단순한' 비교에 불과할 뿐이다. 교육내용·교육시설·교과과정·교육재정·교사진 열정 등을 검토한 심층적인 분석과 결과는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다. 호명(湖明)학교·홍명(洪明)학교·덕명(德明)학교·광명(廣明)학교·화명의숙(華

明義塾) 등 이른바 '8명학교'는 대한제국기 홍성을 대표하는 근대교육기관이었다.

삼면일교제(三面一校制, 3개 면을 단위로 초등교육기관 설립)에 기초하여 시행된 '제한적인' 의무교육은 지역사 차원을 벗어나 근대교육사에서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크다. 금란의숙(金蘭義塾)은 기호흥학회의 본교인 기호(畿湖)학교 지교로서 인가를 받은 최초 사립학교였다. 교육운동 주체는 의관·군수·군주사·재무주사·면장 등 전·현직 관료나 개신유학자·교사·중등학교 학생 등이었다. 그럼에도 이들의 활약상은 정당한 역사적인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현실이다. 이처럼 홍성은 내포지역의 중심지로서 대한제국기는 물론 일제강점기 민족해방운동을 견인하는 충남지역 '메카'였다. 개신유학자를 비롯한 '신진세대' 배출은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든든한 밑거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근대교육운동은 크게 사립학교설립운동과 야학운동으로 전개되었다. 설립이념은 홍성지역 근대교육운동이 갖는 역사적인 성격을 밝히는 관건이다. 신·구학 절충적인 교과목 구성·교과과정·학교설립취지서 등은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교과목은 급격한 변화보다 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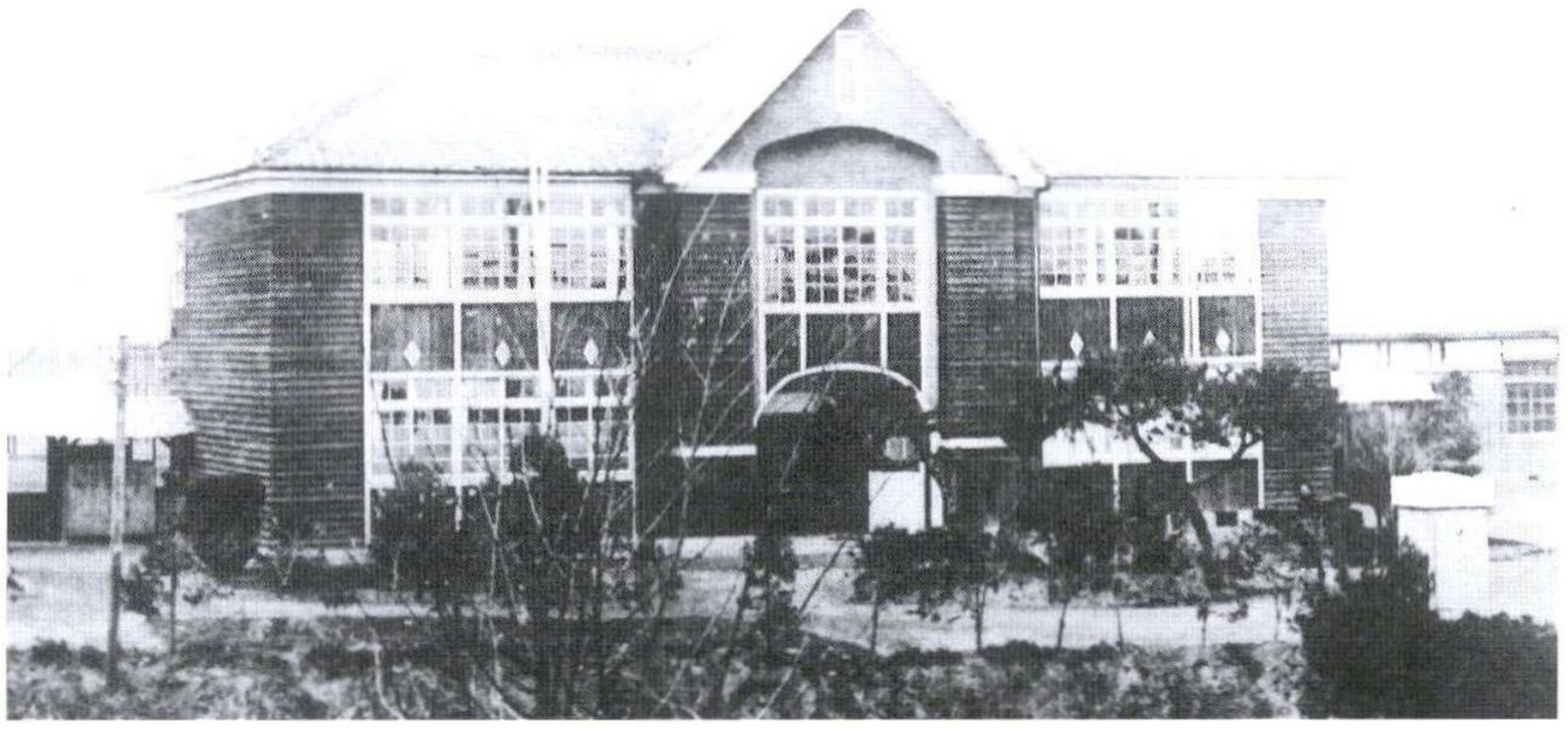


사진 2 | 홍성공립보통학교(1934년)

실적인 필요성과 피교육자 등을 감안하여 편성·운영되었다. 민족의식이나 국가정신 고취를 위한 정신교육 강조는 새로운 사회질서에 부응하려는 의도와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다. 준법정신 고취를 위한 법률학을 중심으로 한 야학강습소, 학령아동 구제나 청소년 문맹퇴치를 위한 국문야학이나 노동야학 등은 변화에 부응하려는 현실적인 필요성에서 시작되었다. 개신유학자 등에 의한 교육·계몽운동은 1910년대 일시 단절되었다가 3·1운동 이후 민족해방운동으로 계승·발전되어 나갔다. 강습소·야학 설립이나 6년제 공립보통학교 승격운동 등은 이러한 사실을 반증한다. 홍성을 중심으로 전개된 내포지역 운동역량과 경향성은 이를 통하여 어느 정도 찾아볼 수 있다.

국채보상운동은 자립경제를 향한 몸부림이었다. 주민들의 자발적이고 경쟁적인 참여는 사회적인 책무를 인식하고 절감하는 생활현장으로 다가왔다. 이는 일상사 변화와 더불어 사회적인 존재로서 '자기발견'을 하는 엄중한 순간을 맞았다. 특히 여성들은 이를 통하여 자신감과 아울러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사회구성원으로서 자각은 당찬 미래를 향한 사회활동으로 계승되었다. 이리하여 근대사회라는 낯선 현실에서 홍성인들은 주체적이고 역사적인 주인공으로서 거듭 태어날 수 있었다. 근대교육운동이나 '나랏빚 청산'을 위한 국채보상운동에 주목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서 찾아진다.

2 민중의식이 심화되다

1) 민중이 각성하다

갑오농민전쟁과 독립협회 활동 등은 현실비판과 아울러 민중의식 심화로 이어졌다. 순한글로 발간된 독립협회 기관지인 『독립신문』은 지역사회로 보급되었다. 이는 사회변화에 대한 실상을 알려주는 '전령사'와

같았다. 불법적인 수탈에 맞선 농민항쟁은 변화를 알리는 '희소식' 이자 중요한 계기로 다가왔다. 농민들은 관행적인 지방관의 불법행위를 관청에 호소하거나 신문에 고발하는 등 자신들 권익 옹호에 적극적이었다. 사회구성원으로서 자각은 이를 추진하는 원동력이자 자신감을 높이는 동기로 작용하였다.

더욱이 만민공동회(萬民共同會)는 민중에게 사회적인 존재감을 일깨우는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지배층의 불법적인 수탈에 대한 다양한 방법으로 전개된 저항은 이러한 사실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다. 19세기 말 영학당(英學黨)이나 활빈당(活貧黨) 투쟁은 반봉건과 반외세 투쟁을 실천한 대표적인 단체였다. 부호들에 대한 적개심과 아울러 반봉건 투쟁의 확산은 이와 맞물려 진행되었다. 자의적이고 불법적인 수탈이 심하게 자행된 지역은 충청도·전라도·경상도 등 이른바 '하삼도(下三道)' 였다.

남양만과 태안반도를 중심으로 해적(海賊)의 활동도 해상무역량 증가



사진 3 | 만민공동회

와 더불어 점차 확산하는 분위기였다. 해상교통 중심지라는 지리적인 위치는 이와 무관하지 않았다. 홍주는 조선 후기 이래 포구상업의 발달과 더불어 '삼남요로(三南要路)' 로서 자리매김했다. 홍주군수 조명호(趙命鎬)는 이곳 연안을 비롯한 안면도 일대에 해적 횡행으로 치안이 마비될 정도라고 보고했다. 동학 여당과 의병을 빙자한 화적(火賊) 등도 사회적인 불안 가중과 동시에 민심 이반을 초래하였다. 정부는 별포군(別砲軍) 30명을 관내에 배치하는 등 민심 수습에 나섰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둘 수 없었다. 사회안정을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이 아니라 임시적인 미봉책이었기 때문이다.

각종 범죄 증가와 더불어 일상사 변화도 수반되었다. 홍주를 비롯한 서산·보령·태안·서천 등지의 서해안 일대에서 자행된 지방관의 불법적이고 빈번한 수탈은 사회적인 불안을 더욱 확산시켰다. 어쩌면 급격한 신분제 이완과 더불어 새로운 사회질서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필연적인' 현상인지도 모른다. 매관매직이 성행하는 가운데 임명된 지방관은 사리사욕을 채우기에 혈안이었다. 정부는 이를 엄중하게 단속하려는 훈령을 내렸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둘 수 없었다. 고식적인 정책은 외형과 달리 많은 모순과 한계를 그대로 안고 있었다.

자주 발생하는 자연재해도 기아선상에 허덕이는 농민들 생존권을 크게 위협했다. 농업과 어업을 겸비한 홍성을 포함한 내포지역은 특히 가뭄과 해일 등에 따른 피해가 적지 않았다.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가뭄과 수해 등은 농업생산 기반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다. 빈번한 「방곡령」 시행에 따른 곡물가 상승도 생존권을 크게 위협하였다. 이를 절대로 금지하는 훈령과 달리 지방관들은 치부 수단으로 활용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동시에 군주사·면서기 등 행정실무자 임명을 둘러싼 갈등도 재연되었다. 이에 비례하여 민중은 생존의 '사각지대' 로 내몰리고 있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은 민중들은 초근목피(草根木皮, 아주 곤궁한 생활 처지)로 겨우 생명을 이어가는 비참한 상황이었다.

반면 외세에 대한 적대감은 극도로 고조되었다. 선교활동을 둘러싼 프랑스 선교사에 대한 배척은 대표적인 사례이다. 폭풍 전야와 같은 상황에서 선교사들은 1890년 예산 간양골에 성당을 세웠다. 이들은 교리 강습과 신자들 자제를 위한 교육기관을 부설로 설립했다. 분위기는 인근 홍성·서산·대흥·해미 등 내포지역으로 확산되었다. 교세 확장과 달리 사립학교 운영에 의한 근대교육은 별다른 진전을 이룰 수가 없었다. 이는 현지 실정에 적합한 교육과정이나 교재가 너무나 부족한 상황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다. 더욱이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교사진이나 학교 운영을 위한 재정적인 뒷받침도 부족하였다.

변화는 1907년을 기점으로 시작되었다. 주역은 면천군 비방면 소합덕 구 합덕성당 내에 설립된 민괴(玟瑰)학교였다. 학교는 프랑스 신부 경원선(그렘프)과 면장 조병학(曹秉學)의 열성으로 설립된 4년제 남자만을 대상으로 출발했다. 교장은 군수 박지양(朴芝陽)이 겸임하는 등 지방 관도 관심을 보였다. 교육과정은 성경을 포함하여 소학교 과정으로 재학생은 70여 명에 달하는 대단한 호응을 받았다. 학생들이 급격하게 늘어난 배경은 신자는 물론 비신자들에게 입학이 허용되었기 때문이다. 교육내용은 당시 학생들에게 애국심을 일깨우는 긴요한 교과목으로 구성되었다. 즉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 양성은 궁극적인 지향점이었다. 반면 이듬해 도덕과 종교를 강조하려는 학과목 운영은 학생들의 관심을 끌기에 역부족인 상황을 초래하고 말았다. 이리하여 매괴학교는 운영비 부족과 학생들 중도 퇴학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한편 동학은 서구 열강의 동양 침략에 맞서 고유한 정신적인 민족문화를 수호하려는 입장이었다. 정부는 사회질서를 해친다는 이유로 처음부터 배척·탄압으로 일관하였다. 신분제 압제에서 신음하던 하층민이나 부녀자를 중심으로 교세는 급속하게 확산하고 있었다. 교세 확장과 교단 정비는 신자들을 중심으로 점차 자신들 목소리를 내는 신호탄이었다. 곧 사회를 변혁하여 새로운 사회질서를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은 이미 태동

하는 순간을 맞았다.

교조신원운동으로 시작된 종교운동은 점차 전면적인 사회개혁을 요구하였다. 청일전쟁으로 조국이 위기에 처하자 농민군은 분연히 떨쳐 일어났다. 동학농민군은 시정개혁과 반외세 선봉장으로서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다. 정부와 전주화약(全州和約)으로 집강소(執綱所)를 설치하는 등 "농민의, 농민에 의한, 농민을 위한" 자치기관 운영은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과 맞물려 있었다. 이를 탄압하려는 관군이나 일본군과 치열한 전투를 전개하는 등 '구국'을 위한 반외세 투쟁에 진력하였다. 일제의 잔인무도한 탄압으로 농민군의 염원은 외형상 좌절되는 분위기였다.

그럼에도 농민군의 구국을 위한 정신은 단절되지 않았다. 러일전쟁 이후 천도교로 개칭한 후 교단은 새롭게 정비되었다. 이는 시대변화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려는 시대적인 '소명의식'의 발로였다. 교주 손병희(孫秉熙)는 도전(道戰)·재전(財戰)·언전(言戰)인 '삼전론'을 주창하기에 이르렀다. 식민지화에 대한 위기의식은 천도교단의 변화를 이끄는 원천이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전은 민족정신을 계몽·계발한다는 의미이다. 옛말에 천시(天時)는 지리(地利)만 못하고 지리는 인화(人和)만 못하다고 언급했다. 인화는 도(종교)가 아니면 전혀 할 수 없다. 재전은 국가의 산업을 개발하여 자립할 수 있는 국력을 이루기 위함이었다. 재물이란 하느님이 준 보배로서 사람이 이용하고 사는 원기를 기르는 일이다. 그런데 지금 사람의 기운이 왕성해서 진기한 물건을 많이 만드나 미처 쓰지 못하여 각 나라가 물건을 바꾸게 되면 그렇지 못한 나라들은 몇 해 만에 가난에 빠지고 만다. 언전은 외국의 사정에 밝아 외국과 의사소통이 원활하도록 전력을 다해야 한다. 세상은 이웃과 다름이 없다. 이때 말이 서로 통하지 않으면 어찌 이웃과 사귈 것이며, 두 적수가 말로 담판할 수 있을까.

천도교는 민지 계발과 아울러 자립경제를 통한 문명사회인 독립국가 건설에 중점을 두었다. 기관지인 『만세보』 간행·보급이나 근대교육기관

운영 등은 이러한 과제를 실행하려는 의도였다. 언전을 강조한 부분은 국제정세 흐름과 관련하여 매우 탁견으로 생각된다. 경영난에 직면한 보성학교 등 교육기관 인수·운영은 천도교단의 문명사회 건설론과 밀접한 관련성 속에서 이루어졌다. 학교 설립이 어려운 경우에는 교구를 중심으로 강습반을 운영했다. 이는 교리 강습이나 경전 윤독 차원을 넘어 민중의식을 일깨우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일본 불교계도 개항 이래 조선 침략의 첨병으로 나타났다. 정토종 진종 본원사파는 1877년 오쿠무라 엔싱(奧村圓心)과 히라노 게이스이(平野惠粹)를 조선에 파견하여 부산·원산·인천·서울·목포 등지에 별원(別院)을 설립하는 등 본격적인 포고에 나섰다. 일본 불교 세력 확산의 결정적인 계기는 1895년 승려들의 도성해금(都城解禁)이었다. 정토종의 사노 젠레이(佐野前勵)는 이를 조선정부에 건의하여 마침내 관철하였다. 도성해금에 조선 승려들은 감사하다는 편지를 보내는 등 일본 불교계에 점차 포섭되었다.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기점으로 일본 불교계는 적극적인 포교에 돌입하였다. 불교계 친일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1911년까지 한반도에 진출한 일본 불교는 6개 종단 11개 종파에 달했다.

일본 승려들은 유치원 설립과 빈민구제사업 등으로 한국인의 관심을 받았다. 일본 사찰이나 포교소는 일본 승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동시에 한국 승려에게 일본어를 가르쳤다. 이는 불교계의 친일을 도모하려는 일환이었다. 특히 통감부는 일본 불교계의 자유로운 포교 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도입하였다. 1906년 11월 시행된 「종교의 선포에 관한 규칙」이었다. "일본의 종교 세력이 한국에서 포교하고자 할 때는 통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였다. 강제병합 직후까지 전국적으로 120여 개 사찰은 관리청원(管理請願)을 신청하였다. 관리청원은 한국 사찰이 일본 불교 종파와 연합하거나 말사로서 등록됨을 의미한다.

교육사업은 본국 정부 지시로 이루어졌다. 주요 내용은 "첫째로 식산

흥업을 장려하여 가능한 물질적 개발에 힘쓴다. 둘째로 승속(僧俗)을 불문하고 지방 저명인사에게 일본을 시찰하게 하여 일반 개발 보급에 노력한다. 셋째로 학교를 설립하여 청년층 계발에 힘쓴다."는 등이었다. 이에 따라 한국불교계 유명인사들은 일본시찰단으로 초청을 받았다. 이들은 선진화된 문물과 시설 등을 견학한 후 낙후된 우리 현실을 비판하면서 점차 일본 불교계 영향을 크게 받았다. 일제는 1911년 6월 「사찰령」과 7월 「사찰령시행규칙」을 통하여 한국불교계를 완전히 장악하였다. 30개 큰 사찰을 본사로 지정하고 나머지는 말사로서 본사에 배속시켰다. 본사는 말사의 주지 임명권을 비롯하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시·통제하는 '막강한' 권한이 부여되었다. 충남의 유일한 본사는 마곡사(麻谷寺)로 소속된 말사는 124개 사찰에 달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말사를 가진 '거대한' 사찰이 되었다.

1907년 3월 3일 불교연구회는 전국 사찰의 국채보상운동 참여를 결의하였다. 이는 다른 종교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매우 이례적인 경우이다. 서울 미타사(彌陀寺)나 수원 용주사(龍珠寺) 등 여러 사찰의 국채보상 참여는 불교연구회 공식적인 결의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승려들의 사회적 인정욕구도 참여 배경으로 작용했다. 특히 충남지방 승려들의 높은 참여율은 당시 불교계 의연 동향에 비추어 단연 돋보인다. 물론 배경이나 원인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너무나 단편적이다.

중심적인 사찰은 마곡사였다. 이곳 승려들의 모금 사실을 게재한 『황성신문』 1907년 7월 8일자 기사에 온양 봉곡사(鳳谷寺) 승려 3인과 해미 개심사(開心寺) 승려 24인의 명단도 보인다. 봉곡사와 개심사 승려는 마곡사와 함께 공주에 설치된 국채보상소에 의연금을 내었다. 당시 사찰들은 지역 내 보상소를 이용하지 않고 대한매일신보사나 황성신문사에 직접 의연금을 전달하는 경우가 많았다. 마곡사·동학사(東鶴寺)·갑사(甲寺) 등은 주로 공주군 내에 설치된 국채보상소에 의연금을 내었다. 공주에는 단연동맹회, 온양과 해미에는 각각 국채보상의무사를 운영하

고 있었다. 마곡사·봉곡사·개심사는 사찰이 위치한 지역도 다를 뿐만 아니라 사찰 사이 거리도 상당히 멀었다. 봉곡사나 개심사가 마곡사와 함께 국채보상 참여는 마곡사가 당시 충남지역에서 이를 주도 사찰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곧 국가가 정한 행정구역보다 사찰 사이의 유대관계가 더 강력하게 작용하였다. 다른 지역에서도 유력 사찰을 중심으로 국채보상운동에 참여하는 경향성을 보인다.

한편 배외의식이 심화하는 가운데 주민들은 난파된 일본 상선에 대한 구조는커녕 선적된 상품을 약탈할 만큼 항일의식이 고조되었다. 일본인에 대한 적대감은 더욱 증폭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홍주 장고도(長古島)에 일본 상선이 좌초되자, 정부는 책임을 주민들에게 전가하였다. 즉 구조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민들을 범법자처럼 취급했다. 물론 진상이 밝혀져 일본공사가 이들에 대한 위무금(慰撫金) 지급을 정부에 요청하는 등 민심 수습에 나섰다. 그럼에도 증폭된 반일감정은 좀처럼 누그러지지 않았다. 홍주의병 진압을 위하여 투입된 일본군 행패는 주민들을 더욱 자극하는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동시에 개항 이래 외국상인 진출로 토착상인들은 대대적인 타격을 입었다. 장시(場市)에서 전개된 일본제 상품에 대한 배척·불매는 이러한 상황으로 더욱 증폭되었다. 일본인의 불법적인 토지 매입과 측량 등은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충분한 요소였다. 어수선한 시국에서 일진회 지회원 발호는 비판의 대상이자 타도해야 분명한 '적'으로 생각했다. 일진회원에 대한 살해 등은 이러한 인식을 그대로 보여준다. 반면 친일세력은 자신들의 세력확대를 도모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았다. 이들은 오직 자신들 사리사욕을 채우기에 급급하였다. 광천장 시장세 장악을 둘러싼 일진회원 행패는 극치를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이들에게 조국 안위나 주민들 생명은 전혀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다. 설령 문명사회 건설과 인권 등과 같은 슬로건을 내세웠으나 실상은 전혀 달랐다. 곧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세력을 포섭하여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에 불과했다.

일부 상인들은 시대변화에 부응하여 자신들의 권익 도모를 모색하였다. 상인 김영일(金泳日) 등 10명은 광천장(廣川場)에 미상회사(米商會社)를 설립하는 등 근대적인 상업경영이라는 원대한 계획을 세웠다. 자본금 200원과 세금 매년 60원으로 의론하여 결정한 후 농부(農部)에 인가를 신청하려는 의도였다. 목적은 관리들의 불법적인 수탈과 여객주인의 토색질에서 벗어나 상인들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이었다. 또한 광천시장 상인도 새로 도입된 시장세 혁파를 농부에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실천에 나섰다. 이는 정부의 무명잡세 근절과 달리 자신들 생존권을 위협하는 요소 등을 제거하려는 목적에서 시작되었다. 상인들의 이러한 활동은 소통을 통한 유대감과 단결력 도모하는 원동력이었다.

인한윤선(仁漢輪船)합자회사는 홍주를 기점으로 태안·인천을 왕래하는 정기여객선을 취항함으로 외부 세계와 소통에 변화를 초래하였다. 동시에 수산물과 농산물은 인천과 서울 등지로 유통되는 등 상업상 커다란 변화로 이어졌다. 상업적인 번성과 아울러 농공은행 설립도 논의되는 등 변화에 부응하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었다. 이처럼 초보적이나마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입각한 상업경영도 모색되었다. 전통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 상인자본의 움직임은 자본주의를 지향하려는 의지로 표출되는 분위기였다.

'을사늑약' 이후 홍성인들은 격심한 '변화'를 경험하였다. 이설(李卨)·김복한(金福漢) 등의 '을사늑약' 부당성에 대한 상소로 시작된 의병전쟁은 인적·물적 기반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다. 1,000여 명에 달하는 의병·민간인 사망과 동시에 홍주성 주변 10리 이내는 거의 초토화된 끔찍한 상황이었다. 사회적인 불안은 주민들의 불신·갈등을 증폭시키는 사태를 초래했다. 특히 일본군은 닥치는 대로 노략질을 일삼는 등 공포의 대상으로 떠오르는 현실에 직면하였다. 반개화와 반제국주의에 기초한 배일의식은 식민지라는 위기의식 고조로 증폭되었다. 지방관의 빈민에 대한 시혜적인 구휼(救恤)은 이와 같은 분위기를 반전시키려는 의

도였다. 군수 윤시영(尹始榮)은 탁지부 훈령에 따라 주둔한 일본군사령부와 교섭하여 쌀 등을 주민들에게 무료로 지급하였다. 이는 흉흉한 민심을 수습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되었다. 신임군수 유맹(劉猛)도 유지들과 협의하여 민생안정 도모에 노력하였다.

의병을 진압하려는 자위단(自衛團)도 많은 민폐를 불러일으켰다. 이들은 회원 입단비 명목으로 몇십 냥을 요구하는 등 토색질을 일삼았다. 이에 대응한 단체도 출현하였다. 기독교인을 중심으로 조직된 청년회는 대표적인 단체였다. 잔인무도한 일제의 탄압에 대한 목격과 경험은 내수자강에 의한 국력 신장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상황으로 반전되었다. 근대교육에 대한 인식 변화는 이와 더불어 확산을 거듭하였다. 일제 침략 가속화에 따른 배일감정은 이에 비례하여 더욱 증폭되어 나갔다. 지방진위대 해산병은 이를 거부하는 등 일제 침략에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등 분위기 반전을 위한 시도가 있었다. 의병전쟁은 전면적인 항일투쟁으로 전개되는 가운데 일제의 침략적인 본질을 간파하는 계기였다. 스스로 생존을 위한 몸부림은 모색되는 현안 중 하나로서 자리매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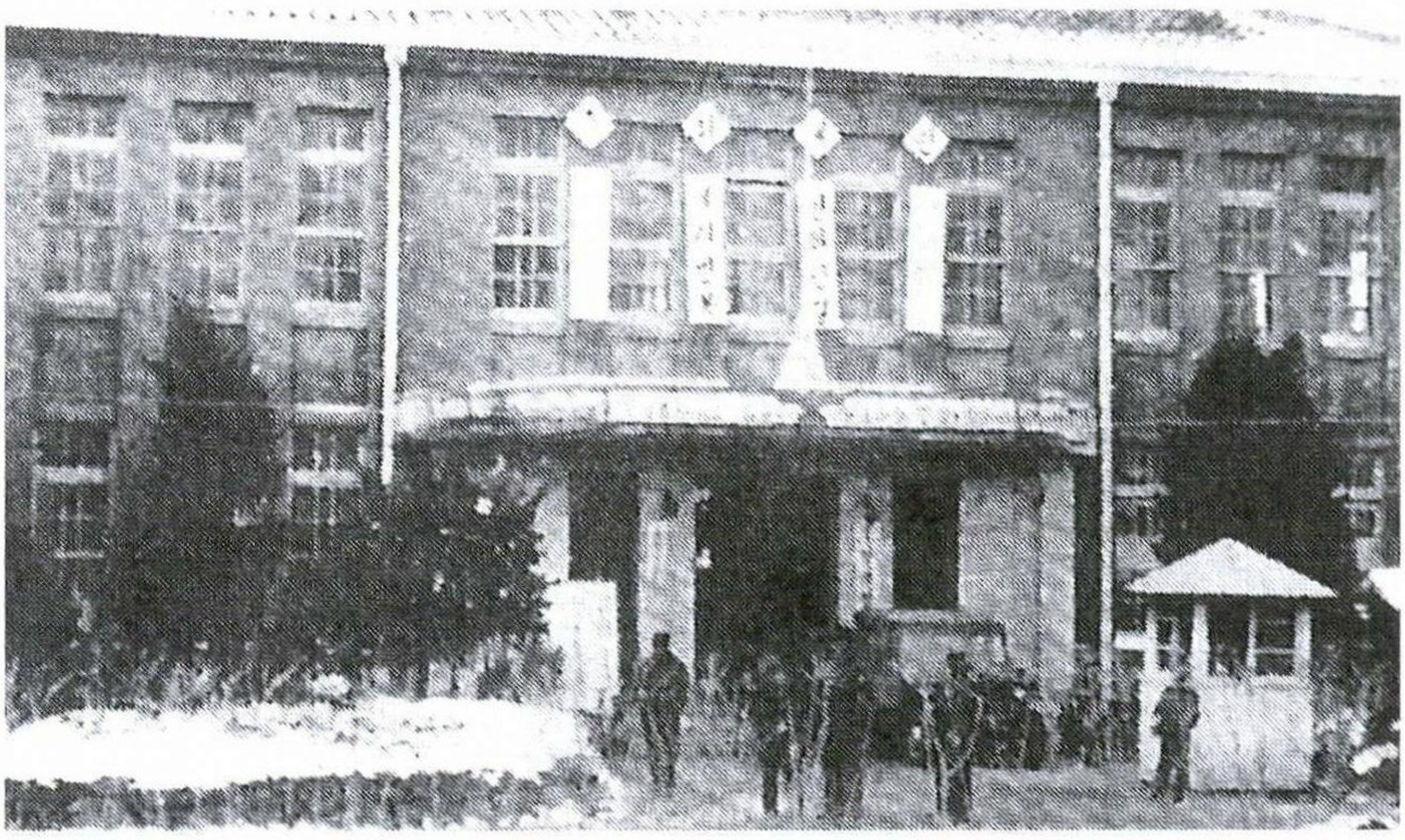


사진 4 | 홍성경찰서(1930년대)

홍주경찰서 경부는 군수를 불법적으로 체포하는 등 무소불위로 지역 사회 민심을 동요시켰다. 토색을 저지르는 지방관리에 대한 성토는 주민들 현실 인식 심화와 더불어 미래에 대한 희망봉을 모색하려는 변화로 이어졌다. 지역민들은 면장 조병훈(趙炳勳)의 죄상을 일일이 나열하여 내부에 시정을 요구했다. 일제 침략 강화와 더불어 사회적인 불안은 변화를 초래하는 요인이었다. 빈번한 자연재해와 무뢰배 출현 등은 일상적인 현상 중 하나였다. 청주진위대 일부 병력의 홍주로 이동은 이와 무관하지 않았다. 파견된 병사들은 약탈과 강제점거 등 오히려 민생불안을 가중했다. 특히 방화와 다름없는 화재 발생은 주민들에게 재산상 손실은 물론 생존권을 위협하는 공포로서 다가왔다.

침략의 전초기지인 행정기관 설치도 병행되었다. 1909년 4월 26일 공포된 홍주군재판소 설치에 관한 법령은 주민들을 긴장시켰다. 「산림령」 시행과 더불어 산송(山訟) 문제와 재산권 분쟁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였다. 관행과 전통적인 의식은 이러한 문제를 자신의 사회적인 존재가치로서 확대하는 경향성을 지닌다. 토지 소유권을 둘러싼 갈등은 중대한 사회문제 중 하나였다. 언론은 이를 규제하거나 완화하기보다도 더욱 조장하는 현실이었다. 자본주의적 여러 관계는 현실이익을 조장함으로 공동체적 생활방식을 기반부터 뒤흔들었다. 이와 같은 변화를 조정하거나 중재하려는 노력은 거의 없었다. 오직 현실적인 이익을 추구하려는 분위기는 상호 불신을 조장하는 등 민족적인 역량을 반감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가운데 자주적인 독립국가 수립을 위한 근대교육 시행을 위한 관심도 점차 나타나기 시작했다. 국권 수호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인은 근대교육을 통한 민지 계발이라는 인식이 변화하고 있었다. 빈번한 물물교류와 다양한 경험은 새로운 사회질서의 재편 요구와 맞물려 진행되었다. 이른바 개신유학자들과 전·현직 관료 등은 사립학교 설립에 앞장섰다. 근대교육을 위한 종교계의 선교사업은 전통적인 가치관의 변화를 초래하는 기폭제였다. 교세 확장을 위한 선교사업은 당시 주민들의

실생활 요구에 부응하여 이루어졌다.

2) 기호흥학회 홍주지회가 변화를 이끌다

외세 침략의 가속화와 더불어 의무교육은 자강론자들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였다. 대한자강회(大韓自强會) 의무교육론은 중추원 의결을 거쳐 각의에서 통과되었다. 통감부는 '시세와 민도에 적합한 교육'을 핑계로 의무교육 시행을 좌절시켰다. 한성부민회(漢城府民會)·마산민의소(馬山民議所)·김해농무회(金海農務會)·고령민회(高靈民會)·강화학무회(江華學務會) 등은 지방자치제 시행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제한적'이나마 의무교육 시행에 앞장섰다. 주민 부담에 의한 사립학교 설립·운영은 바로 일종의 의무교육이나 마찬가지였다. 이동휘(李東輝)는 강화도를 비롯한 이북 지역에 100여 보창학교 지교(普昌學校 支校)를 설립하는 등 대한제국기 의무교육을 실천한 중심인물이었다.

대한자강회를 계승한 대한협회(大韓協會)도 120여 지회를 설립인가하는 등 교육·계몽운동 확산에 노력했다. 충남지역에 설립된 지회는 홍주·직산·정산·은진·부여 등이었다. 식민지화에 대한 위기의식은 이러한 변화를 초래하였다. 특히 서북학회·교남학회·호남학회 등 활동은 근대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을 일깨웠다. 대한협회 지회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도내 직산지회를 제외한 나머지 지회원이나 활동상은 거의 파악할 수 없다. 다만 근대교육기관 설립·후원 등은 중요한 활동영역이었다. 부여·은진·홍주·정산 등지에 지회는 설립되었다고 하나 구체적인 지회원 활동상은 거의 파악할 수 없다. 물론 이들의 활동은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으나 추론에 불과하다.

충남지방을 대표하는 대한제국기 계몽단체는 기호흥학회(畿湖興學會)였다. 정영택(鄭永澤)·이우규(李禹珪) 등은 주요 발기인으로 1908년 1월 19일 서울에서 창립대회를 개최했다. 목적은 기호지방 흥학과 민지계발이었다. 「본회취지서」에 나타난 창립 배경은 이러한 사실을 그대로



雜報

●畿湖興學會趣旨書

惟我畿湖ᄂᆞᆫ 都實北之鄕이라 歌謠家 所傳이오 人民之所標準이니 前代에 人物之盛이 燦然可觀이로다 論道經邦ᄒᆞ야 翊戴ᄒᆞ시던 皐陶者도 于是焉出ᄒᆞ며 樓船ᄒᆞ던 將帥者도 于是焉興ᄒᆞ야 矜式世道者도 于是焉萃ᄒᆞ니 由是而國有庠鄕有序ᄒᆞ야 家絃戶誦ᄒᆞ니 號稱士林之國이 良有以也라 猶且以往往進化ᄒᆞ야 已臻必無今日之現狀이어ᄂᆞᆯ 積久生弊에 調至有此하니 究其原因에 誰任耶아 吾不忍ᄒᆞ고 坐視圖倚藟屛ᄒᆞ야 珍寶ㅣ 燦盈箱ᄒᆞ고 田園이 遍八域者ㅣ 非畿湖人歟아

不知無術ᄒᆞ고 扃鑰金門上玉堂ᄒᆞ야 遍斗綺羅에 炎手可熱者ㅣ 非畿湖人歟아 倚而虎視虎眈ᄒᆞ고 八面獻琛者ㅣ 非畿湖人歟아 近而氣比鯽魚ᄒᆞ고 遠而士待超乃者ㅣ 非畿湖人歟아 倚藉勢力에 武斷鄕曲者ㅣ 非畿湖人歟아 不敎子弟에 倩人支筆者ㅣ 非畿湖人歟아

六卿之位置如何ᄂᆞᆫ 且置勿論ᄒᆞ고 自國之距離廣狹ᄒᆞ야 茫然不知其方向ᄒᆞ며 萬國之歷史如何ᄂᆞᆫ 且置勿論ᄒᆞ고 自國之開國元年을 當然不記甲子ᄒᆞ며 農桑은 至微之事이어ᄂᆞᆯ 一任至愚至蠢之氓ᄒᆞ야 不加研究ᄒᆞ며 工業은 勸之然後에 可進이어ᄂᆞᆯ 一有精妙奇巧之製ᄒᆞ면 乃反詆求無已ᄒᆞ며 商業은 融之通之然後에 可旺이어ᄂᆞᆯ 以貿遷貨居之物로 官家ᄂᆞᆫ 有支定ᄒᆞ고 豪者ᄂᆞᆫ 以外上ᄒᆞ니 此皆기 湖人之罪也라 靜言思之에 始焉寒慄하다가 中焉悚然이오 終焉奮然이로다 吾人之罪ᄂᆞᆫ 吾人이 當之오 吾人之惡은 吾人이 改之니 安有別人이 替當奚罪ᄒᆞ며 替改其惡者歟아 嗟吾兄弟여 嗟吾兄弟여 盟天誓地ᄒᆞ야 悔改既往之罪惡이니 改之如何오 曰奮發也와 革新也니 繼自今으로 愛國家ᄒᆞ며 愛國胞ᄒᆞ되 如肢體하야 知有公益이오 不知有私利ᄒᆞ야 以道德으로 爲可貴ᄒᆞ고 財產으로 爲可輕이면 阿誰敢侮ᄒᆞ리오 嗟我同胞여 盍興乎來어다

以厲設이오 實業ᄂᆞᆫ 可以興이오 智識을 可以開이니 以新精神으로 發新思想ᄒᆞ야 愛ᄂᆞᆫ 特性이 打成一團ᄒᆞ고 研磨硏磋以爲ᄒᆞ야 進化之圖ᄒᆞ면 自當與彌天大潮로 並駕齊驅ᄒᆞ야 免以貿貿ᄒᆞ야 報答我全國同胞ᄒᆞ고 且以無負我畿湖人士之厚望이니 惟我畿湖人士ᄂᆞᆫ 勗哉어다 猛省哉어다 歐人之施敎育에 有一學이면 卽有一會ᄒᆞ야 學校가 日增月盛ᄒᆞ야 學會가 成之於此ᄒᆞ고 學校가 興之於彼ᄒᆞ고 學會가 成之於彼ᄒᆞ고 學校가 興之於此ᄒᆞ니 所以文明進步에 雄飛大陸이라

今夫我國에 有國家思想者ㅣ 莫不痛恨於海陸軍의 無以禦侮와 鐵路鐵道의 無以利用과 金銀銅鐵礦의 無以厚生이나 孰知其所以無者와 最可憂者가 惟敎育問一事이오 而有基也니 百工技藝가 自可就緖하야 網擧目張ᄒᆞ고 迎刃破竹이라 吾東亞氣運에 西北兩道가 最先進明은 所共認知라 近復頻設學會ᄒᆞ야 設立學校ᄒᆞ며 派送遊學ᄒᆞ야 其奮發이 如河決伏流ᄒᆞ고 其勇進이 如大刀闊斧ᄒᆞ야 擬欲建設學校에 養成俊髦하야 派遣十三道ᄒᆞ야 敎育全國靑年ᄒᆞ노니 凡我生斯地斯者ㅣ 曾是自家事라 玉樹階芳의 爲人奴隷와 良田美士의 爲人畜棄은 想皆過人情之所不願이니 戮力獻身에 一切擔負ᄒᆞ야 倒國脈於綴旒ᄒᆞ고 進幸福於盤泰를 切禱至祝ᄒᆞ노라

사진 5 | 기호흥학회취지서(대한매일신보 1908년 1월 19일)

보여준다.

우리 기호지방은 문화의 중추요, 뛰어난 선비의 고장임으로 나라의 중심이자 전국의 가장 모범적인 곳이다. 인물이 찬연(燦然)하니 조정의 주요 관리들은 이곳에서 태어나고 선산에 묻혔다.…(중략)…현재의 불농불상(不農不商)으로 마을이 무단(武斷)하고, 불학불교(不學不敎)로 새로운 인재를 구하는 사람을 비난하고, 인심이 사방으로 흩어져 상하가 서로 존중하지 않고, 교육이 흥하지 않아 습속이 야매(野昧)하고, 실업이 부진하여 국익이 매우 빈약하고, 정치가 문란하니 주권이 외국에 넘겨지는 상황은 기호인사들의 책임이 아니겠는가. 그런 만큼 학문 진흥과 학교 설립으로 청년교육에 노력함은 시급한 과제이다.…(중략)…기호인사들은 본회 목적에



畿湖興學會趣旨書

世我畿湖ᄂᆞᆫ東都寰北之鄕이라國家之所倚毘오人民之所標準이니溯惟歐初에人物之盛이燦然可觀이로다論道經邦ᄒᆞ야翩翩

사진 6 | 기호흥학회취지서(황성신문 1908년 1월 18일)

따라 일심으로 더욱 노력하여 국권 회복을 기약하는 동시에 민족 부활을 꾀한다.

이들은 취지서를 통하여 기호흥학회 취지를 널리 알렸다. 근대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인재를 양성하는 한편 각지에 시찰원을 파견하여 흥학 분위기 고취는 우선적인 과제임을 강조했다. 더불어 기호지역을 중심으로 근대교육 보급과 민지 계발을 위한 지회 설립인가에 노력도 병행하였다.

나아가 본회는 경기도와 충청남·북도 흥학을 목적(제2조)으로 설립하였다. 본회는 이러한 목적을 관철하기 위하여 학업을 권장하며 회보를 간행하여 일반인사의 지식을 주입하여 관내에 교육을 발전케 할 것(제3조)임을 밝혔다. 이는 당시 계몽단체의 공통적인 목표이자 주요 활동영역이었다. 단재 신채호(申采浩)도 "기호지방은 예로부터 학문을 숭상한 곳이었다. 오늘날은 무엇을 배우기에 흥학 두 글자로 기치를 세우면서 본회를 조직하였는가. 2세부터 걸음을 배웠으나, 기차와 속도 경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보부행상(褓負行商)을 배웠으나 세계시장에 진출하려 하나 역시 불가능하다. 21사를 배웠으나 세계 대세와 시국 문제의 해결

이 불가능할 뿐이다. 그런 만큼 '흥학' 2자로 기치를 세워 수백 년간 암흑을 타파하는 한편 강의(强毅)·유신(維新)·독립 등을 배워야 한다. 이리하여 금일에 태어난 우리가 외국인을 대할 때 한국인으로서 그리고 동포를 대할 때 역시 기호인이라고 부르기를 부끄럽지 않을 만큼 자립 자행(自立自行)하며 자유 자주하는 방편으로 기호흥학회를 조직하였다."고 밝혔다. 목적은 근대교육을 통해 시세 변화에 적응하는 동시에 주체적인 기호인과 한국인으로서 자주·자립할 수 있는 능력배양에 의한 국권 회복이었다.

본회 정신은 기호지방에만 한정되지 않고 국가적이며, 정치적이 아니라 교육적임을 거듭 천명하였다. 즉 전국적인 학문 진흥의 기치를 내건 계획과 뜻은 좋으나 실행은 대단히 어려운 사업이다. 문화의 번극(煩劇)한 시대에 분업으로 시작하여 협력으로 끝나게 하고 무애(無涯)한 사업을 홀로 담당하는 것은 실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데에서 비롯되었다. 이에 국가를 위한 조그마한 힘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한다. 더욱이 국가 흥망은 근대교육 여하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근대교육 시행과 진흥만이 사회발전을 도모하여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다. 이는 우리가 가장 기대하는 바이자 본회의 정신이다. 그런 만큼 정부의 실정에 대한 공격이나 시사를 논평하는 모든 정치적인 행동은 중지하고 오직 교육을 통한 '국가정신' 고취에 노력하자고 역설하였다.

흥학과 민지 계발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도 제시되었다. "첫째로 학교를 설립하여 인재를 양성한다. 둘째로 인재를 각지에 파견하여 전국 청년을 교육한다. 셋째로 회보를 발간하여 일반인사에게 새로운 지식을 전파한다."는 등이었다. 즉 구국에 대한 강한 의지보다는 교육진흥을 통해 시대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배양이 강조되었다. 현실모순을 개혁하려는 시대 인식이나 정신이 아니라 근대교육 진흥만이 우선적인 과제로 제시했다.

이처럼 체제를 정비한 후 본회는 지회 설립인가에 박차를 가하고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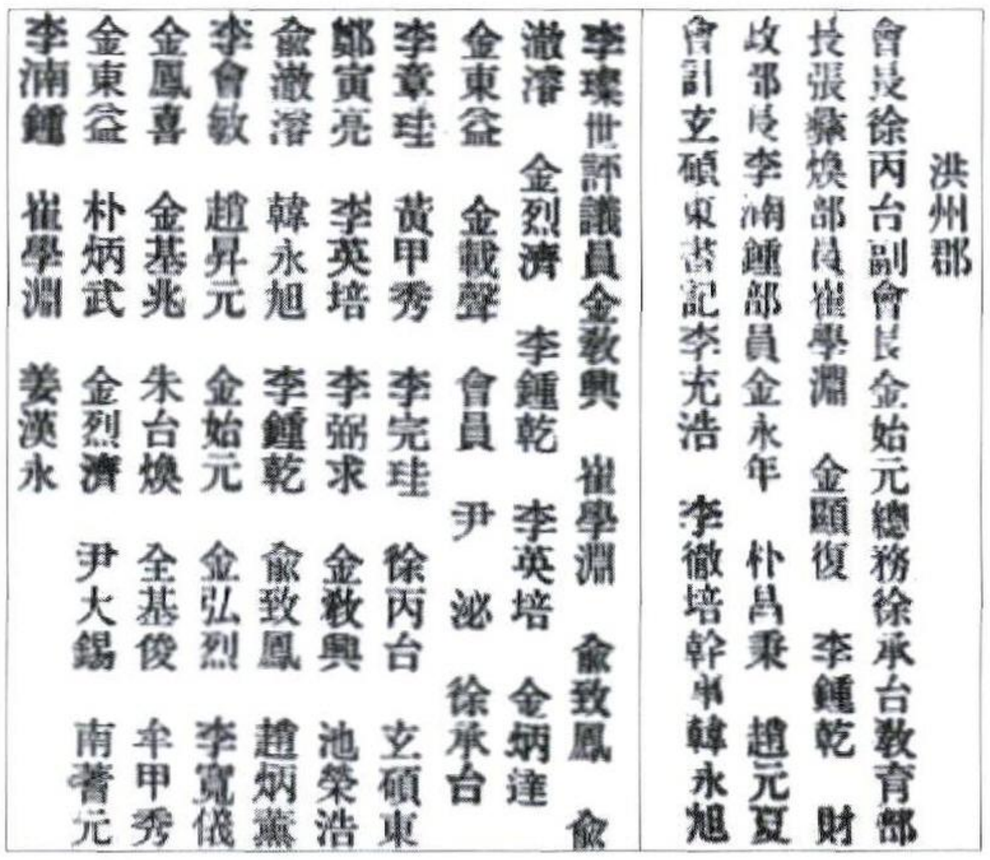

洪州郡
會長徐丙台副會長金始元總務徐承台教育部
長張彝煥部員崔學淵　金顯復　李鍾乾　財
政部長李滿鍾部員金永年　朴昌秉　趙元夏
會計玄碩東書記李充浩　李徹培幹事韓永旭
李璨世評議員金敎興　崔學淵　兪致鳳　兪
澈濬　金烈濟　李鍾乾　李英培　金炳達
金東益　金載聲　金弘烈　李寬儀
李章珪　黃甲秀　李始元　牟甲秀
鄭寅亮　李英培　趙炳薰　全基俊
李完珪　徐丙台　玄碩東　朱台煥
李弼求　金敎興　池榮浩　金烈濟
兪澈濬　兪致鳳　趙炳薰　尹大錫
李會敏　趙昇元　李寬儀　南晉元
金鳳喜　金基兆　朱台煥　姜漢永
金東益　朴炳武　金烈濟
李滿鍾　崔學淵　姜漢永

사진 7 | 기호흥학회 홍주지회원(기호흥학회월보-7)


會長金炳秀　副會長金烈濟　評議員李殷瑔
金佐鎭　金顯復　贊務長金炳翊　贊務員
崔鳳煥　朴驥秉　尹丙台　李起弼　兪鍾兗
尹商學（會員）　李斗鍾　李南圭　金善圭　金炳㬋　金用哲
金泳圭　金星圭　李胤榮　崔基泳　宋良浩
李曾魯　韓川琦
四九

사진 8 | 기호흥학회 홍주지회 임원 개선(기호흥학회월보-9)

섰다. 이는 지역사회로 교육·계몽운동을 파급하려는 목적과 무관하지 않았다. 나아가 계몽운동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인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계몽론자들 의도는 여기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충남지역 최초인 서산지회는 1908년 5월 10일에 설립인가를 받았다. 박상회(朴相會) 등 76명이 지회 설립인가를 청원했다. 본회는 시찰 중지와 동시에 설립인가를 결정하였다.

홍주지회는 1909년 1월에 설립인가를 받았다. 초기 임원진은 지회장 서병태(徐丙台), 부회장 김시원(金始元), 총무 서승태(徐承台), 교육부장 장이환(張彝煥), 재정부장 이남종(李滿鍾), 회계 현석동(玄碩東), 서기 이윤호(李允浩)·이철배(李徹培), 간사 한영욱(韓永旭)·이찬세(李璨世), 평의원 김교흥(金敎興) 외 10명 등이었다. 곧이어 지회장 김병수, 부회장 김열제, 찬무장 김병익, 평의원 김좌진(金佐鎭)·김현복(金顯復)·이은경(李殷瑔) 등 임원진 교체가 있었다. 이 시기를 전후하여 김좌진 등 안동김씨 인사가 대거 지회원으로 가담하였다. 충남지역에 설립인가된 지회는 〈표 1〉과 같다.

표 1 | 기호흥학회 충남지방 지회현황

지회명	지회장	부회장	주요 부서명	회원수	설립인가일
서산	김영년	임명재	총무부, 교육부, 재정부, 회계, 서기, 간사, 평의원	76	1908.5.10
해미	–	–	–	36	1908.7.12
공주	장세호 (김영도)	김재근	총무부, 교육부, 서기, 평의원	30	〃
목천	심형택	윤중섭	총무부, 교육부, 재정부, 회계, 서기, 간사, 찬무원, 평의원	81	1908.8.9
연산	–	–	–	34	1908.9.13
당진	인홍수	강대윤	총무부, 교육부, 재정부, 회계, 서기, 간사, 찬무원, 평의원	32	1908.9.27
홍주	서병태 (김병수 이충호)	김시원 (김열제)	총무부, 교육부, 재정부, 회계, 서기, 간사, 찬무원, 평의원	53	1909.1.16
청양	김용현	조재도	총무부, 교육부, 재정부, 회계, 서기, 간사, 평의원	46	1909.2.20

* 괄호안은 후임자임.

** 출전 | 김형목, 「기호흥학회 충남지방 지회 활동과 성격」, 『중앙사론』 15, 한국중앙사학회, 2001.

〈표 1〉에 나타난 바처럼, 지회 조직은 본회와 매우 유사한 체제였다. 목천·홍주·당진 경우는 찬무원 제도를 도입하는 등 약간 변화를 보인다. 지회원은 목천·서산·홍주 순으로 많았다. 관찰부인 공주지회원은 30여 명으로 '비교적' 소규모였다. 이는 전통적인 가치관이 상존하는 보수적인 지역 특성과 무관하지 않았으라 추측된다. 이후 시세 변화와 더불어 점차 유생들도 전통적인 가치관에서 탈피하였다. 강제병합 직전 공주중학교를 설립하려는 활동은 이를 그대로 보여준다.

지회의 주요 활동은 근대교육기관 설립·후원과 주민에 대한 계몽활동 등이었다. 전통적인 교육기관인 사숙·의숙 폐지 주장은 이러한 맥락에서 비롯되었다. 지회원들은 사숙의 운영자들을 '촌학구가(村學究家)'로서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생존경쟁 시대에 부응할 수 없는 존재로서 인식하고 있었다. 서당 개량화도 이러한 인식 변화와 맞물려 추진되어 나

갔다. 물론 급격한 교육제도·내용·방법 등 변화는 전통과 단절됨으로써 혼란·갈등을 일으켰다. 이는 교사양성제도·교과서발간·교육시설 등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되었기 때문이다. 홍주지회에서 본회에 보고한 다음 글은 이러한 저간의 사정을 엿볼 수 있다.

나라에 보탬이 되는 일이 있다는 말을 듣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 모인 선비들이 아주 많았다. 그런데 지회장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현실은 만만치 않다. 교실은 관청에 부탁하여 빌려 쓰면 되겠지만, 운영비는 조달할 방법이 별로 없다. 재정 곤란을 전하는 청원이 많으니 이를 어찌하면 좋겠는가. 겨우 유지하고 있는 교실도 비적 떼가 할퀴고 간 것처럼 부실하기 짝이 없어 학생들의 절망은 이루다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이에 각 학교의 운영위원들을 특별히 선정하여 여러 지인들에게 일단 학교를 유지하라고 권고했다. 다행히 찬무장 김병익이 노년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진흥하는데 나라를 걱정하는 심정으로 다하고자 한다. 회원들은 지회의 업무를 확장하기로 의결하는 동시에 특별찬무회를 개최하는 등 향후 많은 기대가 예상된다. 마침 지회의 부회장 김열제는 세상이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분개하게 여기고 있다가 새로운 바람이 불어옴에 용기를 얻었다. 회원인 남기원·박병무·이희순·남정구 등은 함께 일을 도모할 만한 사람들이라는 말을 전해 들었다. 이들은 서로 의기가 통해 학생들을 모아 3개 면에 학교를 하나씩 세워 고명한 선생을 초빙하여 학생들을 가르치기로 결의했다.

근대교육 보급을 통해 애국하려는 열정은 대단하나 학교 경비가 빈약하여 운영비 마련조차 어려운 상황이었다. 찬무장 김병익은 이를 타개하

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의 열성에 감복한 홍성지회 부회장 김열제와 남기원·박병무 등은 3개 면에 1개 사립학교를 운영하기로 결의하는 등 분위기를 반전시켰다.

이러한 가운데 홍주에 거주하는 이상현(李商顯)은 개성교육총회(開城教育總會) 창립 1주년을 맞아 후원금 50전을 기부하였다. 이 단체는 개성지역 사립학교설립운동을 비롯하여 내수자강(內修自强)에 입각한 계몽운동을 주도하고 있었다. 보창학교 지교나 배의(培義)학교·광명(光明)학교 등은 단체에서 운영한 대표적인 사립학교였다. 또한 치사면장 김기조(金基兆)도 관내 가가호호를 방문하여 근대교육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주민들의 근대교육에 대한 인식 변화는 이를 통하여 부분적이나마 엿볼 수 있다. 더욱이 홍주경찰서 경부 최건호(崔建鎬)는 근대교육 확산을 위하여 관내를 직접 방문하는 등 주민들 설득에 앞장섰다. 여가를 이용하여 관내 학교의 명예교사로서 자원할 정도로 열성적이었다.

| 3 | 근대교육이 가치관을 변화시키다

1) 근대교육이 발흥하다

개항 이래 입국한 선교사들은 교세 확장을 위한 선교사업에 주력했다. 이들은 의술에 의한 의료사업과 사립학교 설립에 의한 교육사업에 중점을 두었다. 제중원과 배재학당·이화학당은 개신교 선교사업을 대표하는 '상징물'이나 마찬가지였다. 전염병 퇴치 등 위생생활 강조와 공중보건에 대한 관념은 완만하나마 일상생활에서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근대교육에 대한 인식도 과거제나 신분제 폐지 등으로 하층민을 중심으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정부도 "교육입국조서"를 통하여 지덕체에 입각한 근대교육을 실천하려는 의지를 나타내었다.

1890년대 중반 이후 전·현직 관료와 선각자 등은 시무책 일환으로

사립학교를 설립하기 시작했다. 근대교육은 이들에게 '시무책=부국강병책' 으로 인식되는 분위기였다. 이는 점차 지방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유림의 본고장인 안동·밀양·공주 등지에 설립된 사립학교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 근대교육의 사립학교에 의한 주도는 이러한 역사적인 연원에서 비롯되었다. 또한 서울이나 개항장 등지에 유입된 일본인들은 자제교육에 매우 열성적이었다. 당시 일본인 학령아동은 대부분 취학할 정도로 의무교육이나 마찬가지였다. 주민들은 일본거류민들의 근대문물과 생활상을 '동경과 의구심' 에 어린 '이중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빈번한 접촉은 새로운 문물에 대한 '호기심' 이 크게 작용하는 반전으로 이어졌다.

갑오개혁 이래 홍성인 정태진(鄭泰鎭)은 서울에 많은 사립학교 설립 소식에 즉시 상경·입학하였다. 당시 23세에 달하는 청장년이었으나 근대교육을 수용하려는 의지가 충만했다. 『황성신문』은 그의 향학열에 대한 극찬을 아끼지 않았을 뿐만 모범적인 사례로서 보도하였다. 그럼에도 홍성지역 근대교육은 거의 시행되지 않았다. 물론 홍주공립소학교가 설립되었으나 호응은 예상 외로 소극적이었다. 을사늑약 이후 식민지화에 대한 위기의식은 근대교육에 대한 변화를 초래하였다. 지방관과 개신유학자 등은 제2차 홍주의병운동 이후 근대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홍주군수 김상연(金祥演)은 서울에서 교사직(양정의숙과 광신상업학교)을 사임하고 관직생활에 나섰다. 자신의 정치이념을 현실에 활용하려는 입장은 지방관으로 출사하는 직접적인 계기였다. 황성신문사에서 경험은 당시 현실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촉발시킨 요인이었다. 1905년 홍재기(洪在祺)·엄주일(嚴柱日)·이면우(李冕宇)·장도(張燾)·석진형(石鎭衡)·신해영(申海永)·유승겸(俞承兼) 등과 조직한 대한구락부(大韓俱樂部)도 이러한 목적을 관철하려는 의지의 발로였다.

…(상략)…대한구락부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각부 임

원을 선거하였는데 총무원 2인은 홍재기와 나수연 양씨가 피임하였다. 평의원 10인은 장도·유승준(俞星濬)·석진형·이면우·김상연·이갑(李甲)·노백린(盧伯麟)·유승겸·유동작(柳東作)·여병현(呂炳鉉) 등이 피임하고, 회계감사원은 신해영이 피임하였다. 폐회 후에 일동은 신임임원의 지면례(知面禮)를 행하고 각 신입부원의 창립금(創立金)을 갹출한 후에 일제히 만세를 삼창하고 다과회를 개최한 후 산회하였는데 당일 출석한사람이 100여 명 달하였다더라.

이들은 대부분 일본을 유학한 '신진기예' 이거나 사회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인물이었다. 김상연이 자신의 경험을 홍주군수로서 실천에 옮기려는 배경은 여기에서 엿볼 수 있다. 결국 관내 유력자들을 효유하여 장차 지방자치제를 실현하려는 의도는 이와 같은 활동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닌다.

홍주군수 김상연은 120여 환의 월급을 받고 경성 각 학교에 종사하다가 40여 환의 적은 월급에도 홍주군수에 부임함은 자신이 공부한 정치학을 실지에 응용하여 지방정치를 쇄신하려는 목적이다. 인민이 그 본의를 알지 못하는 까닭에 각지에 게시하여 자각한 노인들을 모아 지방자치 행정의 방침을 설명하고 과거의 소송절차를 개량하여 자치제도의 기본을 세우려는 의도이다.

그는 시세변화에 부응한 민권 신장을 위한 일환으로 지방관에 부임하였다. 그의 의도와 달리 현지 사정은 그리 녹록한 현실이 아니었다. 강고하게 잔존한 인습은 모순된 현실을 타파하는 동시에 새로운 사회질서를 모색하는데 커다란 장애물이었다. 새로운 사회건설론은 황성신문사

에 대한 여러 차례 의연과 3차례에 걸친 청원으로 이어졌다. 오히려 일부 유학자 등은 전통적인 가치관을 훼손시키는 행위로 간주하고 저항하는 분위기마저 감지되었다.

홍주경찰서 경부 최건호는 각 동리를 방문하여 근대교육의 중요성을 설파하였다. 관내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은 물론 명예교사로서 활동을 마다하지 않았다. 이에 주민들도 근대교육운동에 동참하는 등 후원에 자발적으로 동참했다. 상서면장 한성교(韓星敎)는 근대지식 보급을 위한 신문 구독을 주민들에게 권장하였다. 면장에 대한 주민들의 절대적인 신임은 이를 추진하는 배경이었다.

> 홍주군 상전면장 한성교는 집무에 임하여 매사 치밀할 뿐만 아니라 개화 문명사상으로 면내 주민들에게 권유하여 여러 신문을 일일이 나누어 주되 가난한 사람에게 구독료를 대신 지급한다. 조세도 상황을 고려하여 절반으로 감액함으로 면민들이 그 덕에 감복하여 매호당 조세 1두씩을 의연하나 전혀 받지 않는다고 칭송이 자자하다.

면장인 그는 소통을 위한 일환으로 신문 구독을 권유했다. 가난한 지식인을 위한 구독료를 대납하는 등 문명사회 건설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였다. 이와 같은 면장의 활동은 주민들과 화합을 도모하는 새로운 자극제였다.

한편 기호흥학회 홍주지회는 교육열 고조에 따라 주민 부담에 의한 3면 1교제 시행을 계획했다. 이는 주민 부담에 의한 사실상 '의무교육' 일환이었다. 유곡면 월현리 홍명학교는 김병목(金炳穆)·김시원(金始元)·조중헌(趙重獻)·윤자정(尹滋鼎) 등에 의하여 설립되었다. 전참서관 김병목과 전참봉 조중헌은 각각 1천500원, 전참봉 김시원은 교사로 40칸 가사, 전영장 윤자정은 200원, 전주서 정인오는 20원을 각각 의연금으로 내놓았다.

임원진은 관찰사인 교장 김가진(金嘉鎭), 부교장 이정식, 교감·학감 김



維新

◉興明學校趣旨書

有人이면斯有學이니學之者는所以裁成其材也라有其材오도不以學成이면材非其材也ㅣ라杞梓ㅅ木이非梓匠之繩墨이면無以成棟梁之材오和璞ㅅ寶ㅣ非良工 矗琢 면無以盡貢獻之寶이니故로天下之物이莫不待學成而爲用하나니而況乎人材之最貴而最大者乎아夫國家者는合衆人以成者也ㅣ라書에曰民唯邦本이라ᄒᆞ고又曰后非民이면罔與守邦이라ᄒᆞ니無人而能爲國者는未之有也ㅣ라爲國에既不可無人이어ᄂᆞᆫ爲人에即不可無學이니無學이면斯非人矣니라

故로禮에曰學은二代共之라ᄒᆞ니蓋其損益은或有異可이나設校而敎育之는莫之或改也ㅣ라自國都로以至于鄕里에庠序校塾이無有不遍ᄒᆞ야四民之成業者ㅣ於斯焉萃ᄒᆞ며百官之登庸者ㅣ於斯焉出ᄒᆞ야、而事其父兄ᄒᆞ며昵其長上ᄒᆞ며當事任職에無不稱能ᄒᆞ야於是乎國家治而百姓安ᄒᆞ나니由是而觀이면爲國之本은寔在於設校而敎育之也ㅣ니라

唯我大韓이更張以來로今已十有餘載에尙不能用力於敎育之道ᄒᆞ야國勢之凌夷衰微ㅣ이自此而可謂極矣라挽近以來로學校之公私設立이稍々層加ᄒᆞ야敎育之道ㅣ漸就發達而國勢之衰弊凌夷者ㅣ庶幾有扶植恢復之望하리로다唯我洪州一人物之殷庶ᄒᆞ미實冠於湖西ᄒᆞ야不下他州而學校之設은尙寥々無聞더니何幸近日에有志諸人이慨然以爲己憂ᄒᆞ야於是乎竭財ᄉᆞ力ᄒᆞ야設 校ᄒᆞ고命名曰洪明이라ᄒᆞ니洪者는洪大也오明者는文明也ㅣ라事業이日就洪大而敎育이、臻文明ᄒᆞ야면豈惟爲茲士之幸福이리오抑國家億萬年無窮之基業에도益攸賴也 輿有榮焉ᄒᆞ리니猗歟休哉ㅣ라唯我同志는勉乎哉어다

발기人 金炳穆 趙重獻
金始元 尹滋鼎 鄭寅五

사진 9 | 홍명학교 취지서(대한매일신보 1907년 9월 25일)

시원, 총무 김병목, 평의장 윤자정, 찬성장 김상연, 회계 정인오(鄭寅五), 교사 이강인(李康寅)·이약우(李若雨) 등이었다. 운영 주체는 교장·부교장·교감·학감·총무·평의장·찬성장·회계·교사 등으로 조직되었다. 개교 초기부터 체제 정비와 아울러 교육 내실화에 박차를 가하였다. 공주관찰사 김가진의 교장직 겸임은 관내 군수 등 지방관리들의 의연금 참여를 유도하는 요인 중 하나였다. 당시 설립된 사립학교 교장은 주로 지방관이 맡았다.

학교 임원은 정기적인 학과시험으로 학생들 향학열을 고취시켰다. 성적우수자에 대한 상품수여식과 능력별 진급식 등은 학생들 스스로에게 자긍심과 자신감을 배가시키는 교육현장이었다. 홍명학교에 대한 명성이 알려지면서 재학생은 100여 명으로 급증할 만큼 대단한 호응을 받았다. 교육과정은 심상과와 고등과로 구분되었다. 재학생은 학업성취도에 따라 갑·을·병·무 4반으로 나누어 가르쳤다. 드디어 성대한 졸업식은 1908년 3월 거행되어 제1회 졸업생으로 정직모(鄭稷謨) 등 7명을 배출했다. 입학식과 졸업식 등 학내 행사는 지방관리는 물론 유지인사가 총출동하는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홍명인'으로서 자부심과 자긍심은 이를 통하여 배가되는 분위기였다.

임원진 의지와 달리 관내에 사립학교가 설립되는 등 운영비 부족으


●斷指同盟 洪州郡西谷面月
峴里洪明學校生徒李鳳相氏等
九人이 該학교폐지가 將來
維持沒策ㅎ야 血書로 該郡紳
洞胸을 표ㅎ야 同盟斷指ㅎ야
●該方針용 該郡守에게 請願을
ㅎ야 ㅎ 호 ㅎ 求ㅎ 앗ㅅ더 觀光
ㅎ들이 莫不歎惜揮淚ㅎ 앗다더
라

●단지동맹
월헌리 홍명학교 홍주군 유곡면
상씨등 구인이 그학교의 경
비군졸을인ㅎ야 단지동맹
ㅎ 혈서도써 그교을 괴ㅎ
홍학회지회에 청원ㅎ고 그
군슈의게 청원ㅎ야 유지ㅎ
방침을 마련ㅎ엿다더라

사진 10 | 홍명학교 단지동맹 관련기사(대한매일신보 1909년 2월 19일)

로 학교가 폐교에 직면하였다. 생도 이상봉·조인호·유학진·조성희·조후도·김태원·이주형·김만동·김후갑 등 9명은 이를 개탄한 나머지 '단지동맹' 을 결행하였다. 이들은 홍주군수와 기호흥학회 홍주지회에 학교 발전책을 요청함으로써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당시 단지동맹은 학생들의 근대학문에 대한 열정을 대내외에 알리는 유효한 방법론 중 하나였다. 이에 발기인 중 전참봉 조중헌은 3천 환 기부를 약속하는 등 운영비 지원에 나섰다. 이와 같이 학교 유지도 결코 평탄한 길을 걷지 않았다. 기부금 활용을 둘러싼 갈등은 당시 홍명학교가 처한 상황을 이해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남산에 거주하는 이남종(李滿鍾)은 읍내 동문 밖에 조양(朝陽)학교를 단독으로 설립하였다. 우수한 내외국인 교사 초빙과 학비 부담 등은 근대교육에 대한 그의 열성에서 비롯되었다. 교주이자 교장인 이남종 이외에 구체적인 임원이나 교사 등은 알 수 없다. 교과목도 기본 소양과 더불어 외국어 교육에 치중하였다. 유지신사의 냉담한 반응에도, 그는 육영사업을 중단하지 않았다.

김병익(金炳翊)·김병수(金炳秀)·김병원(金炳鵷)·김선규(金善圭)·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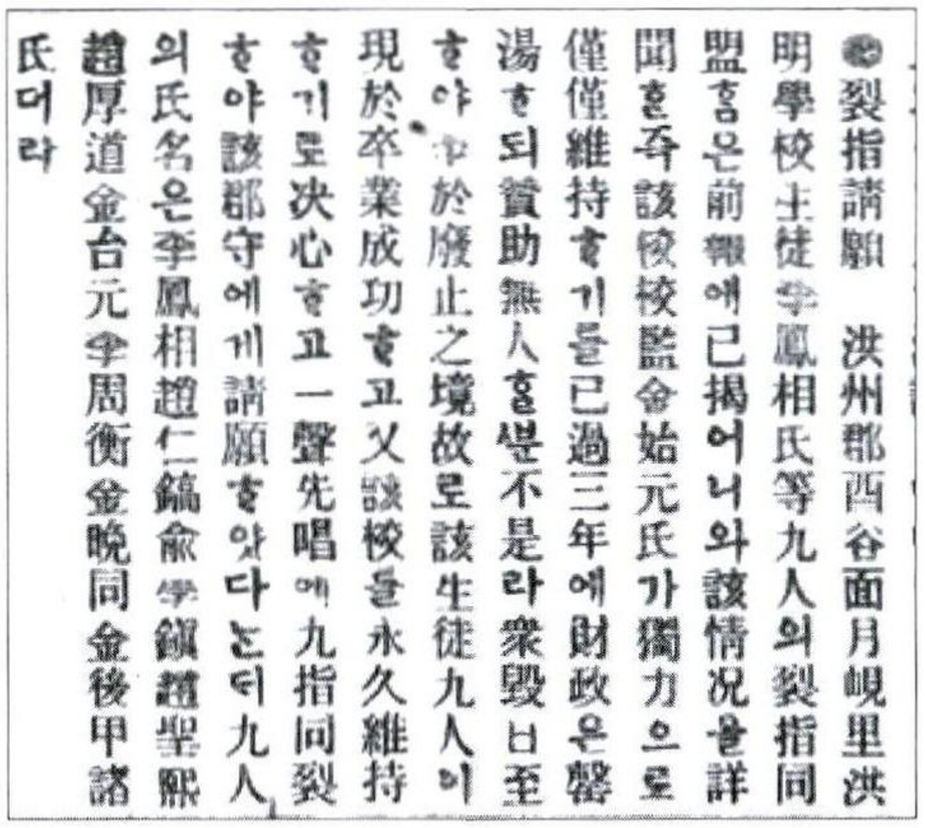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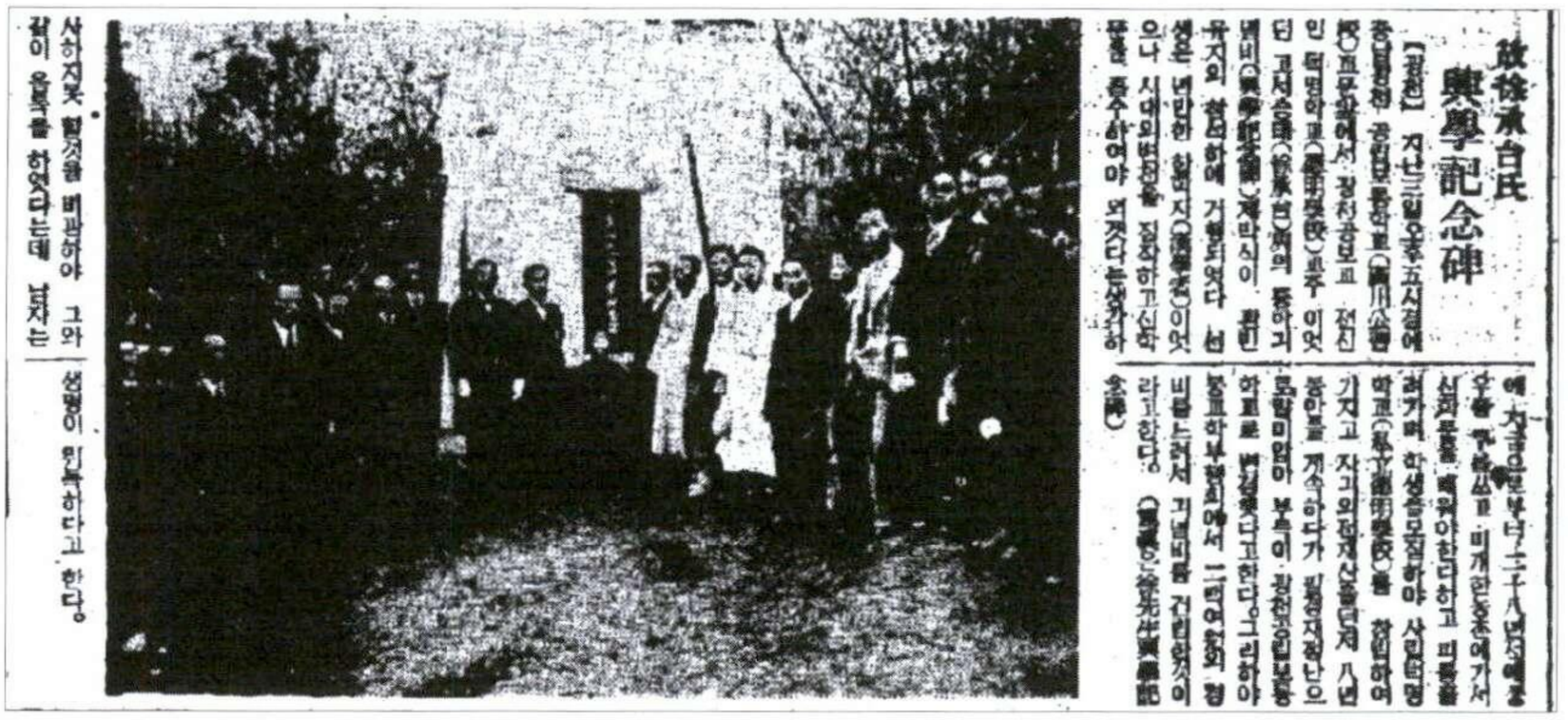

●裂指請願 洪州郡西谷面月峴里洪明學校主徒李鳳相氏等九人의裂指同盟홈은前報에已揭어니와該情況을詳聞홀쥬該校校監金始元氏가獨力으로僅僅維持ᄒᆞ기를已過三年에財政은罄湯ᄒᆞ되贊助無人홀ᄲᅮᆫ不是라衆毁日至ᄒᆞ야於廢止之境故로該生徒九人이現於卒業成功ᄒᆞ고又該校를永久維持ᄒᆞ기로決心ᄒᆞ고一聲先唱에九指同裂ᄒᆞ야該郡守에게請願ᄒᆞ얏다ᄂᆞᆫᄃᆡ九人의氏名은李鳳相趙仁鎬兪學鎭鞏熙趙厚道金台元李周衡金晩同金後甲諸氏더라

사진 11 | 홍명학교 단지동맹(황성신문 1909년 3월 9일)

필(尹泌) 등은 1908년 호명학교를 설립하였다. 이들은 판서·의관·군수 등을 거친 전직 관료로서 윤필을 제외하고 안동김씨 문중인들이었다. 이는 개명한 문중에서 설립한 '문중(門中)학교' 였다. 학교 임원진이나 교과목 등 구체적인 사항은 현재까지 알 수 없다. 다만 발기인이 기호흥학회 홍주지회를 주도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기호학교의 운영체계와 교과목을 참작하였으리라 짐작된다. 부설인 법률전문과는 당시 기호학교의 법률특별과 운영과 무관하지 않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유지인사 20여 명도 찬성원으로 가담하는 등 재정적인 지원에 나섰다. 이는 관내 사립학교 설립을 유도하는 '기폭제'로 작용하였다. 특히 최병창(崔秉昌) 등이 설립한 금란의숙(金蘭義塾)은 기호학교지교로 인가를 받았다. 금난의숙은 기호학교지교로서 인가를 받은 최초 교육기관이었다.

덕명의숙(학교)은 1908년 발기인 서승태(徐承台), 찬성장인 군수 윤필 등에 의하여 설립되었다. 이들은 설립취지서를 통하여 목적과 학교명이 지닌 의미를 밝혔다. 이는 근대교육 수용과 전통교육 계승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민족교육은 이러한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임원진으로 교주는 서승태, 교장은 박창병(朴昌秉, 후임 이승욱), 학감은 방철용(方哲容), 교사는 이창규·이은규 등이었다. 교과목은 공립보통학교에 준하였으나 특히 민족의식을 일깨우는 역사와 지지를 중시했다. 이는 발기인이자 교주인 일농 서승태의 교육관인 '삼요론(三要論)' 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다. 홍성지회는 덕명학교가 전주민



故徐承台民
興學記念碑

【궁전】 지난三일오후五시경에 …

사하지못 할것을 비관하야 그와 같이 음독을 하엿다는데 본처는 …

사진 12 | 고 서승태 선생 흥학공적비(동아일보 1935년 11월 9일)

호응을 받는 등 기호지역 '모범학교'로 본회에 보고할 정도로 많은 관심을 보였다. 교주 서승태를 중심으로 박창병·이충호·서태석(徐台錫) 등은 면내 가가호호를 방문하여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었다. 감동한 주민들은 모두 의연금 대열에 참여하는 등 사실상 '의무학교'인 면립(面立)학교였다. 덕명학교는 궁경면 덕정리 주민들의 상징이자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희망봉'이었다. 1910년 7월 거행된 제1회 졸업식은 궁경면을 벗어나 홍성지역 초유의 대단한 경사였다.

> 홍주군 궁경면 사립덕명학교에서 제1회 졸업식을 거행하였다. 졸업생은 서홍모·서승완·서봉석·김상회·정인해·서만동·윤두영·성기영 등 8인이라. 군수 윤필의 공책 도서의 우수상품과 같은 군 흥학지회(기호흥학회 홍주지회) 대표자 이충호의 권면하는 연설이 있었고, 원근에서 모여든 남녀 참여자는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이 학교는 이번 졸업 후에 폐지할 비운에 이르니 임원의 박창병·서태석·방철용·이희홍 4명과 졸업생 8명이 교주(校主) 서승태의 4년간 유지한 열심에 감격 분발하여 유지인사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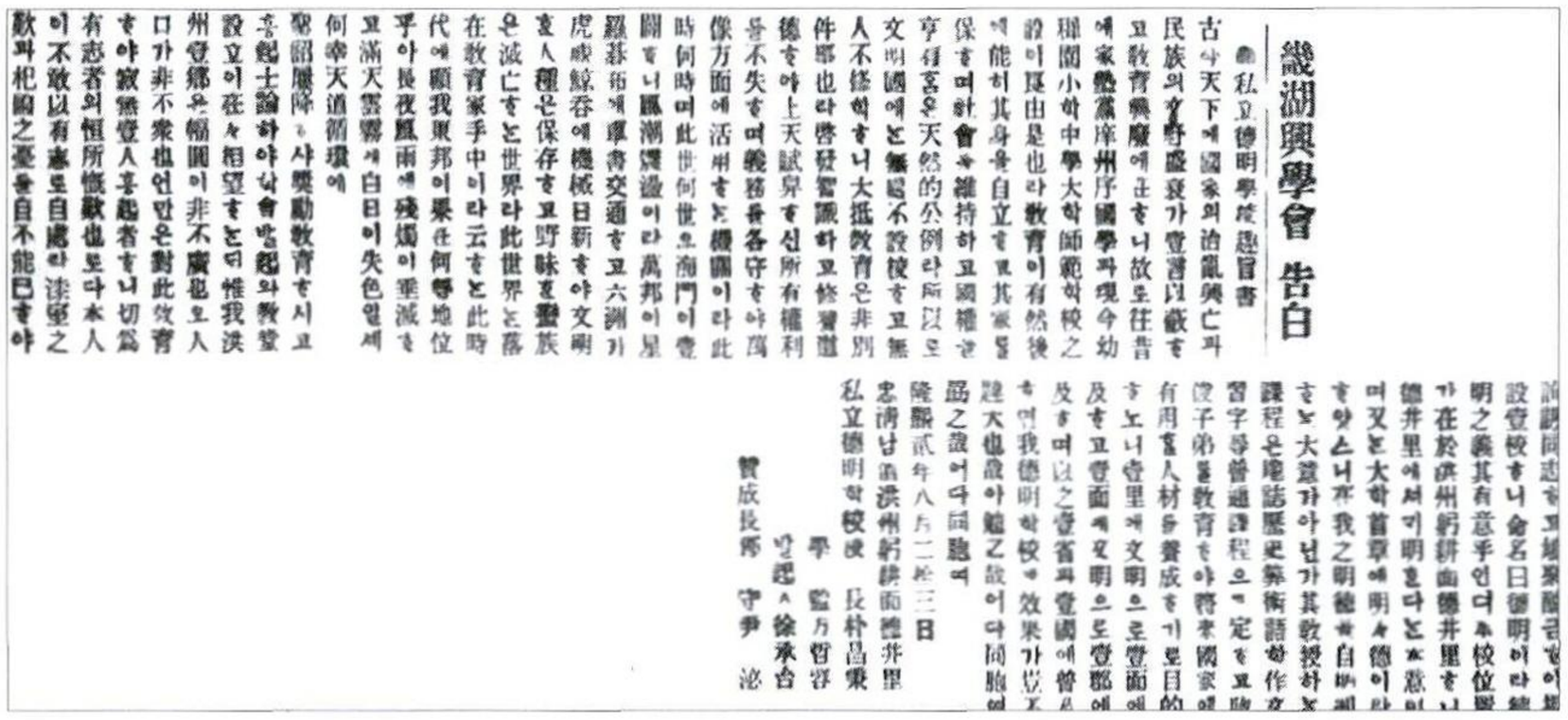

幾湖興學會 告白
私立德明學校趣旨書
古今天下에 國家의 治亂興亡과 民族의 文野盛衰가 豈皆因敎育乎아 是故로 往昔 列國에 家塾黨庠州序國學과 現今 幼稚園小학中學大학師範학校之設이 莫由是也라 敎育이 有然後에 能히 其身을 自立하고 其家를 保하며 社會를 維持하고 國權을 享有할지니 文明國에는 無國不設校하고 無人不修학하니 大抵敎育은 非別件事也라 啓發智識하고 修養道德하야 上天賦與하신 所有權利를 不失하며 義務를 各守하야 萬像方面에 活用하는 機關이라 此時何時며 此世何世오 海門이 豈閉하니 風潮激盪이라 萬邦이 星羅棋布에 車書交通하고 六洲가 虎視鯨呑에 機械日新하야 文明호 人種은 保存하고 野昧호 劣族은 滅亡하는 世界라 此世界는 在敎育家手中이라 云하는 此時代에 顧我東邦이 衆在何等地位乎아 長夜風雨에 殘燭이 垂滅하고 滿天雲霧에 白日이 失色일세 何幸天道循環에
聖詔屢降하사 獎勵敎育하시고 又命紀士論하야 設會勸紀하야 敎養設立이 在在相望하는데 惟我洪州 一鄕은 幅員이 非不廣也오 人口가 非不衆也언만은 對此敎育하야 寂無覺人호 起者하니 切爲有志者의 恒所慨歎也로다 本人이 不敢以有志로 自處하야 徒望之歎과 杞國之憂를 自不能已하야 更不揆不敏하고 糾合同志하야 設一校하니 命名曰德明이라 蓋取明德新民之義하야 其有意乎인뎌 本校位置가 在於洪州紗峴面德井里하니 德井里에 舊有明호다 호 意하야 又호 大학首章에 明明德이라 하얏스니 本我之明德을 自明하고 大호 大學가아닌가 其敎授科目과 課程은 略倣歷史算術語학作文習字等普通課程으로 一定하야 務要國家에 堂堂子弟를 敎育하야 將來國家에 有用호 人材를 養成하기로 目的하노니 一般里內 文明으로 一般面內 及호 一般面에 及하며 以之一般面과 一般國에 曾無不及하야 我德明학校의 效果가 豈不偉大也哉아 建大也哉아 願我同胞僉君子는 幸賜一言之說하야 以爲之證하야다 同聽하
隆熙 貳年 八月 二十三日
忠淸南道洪州紗峴面德井里
私立德明학校主 長朴昌秉
學監方晳容
贊成人 徐承台
贊成長鄭 守爭 泌

사진 13 | 사립덕명학교 취지서(대한매일신보 1908년 9월 25일)

더불어 이를 유지하기 위한 학부형회를 조직하였다더라.

학교가 재정난으로 폐교할 지경에 이르자, 기호흥학회 회원과 졸업생 8명으로 학부형회 조직 계획을 밝혔다. 목적은 덕명학교 유지와 교육 내실화 도모였다. 주민들은 분위기 반전을 위하여 자발적인 의연금 모집에 나섰다. 이러한 노력은 1914년까지 사립학교로서 유지될 수 있었다. 임원진과 주민들의 헌신적인 열정은 학교를 유지하는 기반으로 작용했다. 1915년 광천공립보통학교로 변경된 후 일제강점기 홍성지역을 대표하는 초등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였다.

일본에서 다년간 유학하고 귀국한 유석우(庾錫祐)와 유지신사 등은 북면 밖 교동에 정리학원을 설립했다. 유석우는 유학 경험을 살려 고향의 부진한 근대교육을 널리 보급하여 문명사회를 건설하려는 의도였다. 학교 설립에서 주도적인 역할뿐만 아니라 명예교사로서 자원은 이러한 목적과 맞물려 있었다. 이에 박양래·박성래·모기준·전경일·김상숙 등은 다수 의연금을 출연하여 교세를 확장할 수 있었다.

화성면 광명의숙 설립에 언론은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발기인 대부분은 유림으로 유림계의 모범적인 사례로서 널리 회자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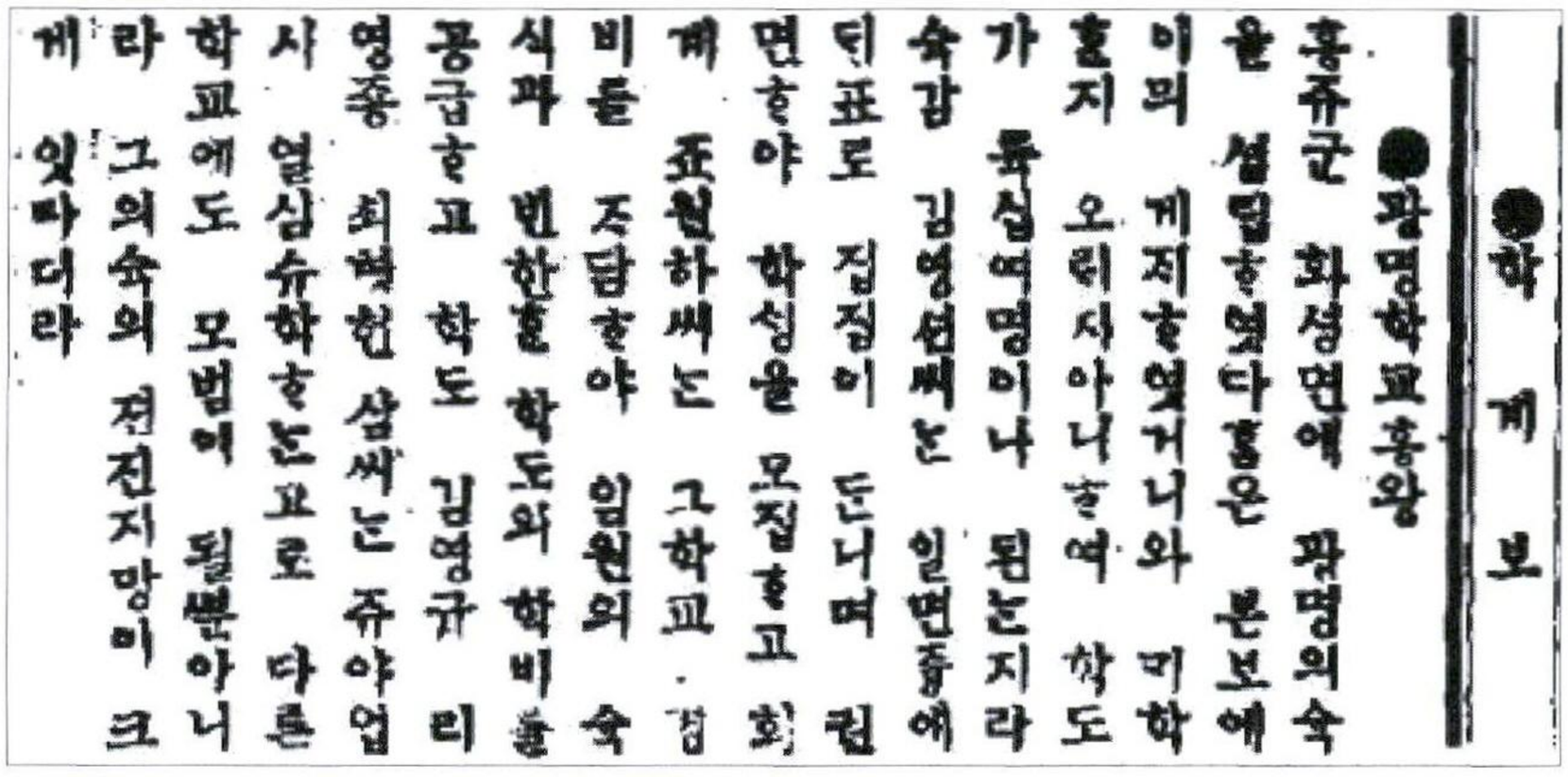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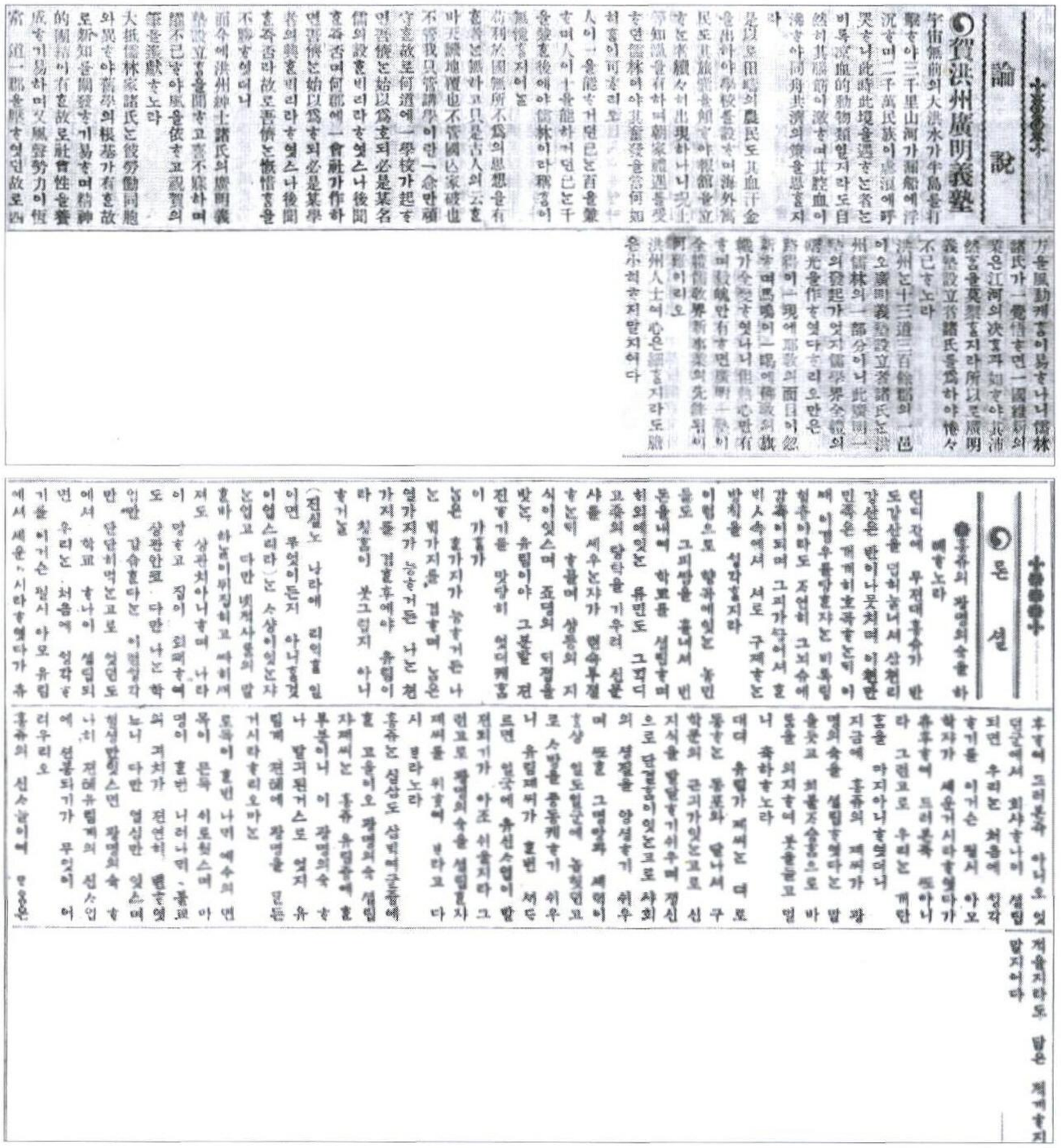

●학 계보
●광명학교 홍왕
홍쥬군 화성면에 광명의숙 본보에 설립홈은 본보에 이의 게지홈엿거니와 미학 홀지 오리사아니홈여 학도 가 륙십여명이나 됨는지라 슉감 김영션씨는 일면즁에 덕표로 집집이 돈니며 권면홈야 학싱을 모집홈고 회계 죠원하씨는 고학교 김 비를 조담홈야 임원의 슉 식과 빈한홀 학도와 학비를 공급홈고 학도 김영규 리 영즁 최학헌 삼씨는 쥬야업 시 열심슈학홈고로 다른 학교에도 모범이 될뿐아니 라 그의슉의 젼진지망이 크 게 잇다더라

사진 14 | 광명의숙 기사(대한매일신보 1910년 6월 30일)

…(상략)…옛날 사람의 말한 바와 같이 하늘이 뒤집히고 땅이 꺼져도 상관치 아니하며 나라가 망하고 집이 퇴폐해도 상관 않고 다만 나는 학업만 강습한다는 이런 생각만 단단히 먹는 고로 어떤 도에서 학교 하나가 설립되면 우리는 처음에 생각하기를 이것은 필시 아무 유림에서 세운 것이라 하였다가 이후에 들어본즉 아니오. 어떤 군에서 회사 하나가 설립되면 우리는 처음에 생각하기를 이것은 필시 아무 학자가 세운 것이라 하였다가 이후에 들어본즉 또한 아니라. 그런고로 우리는 개탄함을 마지 아니하였더니, 지금 홍주의 여러 사람이 광명의숙을 설립한 소식을 듣고 너무나 기쁜 나머지 바람을 의지하여 붓을 들고 멀리 축하하노라. 대저 유림 제씨는 저 노동하는 동포와 달라 구학문의 근기(根基)가 있는 고로 신지식을 발달하기 쉬우며 정신으로 단결함이 있는 고로 사회성을 양성하기 쉬우니 또한 그 명망과 세력이 항상 1도(道) 1군(郡)에 높았던 고로 사방을 퍼지게 하기 쉬우니 유림 제씨가 한 번 깨



論說

◎賀洪州廣明義塾

宇宙無前의 大洪水가 半島를 打擊ᄒᆞ야 三千里山河가 漏船에 浮況ᄒᆞ매 二千萬民族이 虛湲에 呼哭ᄒᆞ니 此時此境을 遇ᄒᆞᄂᆞᆫ 者ᄂᆞᆫ 비록 冷血的 動物類일지라도 自然히 其腦筋이 激ᄒᆞ며 其腔血이 湧ᄒᆞ야 同舟共濟의 策을 思ᄒᆞᄂᆞᆫ지라

是以로 田畝의 農民도 其血汗金을 出하야 學校를 設ᄒᆞ며 海外萬民도 其旅費를 捐ᄒᆞ야 報館을 立ᄒᆞ고 來纘々히 出現하나니 況士等知識을 有하며 朝家恩遇를 受ᄒᆞᆫ 儒林이야 其奈發을 當何 知하리오 이러므로 日々 ○○○○ 人이 一을 能ᄒᆞ거던 己도 百을 兼ᄒᆞ며 人이 十을 能하거던 己도 千을 倍ᄒᆞᆫ 後에야 儒林이라 稱ᄒᆞᆯ이 無愧ᄒᆞᆯ지어ᄂᆞᆯ

苟利於國이면 無所不爲의 思想을 有ᄒᆞᆫ 者ᄂᆞᆫ 無하고 只是古人의 云ᄒᆞᆫ 바 天賦地載也不管國亡家破也不管我只管講學이란 一念만 頑守ᄒᆞᆫ 故로 何道에 一學校가 起ᄒᆞ며 何處에 一會社가 作하여 연ᄆᆞᆫ 倡ᄒᆞᆫ다 始以爲ᄒᆞ되 必是某學者의 設ᄒᆞᆫ 비라라ᄒᆞ엿스나 後聞ᄒᆞᆫ즉 否며 何郡에 一會社가 作하여 연ᄆᆞᆫ 倡ᄒᆞᆫ다 始以爲ᄒᆞ되 必是某學者의 設ᄒᆞᆫ 비라라ᄒᆞ엿스나 後聞ᄒᆞᆫ즉 否라 故로 吾儕ᄂᆞᆫ 慨惜ᄒᆞᆷ을 不勝ᄒᆞ엿더니

而今에 洪州紳士諸氏의 廣明義塾設立ᄒᆞᆷ을 聞ᄒᆞ고 喜不寐하며 感不已ᄒᆞ야 風을 依ᄒᆞ고 祝誓의 筆을 盡獻ᄒᆞ노라

大抵儒林家諸氏ᄂᆞᆫ 彼勞働同胞와 異ᄒᆞ야 舊學의 根基가 有ᄒᆞᆫ 故로 新知를 開發ᄒᆞᄂᆞᆫ 기易ᄒᆞ며 精神的 團結이 有ᄒᆞᆫ 故로 社會性을 養成ᄒᆞᄂᆞᆫ 기易하며 又風聲勢力이 恒常 道一郡을 振ᄒᆞ엿던 故로 四方風動케 ᄒᆞᆷ이 易ᄒᆞ나니 儒林諸氏가 一覺悟ᄒᆞ면 一國靡然의 業은 江河의 決ᄒᆞᆷ과 如ᄒᆞ야 其浦然ᄒᆞᆷ을 莫禦ᄒᆞᆯ지라 所以로 廣明義塾設立ᄒᆞᆫ 諸氏를 爲하야 憮々不已ᄒᆞ노라

洪州ᄂᆞᆫ 十三道三百餘郡의 一邑이오 廣明義塾設立ᄒᆞᆫ 諸氏ᄂᆞᆫ 洪州儒林의 一部分이니 此廣明一塾의 發起가 엇지 儒學界全體의 曙光을 作ᄒᆞ엿다ᄒᆞ리오만은 跛鱉이 一現에 邛歌의 面目이 忽新ᄒᆞᆫ 격 馬鳴이 一聲에 神駿의 氣概가 全現ᄒᆞ엿나니 但其心思有ᄒᆞ며 設施有ᄒᆞ면 廣明一塾이 全體儒敎界新事業의 先鋒되ᄂᆞᆫ 기 何難이리오

洪州人士여 心은 謂ᄒᆞ지라도 脫은 齊ᄒᆞ지 말지어다

◎론 설

●공쥬의 광명의숙을 하례ᄒᆞ노라

턴디간에 무적대공쥬가 반도강산을 덥허 눌너서 삼쳔리 강산은 ᄯᅡ이나 못치며 이쳔만 민족은 ᄯᅡ이나 못치며 이쳔만 민족은 ᄯᅡ이나 못치ᄂᆞᆫ ᄃᆡ 이ᄒᆡ에 이ᄒᆡ우룸당ᄒᆞᆫ자ᄂᆞᆫ 비록 림ᄒᆞᆫ이라도 조연히 그 ᄉᆞ슴에 감쥭이되며 그 피가 끌어서 ᄒᆞᆫ 번 시ᄉᆞ속에서 셔로 구제ᄒᆞᄂᆞᆫ 방칙을 ᄉᆡᆼ각ᄒᆞᆯ지라

이럼으로 항과에잇ᄂᆞᆫ 동민들도 그 ᄉᆡᆼ활을 ᄒᆞᆯ너서 민ᄉᆞᆼ문뎨에 학ᄇᆞ를 ᄉᆡᆯ립ᄒᆞ며 허희의예잇ᄂᆞᆫ 류민도 그 ᄃᆡ로 고죵의 당락을 기우려 신분ᄉᆞ를 세우ᄂᆞᆫ자가 ᄇᆡᆫ숙부절ᄒᆞᄂᆞᆫ ᄃᆡ 학ᄇᆞ를 ᄉᆞᆼ통의 지식이잇스며 죠뎡의 디졍을 밧ᄂᆞᆫ 류림이야 그ᄇᆞᆫ할 젼진ᄒᆞᆯ기를 맛당히 엇더케홈이 가ᄒᆞᆯ가

ᄂᆞᆫ 비가지로ᄃᆞ 능ᄒᆞᆯ거든 나ᄂᆞᆫ 열가지가 능ᄒᆞᆯ거든 나ᄂᆞᆫ 쳔가지를 겸ᄒᆞᆫ후에야 류림이라 칭홈이 붓그럽지 아니ᄒᆞᆯ거ᄂᆞᆯ

(젼셤노 나라에 리익될 일이면 무엇이든지 아니ᄒᆞᆯ것이업스리라)ᄂᆞᆫ 소상이잇ᄂᆞᆫ자ᄂᆞᆫ 업고 다만 녯젹사ᄅᆞᆷ의 말ᄒᆞᆷ하ᄂᆞᆫ이ᄀᆞ지고 ᄯᅡ이져도 상관치아니ᄒᆞᆷ며 나라이 망ᄒᆞ고 집이 ᄒᆡ패ᄒᆞᆷ에도 상관안코 다만 나ᄂᆞᆫ 학인ᄆᆡᆫ 갑슥ᄒᆞ다ᄂᆞᆫ 이ᄒᆡ상각만 단단히먹고로 엇던도에서 학교 ᄒᆞ나이 셜립되면 우리ᄂᆞᆫ 처음에 ᄉᆡᆼ각ᄒᆞ기를 이거슨 ᄌᆞ시아ᄆᆞᆫ 젼혀 ᄉᆞᆼ업고로 ᄌᆞ시라ᄒᆞ엿다가 후ᄒᆡ에 드러본즉 아니오 엇던군에서 회사ᄒᆞ나이 셜립되면 우리ᄂᆞᆫ 처음에 ᄉᆡᆼ각ᄒᆞ기를 이거슨 ᄌᆞ시아ᄆᆞᆫ 젼혀 ᄉᆞᆼ업고로 ᄌᆞ시라ᄒᆞ엿다가 후ᄒᆡ에 드러본즉 ᄯᅡ이니라 그럼으로 우리ᄂᆞᆫ ᄆᆡᆫ단ᄒᆞᆫ 흠을 아지아니ᄒᆞᆯ엿더니 지금에 공쥬의 ᄆᆡᆼ명의숙을 셜립ᄒᆞᆫ엿다ᄂᆞᆫ 말ᄉᆞᆷ을 ᄃᆞᆺ고 ᄒᆡ불조슥ᄒᆞᆷ으로 바ᄅᆞᆷ을 의지ᄒᆞ며 ᄇᆞᆺ을달고 멀니 츅하ᄒᆞᄂᆞᆫ노라

대뎌 류림가 ᄆᆡᆼ ᄆᆡᆫ ᄃᆡ로 동ᄒᆞᄂᆞᆫ 동로와 달나셔 구학ᄉᆞᆫ의 근긔가잇ᄂᆞᆫ고로 신지식을 ᄒᆞᆯ달ᄒᆞ기쉬우며 ᄌᆡᆼ신으로 단결ᄒᆞ기쉬우며 ᄉᆞᆼ활의 ᄉᆞᆼ질을 양셩ᄒᆞ기 쉬우며 ᄯᅩᄒᆞᆫ 그 ᄆᆡᆼ양과 ᄆᆡᆼ력이 ᄒᆞᆼ상 일도일군에 ᄂᆞᆷ쳑업고로 스방을 풍동케ᄒᆞ기 쉬우니 류림ᄆᆡᆼ씨가 ᄒᆞᆫ번 셔ᄃᆞ르면 일국에 류심ᄉᆞ업이 발젼되기가 아조 쉬울지라 그런고로 광명의숙을 셜립ᄒᆞᆫ 제씨를 위하여 바라며 ᄃᆞ시 ᄇᆞ라ᄂᆞᆫ 바ᄅᆞᆫ 공쥬ᄂᆞᆫ 13도 300여 군 중에 ᄒᆞᆫ 고을이오 광명의숙 셜립자 제씨ᄂᆞᆫ 공쥬 류림 중에 ᄒᆞᆫ 부분이니 이 광명의숙 하나가 발기된 것으로 어찌 류림계 젼체에 광명을 만든 것이라 하리오마ᄂᆞᆫ…(중략)…다만 열심만 있으면 혈성(血誠)만 있으면 광명의숙 하나가 젼체 류림계의 새로운 사ᄉᆞᆫ을 ᄆᆡᆨ지어다 ᄆᆡᆨ지어다 ᄆᆡᆨ지어다

사진 15 | 광명의숙 설립에 대한 기사(대한매일신보 1910년 2월 8일)

달으며 한 나라에 유신사업이 발전되기가 아주 쉬울지라. 그런고로 광명의숙을 설립한 제씨를 위하여 바라며 다시 바란다. 홍주는 13도 300여 군 중에 한 고을이오. 광명의숙 설립자 제씨는 홍주 유림 중에 한 부분이니 이 광명의숙 하나가 발기된 것으로 어찌 유림계 전체에 광명을 만든 것이라 하리오마는…(중략)…다만 열심만 있으면 혈성(血誠)만 있으면 광명의숙 하나가 전체 유림계의 새로운 사

업에 선봉 되기가 무엇이 어려우리오. 홍주의 신사들이여
마음은 적을지라도 담은 적게 하지 말지어다.

이를 계기로 전국적인 주목과 아울러 교세는 거듭 발전할 수 있었다. 이 학교는 개학 초기에 60여 명이나 호응하는 등 대단한 홍주는 물론 호서 일대 관심사로서 부각되었다. 특히 숙감 김영선(金永善)은 가가호호 방문하여 학생을 모집하는데 진력을 다했다. 회계 조원하(趙元夏)도 임원의 숙식비과 빈궁한 생도들 학비 조달에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김형규·이형종·최병현 등 생도들도 맹렬한 학업 정진으로 이에 부응하고 나섰다. 소식은 홍주 관내로 파급되어 경쟁적인 향학열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었다.

오사면 화전에 거주하는 황기연(黃耆淵)은 청년들 몽매함을 개탄하고 있었다. 사립학교 설립에 의한 근대교육 보급 소식을 접하자 면장 김봉희(金鳳喜)와 유지신사 신두현(申斗鉉)·정인호(鄭寅好)·신구현(申九鉉)·안상희(安商熙)·이충호(李充浩) 등과 함께 화명학숙을 설립했다. 임원진은 숙장 황기연, 숙감 신두현, 교사 문장훈(文章勳)·이병직(李秉直) 등이었다. 1909년 11월 11일 거행된 개교식에서 이충호 축사와 조선하 연설 후 9세 황칠석의 격절한 답사로 박수갈채를 받았다. 현장에서 모금된 의연금은 60여 원에 달했다. 면내 주민들도 매년 논 1두락당 조 2승씩 기부하기로 결의하는 등 대단한 기대감을 나타내었다.

이와 더불어 야학도 설립되는 등 주경야독하는 분위기를 조성시켰다. 사회진화론 확산에 따른 근대교육에 대한 인식 변화는 이를 추진하는 주요한 배경이었다. 국문야학과 상명노동야학교는 홍성지역을 대표하는 노동야학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전자는 홍명학교 부설로 운영되었으며, 교감이자 학감인 김시원과 교사 등이 명예교사로서 활약했다. 교과목은 한글·한문·산술 등으로 편성하였다. 후자는 덕명학교 부설로 임원진은 교장 이승욱, 교사 이창규·이은규 등이었다. 야학은 교육열 고조에 부응한 '대안학교' 였다. 당시 설립된 '대표적인' 근대교육기관은 〈표 2〉와 같다.

표 2 | 한말 홍성지역 근대교육기관 현황

년 도	학교명	소재지	설립자·교사	교과목	전 거
1907	홍명학교	유곡면 월현리	김병목;설립자 김상연;찬성장 윤자정;평의장 김가진;교장 이정식;부교장 김시원;교감·학감 이강인·이약우;교사	심상과, 고등과 100(4반)	『기호』7·8·9;大 1907.7.21, 8.11,9.22,9.24, 9.25,1908.1.22,3.6,11.28, 1909.2.19; 대1908.1.21;황1907.7.22, 1908.11.25,1909.2.17,3.9, 10.28
	조양학교	읍내 동문 외	이남종;교주 내외국교사 초빙	신학문, 외국어	황1907.7.22;大1907.7.21
1908	호명학교	갈산	김병익(전판서) 김병수(전군수) 김선규(전군수);교사	법률전문 과정 부설	大1908.10.31,11.1,11.24; 황1908.10.31,11.1.; 『기호』11;중외1930.2.16
	덕명학교	궁경면 덕정리	서승태;교주·발기인 박창병(이승욱);교장 방철용;학감 이창규·이은규;교사 윤필;찬성장	지지,역사, 산술,어학, 작문,습자	大1908.1.22,9.25, 1909.12.25;황1909.3.9, 1910.7.27;경1909.4.30, 5.14;『기호』8;조선중앙 1935.11.5
	국문야학	홍명학교내	김시원;교사	국문·한문·산술;다수	大1908.1.22
	화명학숙;화명학교	오사면 화전	황기연;숙장 신두현;숙감 문장훈·이병직;교사		황1909.12.23;大 1909.12.24
	정리학원	북문 외 교동	유석우, 유지제씨	보통학문;다수	대1909.4.7;大 1909.4.9,4.23
1909	광명의숙	화성면	유지제씨,이규응;숙장 김영선;숙감 임승주;교사·학감 조원하;회계	신학문;60	대1910.2.5,2.8, 6.17,6.30; 大1910.2.5,2.8,6.16
	금란의숙	읍내	최병창	신구학절충	『기호』8·9;황1907.7.13; 大1907.7.21,1908.12.11,1 909.1.28,6.15
	상명노동야학교	덕명학교내	이승욱;교장 이창규·이은규;교사	국문·한문;30	경1909.4.30,5.14
1910	동명학교	홍동면	조승원(금마면장);교장 홍종기;강사		황1910.7.7;『홍양』

출전 | 김형목, 『대한제국기 충청지역 근대교육운동』, 도서출판 선인, 2016, 103쪽.

〈표 2〉는 당시 설립된 모든 근대교육기관을 의미하지 않는다. '비교적' 널리 알려진 교육기관은 여기에 제시되었을 뿐이다. 홍주지역 사립학교설립운동은 1907년 시작된 이래 1908~1909년에 절정기였다. 전반적으로 근대교육이 부진한 호서지방 분위기는 이곳에도 그대로 나타난다. 특히 「사립학교령」 시행 이후인 1909년에 근대교육기관이 다수 설립된 사실은 지역적인 경향성을 보여준다. 당시 지역적인 특성과 관련하여 이곳은 여성교육이 전무하였다. 강제병합 직전까지 충남지역에 수립된 여학교는 공주의 명선여학당(명신여학교 전신)과 논산의 영화여학당 2개교에 불과했다.

한편 교과과정은 교육운동 주체의 인식을 반영한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 이곳 교육기관 설립주체는 대부분 전·현직관료와 재야 유생들이었다. 이들은 한글을 주요한 교과목으로 하는 국문야학을 설립·운영하였다. 한글에 대한 인식변화는 곧 근대교육 시행에 주요한 배경으로 귀결되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해독만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민족정신·민족의식을 일깨우는 주요한 원천이었다. 근로청소년 등에 대한 애정과 신뢰감은 무지로부터 '해방'을 표방하는 등 근대교육 수혜로 이어졌다. 수업료는 물론 교재까지 무료로 제공하는 등 이들을 사회적인 존재로서 인식하기에 이르렀다. 전통교육과 근대교육 절충은 바로 야학 운영이었다.

2)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다

근대교육 보급에 따라 일부 지방관은 흥학(興學)을 '막중한' 직무로서 인식했다. 주민들도 지방관을 교장으로 내세우는 등 학교 설립·운영에 동참을 요청하고 나섰다. 호명학교장으로 공주부관찰사 김가진 취임도 이러한 일환으로 보인다. 이들 중 상당수는 계몽단체 지회를 설립하거나 사립학교 설립을 지원하였다. 지회는 사실상 명망가들과 지방관 주도 속에서 조직되었다. '강제병합' 직전까지 설립된 6,000여 개교 사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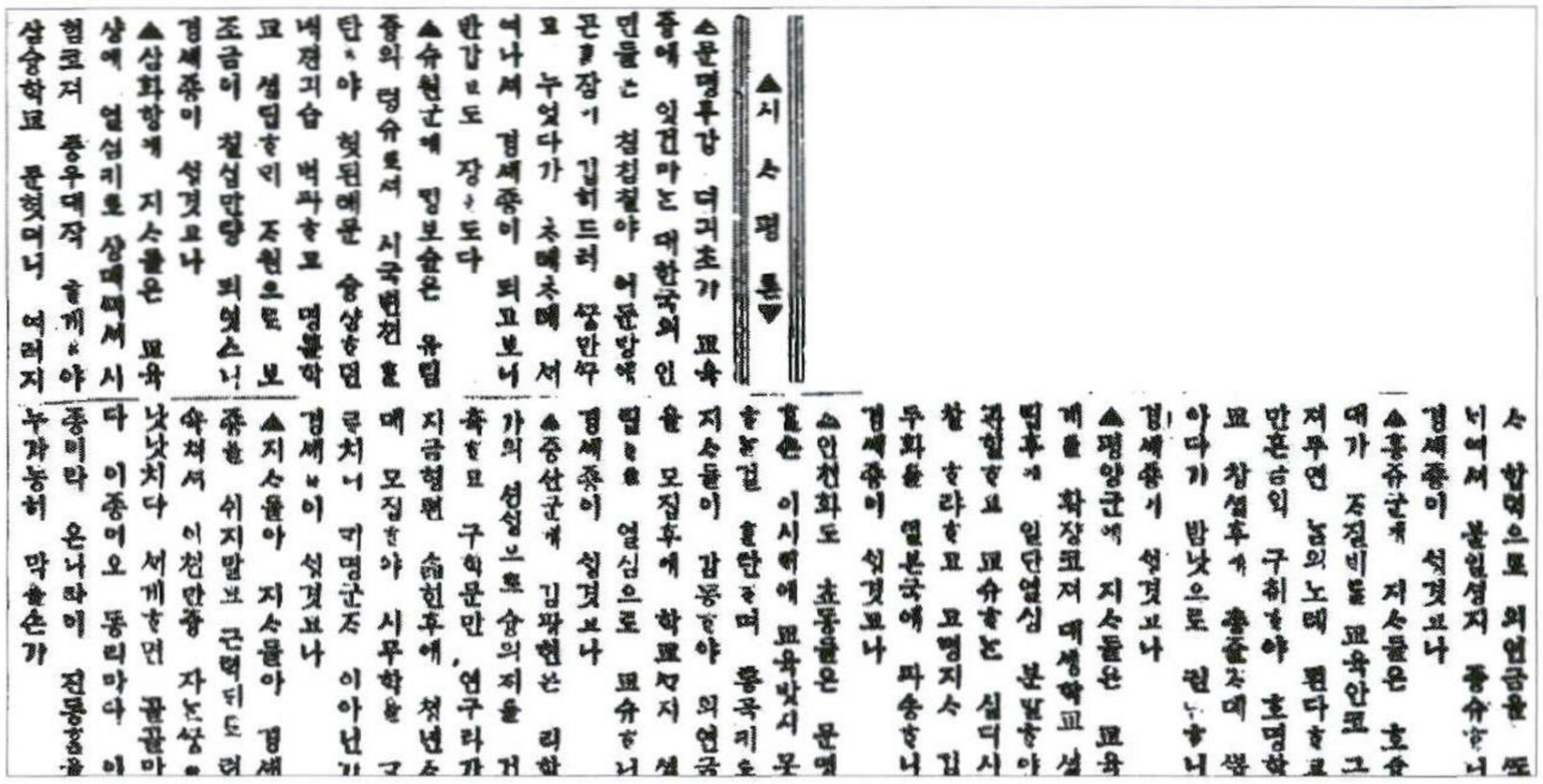

▲시 소 평 론▼

사진 16 | 호명학교 관련기사(대한매일신보 1908년 11월 24일)

학교는 이를 기반으로 이루어졌다. 근대교육은 일부 인사들에게 국권 회복을 위한 지름길로 인식되고 있었다.

3면1교제를 실행한 김열제(金烈濟)는 기호흥학회 홍주지회 부회장이자 면장이었다. 김병익은 홍주지회 지회원으로 찬무원을 맡는 등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김좌진의 서당 선생인 김동익(金東益)은 평의원·지회원으로 호명학교 후원에 앞장섰다. 면장인 남기원·박병무 등도 지회원으로 학교 운영에 동참하였다. 지회원인 김시원·김병원·김병익·김좌진·김선규 등은 안동김씨 문중인들로 호명학교 설립주체였다. 김시원은 홍명학교 설립 발기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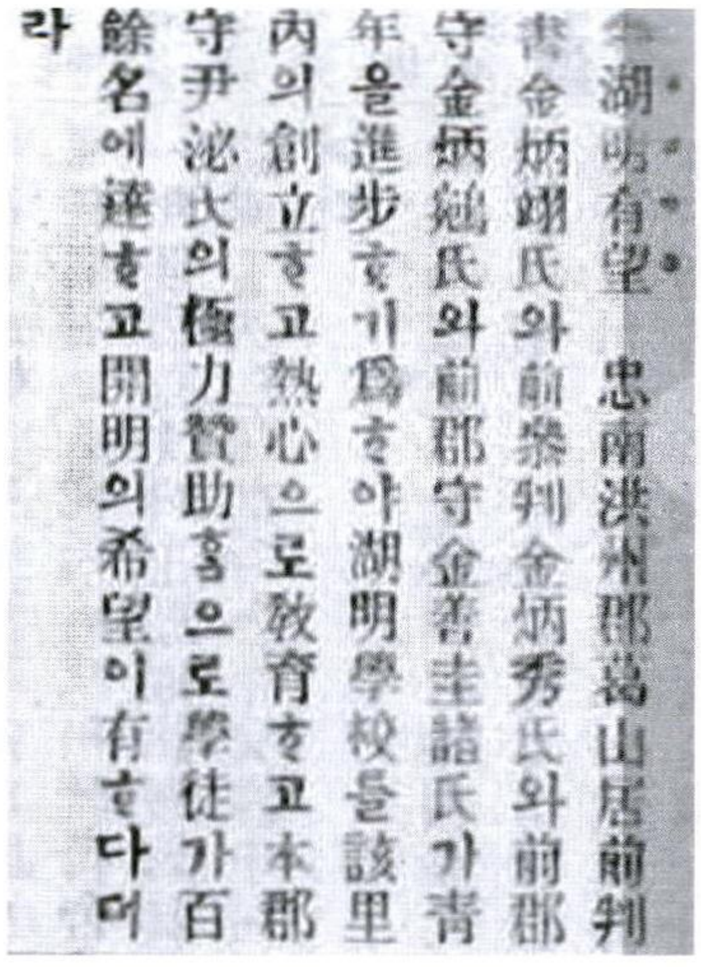

湖明有望 忠南洪州郡葛山居前判
書金炳翊氏와前參判金炳秀氏와前郡
守金炳勉氏와前郡守金善圭諸氏가青
年을進步케爲ᄒᆞ야湖明學校를該里
內의創立ᄒᆞ고熱心으로敎育ᄒᆞ고本郡
守尹泌氏의極力贊助ᄒᆞᆷ으로學徒가百
餘名에達ᄒᆞ고開明의希望이有ᄒᆞ다더
라

사진 17 | 호명학교 관련기사
(황성신문 1908년 11월 1일)

군수 윤필은 호명학교·덕명학교 등 관내 사립학교 설립·후원에 노력을 기울였다. 관내 8개 사립학교

는 그의 부단한 노력으로 설립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통적인 가치관이 팽배한 분위기는 지방관의 흥학을 위한 활동으로 상당히 희석화될 수 있었다. 그도 역시 기호흥학회 지회원이었다. 덕명의숙 설립자이자 교주인 서승태도 총무로서 활동했다. 그는 1908년 김항규(金恒圭)·이신세(李申世)·유진일(俞鎭一)·정성모(鄭成模)·유진면(俞鎭冕)·이종건(李鍾乾) 등과 1909년 김항규·이신세·유진일·정성모 등과 공립홍주보통학교 학무위원을 맡았다. 이는 서승태의 근대교육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활약상을 보여준다. 학무위원 도입은 공교육 강화를 위한 일환이었다. 후원자인 서병태도 홍주지회 지회장으로 관내 근대교육 확산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였다. 박창병은 지회 재정부원이자 덕명의숙 교장으로 교육 내실화를 꾀하는데 열정적이었다.

지회원은 '유지신사'라 표현되는 바처럼, 지역사회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명망가'였다. 정리학원 설립자와 일부 교사를 제외한 대부분은 이러한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이들은 지역사회의 여론을 조성하는 동시에 현안을 실행할 수 있는 영향력과 어느 정도 경제력을 지닌 인사들이었다. 김좌진·김병익·김병원·김시원 등 안동김씨 문중인은 대표적인 경우이다. 대부분은 전통학문을 수학하였으나, 시세 변화에 따라 신학문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개신유학자였다. 여기에 지방관리 등 일부 신학문 세례를 받은 지식층이 동참하고 있었다.

이처럼 홍성지역 근대교육운동은 기호흥학회 지회원에 의하여 주도되었다. 이들 스스로 사립학교를 설립·지원한 사실은 이를 반증한다. 이들은 통상회·강연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의 근대교육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켰다. 물론 이를 추진하는 과정은 갈등과 반목을 초래하기도 했다.

홍주군 금동면장 조승원은 신교육을 반대하여 학계에 저희(沮戱)를 여러 번 가함으로 그 감정을 성찰하기를 도모하기 위하여 같은 면 동명학교에서 교장으로 추천

하였다. 가까운 지척에 살면서 하루도 출석하지 않는 까닭에 강사 홍종기가 교장이 반대하는 학교에 교수하기가 어렵다고 하고 물러나기를 청원함으로 학생 일동이 오른쪽 사유를 조씨에게 가서 말하고 출석 시무하기를 권고했다. 조씨가 입구에 두었던 장죽(長竹)으로 학생을 난타하여 출혈하는 큰 부상으로 말미암아 풍파가 크게 일어난지라. 기호흥학회 홍주지회에서 이와 같은 면장은 그대로 둘 수 없다며 면장의 직임을 즉시 교체하라고 군수와 교섭한다더라.

근대교육에 무관심한 면장에 대한 사면 요구는 현지인의 교육열을 충분하게 짐작되는 부분이다. 이러한 가운데 민중은 시세 변화를 인식하는 동시에 "아는 것이 힘이다"와 "배워야 산다"라는 사실을 스스로 자각하였다. 동시에 사회적인 존재로서 자기 가치도 인식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곧 교육열·향학열 고조로 이어졌다. 근대교육을 통한 자기능력 배양은 최우선적인 관심사였다.

홍주지회는 근대교육 시행에 적극적이었다. 본회는 창립 초기 열의와 달리, 일부 명망가 기부금에 의존하는 등 운영조차도 힘든 상황이었다. 지회원 열성과 주민들 호응은 이를 추진할 수 기반으로 작용하였다. 의병전쟁의 주역인 이세영(李世永)·이상린 등의 성명학교와 서승태의 덕명학교 운영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독립전쟁론자와 실력양성론자의 통합적인 독립운동 전개는 민족운동역량 극대화로 귀결되었기 때문이다. 유학자들의 시세변화에 대한 인식은 근대교육운동 동참으로 이어졌다. 이곳 사립학교 설립자·후원자 대부분은 재야 유생층이자 개신유학자나 다름없었다. 이러한 영향은 1910년대 대한광복회(大韓光復會)와 1920년대 후반 유교부식회(儒教扶植會) 활동으로 계승되었다.

한편 충청도 근대교육운동은 전반적으로 지지부진한 상황이었다. 홍

주지역 주민들의 분발을 촉진한 단체는 기호흥학회 홍주지회였다. 특히 제2차 홍주의병전쟁은 제국주의로 발전하는 일제의 무력적인 위력을 절감하는 결정적인 현장이었다. 인식 변화와 더불어 근대교육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 홍주는 본시 완고당(頑固黨)의 소굴이오 신학문의 쌍적(讐敵)이더니 금년 봄 의요(義擾, 홍주의병) 때에 상전벽해한 일대 겁운(劫運)을 지낸 후에야 시세의 변경함을 크게 각성하여 신지식을 개발치 않고는 인도(人道)의 당연함을 수행하지 못할 줄 짐작하고 한편으로 학교를 설립하여 뛰어난 수재 청년을 모집하고 한편으로 교사들 고빙할 차로 상경하여 널리 모집 중이다. 신수비(薪水費) 다소는 불허하고 일어·산술 등 보통학문에 능숙한 사람으로 극택(極澤)한다더라.

의병전쟁에서 쓰라린 패배는 신학문에 의한 문명사회 건설이 긴급한 당면과제임을 일깨우는 계기였다. 신지식 보급은 인도를 행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 중 하나로서 인식되는 분위기로 이어졌다. 사립학교 설립하는 동시에 유능한 교사진을 확보하려는 노력은 재경 세력과 연대 속에서 이루어졌다. 동시에 회원들은 교육운동을 주도하는 동시에 주민들에게 '새로운' 세계관을 제시하였다. 이는 민족운동 역량을 제고시키는 기반이나 마찬가지였다. 일제 침략의 가속화와 사회진화론 확산에 따라 근대교육을 통한 인재양성은 국권회복과 직결된다는 인식하에 진전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한글에 대한 관심은 교육열 고조로 이어졌다. 노동야학은 이러한 상황과 맞물려 발전을 거듭할 수 있었다. 홍주군 상명노동야학교 설립 취지는 이를 반증한다.

…(상략)…농업에만 진력하여 교육이 없으면 이 동포는 우리 황제 폐하의 백성이 아니며 우리 부모의 자식이 아닌가. 날이 새면 저물도록 노동에 진력하여 칠팔십 년간에 사람의 직분을 알지 못하고 지내는 것이 가하냐. 슬프다. 우리 동포여 저녁 먹고 어서 공부하려 가지요. 벌레도 쉬지 아니하면 천리를 가고 화륜거도 고동이 아니면 지척을 못가나니 어서 공부하려 갑시다. 침침히 어두운 곳에 밝은 달이 나왔으니 어서 공부하려 갑시다.

노동자는 학문이 없어 종일토록 노동하나 뚜렷한 성과를 이루지 못한다. 나아가 사람의 직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모습이 애처롭다. 이에 노동야학을 설립하니 빨리 야학에 와서 공부에 힘쓰라는 요지였다. 곧 야학을 통한 문맹퇴치는 우선적인 과제였다. 문명사회는 이를 통하여 달성된다고 이들은 인식하고 있었다. 다음의 창가 내용은 이를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삼천강토 우리대한　이천만인 우리동포
단체력 단체력하니　몇몇영웅 단체력고
우리노동 야학교에　애국가를 들어보오
한량에 두푼변리　느는재미 좋건마는
좌우훈장 중한월급　고등대신 향록이여
차월내년 희망터니　신문기자 속이는지
샤회샤회 하건마는　자강력을 미득인지
재정곤란 많다소리　어찌하면 주급할고
배워가면 지식넓어　자강기초 세우리라
풍운조화 단청하여　독립대연 배설하세
애국성 애국성하니　몇몇지사 애국성고

학교생 학교생하니　몇몇학생 졸업인고
남전북답 고대광실　부자사람 행복이여
대한강토 줄어간다　그돈으로 물려보세
우리동포 건져줄가　침불안식 불감으로
호소식이 어디갔소　종년토록 노동가던
열심만극 진하면　천신감응 하시련만
극력히 농사지어　야학만 진취하소
인의예지 집을짓고　밑봄으로 천하교제.

문명퇴치를 통한 능력배양은 야학의 주요한 목적이자 기본 취지임을 강조하고 있었다. 이들은 경제적인 문제나 시간을 핑계로 교육을 등한시하지 말 것을 적극적으로 경계하였다. 향학열을 고취시키려는 의도는 이러한 창가를 널리 보급하는 주요한 계기였다. 창가 등을 통한 시세 변화를 일깨우는 동시에 자아를 각성시키는 노력은 계몽론자들에 의하여 확산을 거듭하는 분위기로 이어졌다. 특히 군수 윤필은 직접 「애국가」를 작사·보급하는 등 애국심·민족정신 고취에 노력을 기울였다.

덕명학교 설립목적은 장래에 국가가 필요로 하는 유용한 인재양성이었다. 덕명은 학교가 소재한 덕정리를 개명(開明)하면서 점차 홍주군·충청남도는 물론 국가 전체를 새롭게 유신한다는 의미였다. 발기인이자 교주인 서승태의 '삼요론'은 민족교육기관으로서 성격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역사적 정신, 상무적 기상, 경제적 사상은 이를 반증한다.

역사적 정신이란 민족이 역사를 알지 못하는 것은 자기를 알지 못하는 것이니 자기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국가와 민족을 사랑하리요? 그러즉 한 나라를 들어 갖다 팔며 민족을 내몰아 노예로 삼는 자의 심술도 자국의 역사를 배우지 않아 민족의 정신을 생각하지 않아 나타난 것이라. 어찌 그것이 두렵지 아니하리오. 그러므로 오늘날 조선의 역사교육을 먼저 해야 할 일로 삼아야 한다. 만약 한민족에게 역사적 정신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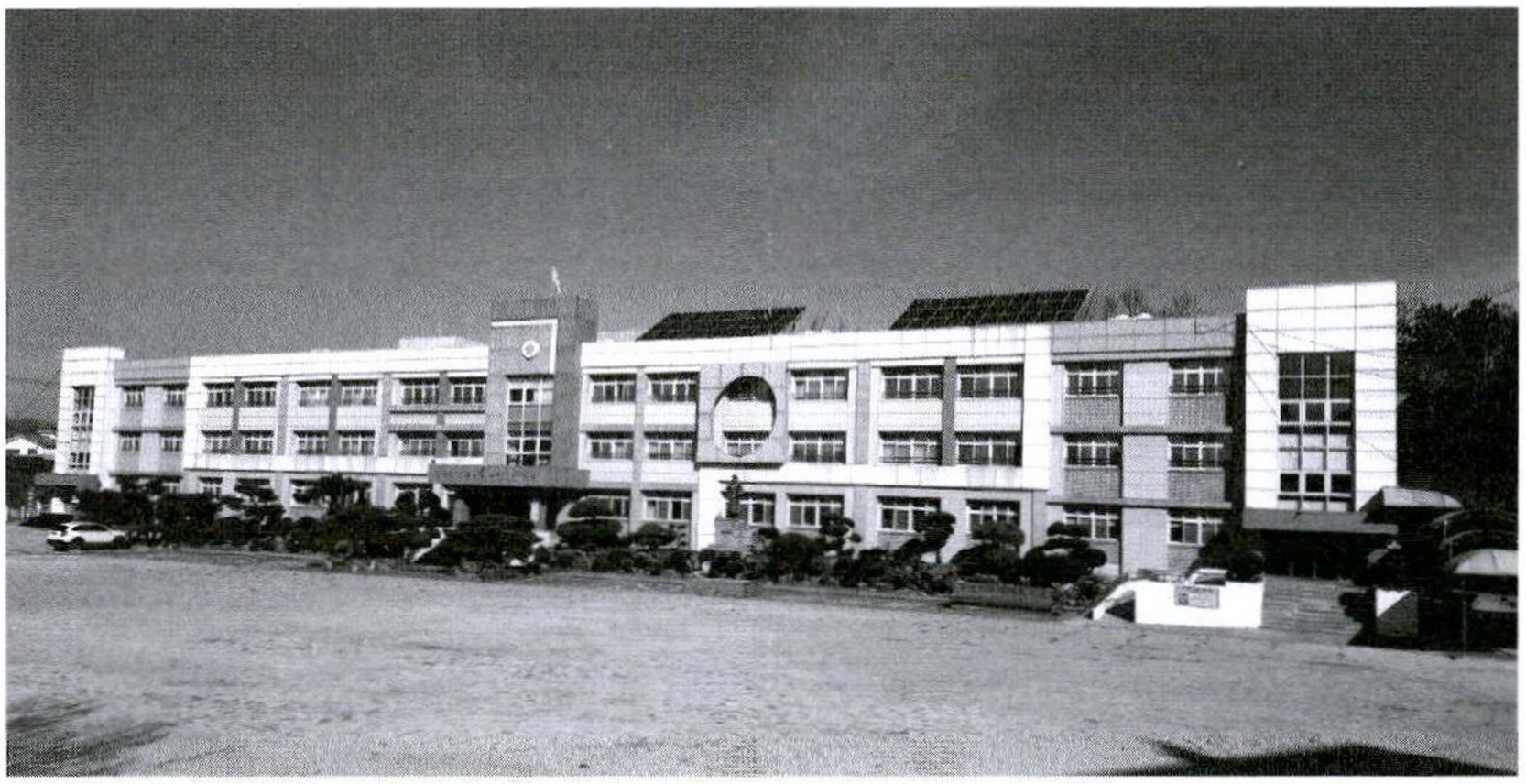


사진 18 | 덕명초등학교(2019년 폐교)

있었다면 온갖 도깨비 같은 행동과 승냥이나 개와 쥐 같은 심술을 행하지 못한다. 역사적 정신은 곧 종족의 지위를 보존하는 요소이다.

상무적 기상이란 옛날은 어찌 강하고 씩씩했으나 지금은 왜 슬프고 약해졌는가? 스스로 지키고 방어하는 방책을 배우지 않고 나라가 강해지고 백성이 부유해지는 기술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란이나 외적의 침입을 당하면 도움을 구함에 급급하여 저들의 속국이 되니 생각하건대 망국의 원인이 여기에 있다. 무릇 우리 2천만 민족의 망국을 한스러워하며 동포를 사랑하는 상상이 있으면 어찌 군함의 대포와 철갑의 군대가 없음을 근심하리오. 진취적인 생각이나 용감한 행동은 상무적 기상이 있음으로 생기니 인류의 기질을 발휘하는 본질적인 요소이다.

경제적 사상은 개인의 생명을 유지하며 행동을 스스로 돕는 것을 의미한다. 종래 실질적 사물에 등한히 하여 궁구하지 않으니 비록 재화를 귀하게 여기나 소비적 재화만 알고 생산적 재화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다. 저축하고 근검하는 관념이 없고 이용후생(利用厚生)의 도리도 알지 못했다. 생산을 늘리고 산업을 일으키는 것은 재산을 얻는 근본이다. 이는 비단 교육에만 한정되지 않고 일반 동포에게 장려할 급한 일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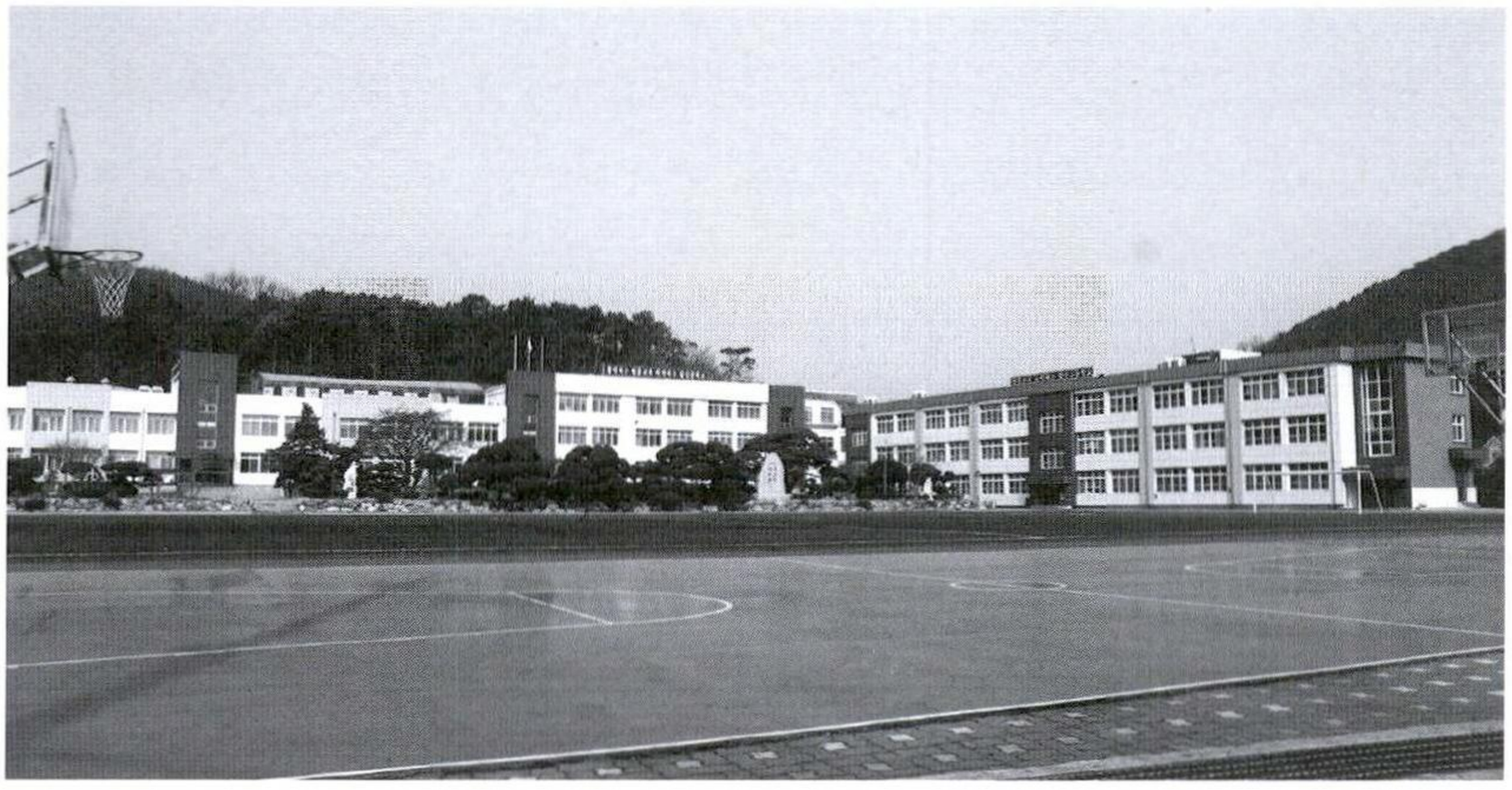


사진 19 | 갈산중고등학교(호명학교터)

분명하다. 인민의 생활을 증진하는 요인은 바로 여기에 있다.

호명학교도 역시 호서지역을 밝게 한다는 의미이다. 곧 호서지역을 개명한다는 의미는 설립취지나 마찬가지였다. 홍명학교는 홍주지역을 문명 개화하는 '중심지'로서 육성하기 위함이었다. 이른바 관내 '팔명(八明)' 학교 설립 계획은 이와 밀접한 관계 속에서 진행되었다. '팔명학교' 대부분은 지역을 '개명하고 밝힌다'는 의미로서 '명' 자를 사용하였다. '팔명학교'는 읍내 영명학교, 갈산 호명학교, 서면 홍명학교, 광천 덕명학교·성명학교, 홍동 동명학교, 결성 보명학교(일명 보광학교), 구항 흥명학교 등이다.

특히 운동회나 휴식시간에 학생들은 「위국가」를 널리 애창하였다. 구체적인 가사는 알 수 없으나, 민족정신·애국정신을 고취하는 내용이라 추측된다. 호명학교 설립에 대한 찬사는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준다.

"홍주군에 지사들은 호중(湖中) 대가 자녀들을 교육하지 아니하고 그저 두면 남의 노예가 된다고 많은 금액을 모아 호명학교 창설한 후에 총준자제를 선발하여 밤

낮으로 권면하니 경세종이 생겼구나."

근대교육에 대한 인식변화와 향학열은 홍성지역을 벗어나 충남지방 중등교육기관 설립에도 영향을 미쳤다. 사립중학교 발기회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추진되었다. '강제병합' 직전까지 정영택(鄭永澤)은 충남지방 흥학을 위한 순회 계획을 세웠다. 그는 공주향교 내에 중학교 설립을 위한 의연금 모집에 나섰다. 일시에 의연금은 5천 환에 달하는 등 세인의 주목을 받았다. 재경유학생들도 호서학생친목회를 결성하는 등 이에 부응하고 나섰다. 이들은 운동회를 통한 친목 도모와 더불어 귀향활동으로 계몽운동에 열성을 다하였다. 재경호서인 이춘세(李春世)·이희직(李熙直)·유진태(俞鎭泰) 등은 상품으로 각종 학용품과 서책을 후원하고 나섰다. 장승환(張昇煥)도 단천 출신 한북학교 유학생 유례균·오창환 등에 대한 학비를 지원하였다. 이는 교육기관에 대한 주민들의 경쟁적이고 자발적인 의연금 모집으로 이어지는 등 근대교육운동을 진전시키는 든든한 밑거름이었다.

한편 현장에서 이루어진 교육내용의 한계성도 있다. 운동 주체의 의욕과 달리 중장기적인 계획은 거의 없었다. 전무한 교사양성기관은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교과과정 운영, 교사진 구성, 교육시설 등도 이와 같은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근대교육 부실화에 대한 비판은 당시 상황을 보다 객관적으로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상략)… 무릇 학교에서 산술·이과나 가르친다고 국민교육이 아니며 지지(地誌)·역사나 가르치며 국민교육이 아니며 영어·일어나 가르친다고 국민교육이 아니며 국민의 정신을 고취하며 국민의 기력(氣力)을 배양하여야 이른바 국민교육이다. 어떻게 하면 국민교육이 되며 가히 국민을 양성하여 국가의 동맥을 일으키며 교육

의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을지라. …(하략)…

국민교육은 외형적인 교과목 편성이나 교육내용을 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국가 존립과 미래에 대한 중장기적인 목표를 올바로 제시하는 교육이어야 한다. 지덕체 3육에 기초한 교육 강조는 이러한 입장을 의미한다. 홍주군수 김상연 청원은 이곳 분위기와 여건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대부분은 취지와 달리 본질에서 벗어나고 있었다. 홍성지역 학교도 이러한 경향성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부분적인 한계에도 이곳 근대교육은 민족역량을 강화에 이바지했다. 역사적 정신에 입각한 정체성 확립, 상무적 정신에 따른 독립의식 고취, 경제적 정신에 입각한 자립성 등은 학생들에게 조국이 처한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안목을 부여하였다. 호명학교 교과과정도 이와 마찬가지였다. 이는 '단순한' 사회운동 참여에 그치지 않고 생도들에게 비참한 조국 현실을 일깨우는 교육현장이었다. 고종황제 양위에 대한 일본인 배척은 이러한 흐름과 무관하지 않았다. 모순된 현실을 타개하려는 노력은 향학열 고취로 이어지는 가운데 스스로 '사회적인 책무'를 인식하는 주요한 계기로 작용하였다. 광무황제 퇴위와 군대해산 이후 이곳 격앙된 분위기는 이를 반증한다.

| 4 | 국채보상운동이 들불처럼 확산되다

1) 참여로 사회적인 책무를 절감하다

러일전쟁에서 승기를 잡은 일제는 대한제국에 차관을 더욱 강화하였다. 재정고문으로 부임한 메가다 다네타로(目賀田種太郎)는 이른바 '화폐개혁'이라는 구실로 기형적인 경제구조 구축에 혈안이었다. 그는 한국인 화폐자산을 수탈하는 한편 불환지폐인 일본의 제일은행권 유통·보

급에 전력을 기울였다. 실질적인 구매력이 없는 통화를 차관으로 들어와 한국 식민지화에 필요한 제반 경비는 이를 대체·사용하기에 이르렀다. 금융공황 발생은 일제의 금융독점을 더욱 강화하는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구채(舊債) 상환, 세계부족보충비(歲計不足補充費) 명목의 국고증권채(國庫證券債), 금융공황 구제나 민간금융 지원을 구실로 한 금융자금채(金融資金債) 등은 식민지 경영을 위한 기반과 밀접한 연관성 속에서 이루어졌다.

을사늑약 이후 통감부를 설치한 일제는 시정개선과 기업자금 명목으로 막대한 차관 도입을 서슴지 않았다. 문명국가 건설은 식민지화의 본질을 은폐하거나 호도하기 위한 명목에 불과할 뿐이었다. 실제는 침략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고율의 국채를 기채(起債)하고 차관 조달을 망설이지 않고 실시하였다. 강화된 차관 공세에 따른 국채는 1907년 1월 현재 1,300여만 원에 달하는 거액이었다. 이는 대한제국정부 1년간 예산에 버금갈 정도로 엄청난 외채였다. 이처럼 경제적인 예속에 따른 독립국가 유지는 외채문제로 크게 위협받는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이었다.

나랏빚 청산에 의한 자립경제 달성을 통한 자주적인 독립국가 건설은 국채보상운동으로 표출되었다. 이는 1907년 1월 29일 대구광문사(大邱光文社) 특별회에서 사장 김광제(金光濟)와 부사장 서상돈(徐相敦) 발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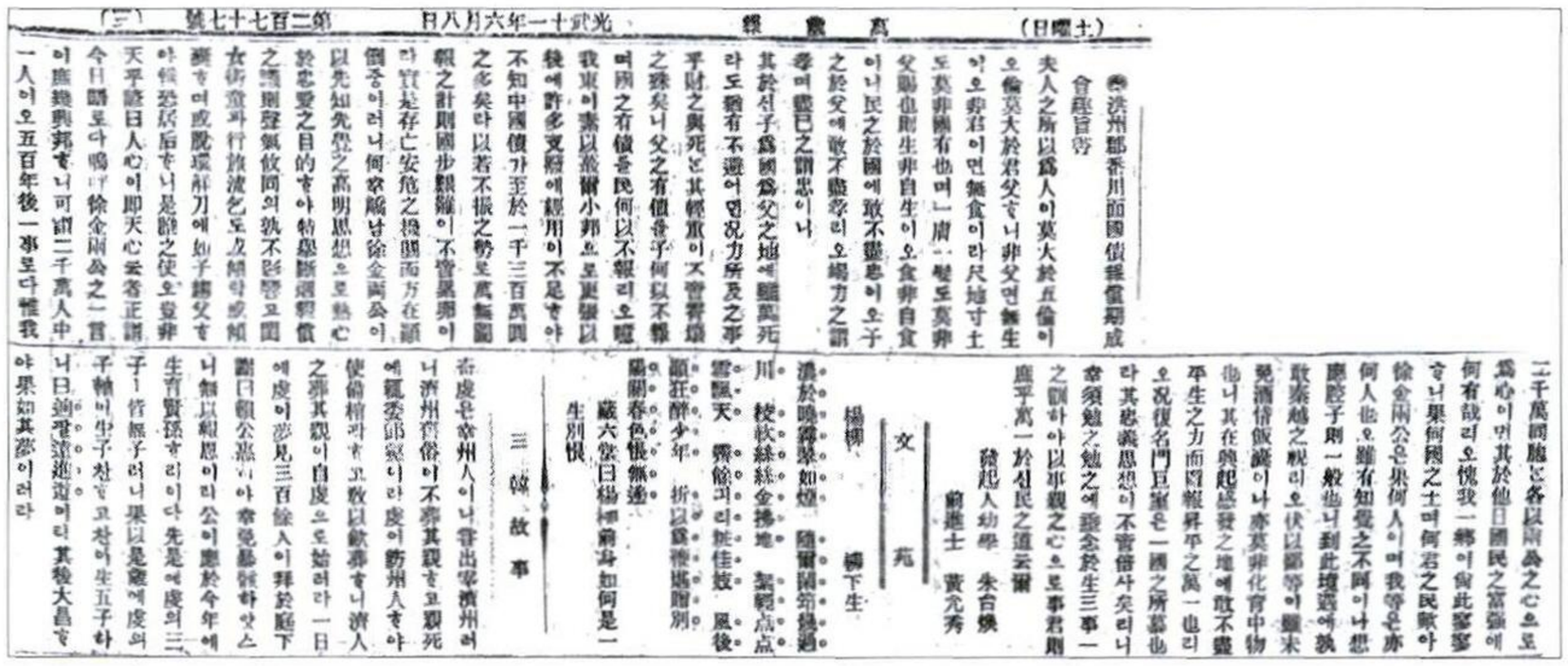

(三) 第二百七十七號 光武十一年六月八日 (土曜日)

사진 20 | 홍주군 번천면국채보상운동취지서(만세보 1907년 6월 8일)

로 시작을 알렸다. 주요 참석자는 박해령(朴海齡)·김윤란(金允蘭)·강신규(姜信圭)·길영수(吉永洙) 등으로 대부분 대구광문회와 대구민의소(일명 달성민의소) 회원들이었다. 이어 국채보상 모금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널리 알리기 위한 군민대회(郡民大會)도 개최하였다. 『대한매일신보』를 비롯한 『황성신문』·『제국신문』·『만세보』 등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상인 등도 장날을 통하여 이러한 소식을 널리 전파하는 등 '전위대'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다.

전국적인 관심은 대구로 집중되는 가운데 경쟁적인 의연금 모금으로 이어졌다. 장지연(張志淵)은 당시 분위기와 상황을 자세히 알리는 등 분위기 확산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국채보상운동이 확산되는 가운데 고종은 "우리 백성들이 국채를 보상하기 위하여 단연하고 그 값을 모은다 하는데 짐이 담배를 피울 수 없다."며 단연에 솔선수범했다. 영친왕 길례(吉禮)도 연기하도록 명하는 등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다. 최고지배층의 솔선수범은 전통적인 가치관이 공존하는 당시에 상당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처음에 수수방관하던 고관들도 모금대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에 이르렀다.

계몽론자들은 각지에 국채보상소 설립과 아울러 「취지서」를 발표하는 등 주민들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나섰다. 의연활동은 사회적인 신분·지위에 상관없이 적극적인 호응을 받았다. 80세 노파나 주모는 물론 사회적으로 가장 천대받는 백정·죄수·걸인 등의 자발적인 참여는 순식간에 국내외로 파급되었다. 원산항 걸인들은 보름 동안 동냥하여 모은 돈을 의연금으로 내놓았다. 도둑들도 훔친 돈을 의연한 '미담 사례'는 사람들의 경쟁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에너지원이었다.

미국·러시아에 거주하는 한인들과 일본 유학생 등도 동참하는 열띤 분위기였다. 러시아 연해주 소왕령에 거주하는 김인수·박국보·박형준·김병극 등은 국채보상운동을 주도한 발기인이었다. 모금 활동은 1회성에 그치지 않고 연해주 한인사회로 확산을 거듭하는 밑거름이었다. 이동

국·최재형 등 12인도 국채보상취지서를 발표하는 등 발기인으로 활동을 다짐했다.

샌프란시스코에 소재한 공립협회원 김성무·임치정·이교담 등은 3월 25일 국채보상의연발기문을 발표했다. 이를 계기로 미주지역 한인사회는 취지서를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참여에 나섰다. 로스앤젤레스에 거주하는 박형모·남궁염·신봉희·염달욱 등도 취지서 발표와 동시에 의연금 모집에 적극적이었다. 수금위원은 황사용·강영태·신봉희·염달욱 등이 맡았다. 대동보국회 중앙회장 이병호(李秉瑚)와 서기 변창수(邊昌洙) 명의로 취지서를 발표하는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였다. 이에 뉴욕에 거주하는 한인들도 역시 취지서를 발표함으로 한인사회 주요 관심사로서 부각시켰다.

홍성인들도 이러한 분위기에서 결코 예외적일 수 없었다. 특히 주창자인 김광제가 충남 남포(현 보령시) 출신이라는 사실은 참여를 망설이는 홍성인에게 일정 부분이나마 영향을 미쳤다. 이는 주민들의 자립경제에 대한 지대한 관심사와 더불어 국민운동으로 추동시키는 밑거름이었다. 홍주의병장 문석환(文奭煥)은 쓰시마(對馬島) 유폐생활을 기록으로 남긴 『마도일기(馬島日記)』에서 당시 전개된 국채보상운동 소식을 소략하나마 기록으로 남겼다. 이는 국채보상운동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사가


雜報

洪州郡番川면國債報償期成會趣旨書

夫人之所以爲人이莫大於五倫이오倫莫大於君父하니非父면無生이오非君이면無食이라尺地尺土도莫非君賜也며一膚一髮도莫非父賜也則生非自生이오食非自食이니民之於君에敢不盡忠리오子之於父에敢不盡孝리오竭力之謂孝며盡已之謂忠이니

其於臣子爲君爲父之地에雖萬死라도猶有所不避어던況力所及之事乎財之與死ᄂᆞᆫ其輕重이不啻霄壤之殊矣ᄂᆞ父지有債를子何以不報며君지有債를民何以不報리오噫我東이素以叢爾小邦으로更張以後에許多支撥이經用이不足ᄒᆞ야不知中國債가至於一千三百萬圓지多矣라以若不振之勢로萬無圖報之計則國步艱難이不啻累卵이라實是存亡安危之機關而方在顚倒中어니ᄂᆞ何幸嶠南徐公鼎兩公이以先知先覺지高明思想으로熱心於忠愛之目的ᄒᆞ야特擧斷烟報償之議則擊氣攸同의孰不影響고國家如領하고或倾囊ᄒᆞ며或脫簪解刀에如子趨父ᄒᆞ야惟恐居后ᄒᆞ리是誰之使오豈非天乎諺曰人心이卽天心云者正謂今日語로다嗚呼徐김兩公지一言이庶幾興邦ᄒᆞ니可謂二千萬人中一人이오五百年後一事로다惟我二千萬同胞各以兩公지心으로爲心에면其於億日國民지富强에何有哉리오愧我一鄕이尙此寥寥ᄒᆞ니果何國지士며何君지民歟아徐김兩公은果何人이며我等은亦何人也오雖有知覺지不同이나想應隣子睹一發也니到此境遇에孰敢秦越지視라오伏以鄕等이雖未免溝洫瀕蠻이나亦莫非化育中物也니其在興起感發지地에敢不盡平生지方而圖報昇平지萬一也리오況復名門巨室은一國지所慕也라其忠愛思想이不啻倍蓰矣리니幸須勉지勉지에垂念於生三事一之訓ᄒᆞ야以事親之心으로事君則庶乎萬一於臣民之道云爾

發起人 幼學 유치煥
前進士 黃允秀

사진 21 | 홍주군 번천면국채보상취지서(대한매일신보 1907년 6월 7일)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준 점에서 주목할 부분이다.

이러한 가운데 충청도 54개 군 유지신사들은 「국채보상의조권고문」을 1907년 3월 7일자 『대한매일신보』에 게재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인민이 있은 다음에 나라가 있고, 국가가 있은 뒤에 인민이 편안히 살 수 있음은 고금 천하에 영구불변한 당연한 이치이다. 지금 인민을 편안하게 지키지 못한다면 나라는 약하게 되고, 나라가 부강하지 않으면 인민도 망하게 된다.…(중략)…다행히 대구에서 단연회가 시작되어 서울에서 기성회가 설립되니, 이는 우리 동포의 제일 중요한 의무이며, 이 일이 성사되는 날에는 우리 동포의 제일 행복이다. 본인 등이 손뼉을 치고 춤출 듯이 좋아하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우리 충청도가 다른 지방에 뒤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고로 떳떳하게 널리 알린다. 남녀노소는 막론하고 술과 담배를 끊어 힘껏 의연하여 기필코 국채를 갚아 다시 국권을 회복하면 신선한 우리 마을에 화창한 봄날이 대대손손으로 이어질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태평화합한 상서로운 기운이 2천만 동포에게 회생할 것이니 이는 국가의 행복이자 백성의 행복이 아니겠는가. 그런 만큼 금액 다소에 상관없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가 의연에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

권고문 발표를 전후로 충청남도 일대 활동가들은 군 단위로 국채보상소 조직과 아울러 의연금 모집에 적극적이었다. 이들은 국채보상을 인민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 임을 다시 강조했다. 즉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인민은 '국가를 보위할 의무' 로서 국채를 인식하기에 이

르렀다. 한산군 주사 김상익·노재민과 전주사 홍순유 등도 「호서국채보상기성의무사취지서」을 발표하는 등 대대적인 모금 활동에 나섰다. 이들은 취지서를 통하여 경기도 등지와 연대를 통한 의연금 모금을 호소하였다.

> …(상략)…이에 본인 등이 단체를 일으켜 만드니 단체 명칭은 호서국채보상기성의무사이다. 경기도 등지의 사람들과 함께 일체로 단합하여 기필코 우리 국가와 국민이 진 빚을 갚는 의무를 다하고자 한다. 오호라. 오늘날 담배는 가까이 우리 토산과 멀리 이집트 여송연 등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다양하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빚을 지고 있으면서 입으로 피워 연기로 돈을 사라지게 함은 용납하기 어려운 일이 아닌가.…(중략)…앞으로 우리 동포가 한마음으로 뭉치고 힘을 내어 단연하는 용기로써 보상함이 마땅하다. 국채를 상환하는 일에 애국함은 가정에 쏟는 정성과 같이 실행하고 나아가 6대 주(세계)에 분명히 알려 국채를 갚은 후에 세계 각국의 향기로운 담배를 다시 피운다면 그 좋은 의미와 달콤한 맛은 어떠하리오.

발기인은 단지 충청도민에 국한하지 않고 전국적인 연대에 의한 모금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은 항구적이고 절대적인 금연이 아니라 국채를 보상하는 그날까지 '한시적인' 단연임을 거듭 강조했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려는 의도는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호서협성회국채보상의연권고문」은 충청도민들에 대한 애국심을 분발시키는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주요 활동가들은 동서고금 역사에서 구체적인 애국적인 활동을 제시하는 등 분위기 반전을 노렸다. 전·현직 관료와 특히

지방관은 이러한 활동에 대한 격려와 아울러 지원에 앞장섰다. 지방관의 참여와 후원은 주민들에게 가치관 변화를 수반하는 등 일상사 변화로 이어졌다.

국채보상운동은 이러한 가운데 요원의 불길처럼 국내외 한인사회로 급속하게 확산되었다. 분위기는 상하귀천과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거족적인 참여와 열기로 이어졌다. 13세인 장봉희(張鳳春)는 일찍이 개인적으로 서울의 국채보상총합소에 의연금을 보냈다. 이와 같은 모범적인 사례와 미담은 『황성신문』·『대한매일신보』·『제국신문』·『만세보』 등을 통하여 신속하게 보도되었다. 특히 광천 소룡동에 설립된 대한매일신보사 지사는 이를 전하는 '통로'나 다름없었다.

장시망을 통한 상인들 활동은 입에서 입으로 각지로 전파되어 분위기를 확산하는 밑거름이었다. 이러한 분위기는 체계적인 모금을 위한 국채보상소 조직으로 진전되었다. 당시 충남 도내에 조직된 국채보상소 현황은 〈표 3〉과 같다.

표 3 | 충남지역 국채보상소 현황

지역별	발기인	보상소명칭	전거
충남북	충남북 54개군 유지신사	호중국채보상의조회	大3.7
덕산	조종호·이두재·이붕구·이두복	국채보상수합소	大3.20,5.24,5.28,6.27
홍주	주태환·황윤수	국채보상기성회	大6.4,6.7;만6.8
청양	양재봉·한명복	청무의성회	황6.29;만5.2
해미	채상만·윤명수·지동신·이기남·이근배·이기로	국채보상의무사	황4.29;大6.6
공주	성응운·박춘원·김봉여·노원하·이희용·성주환	단연동맹회	황3.9,3.11,3.28; 大5.22–23
충남	이우·윤영 등	호서협성회	大5.19·21
부여	민준식·이규철 등 8	단연동맹회	황5.1,6.7
예산	정낙용·이범소·홍혁주·정준용 등 19	의연금모집소	황3.15;大9.15
금산	고제학·박학래 등 13인	국채보상일심동맹회	황3.18;大3.19

한산			大3.17;황3.8,4.20
한산 비인 서천	노재민·홍준유;한산군주사, 조돈승·윤영기;비인군주사, 김병혁·김기청;서천군, 안백삼·김문보·홍구익;상무두령	호서국채보상기성의무사	황4.20;大3.17·19
연산	백진수·송진태 등 5인	국채보상회	황4.11,5.22
회덕		국채보상소;대전의성사	大3.20,5.3,5.24
천안	심상정·조경희 등 15인	국채보상의무회	황3,28
전의	신호영·이창규 등 9인	국채보상동심사	황4.8
면천	김동욱·구연표 등 5	국채보상의동회	황4.12;大4.5,4.19,5.9
홍산	이중현(군수) 등	국채보상소	황6.1;大5.11
은진	김영선·김영극	국채보상의무소	大4.26
직산	민옥현·김세제·임경재·오혁근· 임긍호 등 27인	국채보상금수집소	황3.12,3.14,3.16,6.8, 1908.4.10
온양	이보상·조종섭 등 8인	국채보상의무사	황4.6
보령	김상묵·최석형		황4.8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도내 상당수 지역에 국채보상소가 조직되었다. 명칭은 국채보상의조회·국채보상기성회·국채보상일심동맹회·호서협성회·국채보상금수집소·국채보상동심사 등 매우 다양하다. 1920년대 널리 사용된 단연동맹회라는 단체명도 사용되었다. '국채=의무' 로서 인식하는 상황을 반영하듯이, 호서국채보상기성의무사·국채보상의무회·국채보상의무소·청성의무회 등도 조직되었다. 한산군과 연산군의 경우에는 조직된 사실만 알 수 있을 뿐 취지서 내용은 전혀 알 수 없다. 「취지서」 내용은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유사하리라 생각된다.

2) 자신감을 배가시키다

홍성지역 의연금 모집은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동리 단위나 학교별·관청별로 이루어졌다. 이에 대한 보도는 주민들에게 참여를 촉구하는 동시에 경쟁적인 분위기 형성으로 직결되었다. 동리 단위인 지역별이나 문중을 중심으로 나타난 명단·의연금액 등 대체적인 윤곽은 당시 상황 이해


洪州郡番川面各里
鄕約契中四拾圜 沧汀里 朱昌煥
二圜五十錢 朱台煥二圜 朱基廷
一환 朱柄嗇 朱柄甲
朱寅煥 朱옥吉 주基瑞 주基達
各八拾錢 주永甲 주柄兌 주柄
益 주基京 주柄 星各四拾錢 주
德喆三拾錢 주義 주衡淳 주
주옥兼 주柄稷 주應魯 주學魯
주柄鵬 주鶴淳 주柄懸주麟淳
주옥漢各二十錢 주台魯 주옥瑞
주柄元 주貞魯 주옥祥 주南淳
주柄殷각十錢 合十六圜三拾錢
雲谷里 주智淳 주柄奭 주寅淳

사진 22 | 홍주군 번천면 국채보상운동 참여자 1
(대한매일신보 1907년 7월 3일)

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홍주세무소 임직원 일동은 이러한 분위기를 주도하고 나섰다. 세무관 이윤영과 주사 정최섭 등은 37환을 모금하여 황성신문사로 보냈다. 특히 번천면 유학 주태환(朱台煥)과 전 진사 황윤수(黃允秀) 등의 국채보상기성회는 이를 주도한 중심단체로서 역할을 마다하지 않았다. 이들은 취지서를 통하여 주민의 동참을 호소하는 동시에 이를 '국민적인 의무'로서 강조하였다.

…(상략)… 아! 우리 동방이 본래 땅이 좁고 작은 나라로 갑오경장 이후 허다한 사업에 항상 들어가는 비용이 부족하여 모르는 사이에 나랏빚이 1,300만 원이라는 거액이 되었다. 이처럼 침체한 형세로는 빚을 갚을 방법이 전혀 없다. 그런즉 나라의 앞길이 어려워짐이 계란을 포개어 놓은 형세처럼 위험할 뿐만 아니라 실로 국가 존망과 백성 안위의 갈림길이니 바야흐로 엎어져 넘어지려는 풍전등화와 같은 순간을 맞았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영남의 서상돈과 김광제 두 선각자는 고명한 사상을 먼저 알아서 임금에 대한 충성과 나라에 대한 사랑을 목적으로 마음을 뜨겁게 하여 특별히 담배를 끊어 빚을 갚자는 계획을 제시했다. …(중략)… 규방의 아낙네와 거리의 아이들, 뜨내기, 거지 등도 혹 주머니를 기울이며 혹 반지를 빼고 은장도를 풀어서 내기를 마치 자식이 어버이에게 달



사진 23 | 홍주군 번천면 국채보상운동 참여자 2(대한매일신보 1907년 7월 3일)

려오듯이 하여 오직 뒤처지는 것을 걱정하였으니 누가 시켜서 하겠는가? 어찌 천명이 아니겠는가? …(중략)… 하물며 명문거족 여러분은 온 나라가 사모하는 바이니, 그 충의 사상은 몇 곱절 많을 뿐만이 아니리라. 부디 힘써서 군사부(君師父)를 하나같이 섬기라는 가르침을 생각하셔서 어버이를 섬기는 마음으로 임금을 섬기면 백성의 도리 가운데 만분의 일이라도 다 할 수 있다.

취지에 공감한 주민들은 의연금 모금에 적극적인 참여와 더불어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관내 모금운동 확산은 「취지서」 발표를 이후 급속하게 확산되었다. 6세에 불과한 어린이 이동식 참여는 주민들에게 커다란 울림으로 다가왔다. 홍주군의금수집소 운영은 당시 분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표 4 | 홍성지역 국채보상 의연금 모집현황

면명	동리명	참여인원	모금액	전거
화성면	화강리	이병선 등 10명	2원20전	大5.22
	창리	안봉로 등 14명	3원10전	
	용곡리	조문희 등 35명	4원60전	
	정두리	신명균 등 32명	7원45전	
	야동	한상익 등 27명	4원72전	
	행정	안병찬	80전	
		안씨종중	2원	
		동중	1원70전	
	아산	채규오 등 15	2원25전	
	수다리	임풍주	1원30전	
		동중	1원30전	
	신장	최돈문 등 16명	2원70전	
	이동	조태호 등 11명	1원70전	
	옥계	이승호 등 22명	3원60전	
	명덕리	임용주 등 15명	2원50전	
	재실	동중	1원50전	
	미산	동중	2원30전	
	신통	동중	1원90전	
	평리	홍종인	50전	
		동중	80전	
	관기	심의소 등 10명	1원50전	
	길창	동중	6원20전	
	광석	동중	1원20전	
	기곡	임규하 등 12명	2원30전	
	계			64원12전
번천면	읍내	향약계중	40원	황7.3
	창정리	주창환 등 36명(주씨문중)	16원30전	
	운곡리	주지순 등 25명(주씨문중)	12원	
	상반리	주석철 등 20명	3원80전	
	상원리	장동혁 등 23명	9원40전	
	종평리	황윤수 등 12명	4원50전	
	하개리	한우승 등 10명	6원	

	공수동	정철조 등 17명	6원	
	화동리	이주령 등 14명	2원30전	
	모전리	정도섭 등 20명	4원50전	
	월곡리	문도식 등 11명	1원95전	
	종현리	황규종 등 22명	7원50전	
	홍거리	김명제 등 24명	4원	
	상송리	송길면 등 8명	3원15전	
	개월리	정대일 등 15명	4원	
	신리	김상진 등 7명	1원70전	
	빙질리	황익성 등 4명	3원80전	
	하거리	이주호 등 5명	70전	
	중원리	박윤오	4원	
	죽림리	박성국	2원	
	상개리	주영순	2원50전	
	대박리	김국병	1원	
	상구리	조종린	1원	
	시목리	최재흥	1원50전	
	운동리	김익제	4원	
	계			147원60전
오사면	화전리	윤병 등 18명(승려)	8원10전	大7.4
얼방면	대야	이회민 등 12명	2원52전10리	大7.5
	두산	이항호 등 11명	1원63전35리	
	조동	이현구 등 5명	67전10리	
	수곡	김응제 등 8명	2원4전	
	신기	윤석명 등 12명	86전10리	
	곡촌	신태모 등 11명	2원38전15리	
	용화	이문우 등 9명	3원23전20리	
	사성	이창환 등 8명	77전35리	
	상식	이규천 등 21명	3원40전45리	
	천현	조철로 등 4명	85전	
	중조	김성화 등 7명	74전25리	
	방축	이회면 등 7명	82전30리	
	상냉	조창호 등 7명	1원32전	
	하식	조경현 등 7명	2원25전30리	

하냉	이규남 등 29명	9원54전20리
	동중	1원12전5리
내동	조운희 등 8명	1원72전
마흘	전화진 등 10명	1원65전50리
박석	유항준 등 7명	71전
만천	이운응 등 3명	80전
대한	이용구 등 14명	6원65전
소한	김기권 등 10명	1원84전30리
여사	이건우 등 14명	2원51전25리
이동	안수민 등 6명	82전30리
학성	이일헌 등 6명	2원55전
하봉	유치학 등 5명	83전20리
강촌	권영수 등 19명	3원32전40리
가동	이춘삼 등 7명	83전20리
상조	박영회 등 31명	
하조	유진욱 등 12명	2원27전30리
계		60원2전5리

〈표 4〉에 나타난 참여인원이나 모금액은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된다. 특히 모금액은 279원84전5리이나 서울총합소로 보낸 금액은 425원17전4리로 보도되었다. 홍주의금소에서는 신문대금 50전까지 보냈다. 물론 구체적인 원인은 현재까지 크게 드러나지 않는다. 이는 신문 등에 제대로 보도되지 않은 사실을 반증한다.

번천면 창정리 주창환 등 36명과 운곡리 주지순 등 25명 등 주씨문중 인사들은 각각 16원30전과 12원을 모금하였다. 화성면 행정동 안씨종중에서도 2원을 의연했다. 더욱이 각 동리를 단위로 모금은 일정한 '할당액'을 배정한 사실을 의미한다. 이러한 모금방식은 대부분 농촌지역에서 관행적으로 통용되고 있었다. 향촌공동체 원리는 조선후기 이래 1862년 농민운동과 1894년 갑오농민전쟁을 비롯하여 국채보상운동에 도입됨으로써 진가를 발휘할 수 있었다. 경제생활 정도에 따른 차등적인 모금액은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적절한' 방법이나 마찬가지였다.

상호신뢰감에 바탕을 둔 이와 같은 운영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여성단체에 의한 모금 활동은 전혀 없었다. 당시 이곳에 조직된 여성단체는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전무한 상황이었다. 이는 남존여비 등 전통적인 강고한 인습이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한 지역적인 특성을 반증한다. 홍주군 유생에 대한 비판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 물론 여성들 개개인의 국채보상운동 참여조차 없었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김소사와 내원사 김보살 등의 자발적인 참여는 드문 경우였으나 본보기로서 의미를 지닌다.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활발한 지역은 경쟁적인 참여 속에서 진전되어 나갔다.

홍성지역 국채보상운동은 인근 지역에 비하여 적극적이지 않았다. 제2차 홍주의병 실패에 따른 사회적인 불안은 이와 무관하지 않았다. 군대 해산 이후 격렬한 의병전쟁은 서해안 도서 지역을 중심으로 멈추지 않았다. 홍주를 비롯한 내포지역도 마찬가지인 상황이었다. 주민들은 생존권이 크게 위협받는 상황에서 국채보상은 부차적인 문제로 인식될 수밖에 없었다. 반면 사립학교 설립에 의한 교육계몽운동은 홍성인의 항일의식을 온존하는 에너지원이었다.

| 5 | 홍성인을 각성시키다

한말 홍성지역은 2차례에 걸친 의병전쟁, 선교사 입국활동, 장시유통망의 재편 등으로 많은 변화를 초래하였다. 이곳은 조선후기 해상교통 발달과 더불어 서해안 교통의 중심지로 발전하기에 이르렀다. 지배체제 이완에 따른 수적·화적 등의 활동도 빈번하게 나타났다. 생존권 위기에 직면한 주민들은 불법적인 지방관 수탈에 저항하는 등 스스로 자기권리를 찾으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을사늑약 이후 위기의식 고조에 따라 자강단체 지회도 조직되었다. 대표적인 단체는 번천면국채보상기성회와 기호흥학회 홍주지회였다. 이곳 국채보상운동과 사립학교설립운동은 이 단체에 의하여 주도되었다. 운동주체는 전·현직 관료로서 전통교육을 이수한 인물들로 이른바 개신유학자였다. 특히 기호흥학회 지회원들은 3면1교제에 입각한 '의무교육' 시행을 계획하였다. 특히 이들 노력으로 근대교육운동은 사실상 추진된 바나 다름없었다.

'을사늑약' 직후까지 사립학교 설립은 전무하였다. 이는 근대문물에 대한 보수적인 이곳 분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대한자강회 지회나 사립여학교가 전무한 사실은 이와 관련하여 의미하는 바가 크다. 여성단체가 전무한 사실이나 국채보상운동에서 여성들 역할이 거의 파악되지 않는 점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이는 1907년을 정점으로 점차 변화되었다. 1908~1909년은 교육운동의 전성기였다. 변화를 주도한 인물은 김좌진 일가인 안동김씨 문중인들이었다. 또한 군수 윤필과 관찰사 김가진도 이에 동참하는 등 근대교육 보급에 앞장섰다. 서승태·이세영·이상린 등 홍주의병진의 중심인물 참여는 근대교육사에서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크다. 교육운동으로 '방향전환' 은 독립운동 방략과 영역을 확대하는 기반이었기 때문이다. 「위국가」 등 창가 보급과 더불어 상무정신 고취는 이와 같은 목적에서 비롯되었다. 사립학교 설립에 의한 근대교육 확산은 주민들의 열망과 미래를 밝히는 '희망봉' 이나 마찬가지였다.

대한제국기를 대표하는 교육기관은 홍명학교·호명학교·덕명의숙·광명학교 등이었다. 홍명학교 생도 9명은 학교 유지를 위하여 단지동맹으로 등 전국적인 관심사로 부각되는 충분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더욱이 금란의숙은 최초 기호학교 지교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지교는 본회의 목적을 관철하는 '상징물' 이었다. 즉 '단순한' 사립학교로서 의미가 아니라 지역의 근대교육을 가늠하는 '바로미터' 나 다름없

었다. 명망가와 주민들의 자발적·경쟁적인 참여는 소통에 의한 유대감을 견고하게 만드는 요인이었다.

교육·계몽운동과 국채보상운동 참여의 소중한 경험은 사회적인 책무를 일깨우는 밑거름이었다. 소통에 의한 강한 현실인식 공유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자각하는 결정적인 요인 중 하나였다. 1908년 6월에 화성면 용곡리는 의병전쟁으로 23호가 방화로 소실되는 참화를 입었다. 명망가 등은 100여 원 의연금을 거두어 피해자들 지원에 앞장섰다. 군수 윤필은 아름다운 선행에 대한 사실을 내부로 보고함으로 주민들에게 자신감을 불러일으켰다. 분위기는 일제 침략에 맞서 항일운동을 전개하는 든든한 밑거름으로 작용했다.

일부 학교는 설립취지와 달리 설립된 지 1~2년 만에 폐교되는 경우도 있었다. 교육내용 부실, 중장기적인 방안 부재, 일제 탄압 등은 주요 요인이었다. 특히 교사양성을 위한 사범교육기관 부재는 이러한 상황을 초래하는 결정적인 계기였다. 강제병합 이후 운동 주체 중 일부는 식민통치에 포섭되는 등 민족해방운동 전선에서 점차 일탈하였다. 1910년대 이곳 민족해방운동 침체는 이와 같은 상황과 맞물려 있었다.

| **김형목** | 독립운동사연구소 연구원

홍성의 독립운동사 1

1910년대 독립운동은 식민통치라는 현실에 직면하면서 한말 국권회복운동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독립운동 방략을 모색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1910년대 홍성인들은 국내에서 비밀단체를 조직해 국외독립운동기지를 지원하며 독립전쟁을 추진했다.

제 4 장

1910년대 국내독립운동

1. 1910년대 국내독립운동과 홍성인
2. 독립의군부와 홍성인
3. 광복회와 홍성인
4. 조선민족대동단과 홍성인
5. 혁신단 · 암살단과 홍성인
6. 주비단과 홍성인
7. 대한건국단 · 광복단 충청도지단과 홍성인

제4장

1910년대 국내독립운동

1 | 1910년대 국내독립운동과 홍성인

대한제국은 1910년 8월 일제에게 강제로 병탄되었다. 일제는 영구적인 식민 지배를 추진했고, 우리민족은 수많은 고통과 시련을 겪어야 했다. 일제는 식민지배체제 구축과 민족말살을 지배정책으로 삼고 가혹한 탄압과 수탈을 자행했다. 그러나 우리민족은 일제를 물리치고 독립을 달성할 수 있다고 믿었고 국내·외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해 광복을 맞이했다. 독립운동은 국내를 비롯해 만주와 중국관내·연해주·미주·일본 등 전 세계를 무대로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독립운동에서 가장 제약이 많았던 곳은 국내였다. 국내는 일본제국주의 직접통치를 받고 있었고, 일제의 감시와 탄압이 그 어떤 지역 보다 삼엄했기 때문이다. 또한 한일강제병합 후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국외 망명을 추진하면서 1910년대 국내독립운동은 침체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조건에도 국내에서는 비밀단체들이 조직되어 국권회복운동을 계승해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1910년대 독립운동은 식민통치라는 현실에 직면하면서 한말 국권회



사진 1 | 한말의병들의 모습

복운동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독립운동 방략을 모색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국권회복운동은 국권회복이라는 목적은 같았으나 의병전쟁과 계몽운동으로 방법과 이념상으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국망에 직면하면서 계몽운동의 실력양성이나 의병전쟁의 무력투쟁만으로는 식민체제를 극복할 수 없다고 인식했고 그 결과 독립전쟁론이라는 새로운 투쟁방략이 제기되었다. 독립전쟁론은 국외에서 독립군을 양성해 일제와 전쟁을 벌여 독립을 달성한다는 방략이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외에서는 독립운동기지가 건설되었고, 국내에서는 비밀단체들이 조직되었다. 1910년대 국내 비밀단체들은 독립전쟁을 실현하고 국외독립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조직되었다. 국외로 망명한 독립운동가들은 만주를 중심으로 독립운동기지를 건설했다. 그러나 국내에서 인적·물적자원을 조달받아야 했다. 따라서 국내에서 조직된 비밀단체들은 독립운동기지와 연락망을 구축하고 지원하는 활동을 벌였다.

1910년대 국내에서는 독립의군부(獨立義軍府)·풍기광복단(豐基光復團)·민단조합(民團組合)·광복회(光復會)·대동청년단(大同靑年團)·조선국권회복단(朝鮮國權恢復團)·조선국민회(朝鮮國民會) 등 많은 비밀단체

들이 조직되었다. 그러나 이들 단체들은 의병전쟁과 계몽운동 계열로 나뉘어 조직되었다. 의병전쟁계열은 복벽주의(復辟主義), 계몽운동계열은 공화주의(共和主義) 이념을 갖고 있었다. 조국독립이라는 목적은 같았으나 조직주체와 이념상으로는 다른 단체들이 조직된 것이다. 한말 국권회복운동의 한계를 완전히 극복하지 못한 결과였다. 그러나 두 계열은 상호보완적 성격을 갖고 있었다. 계몽운동계열은 무력투쟁을 지향했던 국외독립운동세력을 지원하는데 목표를 두고, 독립운동기지를 후원하며 독립전쟁을 지향했다. 의병전쟁계열도 복벽주의 이념을 극복하고 공화주의 이념을 수용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투쟁방략은 무력투쟁, 이념은 공화주의로 정착되어 갔다. 국권상실과 식민지배라는 상황에서 독립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위해 적극적인 무력투쟁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1910년대 국내독립운동은 1919년 3·1운동 계기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다. 일제는 국권을 강탈한 후 10여 년 동안 무단통치를 실시했다. 일제는 전국에 헌병을 배치해 경찰업무를 수행하게 했으며, 헌병경찰에게는 즉결 처분권을 부여해 우리민족을 감시와 탄압했다. 토지조사사업 등 1910년대 일제의 수탈경제정책으로 식민지 조선인들은 궁핍한 생활을 영위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우리민족은 이러한 일제의 식민지배에 맞서 거족적인 만세운동을 벌였다. 3·1운동은 이후 독립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다. 독립운동사에서 1919년 3·1운동 이후를 1920년대로 설정할 정도로 3·1운동은 독립운동사에서 큰 분수령을 이루었다. 우리민족은 독립을 달성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1920년대 독립운동이 민족의 총력적 항쟁으로 전개될 수 있는 배경을 제공했다. 중국 상해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고, 만주와 연해주지역의 독립군들은 독립전쟁을 수행해 나갔다.

국내에서는 1910년대와 같이 비밀단체들이 조직되었다. 그러나 1910년대 비밀단체와는 차이를 보였다. 가장 큰 변화는 단체수의 변화

이다. 3·1운동 이후 1920년대 초까지 국내에서 100여 개가 넘는 단체들이 조직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민중들이 3·1운동을 겪으면서 자신들이 독립운동의 주체라는 점을 인식한 결과였다. 독립운동단체들의 이념도 변화되었다. 1910년대는 복벽주의와 공화주의가 공존했으나 3·1운동을 계기로 공화주의가 정착되었다. 따라서 3·1운동 이후 1920년대 초 국내독립운동단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국외 독립운동기지를 지원하기 위한 단체들이 조직되었다.

홍성인들도 1910년대 국내 비밀단체에 참여했다. 홍성인들은 3·1운동 전에는 독립의군부와 광복회에 참여했고, 3·1운동 후에는 조선민족대동단·대한건국단·주비단·암살단 등에 참여했다. 1910년대 홍성인들의 국내 독립운동은 홍주의병과 관계가 깊었다. 1896년과 1906년 두 차례 봉기한 홍주의병은 한국근대사에서 큰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한말 의병전쟁사에서 단일전투로는 대규모 참여자와 희생자를 냈으며, 치열한 항쟁을 벌였기 때문이다. 홍주의병은 1910년대 충남뿐만 아니라 국내외 독립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다. 홍주의병에 참여했던 곽한일(郭漢一)·이식(李伋)·유준근(柳濬根) 등은 독립의군부에 참여했고, 한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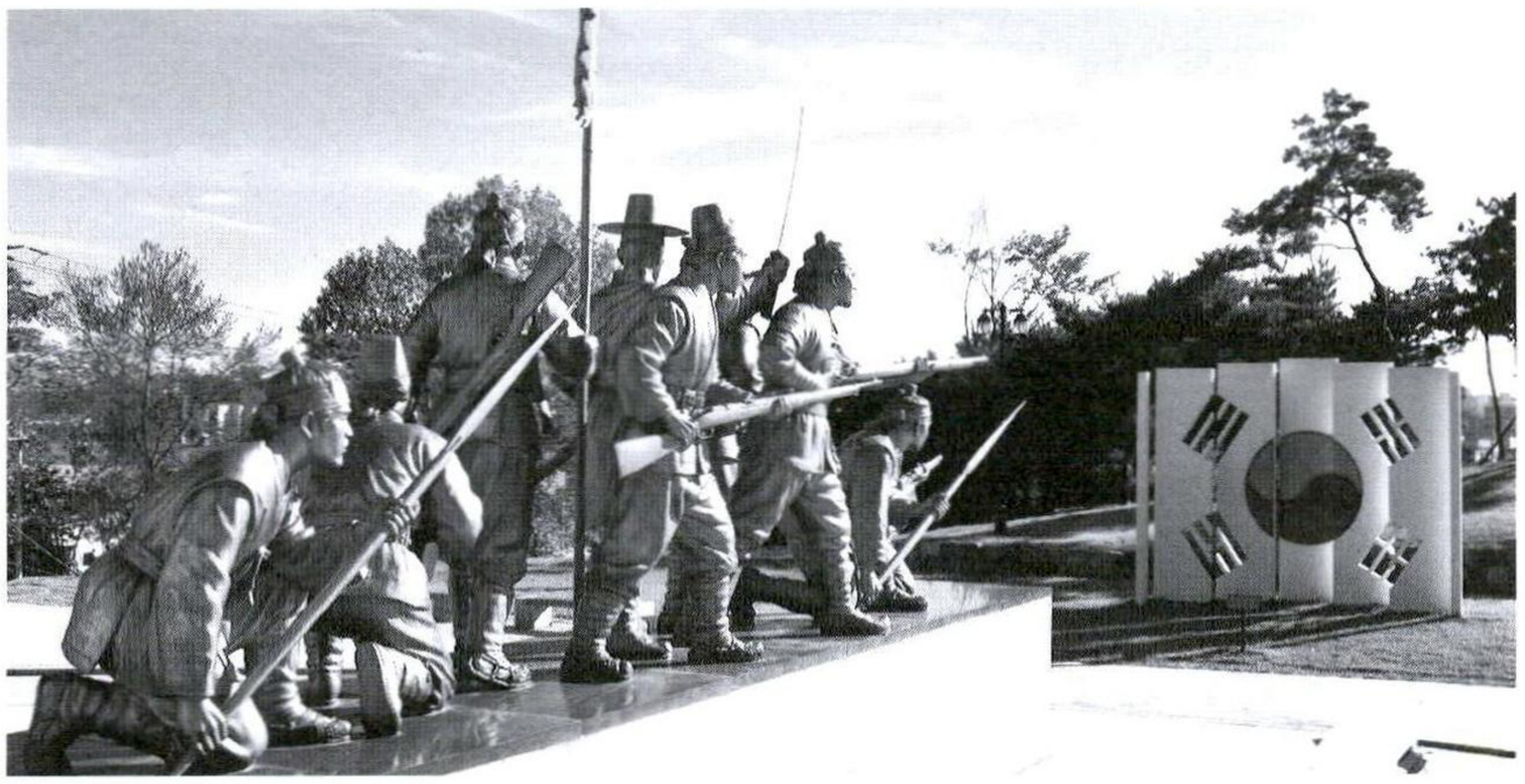


사진 2 | 홍주의병 기념탑

(韓焄)·유창순(庾昌淳) 등은 풍기광복단, 한훈·한태석(韓泰錫)·김재정(金在貞)·성문영(成文永)·성달영(成達永)·권상석(權相錫)·정태복(鄭泰復)·김경태(金敬泰) 등은 광복회에 참여했다. 홍순대(洪淳大)·서승태(徐承台)는 홍성지역 3·1운동에 참여했고, 이만직(李晩稙)·이용규(李容珪)는 3·1운동 후 한성임시정부 수립에 참여하기도 했다. 김복한(金福漢)·안병찬(安炳瓚) 등 홍주의병장들은 직접 파리장서운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이처럼 1910년대 홍성인들의 국내독립운동은 홍주의병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이들이 중심이 되어 추진되었다.

2 독립의군부와 홍성인

독립의군부(獨立義軍府)는 1910년대 대표적인 복벽주의 계열의 독립운동단체이다. 독립의군부는 서울에서 고종의 밀명을 받은 곽한일·이식·전용규(田鎔圭)·이정노(李鼎魯) 등 재야유생과 전직관료들이 중심이 되어 조직되었다. 곽한일과 이식은 1912년 봄부터 독립운동단체를 조직하기 위해 동지들을 규합하고 있었고 같은 해 9월 독립의군부를 조직했다. 독립의군부는 홍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곽한일과 이식은 면암(勉菴) 최익현(崔益鉉)의 문인으로 1906년 민종식(閔宗植)의 홍주의병에 참여했던 의병장이었고, 전용규는 홍성출신으로 독립의군부 조직에 참여했다. 곽한일은 온양출신으로 1906년 5월(양) 남규진(南奎振)과 함께 충남 예산에서 봉기했으며, 홍주의병이 홍주성을 점령했을 때 의진에 합류했다. 곽한일은 돌격장을 맡아 홍주성 전투를 벌였으며, 홍주성 전투에서 패한 후 민종식·이용규(李容珪) 등과 재기를 도모했다. 그러나 같은 해 11월(양) 일진회원의 밀고로 체포되어 전라도 지도에 유배되었다.

이식은 청양 출신으로 홍주의병이 홍주성을 점령했을 때 의진에 합류해 참모사(參謀士)를 맡았다. 그러나 홍주성 전투에서 패한 후 체포되어

1907년 7월(양) 남규진·신현두(申鉉斗)·유준근(柳濬根) 등과 종신유배형을 받고 대마도에 유폐되었다. 이식이 대마도에 유폐된 후 최익현도 대마도에 유폐되었다. 최익현은 1906년 6월 전북 태인에서 임병찬(林炳瓚)·고석진(高石鎭) 등과 봉기했다. 그러나 봉기 직후 체포되어 임병찬과 함께 대마도에 유폐되었던 것이다. 이식은 1907년 1월(양) 최익현이 순국하자 부집례(副執禮)를 맡아 임병찬과 함께 장례를 치렀으며, 1909년 2월(양) 석방되어 유준근·이상두(李相斗) 등과 귀국했다. 따라서 독립의군부는 최익현의 문인을 중심으로 홍주의병과 태인의병에 참여했던 이들을 중심으로 조직되었다.

전용규는 홍성출신으로 독립의군부를 조직한 대표적 인물이다. 전용규는 한말 시종원(侍從院) 시종(侍從)을 역임했다. 시종원은 궁내부 소속으로 국왕의 비서업무와 왕명의 출납을 담당했던 기관이었다. 전용규는 고종과 친분이 있던 전궁내부주사(前宮內府主事) 이정노(李鼎魯)의 소개로 곽한일을 만나 독립의군부에 참여했다. 전용규는 이정노와 함께 이명상(李明翔)·이인순(李寅淳)·윤돈구(尹敦求) 등 전직관료들이 독립의군부에 참여하는데 기여했다. 이들은 중추원의관(中樞院議官)·평리원판사(平理院判事)·비서원승(祕書院丞)·통신사주사(通信司主事)·수서원교관(修書院敎官) 등을 역임한 관료층이었으며, 국왕의 측근들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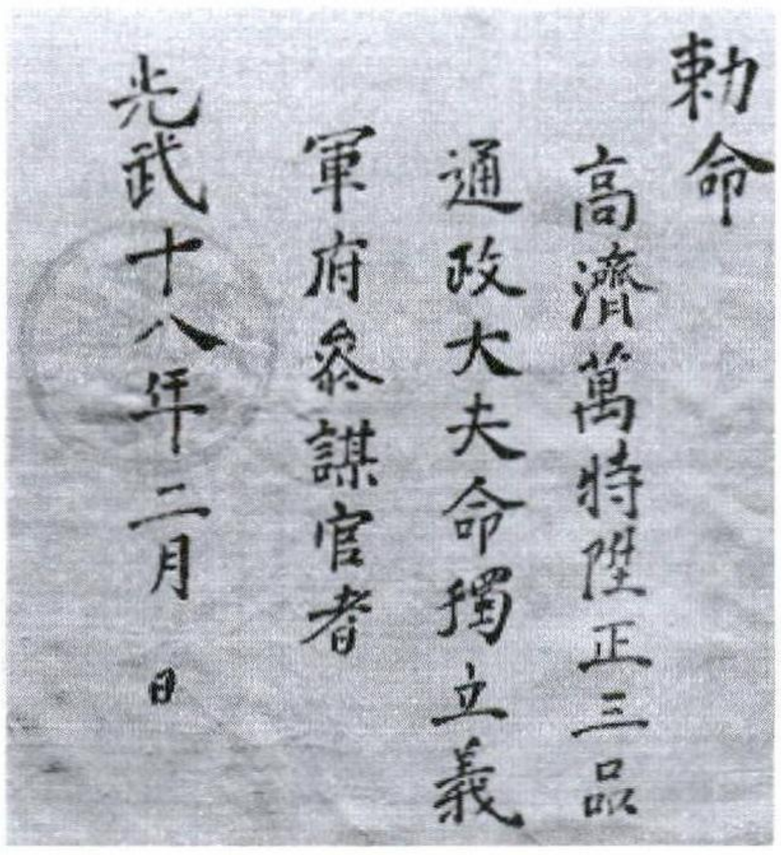

勅命
高濟萬特陞正三品
通政大夫命獨立義
軍府參謀官者
光武十八年二月 日

사진 3 | 독립의군부 칙명

독립의군부는 서울에서 조직된 후 부원확보에 주력했다. 부원의 확보는 '사령서(辭令書)'를 전달하고 참여를 권유하는 형식으로 전개되었다. 사령서는 황제의 명령인 '칙명(勅命)'의 형식으로 발행되었고,

칙명에는 사령서를 받는 이의 성명과 관직, 발행일이 표기되었다. 사령서 교부는 이식이 책임을 맡았다. 이식은 1912년 9월 독립의군부 '순무대장'에 임명한다는 사령서를 이승열(李承烈, 경기도 평택)·윤상보(尹尙普, 충남 온양)·임병찬(林炳瓚, 전북 태인)에게 전달했다. 이들의 선정은 곽한일과 이식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윤상보는 충남 온양 출신으로 곽한일과 고향이 같았고, 이승열과 임병찬은 최익현의 문인이었다. 특히 임병찬은 이식과 함께 대마도에 유폐되어 최익현의 장례를 함께 치렀다. 따라서 조직 초기 이승열·윤상보·임병찬의 참여는 곽한일과 이식의 학연과 지연에 의한 것이었다. 이들의 노력으로 독립의군부는 경기·충청·전라도 지역에서 다수의 부원들을 확보할 수 있었다.

전용규도 독립의군부의 조직 확대에 주력했다. 그는 곽한일 이식과 함께 1913년 2월부터 4월까지 전국에 60여 통의 사령서를 교부했다. 당시 사령서를 받은 대표적 인물은 김재성(金在性)과 최욱영(崔旭永)이다. 전용규는 1913년 3월(음) 서울에서 김재성에게 충북 회인·청주·보은군 독립의군부 초토사(招討使)로 임명한다는 사령서를 교부했다. 아울러 '민권(民權)을 단합하기 위해 창덕궁(昌德宮; 필자주)에서 칙명을 발표하였으니 경북 문경의 최욱영(崔旭永)에게 칙명을 전달해 달라'고 의뢰했고, 김재성은 이를 최욱영에게 전달했다. 칙명을 받은 김재성과 최욱영은 경북과 충북지역에서 독립의군부를 조직했다.

독립의군부는 조직이 확대되자 1913년 1월 관제인 '독립의군부정헌(獨立義軍府正憲)'을 제정했다. 조직초기 '경략사·순무대장·소모관' 등의 관직을 부여했으나 조직적인 관제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독립의군부는 '(인재를 모아) 단체 조직→(일본정부에)서면상신·(鮮人에게 연설 등으로)독립사상고취→(시기를 보아)독립선언→(列國과 협조해)독립달성'한다는 목적으로 조직되었다. 독립의군부는 첫 번째 단계인 단체를 조직한 것이며 적당한 시기에 독립선언을 발표하려는 목적도 갖고 있었다. 이러한 목적의 배경에는 일본의 정세변화가 있었다. 곽한일은 일본에서

민권당(民權黨)의 세력이 커져서 일본정부와 알력이 생겼고, 일본 정부도 재정이 곤란해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 여겼다. 곽한일은 이러한 사실을 신문을 통해 접했고, 이를 이용해 독립을 달성하고자 독립의군부를 조직했다. 그는 일본에서 정변이 일어나 민권당이 주장하는 조선의 독립환원론이 힘을 얻을 것이라 인식했고, 이는 국권을 회복하고 독립을 달성할 수 있는 절호의 기호로 여겼다. 그러나 독립의군부의 목적은 의병봉기를 통한 '복국(復國)' 이었다. 독립의군부는 한말 의병전쟁에 참여했던 이들이 조직한 단체이다. 따라서 최종적인 독립의 달성은 '거병(擧兵)' 을 통해 이루고자 했다. 단체이름이 '독립의군(獨立義軍)' 인 것도 의병봉기를 통해 독립을 달성한다는 뜻을 갖고 있었다. 한말 의병에 참여했던 이들은 일제가 대한제국을 강점하자 망국(亡國)을 인정하고 독립의군을 조직해 독립을 쟁취하고자 했던 것이다.

따라서 전용규는 곽한일 등과 함께 1913년 3월경부터 거병(擧兵)을 추진했다. 그러나 거병은 실패했다. 곽한일이 자금모집에는 성공했으나 거병직전 일제에게 발각되었기 때문이다. 곽한일·이식·이정노 등 독립의군부를 조직했던 주요 인물들이 체포되면서 독립의군부는 해산의 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독립의군부는 재기할 수 있었다. 체포된 이들 중 곽한일(징역 1년 6월)·이정노(징역 6월)·전용규(징역 1년)만 유죄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전용규는 당시 체포되지 않았고, 궐석재판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따라서 독립의군부는 1914년 3월부터 다시 활동을 벌일 수 있었다. 독립의군부는 활동을 재개하면서 새로



사진 4 | 전용규 판결문(경성지방법원 1915년 3월 13일)

운 관제인 관견(管見)을 제정하고 총대표 및 각군대표를 선정했다. 총대표는 고석진(高石鎭)·곽한일·김용응(金鏞應)·민정식(閔正植)·이명상(李明翔)·이승욱(李承旭)·이인순(李寅淳)·임병찬·전용규·조재학(曺在學)·조형하(趙衡夏)·최만식(崔萬植)·채상덕(蔡相德)이 맡았으며 충청도 대표는 유준근(柳濬根)이었다. 총대표인 임병찬·고석진·조재학은 태인의병장, 곽한일·유준근은 홍주의병장 출신이었다. 홍성군(결성, 홍주) 대표는 안병찬(安炳瓚)·안병식(安恒植)·안병림(安炳琳)·이병후(李秉厚)·이계조(李繼祚)가 임명되었다. 이들 중 안병찬·안병식·안병림은 홍주의병에 참여했던 이들이다. 이처럼 독립의군부는 1914년 활동을 재개하던 시점에도 태인의병과 홍주의병 출신들이 주도하고 있었다.

그러나 독립의군부는 1914년 5월 자금을 모집하던 김창식(金昌植)·이기영(李起永)·강봉주(姜奉周)·정철화(鄭哲和) 등이 체포되고 임병찬마저 체포되면서 조직이 크게 와해(瓦解)되었다. 전용규도 1915년 3월 체포되어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 8개월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전용규는 풀려난 후에도 독립의군부와 홍주의병에 참여했던 이들과 독립운동을 이어갔다. 그는 1916년 7월(음) 충남 연산의 이내수(李來修) 집에서 윤병일(尹炳日)·이내수·이용규·이만직(李晩稙)·조종국(趙鍾國) 등과 의병봉기를 추진했다. 이용규·윤병일·이만직은 홍주의병장 출신이었으며 이내수는 일제의 한일강제병합에 항거해 자결 순국한 이학순(李學純)의 장남으로 독립의군부 연산군 대표였다. 이내수는 1913년 7월 마을의 민적을 불태운 사건으로 투옥되었고, 투옥 중 곽한일을 만났다. 이내수는 투옥중 단식투쟁을 벌였으나 곽한일이 거의를 도모하자며 설득하자 단식을 중단했고 독립의군부에 참여해 연산군 대표를 맡았다. 이들이 거병을 추진한 것은 나라의 원수를 갚기 위함이고, 온나라의 백성이 모두 의병이며, 거의해서 왜적을 섬멸하고 국권을 회복하여 황상(皇上)과 국모(國母)의 원수를 씻고 사직을 보존하기 위함이었다. 전용규는 이내수에게 마패(馬牌)와 어보(御寶)를 전달하고 자금모집과 거병을 독려했다.

그러나 다음해 7월 전용규·이용규·이내수 등 의병봉기를 추진했던 이들이 체포되면서 뜻을 이루지는 못했다.

| 3 | 광복회와 홍성인

광복회(光復會)는 1915년 7월(음) 대구에서 박상진(朴尙鎭)·우재룡(禹在龍)·채기중(蔡基中) 등이 중심이 되어 조직한 독립운동단체이다. 광복회는 한말의병전쟁과 계몽운동계열이 연합해 만주에 사관학교를 설치하고 독립군을 양성해 독립을 달성한다는 목적으로 조직되었다. 광복회원들은 원수 일본을 몰아내고 독립을 달성하는 것이 우리 민족의 의무라 여기고 있었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발휘해 성심으로 노력하면 강토의 회복과 광복은 당연히 도래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광복회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투쟁강령을 수립했다.

① 무력준비 : 일반부호의 의연(義捐)과 일본인이 불법징수는 세금을 압수하여 이로써 무장을 준비함
② 무관양성 : 남북만주에 사관학교를 설치하고 인재를 양성하여 사관(士官)으로 채용함
③ 군인양성 : 우리 대한의 의병, 해산군인 및 남북만주이주민을 소집하여 훈련하여 채용함
④ 무기구입 : 중국과 러시아에 의뢰하여 구입함
⑤ 기관설치 : 대한, 만주, 북경, 상해 등 요지에 기관을 설치하되 대구에 상덕태(尙德泰)라는 상회에 본회의 본점을 두고, 각지에 지점 및 여관, 또는 광무소(鑛務所)를 두어서 이로써 본 광복회의 군사행동의 집회, 왕래(往來) 등 일절의 연락기관으로 함

⑥ 행형부 : 우리 광복회는 행형부를 조직하여 일본인 고등관(高等官)과 한인(韓人) 반역분자를 수시수처에서 포살을 행함

⑦ 무력전 : 무력이 완비되는 대로 일본인 섬멸전을 단행하여 최후 목적을 완성함

광복회의 투쟁강령은 '무력준비(武力準備)·무관양성(武官養成)·군인양성(軍人養成)·무기구입(武器購入)·기관설치(機關設置)·무력전(武力戰)' 이었다. 투쟁강령 대부분이 무력준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고, 독립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방략이었다. 이러한 광복회의 목적은 1910년대 독립전쟁론과 맥을 같이 하고 있었다. 독립전쟁론은 독립군을 양성하고 자금을 조달해 군비를 갖춘 뒤 일제(日帝)와 일전(一戰)을 벌인다는 것이었다. 광복회는 한인(韓人)들을 만주로 이주시키고 이들로 하여금 농토를 개간해 식량과 병력을 공급할 계획이었다. 광복회는 의병전쟁의 무장투쟁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 실력양성을 통해 준비가 이루어진 후에 무장투쟁을 감행한다는 방략을 선택했던 것이다. 따라서 광복회는 국내에서 비밀단체로 결성되었으나, 독립군 양성은 만주에서 추진하는 전략을 수립했다. 광복회가 '회(會)' 라는 온건한 명칭을 사용한 반면 편제는 '총사령·사령부·사령관·지휘장' 등 군대식으로 조직을 갖춘것도 독립전쟁을 결행하기 위한 것이었다.

광복회는 결성 직후 전국에 지부를 설치하기 시작했다.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회원의 확보와 거점의 설치가 가장 시급한 문제였고, 대구와 경상도를 중심으로 조직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함이었다. 이를 위해 광복회는 해당지역의 유력한 인물을 지부장으로 임명하고 지부조직과 활동의 책임을 맡겼다. 광복회 지부는 전국 8도에 설치되었다. 충청도지부는 광복회의 대표적인 지부였다. 광복회 지부 중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했고, 가장 활발한 활동을 벌였기 때문이다. 충청도 지부는 홍성·예산·청양·아산·천안을 중심으로 조직되었으며, 지부장은 충남 예



사진 5 | 김한종의사기념관

산 출신의 김한종(金漢鍾)이었다. 김한종은 1910년 한일강제병합 후 충청도지역에서 독립운동을 위해 동지들을 규합하던 중 1916년 김경태(金敬泰)·김재창(金在昶)과 함께 조선총독 및 일제고관들을 처단할 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일제에 발각되면서 피신하게 되었고, 채기중(蔡基中)의 소개로 광복회 총사령 박상진을 만나 광복회에 참여했다. 김한종은 광복회에 가입한 후 충청도지부 조직에 착수했고 가장 먼저 친분이 있던 천안의 장두환을 가입시켰다. 장두환 영입 후 충청도 지부원 모집은 빠르게 진행되었다. 그 결과 강석주(姜奭周)·권상석(權相錫)·김경태(金敬泰)·김재창(金在昶)·김재풍(金在豊)·성달영(成達永)·엄정섭(嚴正燮)·유중협(柳重協)·유창순(庾昌淳)·이재덕(李在德)·정우풍(鄭雨豊)·정태복(鄭泰福) 등 50여명의 회원이 모집되었다.



사진 6 | 김한종의사

광복회 충청도 지부는 홍주의병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충청도 지부에 참여한 이들은 대부분이 홍성·예산·청양·아산·천안 출

신들이었다. 충청도 지부가 홍주의병에 직접 참여했거나 의병적 성향의 인물들을 중심으로 조직되었고, 이러한 성격이 충청도 지부를 조직할 수 있는 사상적 배경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충청도 지부장 김한종 문중 인물들도 홍주의병과 관계가 깊었다. 충청도 지부에는 김한종과 그의 부친 김재정(金在貞), 숙부 김재풍(金在豊)을 비롯해 김재창(金在昶)·김재철(金在哲)·김재인(金在仁)·김원묵(金元默)·김완묵(金完默)·김성묵(金成默) 등 예산의 금령김씨(金寧金氏) 인물들 다수 참여했다. 이들이 광복회에 참여하는 것은 김재정의 영향이 컸다. 김재정은 성리학을 깊이 연구하고 천문지리까지 능통한 유학자였으며, 예산군 광시면 신흥리에서 제자들에게 항일구국사상을 고취시켰다. 김재정은 예산지역에서 후진을 양성하던 중 을사늑약이 이루어지자 1906년 민종식의 홍주의병에 참여했다. 김재정은 성달영(成達永)과 함께 소모장(召募將)으로 의병모집과 군량을 담당했다. 그러나 홍주의병이 일본군에게 패하자 김기우(金箕祐)·박제현(朴齊賢)·박창노(朴昌魯)·박윤식(朴胤植)·성달영 등 홍주의병에 참여했던 의병장들을 예산군 광시면 신흥리 자신의 집으로 피시시키고 재기를 도모하기도 했다. 김재정과 함께 홍주의병에 참여했던 성달영도 홍주의병이 실패한 후 아우 성문영(成文永)과 함께 광복회에 참여했다. 성달영·성문영 형제는 아산출신으로 홍주의병에 참여한 이들과 혈연·지연·학연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민종식을 비롯한 의병장들과도 두터운 교분을 유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홍주의병에 참여한 김재정의 아들 김한종이 주도한 광복회에 참여했던 것이다. 이밖에도 유창순(庾昌淳, 천안)·권상석(權相錫)·김경태(金敬泰, 청양)·한태석(韓泰錫, 청양) 등도 홍주의병에 참여한 후 광복회 충청도 지부에 참여했다. 이처럼 충청도 지부는 홍주의병에 직접 참여했거나 그 영향을 받은 이들이 일제침략과 홍주의병 과정에서 형성된 항일의식을 광복회를 통해 실현하고자 조직한 것이었다.

정태복(鄭泰復)과 김좌진(金佐鎭)은 광복회에 참여했던 대표적인 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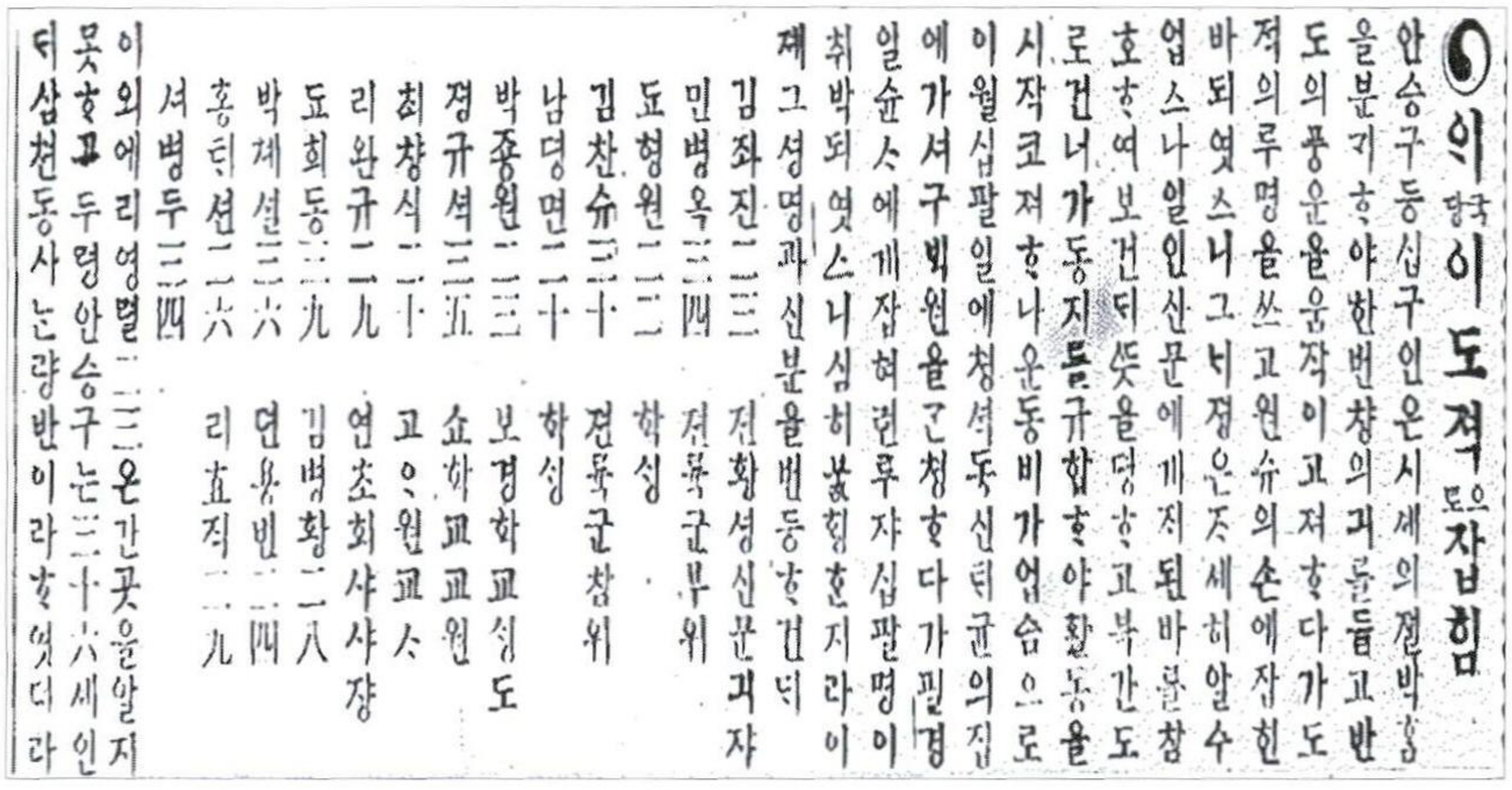
사진 7 | 정태복

성인이다. 정태복과 김좌진은 광복회에 참여한 후 자금모집에 주도적인 활동을 벌였다. 광복회의 대표적인 활동은 자금모집이었다. 광복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광복회의 군자금 모집은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되었다. 광복회원들은 자신들의 재산을 헌납하기도 했으며, 일제의 현금수송마차를 공격해 자금을 탈취하기도 했다. 그러나 광복회는 독립전쟁을 벌이기 위해 조직된 단체였고 군대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다. 따라서 광복회는 자금모집 범위를 확대하고 체계적으로 자금을 모집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의연금 모집 활동을 벌였다. 전국의 자산가들에게 의연금을 요청하는 통고문을 보내고 광복회원들이 직접 찾아가 의연금을 수령하는 것이었다. 전국의 자산가에게 독립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애국심에 호소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자금을 모집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광복회는 전국의 자산가들에게 포고문(布告文)을 발송했다. 포고문은 경상도·충청도·강원도 일대의 자산가들에게 발송되었다. 포고문은 대자산가들을 대상으로 광복회 본부에서 발송한 통고문이었다. 소자산가들에게는 각도 지부에서 별도의 통고문을 발송했다. 경상도와 전라도 지부에서는 경고문(警告文), 황해도지부에서는 배일파(排日派), 충청도 지부에서는 고시문(告示文)을 발송했다.

정태복은 홍성 장곡 출신으로 포고문과 고시문 발송에 참여했다. 정태복은 광복회 참여 당시 장곡면 면장이었다. 그는 광복회가 포고문을 발송할 때 예산·홍성·보령·당진·아산의 자산가들의 명단을 작성해 제공했다. 또한 충청도 지부에서 발송한 고시문의 제작과 발송에도 참여했다. 정태복은 충청도 지부장 김한종으로부터 "강토는 빼앗기고 왕통은 정복되어 생령은 도탄의 고통을 당하고 있음을 차마 볼 수 없고, 당시

천재는 빈번히 동경(東京)을 휩쓸고 있으므로 이 호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 여기서 분연히 궐기하여 이의 회복을 기도하려는 것이다. 동포들은 각자 그 능력에 따라 이를 원조하고, 특히 재력 있는 자는 재물로 원조하여야 한다. 이것이 바로 의연금을 요구하는 이유이며, 각자는 이에 대해 지연 태만함이 없기 바라며 만일 위반할 때는 본회 군율에 따라 처단한다"는 고시문을 전달 받았다. 정태복은 자신이 근무하던 면사무소 등 사기를 이용해 200여 통의 고시문을 제작했고, 제작된 고시문은 1917년 12월(음) 충청도 일대 자산가들에게 발송되었다. 정태복은 1917년 12월(음) 고시문을 수령한 홍성군 광천면 정인교(鄭仁敎)에게 자금을 직접 모집하는 등 충청도 지부가 전개한 자금모집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정태복은 1921년 워싱턴군축회의(태평양회의)가 열릴 때 한국인의 독립청원서인 '한국인민치태평양회의서(韓國人民致太平洋會議書)'에 광복단 대표로 서명하기도 했다. 워싱턴회의는 1920년대 미국 주도하에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세력균형을 조정하기 위해 개최된 국제회의였으며 독립청원서는 한국대표단의 출석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다. 정태복이 청원서 작성에 직접 참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으나 1920년대에도 계속해서 독립운동을 전개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한다.

김좌진도 광복회에 참여해 자금모집 활동을 벌였다. 김좌진은 홍성 갈산 출신으로 호명학교 설립과 기호흥학회 홍주지회 등에서 활동하며 계몽운동을 벌였다. 김좌진은 1907년경 서울로 올라와 신민회원들과 교류하며 국권회복을 운동을 벌이던 중 국망(國亡)을 맞았다. 김좌진은 일제강점 후 국내에서 독립운동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서간도에 독립운동기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에서 이창양행(怡昌洋行)이라는 상점을 차려 항일운동의 근거지로 삼았고, 신의주에는 염직회사(染織會社)를 차려 해외와의 연락거점으로 삼았다. 이창양행은 서울 관수동에 있었으며 의병들과의 관계로 일제경찰의 수색을 받기도 하였다. 이창양행과 염직회사는 상점으로 위장한 독립운동의 근거지였다. 그러


◎이 당국 이 도저으로 자백함

안승구등십구인은시세의젼박홈을분긔ᄒᆞ야한번챵의긔를들고반도의풍운을움작이고저ᄒᆞ다가도젹의루명을쓰고원슈의손에잡힌바되엿스니그ᄂᆡ정은조세히알수업스나일인산문에게지된바를참호ᄒᆞ여보건ᄃᆡ뜻을당ᄒᆞ고북간도로건너가동지들규합ᄒᆞ야활동을시작코저ᄒᆞ나운동비가업슴으로이월십팔일에청셕동신ᄃᆡ군의집에가셔구ᄇᆡ원을근청ᄒᆞ다가필경일슌스에게잡혀권루자십팔명이취박되엿스ᄂᆡ심히붓힝ᄒᆞᆫ지라이졔그셩명과신분을ᄇᆡᆫ등ᄒᆞ겁ᄃᆡ

김좌진 이십삼 전화셩신문과자

민병옥 삼십사 젼륙군부위

됴형원 이십이 학싱

김찬슈 삼십 젼륙군참위

남덩면 이십 하싱

박종원 이십삼 보경학교싱도

경규셕 삼십오 숑학교교원

최창식 이십 교ᄋᆞ원교ᄉᆞ

리완규 이십구 염초회샤샤장

됴희동 삼십구 김병황 이십팔

박졔셜 삼십육 연용빈 삼십사

홍ᄃᆡ셥 이십육 리효직 이십구

셔병두 삼십사

이외에리영렬 이십삼 온간곳을알지못ᄒᆞ고 두령안승구는 삼십육세인ᄃᆡ삼쳔동사ᄂᆞᆫ량반이라ᄒᆞ엿더라

사진 8 | 김좌진 체포 기사(신한민보 1911년 4월 5일자)

나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금이 필요했다. 따라서 김좌진은 1910년 12월과 다음해 1월 안승구(安承龜)·민병옥(閔丙玉)·조형원(趙亨元)·김찬수(金燦洙) 등과 함께 서울의 부호들을 대상으로 자금을 모집했다. 그러나 자금모집은 원활하지 못했고 결국 체포되어 1911년 5월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받고 서대문형무소에 투옥되었다.

김좌진은 1913년 9월 풀려나 홍성으로 돌아왔으나 다시 홍성헌병대에서 10개월 수감되기도 하였다. 김좌진은 홍성헌병대에서 풀려난 후 광복회에 참여했으며 자금모집 활동을 벌였다. 김좌진은 1915년 11월 최익환(崔益煥)·이기필(李起弼)·감익룡(甘翊龍) 등과 군자금 모집 중 체포되었으나 다행히 예심에서 면소 판정을 받고 풀려났다. 김좌진은 계속해 자금모집을 추진했으며 1917년 4월(음) 중국지폐를 위조할 것을 계획하고 자금마련에 착수했다. 중국 단동에서 유통되는 중국지폐를 위조해 제작한 후 정화(正貨)로 바꾸어 광복회 자금으로 사용하려는 것이었다. 이 계획에는 김좌진을 비롯해 홍성출신의 김석범(金錫範, 홍주면 오관리)·유태희(俞泰熙, 장곡면 지정리)·유희노(俞熙老, 홍동면 금동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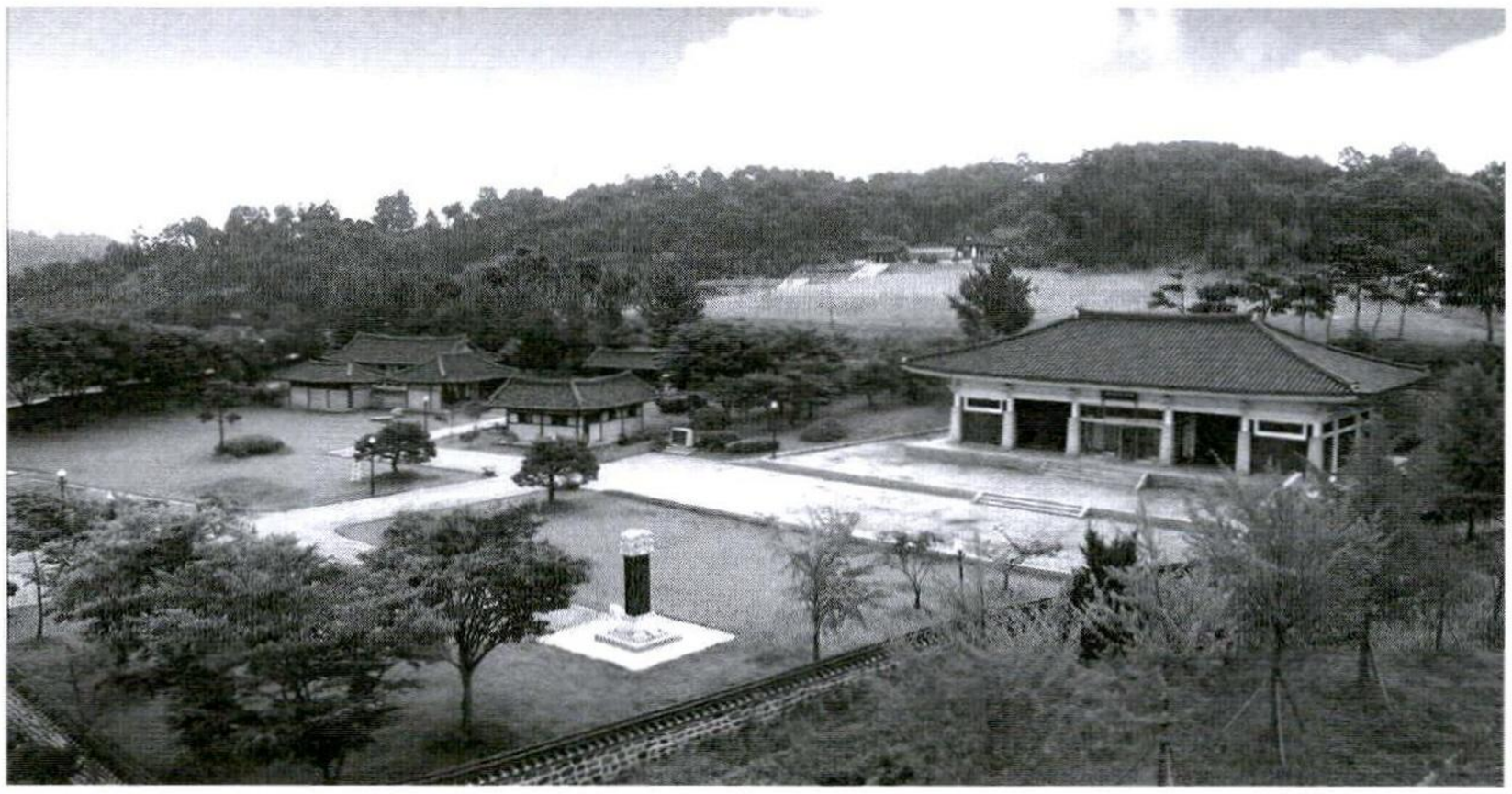


사진 9 | 김좌진장군 생가지와 기념관

윤영상(尹榮相, 홍주면 오관리)·이현삼(李三鉉, 광천면 광천리)·이원헌(李元憲, 장곡면 금당리)·이철순(李哲淳, 홍동면 대화리) 등도 참여했다. 위폐제조(僞幣製造) 계획에 참여한 이들 중 주목되는 인물은 김석범이다. 김석범은 김좌진의 유년시설 서당훈장이었던 김광호(金光鎬)의 조카였다. 김좌진은 서당을 다니며 김석범을 알게되었고 의형제를 맺었다. 김석범은 여러 해 동안 서울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당시 대한제국의 상황을 자세히 알고 있었고, 계몽의식을 소유하고 있었다. 따라서 김좌진에게 계몽의식을 갖게 했으며 국망 이후에도 독립운동을 함께 했다. 김좌진은 이기홍·윤영상으로부터 570원, 이현삼으로부터 600원을 기계구입비 명목으로 제공받았다. 그리고 6월초(음) 홍성의 오영근·홍상희로부터 600원을 제공받기도 했으나 일제에게 발각되면서 위폐제조 계획은 실행하지 못했다.

광복회는 의연금 모집을 시도하면서 위폐제조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려는 계획을 동시에 추진했다. 그러나 일제는 1917년 6월(음)경부터 위폐사건의 단서를 발견하고 김좌진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일제의 추적이 시작되자 광복회는 김좌진의 만주파견을 결정했다. 광복회는 사관학교 설치와

독립군 양성을 위해 1915년 12월 만주 길림에 광복회 만주본부를 설치하고 부사령을 임명해 독립군 양성의 책임을 맡겼다. 만주부사령은 황해도 의병장 이진룡(李鎭龍)이 맡았다. 그러나 이진룡이 1917년 5월 일제에 체포되자 광복회는 후임으로 김좌진을 파견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김좌진은 1917년 8월 서울에서 광복회 총사령 박상진, 충청도 지부장 김한종과 독립운동 방략을 논의한 후 자금을 제공받고 만주로 파견되었다.

김좌진은 광복회 부사령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고 만주로 떠났다. 그러나 광복회 국내조직이 발각되면서 광복회 활동을 벌이지는 못했다. 광복회의 의연금 모집은 통고문 수령자들이 일제에 신고함으로서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일제의 식민지배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지만, 식민지 권력에 안주하려는 이들이 군자금 모집을 외면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광복회는 민족적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친일파를 처단하는 의열투쟁을 벌였다. 경상도지부에서는 장승원(張承遠), 충청도지부에서는 박용하(朴容夏)를 처단했다.

일제는 1917년 10월경부터 광복회의 존재를 파악했다. 광복회에서 발송한 통고문이 발견되었고, 광복회의 의열투쟁이 계속되었기 때문이다. 일제는 광복회원 체포에 수사력을 집중했다. 무단통치가 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에서 '광복'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단체가 조직되어 자금을 모집하고, 의열투쟁을 전개하며 자신들의 정체를 명백히 밝히고 있었기 때문이다. 일제는 통고문 수령자의 주소와 의연금 요구액이 자산정도에 비례한다는 점에 주목해 통고문이 가장 많이 발견된 충청도 지역을 집중적으로 감시했고, 1918년 1월 천안에서 충청도 지부원 장두환이 체포되었다. 이를 계기로 지부장 김한종을 비롯한 충청도 지부원들이 체포되었으며, 박상진·채기중·임세규·이관구 등 주요 인물들이 체포되면서 광복회는 와해(瓦解) 되었다. 정태복도 자금모집을 벌이던 중 체포되어 1919년 2월 28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형을 받았다.

| 4 | 조선민족대동단과 홍성인

조선민족대동단(朝鮮民族大同團)은 전협(田協)·최익환(崔益煥) 등이 1919년 3월 조직한 비밀단체이다. 대동단으로 알려져 있으며 만주·상해 등 국외독립운동세력들과 연계해 임시정부 수립을 추진했으며 국내에서는 선전활동·제2회 독립만세운동·의친왕(義親王) 상해 망명 등을 추진한 대표적인 비밀단체였다. 전협(全協)과 함께 대동단 조직에 주도적인 활동을 벌인 인물은 홍성 출신의 최익환(崔益煥)이다. 최익환은 1905년 광무일어학교(光武日語學校)에 들어가 수학한 뒤 1907년 가을 종사도량형사무국(從事度量衡事務局) 통역관을 시작으로 탁지부(度支部) 세무주사, 충남 서천군 재무주사를 지냈다. 최익환은 광무일어학교 재학 중 당시 일진회(一進會) 총무였던 전협과 알게 되었으며, 1909년 각자 공금을 빼내 만주로 망명할 계획을 세웠다. 이에 따라 최익환은 서천군 재무주사로 근무하던 중 공금을 독립자금으로 사용하려 했으나 계획이 발간되면서 체포되었다. 그는 1909년 12월 징역 7년을 받고 서대문형무소에 투옥되었으나 5년형으로 감형되어 1914년 9월 풀려났다. 최익환은 풀려난 후 광복회에 참여했다. 그의 광복회 참여는 김좌진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최익환은 서대문형무소에서 자금모집 사건으로 투옥되었던 김좌진을 만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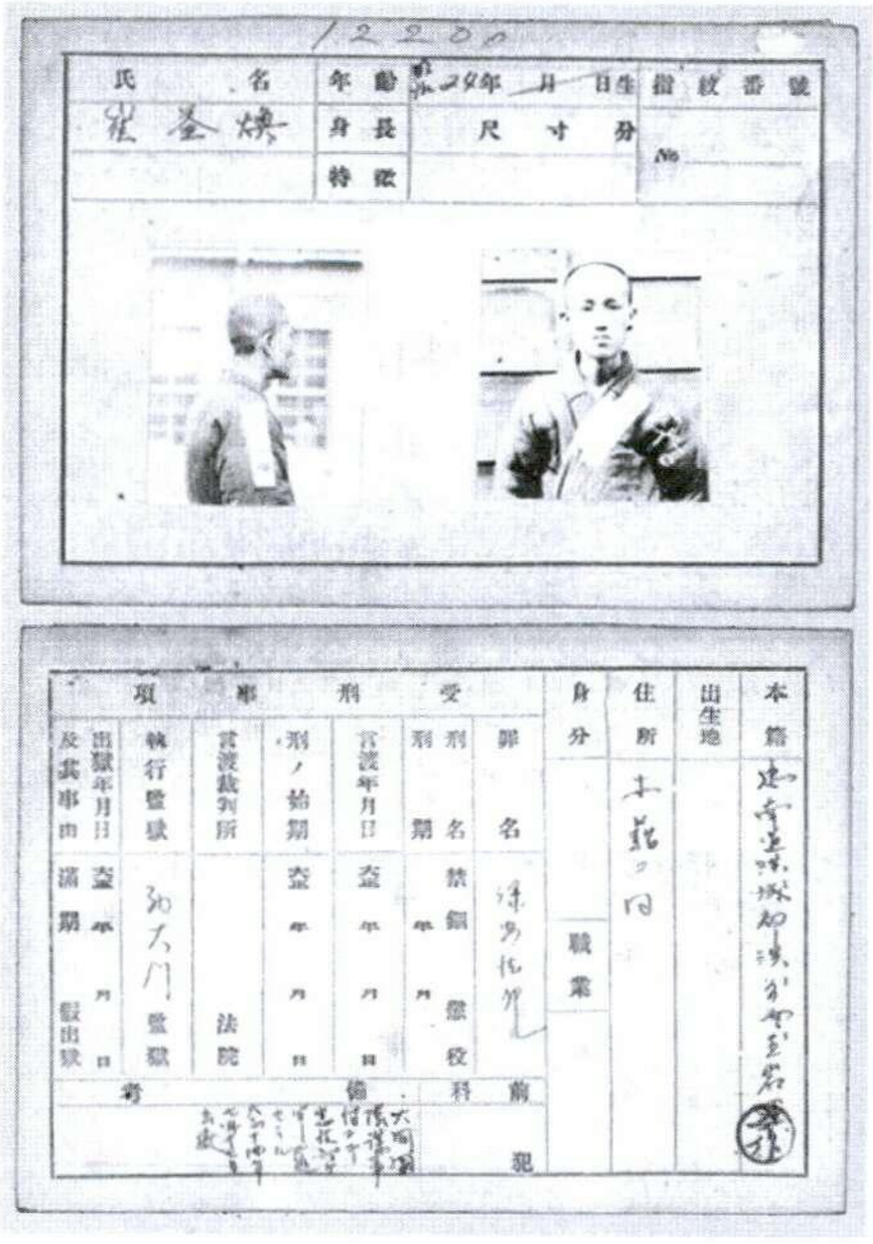


사진 10 | 최익환(일제감시대상인물카드)

따라서 풀려난 후 김좌진과 함께 광복회에 참여해 자금 모집을 벌이던 중 1917년 체포되었으나 면소판정을 받고 풀려났다.

최익환은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대동주의(大同主義)에 입각해 전민족 각 계층이 망라된 독립운동단체 조직의 필요하다고 여겼다. 따라서 전협(全協)·김사국(金思國)·김찬규(金燦奎)·윤용주(尹龍周)·김규(金奎) 등과 독립운동단체의 결성을 협의했다. 그러나 김사국과 윤용주는 임시정부 조직을 위한 국민대회 개최를 주장했고, 최익환과 전협은 민족단합을 위한 단체조직이 우선이라 여겼다. 그러나 김사국과 윤용주는 한성임시정부 수립을 위해 국민대표회의를 추진했다. 윤용주는 아산 출신으로 논산 출신 윤이병(尹履炳)과 함께 한성임시정부 수립을 제안한 이였다. 한성임시정부 수립에는 기독교·유림·청년·학생 등 다양한 세력이 참여했으며, 충남에서는 홍성 출신의 이만직(李晩稙), 청양 출신의 이세영(李世永), 아산 출신의 윤용주, 그리고 윤이병과 이내수가 참여했다. 이만직·이세영은 홍주의병에 참여했으며, 윤이병과 이내수는 독립의군부에 참여했었다. 국민대회를 소집해 임시정부를 수립한다는 계획은 1919년 3월 초 이규갑(李奎甲)·홍면희(洪冕禧)·한만수(韓南洙)·김사국(金思國)·이교헌(李敎憲)·윤이병·윤용주·최전구(崔銓九)·이용규(李容珪)·김규(金奎) 등이 추진했다. 이들은 3월 17일 한성호(韓聖五)의 집에서 국민대회 개최를 위한 준비위원회를 개최하고 '우리 조선민족은 손병희 씨 등 33인을 대표로 정의·인도를 기초로 하여 조선독립을 선언한지라. 이제 그 선언의 권위를 존중하고 독립의 기초를 공고케 하며 인간 필연의 요구에 수응하게 하기 위해 민족일치의 동작으로 대소의 단결과 각 지방 대표자들을 합하여 본회를 조직하여 이것을 세계에 선포하노라'를 천명하는 「국민대회취지서」를 발표하고 13도 대표자를 발표하였다. 이때 발표된 13도 대표로 충남인으로 이만직·이내수가 선임되었다. 그러나 준비위원회가 추진한 4월 2일 인천만국공원에서 개최하고자 했던 대표자 회의는 열리지 못했으나, 결국 4월 23일

에 개최되어 13도 대표자가 모여 한성임시정부 수립을 선포하였다.

이처럼 김사국과 윤용주가 국민대회를 추진하면서 대동단 조직은 최익환과 전협이 중심이 되었다. 최익환과 전협은 '조선의 영원한 독립을 완성할 것, 세계의 영원한 평화를 확보할 것, 사회의 자유발전을 광박(廣博)할 것' 이라는 3대 강령을 제정하고 대동단을 조직했다. 대동단은 중견기관(中堅機關)으로 총재(總裁)아래 통재부(統宰部)·추밀부(樞密部)·상무부(常務部)·외무부(外務部)·재무부(財務部)·무정부(武政部) 등 6부를 두고 그 아래 필요에 따라 부설기관을 설치하고자 했다. 단원은 당시 사회 각층을 황족(皇族)·진신(縉紳)·유림(儒林)·종교(宗教)·교육(教育)·상공(商工)·노동(勞動)·청년(青年)·군인(軍人)·부인(婦人)·지역구역(地域區域) 등의 11개단(個團)으로 분류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단원확보가 가능한 진신(縉紳)·유림(儒林)·상공(商工)·청년(青年) 등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단원을 확보하고자 했다. 그러나 단원모집과 기관설치는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따라서 대동단은 김가진(金嘉鎭, 총재)·전협(全協, 인사)·최익환(崔益煥, 문서편집)·정남용(鄭南用, 문서편집)·권헌복(權憲復, 배달책임) 등이 중심이 되어 활동을 시작했다. 최익환은 대동단의 실무를 총괄하면서 3·1운동과 같은 거족적인 만세운동을 추진하기 위해 '대동단 취지와 목적, 독립선언문에 입각하여 끝까지 독립운동을 전개하고 총독정치의 철폐를 요구하며 만약 일본이 독립을 승인하지 않고 무력으로 우리민족을 압박하면 일본에 대해 혈전을 감행한다' 는 내용의 선언서를 작성해 배포했다. 또한 대동단의 행동지침인 방략(方略)·강령(綱領)·결의(決議) 등의 문서(文書)를 비롯한 다수의 선전물을 작성, 배포하며 선전활동을 벌였다. 그러나 최익환은 1919년 5월 권태석(權泰錫)·나경섭(羅景燮)·김영철(金永喆) 등과 체포되면서 더 이상 활동을 벌이지 못했다.

홍성출신 박원식(朴源植)은 대동단이 추진한 제2만세운동에 참여했다. 대동단은 1919년 5월 최익환 등이 체포되면서 조직이 노출되자 본

부를 상해로 옮기고자 했다. 또한 10월초부터 '제2회 독립만세시위'를 계획하고 대대적인 만세운동을 준비했다. 대동단이 만세운동을 추진한 것은 본부의 상해이전 후 대동단의 입장과 명분을 살리기 위한 것이었다. 대동단이 추진한 의친왕의 상해망명도 이와 같은 의도에서 추진된 것이다. 의친왕은 고종의 다섯째 아들로 그의 망명이 이루어진다면 독립운동계에 미칠 영향이 컸기 때문이다. 대동단은 의친왕을 상해로 망명시켜 단장으로 추대하고 제2의 만세운동을 성공시켜 위상을 높이고자 했다. 만세운동은 10월 31일 추진되었으나 사전에 발각되면서 성공하지 못했다. 또한 의친왕 망명계획이 11월 10일 실패로 돌아가면서 전협을 비롯한 대동단 주요 인물들이 체포되었다. 그러나 체포되지 않은 박원식·나창헌(羅昌憲)·안교일(安敎一)·이신애(李信愛)·정규식(鄭奎植) 등이 중심이 되어 만세운동이 추진되었다. 이들은 거사일을 11월 25일로 정하였다. 운동방법은 3·1운동을 그대로 모방하고자 했다. 민족대표로 선정한 김상설(金商說)·김익하(金益夏)·이종춘(李鍾春) 등이 중국 요리점 장춘관(長春館)에 모여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후 조선총독부에 연락하고자 했다. 이와 동시에 시위대는 3대로 나누어 각기 자동차를 이용해 선언서를 살포하고 독립만세를 외치기로 하였다. 박원식은 만세시위 계획의 실무를 맡았다. 그는 나창헌·안교일과 함께 만세시위에 사용할 격문 인쇄 및 배포의 책임을 맡았으며, 거사 당일에 만세시위를 이끌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제1차 계획은 거사 당일날 운동원간의 약속에 차질이 생겨 전개되지 못했다. 박원식은 이신애(李信愛)·정규식(鄭奎植) 등과 함께 다시 만세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하고 11월 28일 종로 안국동 광장에서 200여명의 군중과 함께 미리 준비한 태극기와 '조선독립 만세'라고 쓴 깃발을 흔들면서 만세운동을 벌였다.

| 5 | 혁신단 · 암살단과 홍성인

혁신단(革新團)은 1919년 4월 1일 김상옥(金相玉)·서대순(徐大順)·신화수(申華秀)·윤익중(尹益重)·정설교(鄭卨敎) 등이 서울에서 조직한 비밀단체이다. 이들 중 윤익중은 홍성 장곡, 정설교는 홍성 광천 출신이었다. 윤익중은 중앙고보, 정설교는 보성고보 재학중 혁신단 조직에 참여했다. 혁신단은 독립운동을 알리기 위해 『혁신공보(革新公報)』를 발행하고자 했다. 따라서 선전·배달·취재·편집·논설·재정 등의 부서로 조직을 갖추었다. 혁신단원들은 극비리에 신문제작에 착수해 4월 17일 『혁신공보』 창간호를 발간했다. 『혁신공보』는 이후 『독립신문(獨立新聞)』으로 이름을 바꾸고 국내외 소식을 전하며 독립사상을 고취했다. 혁신단의 총책임은 김상옥이 맡았으며, 윤익중은 재정조달과 해외통신을 담당했고, 정설교는 외무취재 책임을 맡았다. 혁신단은 1919년 10월 김상옥이 체포되면서 위기를 맞았다. 김상옥은 40여일 만에 풀려났으나 신문발행과 같은 방법으로는 독립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식하고 혁신단원들을 중심으로 의열투쟁 단체인 암살단을 조직했다.

윤익중은 암살단을 조직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의열투쟁 단체를 조직하기 위해서는 무기구입이 가장 큰 과제였다. 윤익중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20년 3월(음) 대한군정서 김동순(金東淳)을 김상옥에게 소개했다. 김동순은 대한군정서 집법과장 최우송(崔宇松)으로부터 동지규합과 자금모집의 임무를 받고 국내에 파견되어 있었다. 윤익중은 김동순을 김상옥에게 소개하며 '폭탄으로 일제경찰서를 파괴하고 친일 경찰 등을 암살하기 위한 단체를 조직'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동순은 만주로 돌아가 김상옥·윤익중과 협의한 내용을 보고했다. 김동순이 같은해 4월(음) 대한군정서의 지원을 약속받고 다시 국내로 돌아오자 김상옥과 윤익중은 혁신단원들을 중심으로 암살단을 조직했다. 단원은 20여명에 이르렀으며 김동순(단장)·김상옥(탐정부장)·윤익중(외



사진 11 | 암살단 동지들과 기념촬영(앞줄 왼쪽 두번째가 윤익중, 1948년)

교부장)·신화수(교통계) 등이 주요 직책을 맡았다. 윤익중은 신화수를 암살단에 가입시키고 자신의 집을 저당하여 1천원의 자금을 마련하기도 했으며, 정설교는 단원으로 참여했다. 암살단은 조직목적을 밝힌 암살단 취의서(暗殺團趣意書), 독립의 당위성과 친일경찰처단의 필요성을 밝힌 경고문(警告文) 등을 제작하고 활동을 시작했다. 먼저 일제친일 경찰들을 처단하고자 했다. 김동순이 만주에서 가져온 권총 등으로 의열투쟁을 전개하고 만주에서 폭탄이 지원되면 일제 주요기관 폭파의거를 실행하고자 했다.

암살단은 친일경찰 처단을 준비하던 중 서울에서 조직된 광복단결사대와 연합을 추진했다. 광복단결사대는 청양출신으로 홍주의병과 광복회에서 활동을 벌였던 한훈(韓焄)이 중심이 되어 조직한 비밀단체였다. 한훈은 광복회에서 함께 활동한 우재룡(禹在龍)과 함께 1920년 2월 서울에서 조선독립군사령부(朝鮮獨立軍司令部, 일명 광복단결사대(光復團決死隊), 이하 광복단결사대)를 조직했다. 광복단결사대는 인재를 선발해 국외에서 독립군으로 양성하고, 국내에서는 결사암살단을 조직해 일

본 관리 및 친일파를 처단하고 군자금을 모집하고자 했다. 광복단결사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연계해 활동을 벌이고자 했으며, 1920년 2월 한훈과 박문용(朴文鎔)을 상해에 파견했다. 한훈은 임시정부 교통차장 김철(金徹)을 만나 광복단결사대 조직 계획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했으며 국무총리 이동휘(李東輝)을 비롯해 이시영(李始榮)·이동령(李東寧) 등 임시정부 각 총장 및 차장을 초대하여 만찬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한훈은 의열투쟁을 벌이기 위한 무기공급과 지원을 요청했고, 임시정부의 지원을 승인받았다. 한훈은 1920년 2월 28일에는 안창호(安昌浩)를 만나 구체적인 논의를 거친 후 귀국했으며, 4월 8일 서울에서 박문용·우재룡·임기현(任箕鉉) 등과 모병과 암살이라는 목표를 수립하고 활동을 시작했다. 광복단결사대는 민족반역자와 조선인 형사 등을 처단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활동을 벌였다.

암살단이 광복단결사대와 연합을 추진한 계기는 1920년 5월 미의원단이 8월에 서울을 방문한다는 소식이었다. 미국의 상·하의원이 가족들과 함께 필리핀·중국·일본을 방문한다는 것이었다. 미의원단은 관광이 목적이었으나 제1차 세계대전 후 미국의 극동정책과 관련된 지역을 시찰하고 일본의 식민지배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중국을 방문하고 서울를 거쳐 일본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암살단은 미위원단이 서울에 도착하는 시점에 환영나온 조선총독 및 정무총감 등을 처단하고자 했다. 그런데 광복단결사대도 이러한 계획을 추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암살단의 김상옥, 광복단결사대의 한훈이 연합을 결의한 것이다. 김상옥과 한훈은 1920년 7월 만나 두 단체가 연합해 대대적인 거사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암살단과 광복단결사대는 첫째, 미국의원단이 남대문역 광장에서 기념촬영을 할 때 미리 준비한 암살단 취의서 및 통고문, 경고문 등을 환영군중들에게 살포하고, 미국기와 태극기를 흔들면서 만세운동을 전개한다. 둘째, 자동차 3대를 준비해 2대는 총격전에 대비하고 나머지 한 대는 폭



사진 12 | 암살단 재판모습(매일신보 1921년 10월 28일)

탄을 싣고 일본인 관리들을 처단한다. 셋째, 총격전이 벌어지는 동안 폭탄을 실은 자동차를 이용해 관공서 및 경찰서 등을 폭파한다는 구체적인 의거 계획을 세웠다. 암살단과 광복단결사대는 8월 21일 의거에 사용할 태극기와 미국기를 제작하며 거사를 준비했다. 그러나 미위원단이 도착하기 하루 전인 8월 23일 대대적인 예비검속이 이루어졌고, 김상옥의 집이 수색을 당했다. 김상옥은 『혁신공보(革新公報)』를 발간하다가 발각된 일이 있어 요시찰인물로 지목되어 왔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가택 수색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김상옥은 일제경찰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탈출했으나 가택수색이 철저하게 이루어져 암살단취의서를 비롯해 암살단원 명부 등이 압수되었다. 그 결과 김동순·서대순·이운기(李雲基)·신화수·김화룡·최석기(崔錫基)·이돈구(李敦九)·조만식(趙晩植)·명제세(明濟世)·최영만(崔英漫)·유연원(柳演元)·서병철 등이 체포되면서 의거는 실행하지 못했고 암살단과 광복단결사대도 조직이 파괴되었다. 정설교는 다행히 체포를 필할 수 있었으나 윤익중은 암살단원들과 체포되어 1920년 10월 10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징역 1년 6월형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윤익중과 정설교는 이후 김상옥의 종로경찰서 폭파의거에도 참여했다. 김상옥은 무사히 탈출해 상해로 망명했다. 김상옥은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과 교류하며 김원봉(金元鳳)이 조직한 의열단에 가입했다. 김상옥은 1922년 11월 안홍한(安弘翰)과 함께 조선총독 처단 및 일제 주요기관 폭파를 위해 국내로 돌아왔다. 그는 혁신단과 암살단의 동지였던 김한(金翰)·서대순·신화수·윤익중·이혜수(李惠受)·전우진(全宇鎭)·정설교 등과 거사를 추진했다. 정설교는 1922년 12월 1일 전우진의 집에서 국내로 돌아온 김상옥을 만났다. 김상옥은 정설교에게 동지들과의 연락과 자금모집을 의뢰했다. 정설교는 윤익중과 신화수에게 김상옥의 귀국 소식을 전하는 등 연락책임을 맡았다. 또한 김상옥과 함께 귀국한 안홍한을 자신의 집에서 한달여 동안 은신시키며 자금을 모집했다.

윤익중은 암살단 활동으로 투옥되었다 풀려난 후 고향인 홍성에서 동아일보 홍성지국장을 역임하며 사회운동을 벌이고 있었다. 윤익중은 정설교의 연락을 받고 서울로 올라와 김상옥을 만났다. 윤익중은 김상옥과 만난 후 자금모집에 사용할 영수증을 인쇄하고 자금모집에 사용할 도장을 제작했으며, 거사자금으로 150여원을 제공했다. 김상옥은 거사준비가 끝나자 1922년 1월 12일 종로경찰서 폭파의거를 거행했다. 김상옥은 의거를 거행한 후 조선총독을 처단하기 위해 은신했으나 1월 17일 은신처를 알아낸 일제경찰과 총격전을 벌이던 중 자결순국했다.

| 6 | 주비단과 홍성인

주비단(周備團)은 권영만(權寧萬)·우재룡(禹在龍)·안종운(安鍾雲)·이재환(李載煥)·소진형(蘇鎭亨)·정인석(鄭寅錫)·김도수(金道洙) 등이 1920년 6월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보내온 주비단규칙서를 바탕으로 조직한 비밀단체이다. 1910년대 광복회에서 활동했던 우재룡과 권영만은 3·1운

동 후 활동을 재개하면서 논산일대의 동지들을 규합해 광복회 활동을 재개했다. 이들은 윤일병·윤지병·김재엽·김유현 등 논산일대의 부호들로부터 7천여 원을 모집해 1919년 7월 임시정부 자금모집원인 김규일(金圭一)을 통해 임시정부에 제공했다. 또한 서울로 조직을 확대하면서 활동근거지를 마련하기 위해 경영난에 빠져 있던 경성신문사 인수를 시도하면서 서울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던 심영택(沈永澤)·이민식(李敏軾)·장응규(張應圭)·여준현(呂駿鉉) 등을 동지로 규합했다. 이들은 서울로 조직을 확대하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연계한 활동을 벌이기 위해 장응규(張應圭)를 임시정부에 파견했다. 임시정부에 파견된 장응규가 주비단규칙서를 가지고 귀국하자 1920년 6월 서울 경신학교 교정에서 주비단을 조직했다.

홍성출신으로 주비단에 참여한 이는 김동진(金東鎭)과 김양한(金陽漢)이다. 김동진은 김좌진의 친동생이다. 따라서 그의 주비단 참여는 김좌진과의 관계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김성진(金聲鎭, 청양)·김준한(金晙漢, 서울)·김양한·이상만(李相滿,거창) 등도 주비단에 가입했는데, 이들의 참여는 김동진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김성진은 김좌진의 종질(從姪)이었고 김준한은 김좌진의 9촌 조카였다. 김양한·이상만은 김성진과 보성고등보통학교 동기생기도 했다.

주비단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지원활동을 벌였으나 만주에서 활동하던 김좌진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광복회는 만주에 부사령을 상주시켜 국내조직과의 연계를 통해 독립군을 양성하는 책임을 맡겼다. 초기에는 이진룡이 부사령에 임명되었고, 이진룡이 피체 된 후에는 김좌진이 그 책임을 맡았다. 광복회 만주본주는 주비단을 조직한 우재룡이 조직한 것이었다. 우재룡은 1915년 12월 중국 길림에서 손일민(孫一民)·주진수(朱鎭洙)·양재훈(梁載勳)·이홍주(李洪珠) 등과 길림광복회를 조직했다. 길림광복회는 광복회 만주본부로서 기능을 담당했다. 우재룡은 1918년 만주로 망명해 있었는데 망명지가 바로 길림광복회였다. 그는 길림에서 김좌진과 같이 활동하하던 중 3·1운동 후 국내로 돌아와 주비


軍資募集은事實이나
현박경청한일은전혀업다고
주비단우리경외실사명공판
광복회(光復會)와 연합하야 조직한 것이오 현박하자는 말은 업섯고 김유현외여러분호에게 힘써 운동하고 다시주비단(籌備團)을 조직하야 활동하든 박상 본듯다는말은 정말시에서 진술한일이 잇섯스나 그런 말은 업다고 부인하야 재작년 구월에 김도수의소개로 론산군 연산면 탕권리 (論山郡連山面 湯圈里) 에 가서 권총 수정 (拳銃) 이십정과 실탄 수백발을 가지고 돌아왔다하야스나 그때 바로 검거되고 말엇스니 그 권총은 어대다 감추엇는가 하는 문제에 대하야는 입을 굿게 다물고 말하지 안는다더라
재판당이 피고중 일부의 변사 커분바든여부를무르메이삼요가업서서 그대로 도리여왓다가 필경 그해십월중에 김도수가 돈을가지고 다시 그곳에 가서 권총 이십정과 실탄 수백발을 가지고 돌아왓다하야스나 그때 바로 검거되고 말엇스니 그 권총은 어대다 감추엇는가 하는 문제에 대하야는 입을 굿게 다물고 말하지 안는다더라
김유현의 묘지의집에 간 것은 그해정월중에 김도수의 소개로 론산군 연산면 탕권리 (論山郡連山面 湯圈里) 에 가서 권총 이십정과 실탄 수백발을 가지고 돌아왓다하야스나 그때 바로 검거되고 말엇스니 그 권총은 어대다 감추엇는가 하는 문제에 대하야는 입을 굿게 다물고 말하지 안는다더라
돈오천원 울바닷스나 협박한일은 업다하야 그돈중에서 자긔가일천원을 가지고 나머지 사천원은 모르겟다고 하야스나 그돈은 어대다 감추엇는가 하는 문제에 대하야는 입을 굿게 다물고 말하지 안는다더라
상희잇는 서상호 (徐相昊)의부인을 상해로보내기위하야 장웅규(張雄奎)라는사람에게 려비를 주어보냇스며 재작년 음력십일월중에 김유현 (金裕鉉)의집에가서 김좌진 (金佐鎭)과 모의하고 돌아왓다하야스나 그때 바로 검거되고 말엇스니 그 돈은 어대다 감추엇는가 하는 문제에 대하야는 입을 굿게 다물고 말하지 안는다더라
爆彈製造失敗
주비단조직의론
안중운의 답변만바
그다음안중운(安重運)은지난달 재판이가 말한바와가치 조선독립운동자금을 모집할의론을 하야스나 원톄의련락으로 모집한 사실은 조경준(趙景俊)에게 지나 엇

사진 13 | 주비단 관련 기사(동아일보 1922년 3월 17일)

단을 조직했다. 따라서 김좌진은 주비단과 관계를 지속하고 있었다.

김준한은 1919년 9월중 길림에서 활동하고 있던 김좌진과 만났으며, 이때 독립운동에 사용하기 위해 권총 등을 수령해 국내로 반입하기도 했다. 주비단은 대한군정서 총사령관 직인을 제작하고 김좌진을 지원하기 위해 자금을 모집하기도 했다. 주비단원인 안종운은 단원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길림에는 군정서도 나왔으므로 독립은 된다' 고 할 정도로 당시 주비단은 대한군정서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또한 '대한독립군정서' 라는 인장을 새겨 도단장을 인명하는 사령장을 제작하기도 하였다. 주비단은 임시정부를 지원하기 위한 단체였지만 재만독립운동단체와의 연계를 통한 활동도 모색했고 김좌진과의 연계를 추진했던 것이다. 그러나 주비단은 조직된 지 얼마되지 않아 자금을 모집하던 중 단원들이 체포되면서 조직이 해체되었다.

| 7 | 대한건국단·광복단 충청도지단과 홍성인

대한건국단(大韓建國團)은 만주에서 활동하던 김좌진의 밀사로 파견

한 김영진(金瑛鎭)이 조직한 비밀단체이다. 김좌진은 광복회 만주책임을 맡고 파견되었으나 국내조직이 와해되면서 광복회 활동을 지속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김좌진은 만주 망명 후에도 국내와의 관계는 지속되고 있었다. 김좌진은 군대를 양성해 독립전쟁을 벌여 독립을 달성한다는 투쟁방략을 갖고 있었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에 지지기반이 있어야 했다. 따라서 국내에 특파원을 파견해 비밀단체를 조직하거나 국내에서 조직된 비밀단체를 지원하는 활동을 벌였다. 김좌진의 이러한 활동의 배경에는 1910년대 국내에서 활동했던 광복회와 관련이 있었다. 광복단결사대를 조직한 우재룡과 한훈은 광복회 동지였다. 광복단결사대와 암살단에 무기를 제공한 김동순은 김좌진이 군사부 책임을 맡고 있던 대한군정서원이었다. 김좌진은 이러한 국내기반을 바탕으로 만주에서 항일투쟁을 벌이고자 했다.

김좌진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1919년 말 예산 출신의 김영진을 국내로 파견해 대한건국단(大韓建國團)을 조직하고 충청도·전라도 일대를 중심으로 자금을 모집했다. 김좌진은 김영진을 파견하기에 전인 1919년 6월경(음) 천경수(千景洙)를 국내로 파견해 청양출신 조병채(趙炳彩)를 통해 자금모집을 의뢰한 상태였다. 이를 바탕으로 김영진이 국내로 파견된 후 자금모집을 위한 비밀단체로 대한건국단이 조직되었다. 대한건국단은 자금을 모집해 만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좌진에게 자금을 제공하고자 했다. 조병채는 1919년 6월 천경수로부터 군자금모집을 의뢰받은 후 1919년 10월(음) 김영진·김세진(金世鎭)·신현창(申鉉彰) 등과 함께 충남 논산의 윤상기(尹相起) 집에서 회합을 갖고 백남식(白南式)·윤태병(尹太炳) 등과 대한건국단을 조직했다. 대한건국단은 '대한건국단취지서'를 충청도·전라도 일대에 배포하고 배일사상을 고취하면서 자금모집에 착수했다. 대한건국단원들은 1919년 11월부터 1920년 12월까지 충남 대전·논산·금산·부여, 전북 익산 일대를 중심으로 군자금을 모집했다. 대한건국단에 참여한 홍성인은 이완백(李完伯)이다. 이

완백은 대한건국단에 참여해 자금모집 활동을 벌이던 중 체포되어 2년 6월형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광복단(光復團) 국내지단은 만주에서 파견된 김국경(金國景)이 충남 논산에서 조직한 비밀단체이다. 김국경은 1920년 10월 간도 광복단장인 박성빈(朴聖彬)으로부터 경상·충청·전라도 지역에서 '군자금모집·독립군모집·일제고관암살'을 전개하라는 밀명을 받고 국내로 파견되었다. 김국경은 국내로 잠입한 후 홍성출신 박재옥(朴在玉)과 함께 광복단 국내지단을 조직했다. 박재옥이 참여한 광복단의 실체는 확인되지 않는다. 김국경이 간도 광복단원이라는 사실만이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박재옥은 광복단 충청도 지단장을 맡아 김국경과 함께 정무총감이 공주를 방문할 때 그를 처단하려고 했으나 무기가 준비되지 않아 실행하지 못했다. 이후 박재옥은 논산일대를 중심으로 이주호(李周鎬)·윤상긍(尹相肯)·이승조(李承兆)·강영희(姜榮羲)·정인행(鄭寅行)·강태인(姜泰仁) 등을 단원으로 모집하고 군자금 모집활동을 벌였으나 1921년 5월 체포되었다.

| **이성우** | 충남대 충청문화연구소 연구원



홍성의 독립운동사 1

홍성지역의 3·1독립운동은 유학자들이 주도하고 농민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주도해 전개한 독립운동이다. 20, 30대의 청장년층이 주된 역할을 했고 평화적인 방법을 통해 독립만세운동, 횃불독립만세, 장서운동 등 4월 1일부터 9일까지 10일 동안 집중적으로 전개했다.

제 5 장

홍성지역 3·1독립운동

1. 3·1독립운동의 전파
2. 3·1독립운동의 전개
3. 3·1독립운동에 대한 일제의 탄압
4. 3·1독립운동의 의의

제5장

홍성지역 3·1독립운동

올해 2019년 3월 1일은 한민족이 일제의 식민지 직접지배체제인 헌병무단통치하에서 민족과 국가의 자주 독립을 선언하고 독립만세를 외친 1919년 3월 1일로부터 100주년 되는 날이었다. 현재 일본의 아베 정권이 강제 노역 피해자자들의 배상 청구권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현 정부의 대일정책에 대한 보복 조치로 행하는 작금의 정책이나 태도에서 100년 전 조선총독과 조선총독부를 연상케 하고 있다. 이에 우리의 대응은 '극일(克日)'을 향하고 있다.

19세기 후반 독점자본주의의 서구 열강들은 군사적 무력으로 약소국을 무자비하게 침략해 경제적 정치적 지배를 통해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제국주의 시대를 만들었다. 이에 일본도 미국에게 문호 개방을 당한 후 제국주의 대열에 막차로 승차했다. 일본 제국주의는 국내 발전을 통한 내실있는 국가 발전이 아니라 다른 제국주의 국가들과 같이 무력을 앞세운 해외 침략을 통한 손쉬운 방법으로 국가 발전을 기도하는 전략을 택했다. 즉 그때까지 자국의 국가 발전에 기여한 나라, 이웃나라 조선을 침략의 대상으로 삼았다. 일제는 1875년 자국민을 사지(死

地)로 몰아넣으며 운양호사건을 일으키고 다음해에 강화도 조약을 체결해 조선을 강제로 개항시켰다. 이에 일제는 축배를 들었지만, 우리 한국민들은 제국주의에게 당한 첫 시련을 겪게 되었다. 이후 일제의 지속적 침략으로 국권을 수호하고 근대국가로의 발전을 모색해야 하는 역사적 과제는 한국민들을 힘들게 했다. 한민족이기를 포기한 몰지각한 친일파의 횡포와 일제의 간계한 술책에 더욱이 서구 제국주의자들의 묵인과 비호 속에 제목도 없고 최고통수권자의 확인도 없는 '괴이(怪異)한 문서' 한 장으로 일제는 대한제국의 국권을 강탈했다. 이로부터 시작된 헌병무단통치로 무소불위의 권력자 '조선 총독'의 식민지 정책은 한국민들을 옥죄이였다.

그러나 일제의 지배하에서도 한국민들은 국내외에서 끊임없는 독립운동을 전개했다. 더욱이 제1차 세계대전의 종식을 전후한 '민족자결주의'라는 세계사적인 흐름 속에서 독립운동의 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 만주에서는 조소앙(趙素昻)을 중심으로 39인의 명의로 일명 무오독립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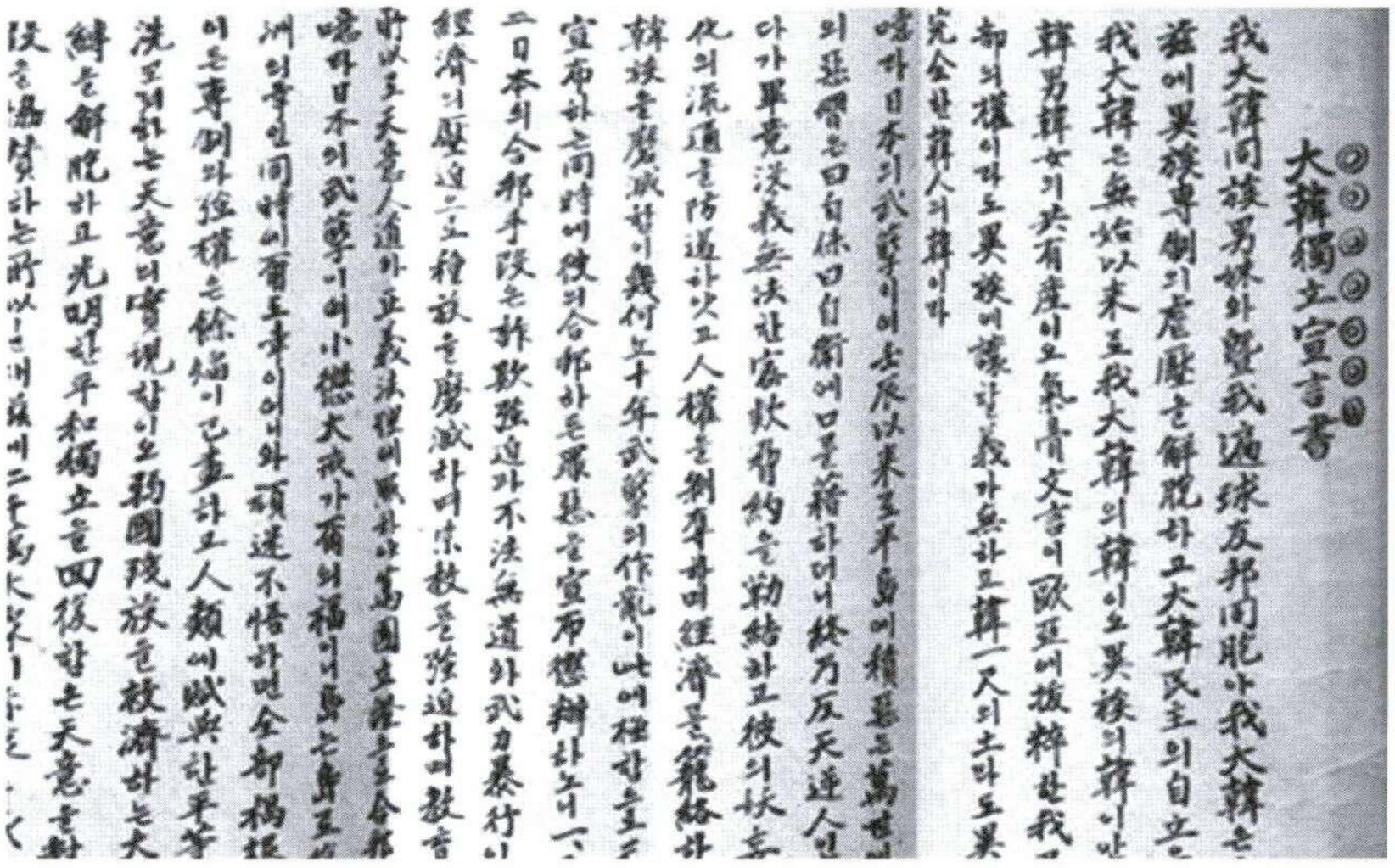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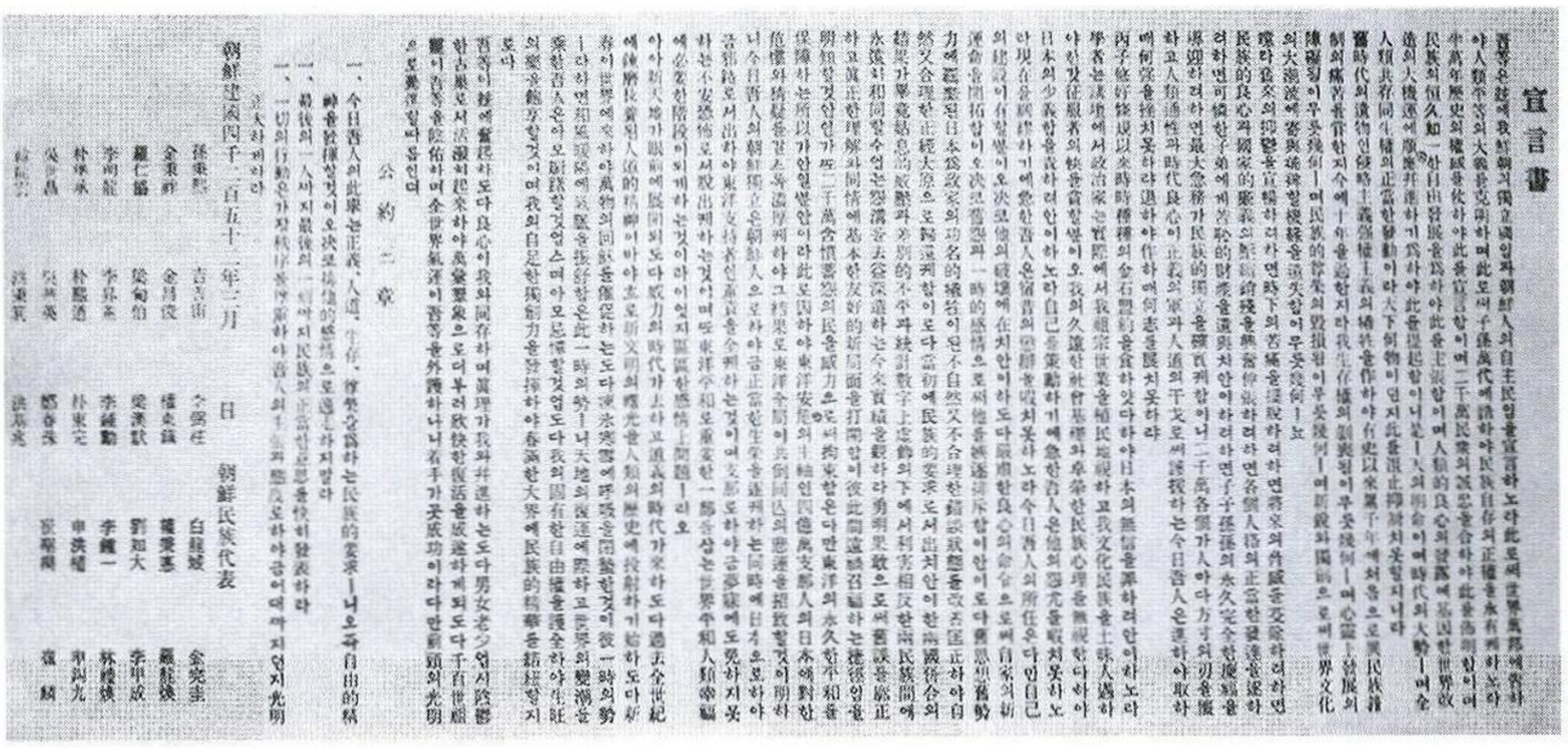

大韓獨立宣言書

사진 1 | 무오독립선언서


宣言書

吾等은 玆에 我 朝鮮의 獨立國임과 朝鮮人의 自主民임을 宣言하노라 此로써 世界萬邦에 告하야 人類平等의 大義를 克明하며 此로써 子孫萬代에 誥하야 民族自存의 正權을 永有케 하노라

半萬年 歷史의 權威를 仗하야 此를 宣言함이며 二千萬民衆의 誠忠을 合하야 此를 佈明함이며 民族의 恒久如一한 自由發展을 爲하야 此를 主張함이며 人類的 良心의 發露에 基因한 世界改造의 大機運에 順應幷進하기 爲하야 此를 提起함이니 是ㅣ天의 明命이며 時代의 大勢ㅣ며 全 人類共存同生權의 正當한 發動이라 天下何物이던지 此를 沮止抑制치 못할지니라

舊時代의 遺物인 侵略主義 强權主義의 犧牲을 作하야 有史以來 累千年에 처음으로 異族 箝制의 痛苦를 嘗한 지 今에 十年을 過한지라 我生存權의 剝喪됨이 무릇 幾何ㅣ며 心靈上 發展의 障礙됨이 무릇 幾何ㅣ며 新銳와 獨創으로 써 世界文化의 大潮流에 寄與補裨할 機緣을 遮斷됨이 무릇 幾何ㅣ뇨

吾等은 玆에 奮起하노라 良心이 我와 同存하며 眞理가 我와 幷進하는도다 男女老少 업시 陰鬱한 古巢로서 活潑潑히 起來하야 萬彙羣象으로 더부러 欣快한 復活을 成遂하게 되도다 千百世祖靈이 陰佑하시며 全世界 氣運이 吾等을 外護하나니 着手가 곳 成功이라 다만 前頭의 光明으로 驀進할 따름인뎌

公約三章

一、今日 吾人의 此擧는 正義、人道、生存、尊榮을 爲하는 民族的 要求ㅣ니 오직 自由的 精神을 發揮할 것이오 決코 排他的 感情으로 逸走하지 말라

一、最後의 一人까지 最後의 一刻까지 民族의 正當한 意思를 快히 發表하라

一、一切의 行動은 가장 秩序를 尊重하야 吾人의 主張과 態度로 하야금 어대까지 文明

朝鮮建國四千二百五十二年二月

日 朝鮮民族代表

孫秉熙　白龍城　金完圭
吉善宙　金昌俊　權東鎭
羅仁協　梁甸伯　崔奎植
李昇薰　李明龍　李鍾一
林礽洙　申洪植　申錫九
朴東完　朴準承　吳世昌
鄭春洙　崔麟　吳華英
洪基兆

사진 2 | 3·1 독립선언서

언서인 '대한독립선언서(大韓獨立宣言書)'가 발표됐다. 상해에서는 신한청년단의 활동으로 국제사회에 한국 독립을 주창하고 공인받고자 파리강화회의에 김규식을 파견하고 국내와 일본에도 대표자들을 파견해 독립운동을 전개하고자 했다. 일제의 심장부 동경에서는 유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조선청년독립단(朝鮮靑年獨立團)' 대표자 최팔용(崔八鏞) 등 11인의 명의로 1919년 2월 8일 '선언서(宣言書)'를 발표했다. 이에 국내에서도 1919년 1월 말 손병희(孫秉熙) 등 천도교를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추진해 2월 상순에 야소교 세력과 접촉을 시도하고 2월 24일 최종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불교 세력이 합류해 민족대표 33인의 명의로 '선언서'를 발표하게 되었다. 오로지 자유의 몸을 얻고자 국권을 강탈당한 지 8년 6개월만인 3,107일만에 '우리는 이에 우리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이 자주민임을 선언한다'고 선포했다. 이것이 3·1독립선언이다.

홍성지역의 3·1독립운동은 『독립운동사』(1971), 독립운동사의 개설서, 군지(郡誌)나 면지(面誌) 등에 간략히 소개되어 왔다. 필자는 2003년 8월 홍성지역 각 면사무소에서 수형 관련 자료를 찾았고 군내 각지를 답사하였으며 『洪陽史』(全)를 수집했다. 이어 「홍성지역의 3·1운동의 전개」와 「홍성지역의 3·1운동」의 발표문을 수정 보완해 「홍성지역의

3·1운동」 논문을 발표했다. 이후 『충청도지(忠淸南道誌)』, 『한국독립운동의 역사』 20(국내3·1운동Ⅱ)에서 홍성 3·1독립운동을 서술했다. 또한 지자체나 연구자들에 의해 홍성지역의 3·1독립운동 연구가 진척되고 결과물들이 출판되고 있다.

| 1 | 3·1독립운동의 전파

홍성지역은 민족대표 33인과 독립선언을 추진한 세력들과 연계되지 않았다. 다만 수원 삼일학교 교사인 김세환(金世煥)이 2월 20일 경 박희도(朴熙道)의 부탁으로 독립청원서에 서명 날인할 동지를 규합하기 위해 인접한 서산을 방문한 일이 있었다. 그는 앞서 1월 17, 8일경(음) 서산 해미 읍내리 예수교회당으로 홍주면 대교리 감리교 목사인 김병제(金秉濟)를 방문한 것이 있었다. 이 2차례의 만남에서 어떠한 논의가 있었는지를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방문 시기와 목적을 고려하면 독립청원을 위한 관련 협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배재고보 1학년인 광천면 광천리의 오흥순(吳興順)은 3월 1일 러시아 공사관에 독립선언서를 전달하고 독립만세를 외쳤다. 그는 3월 5일 남대문 정거장 앞에서 전개된 제2회 학생 주도의 독립만세운동이 있은 다음날인 3월 6일 경성을 출발해 3월 7일 오후 9시경 광천에 도착했다가 광천경찰관주재소 일경에게 체포되어 경성(서울)으로 압송되었다.

또한 3월 2일 논산에 독립선언서가 전북 함열에서 전달되고 김태호(金泰昊)가 부여에 독립선언서를 전달했다. 그리하여 충남에서는 최초로 3월 3일 논산과 부여에 독립선언서가 천도교 교도들에게 배부되거나 일부 길거리에 배포되었지만 독립만세로 이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3월 3일 예산 읍내에서 윤칠영(尹七榮)이 친구 4명과 함께 오후 11시 30분경 읍내 동쪽 산에 올라 '대한국독립만세'를 외쳤다. 이것

이 충남에서 최초로 독립만세를 외친 것이다. 이상과 같은 사례가 지역적 거리나 상호간의 교류 관계를 고려하면, 홍성지역 3·1독립운동에 직접적 영향을 주었다고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3월 6일 광천면 광천리 자택에서 박세화(朴世和)가 형 박원식(朴源植)과 이명종(李鳴鍾)에게 경성의 독립만세운동 상황을 말하고 독립선언서를 보여 주었다. 이것이 3·1독립운동과 홍성지역과의 첫 만남이었다. 이어 박원식과 이명종이 선언서의 주요 문구를 발췌해 2장의 유인물(격문)을 만들어 광천 시장과 옹암리에 부착했다. 또한 장곡면 화계리에서 중앙고보 4학년인 윤익중(尹益重, 世重)이 3월 20일 독립선언서를 가져 와 형 형중(衡重), 동생 낙중(樂重, 已順)과 함께 독립만세를 준비했다고 한다. 그리고 구항면 황곡리의 이길성과 금마면 부평리의 민영갑은 경성복심법원 재판 과정에서 '경성 기타 각지에서 대한독립만세를 고창하는 소요가 일어난 것을 알고(聞知) 독립만세를 외치기로 했다' 고 진술했다.



사진 3 | 3·1 만세운동

따라서 경성에서 홍성인들이 독립선언서를 직접 가져와 전달하고 이어 전달자와 열람 청취자들의 활동 및 인접 지역 독립만세운동의 영향으로 홍성지역의 3·1독립운동이 전개되었다.

| 2 | 3·1독립운동의 전개

3·1독립운동은 3월 1일 오후 2시 서울의 태화관에서 민족대표 29인이 참석한 가운데 선언식이 거행되었고 파고다공원에서는 오후 2시 30분경 시민과 학생들이 운집해 독립선언서가 낭독되고 이어 군중들이 공원을 나와 동쪽과 서쪽을 나누어 서울 시내 각지에서 독립만세 행진을 전개함으로 시작됐다. 서울의 독립만세는 오후 7시경 일제 군경의 무력 시위와 진압으로 잠잠해졌다. 하지만 인접한 고양군 연희면의 양화진과 연희전문학교 부근에서 오후 11시경 각각 200명의 학생과 주민들이 독립만세를 외쳤다. 지방에서도 3월 1일 평남의 평양, 진남포, 안주, 평북의 선천, 의주, 신의주, 함남의 원산, 황해의 해주 등 8곳에서 독립만세를 외쳤다. 이후 독립선언서가 배포되고 고종 국장의 참례객이나 학생들의 귀향이 이어지고 일제의 언론 통제가 해제되면서 신문에서 독립선언과 각지 독립만세를 보도하면서 3·1독립운동은 지방으로 확산되었다. 3월 초에는 황해도, 평안도, 함경도 등 북쪽지방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이어 중순 이후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하여 3·1독립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그 전개의 양상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독립운동이 전개되었다. 즉 3·1독립운동은 전개과정에서 독립만세운동, 횃불독립만세운동, 장서운동이라는 3대 독립운동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1) 독립만세운동

홍성지역 3·1독립운동의 첫 움직임은 3월 6일 광천면에서 있었다. 3

월 6일 광천리 박원식(朴源植) 집에서 그와 동생 박세화(朴世和), 이명종(李鳴鍾)이 회합을 가졌다. 박세화와 이명종은 이전에 조선총독부에 근무할 때 서로 안면이 있어 만남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박세화는 형과 이명종에게 서울에서 전개된 '조선독립운동' 상황을 설명하고 독립을 주창하는 '선언서(조선독립선언서)'를 보여 주었다. 박원식과 이명종은 '조선독립운동'을 실행하기로 협의했다. 이어 3월 8일 박원식과 이명종은 박세화가 가져 온 선언서를 받아 양지(洋紙) 2장에 선언서의 주요한 문구를 크게 적어 격문을 만들었다. 이들은 격문을 광천 시장과 옹암리 마을에 각각 1개소에 한 장씩을 붙였다. 광천 시장에서는 시장터의 쌀시장이 있는 곳에 부착했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광천경찰관주재소 일경들이 격문을 발견하고 즉시 이를 떼어 압수했다.

격문이 탈취된 것을 확인한 박원식과 이명종은 다시 만나 선언서를 등사해 각 집에 배포해 독립만세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광천 장날 시장에 온 군중들에게 권유하여 함께 조선독립만세를 외치기로 결의했다. 이어 최응모(崔應模), 오인섭(吳仁燮), 성배호(成培鎬)에게 자신들의 계획을 상세히 설명하고 함께 행동할 것을 권유했다. 최응모 등 3명은 독립운동 계획을 듣고 모두 참가할 것을 승낙했다. 3월 16일 박원식은 선언서를 가지고 스승인 서승태(徐承台)를 뵙기 위해 신진리로 찾아 갔다. 그는 스승에게 선언서를 드리고 자신들의 결의 사항을 전하며 등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선언서의 문장을 간략히 요약(簡約)하여 주시기를 부탁해 승낙을 받았다. 이어 3월 18일 서승태는 자택에서 박원식과 오인섭에게 선언서의 문구를 바로 잡아 보충하고(訂補) 추가하거나 삭제하여(加除) 구두로 전했다(口授). 박원식이 스승의 말을 듣고서 필기했다. 이어 박원식과 오인섭은 옹암리 오인섭의 집으로 갔다. 또한 이명종, 최응모, 성배호가 오인섭 집으로 왔다. 이들 5명은 선언서를 인쇄할 역할을 분담했다. 박원식이 적은 글을 원고로 하여 복사지(먹지, 炭酸紙)를 이용해 약 50매를 작성했다. 그 날 밤에 배포를 담당한 이명종과 성배호는 복사

한 선언서를 옹암리, 광천리의 민가에 배포했다.

이외에 3월 21일 광천 시장에서 수백 명의 군중들이 대한독립만세를 외쳤고(『독립운동사』), 또한 3월 24일에 광천 시장 장날에 윤형중이 '수천명 대중을 봉기시켜 벽제산(壁蹄山) 은하봉(銀河峰) 최정상에서 다시 독립만세를 고창' 했다고 한다(「윤형중 묘비문」). 4월 5일에는 광천에서 독립만세를 외치려는 시도가 있었다. 이에 광천경찰관주재소 일경들에게 사전에 탐지되어 탄압을 당하여 독립만세를 외치지 못했다.

홍주 읍내에서는 3월 7일 읍내 장터에서 수 많은 군중이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독립운동사』에 의하면, 김종진(金宗鎭)이 일경에게 체포를 당했고 홍북면의 박군상(朴君相)은 일경의 무력 진압에 부상을 당해 좌측 고막이 터졌다.

금마면에서는 3월 1일 이후 전국 각지에서 독립운동이 전개되고 있음을 알고 있던 민영갑(閔泳甲)이 이재만(李載萬) 등과 독립만세를 부르기로 협의했다. 민영갑은 송강리 최중삼(崔仲三, 八龍) 집에 기거하며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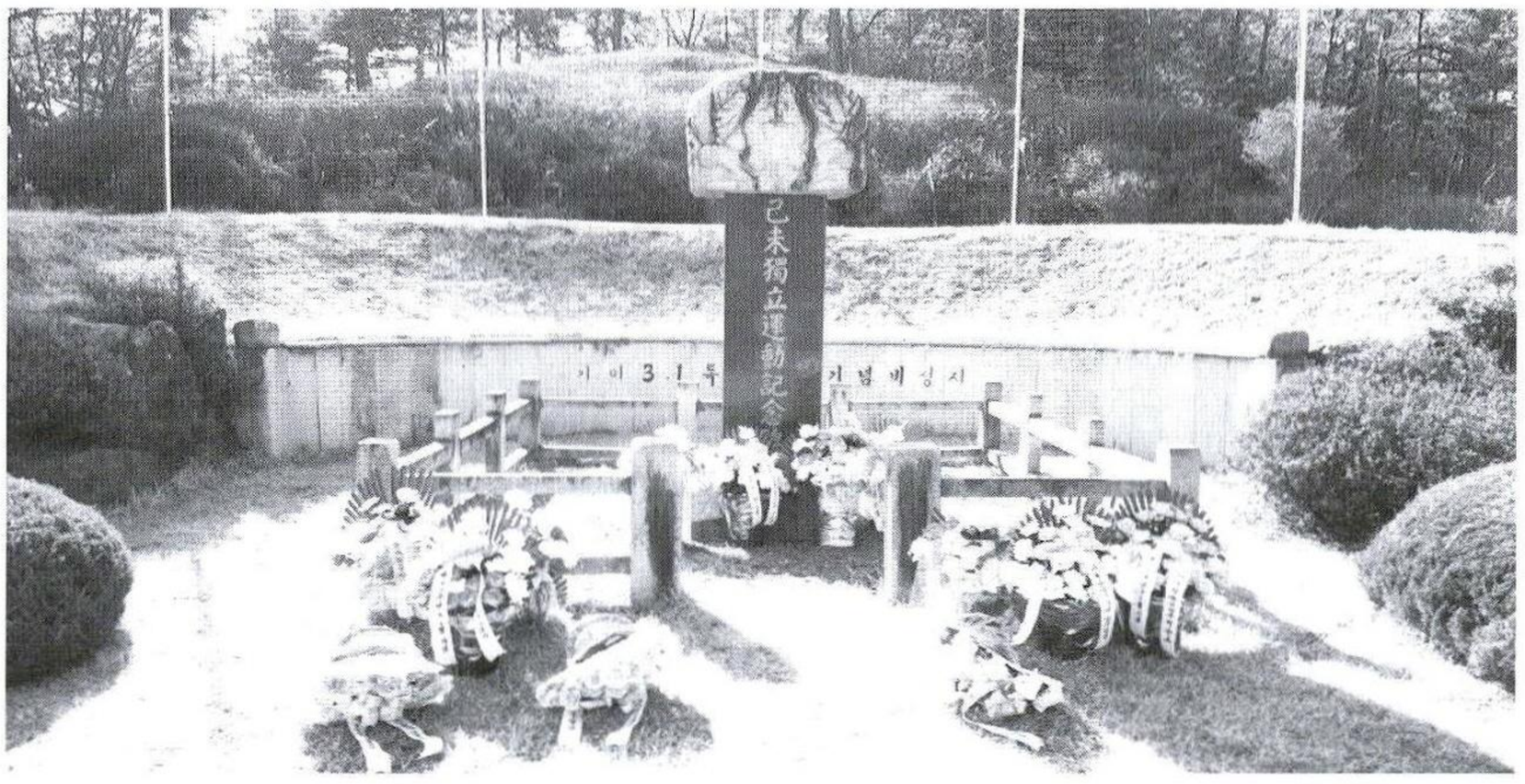


사진 4 | 금마면 기미독립운동 기념비

의 자녀와 마을 아이들을 가르치는 훈장 생활을 하였고 구항의 이길성과도 교류를 했다고 한다. 또한 이재만은 약장사로 변장하여 서울(경성)을 왕래하였던 인물로 서울 소식을 홍성지역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한다. 이들은 가산리 이원교(李元交) 집에서 임시 가설된 연극 공연장이 열리는 것을 이용해 4월 1일 연극 관람객들에게 권유해 독립만세를 외치기로 결의했다. 이어 김재홍(金在洪), 조한원(趙漢元), 최중삼(崔仲三), 조재학(趙在鶴) 등에게 결의 사항을 전달해 참여하기로 승낙을 받았다. 4월 1일 오후 8시경 민영갑 등은 연극 공연이 한참 진행되는 중에 조선독립만세를 외쳤다. 이어 관람객 수백 명도 호응해 함께 독립만세를 고창했다.

장곡면에서는 4월 4일 횃불독립만세운동에 이어 4월 7일에 독립만세운동이 있었다. 4월 7일 밤 화계리에서 오경춘(吳敬春)이 종을 치면서 주민들을 집합시켰다. 이에 김동하(金東河, 東化)는 화계리 주민과 이웃마을인 광성리, 신풍리 주민들을 합세해 약 300명의 군중과 함께 화계리 앞 산에서 독립만세를 외쳤다. 이어 만세 군중들은 도산리로 이동해



사진 5 | 장곡면 기미3·1운동 기념비

면사무소 뒷편 응봉산(鷹峯山)으로 올라가 조선독립만세를 외쳤다.

그리고 김동하, 이화춘(李化春), 이문재(李文載) 등은 군중과 함께 면사무소로 이동해 오후 8시경 면사무소에 도착했다. 윤형중이 '면사무소는 면을 대표하여 사무를 집행 처리하는 곳이다. 면소재지에서 독립만세를 부르는 것은 지당하며 또 면 관리도 같은 조선인이다. 공동으로 만세를 불러야 한다' 고 주장하고 숙직인 면서기 임원규(林元圭)에게 만세를 부르도록 요구했다. 임원규는 만세 군중들의 분위기에 두려워 도주하고 말았다.

이어 김동하가 '면사무소를 부수자' 고 소리치며 먼저 돌을 던져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화춘, 윤상운(尹相雲) 등도 투석하기 시작했고 김동완(金東完), 김용숙(金容肅), 김용제(金用濟), 김차제(金次濟), 한상철(韓相喆) 등은 창문 17장을 깨뜨렸다. 이문재, 강태삼(姜泰三) 등은 문기둥을 넘어뜨렸다. 강태삼은 사무실에 들어가 금고 문을 열었으며 김정량(金正浪), 이소만(李小萬) 등이 온돌의 연돌 1개를 뽑는 등 면사무소를 공격 파괴했다.

이 정보를 접한 홍성경찰서에서는 장곡에는 경찰관주재소가 없어 일경 3명과 수비대 보병 2명을 장곡으로 급파해 만세 군중들을 제압하고 경계를 강화하도록 조치했다.

4월 8일에도 4월 7일에 이어 오후 11시 반 도산리에서 60명의 학생과 주민들이 각기 막대기 등을 가지고 면사무소를 공격해 파괴했다.



사진 6 | 은하면 범죄인명부

은하면에서는 3월 21일 대천리에서 다수의 군중들이 집합해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이어 4월 9일 밤에 장곡리에서 주민 전명규(田明圭) 등 9명은 마을 안에 모여 독립만세를 외쳤다. 일경은 이를 발견하고 주도인사들을 체포해 홍성경찰서로 보내 홍성경찰서에서 즉결처분으로 태형을 가했다.

고도면에서는 4월 8일 오전 9시경 상촌리(上村里)의 갈산(葛山)공립보통학교 교정에서 학생 60명이 집합해 독립만세를 외쳤다. 학생들은 고도경찰관주재소 일경들이 학교로 출동하기 전에 만세를 부르고 교정을 떠나 피신했다. 일경들은 학생을 추적하지 못해 '행위 불명'(行爲(行衛)不明)으로 보고했다.

홍동면에서는 4월 8일 독립만세운동이 있었다. 『홍동면지(洪東面誌)』에서는 4월 8일 면내 마을에서 독립만세를 외친 독립운동을 '홍동 원천리 사건'이라 했다. 원천리 사건은 '황윤성(黃允性)은 3·1운동이 터지자 인근을 돌면서 세천부락은 靑光山에서, 중원부락은 석산봉(石三峰)에서, 종현부락은 종현봉(鍾縣絲峰)에서 4월 8일 일제히 거사하여 만세를 부른 다음 홍동주재소를 기습하기로 약속하였다. 이들은 약속대로 거사하고 "왜놈은 물러가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주재소를 기습하였다. 일본 경찰은 물론 조선인 순사들도 모두 도망하였다. 그러나 다음날 본서에서 수십 명의 경찰이 나와 황윤성을 체포하여 고문을 하고 관련자들의 성명을 밝히라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고문에 못이겨 사망하였다'고 한다. 또한 만세를 부르고 사망하거나 형을 받은 애국지사로 총 63명을 기록하고 있다.

홍북면에서는 독립만세를 권유하는 활동이 있었다. 4월 6일 오후 7시경 상하리 엄중삼(嚴仲三) 집에서 박성식(朴性植)은 김헌식(金憲植)과 음주를 하던 중에 '어찌하여 만세를 부르지 않느냐?'며 비난했다. 이어 그는 국장 중에 백립(白笠)을 쓰지 않고 흑립(黑笠)을 쓰고 있는 김헌식의 갓을 빼앗아 파손하고 목덕미를 잡고 주먹으로 뺨을 구타했다.

결성면에서는 4월 24일 용호리 강진호(姜鎭瑚) 집에서 정인하(鄭寅夏)는 강진호에게 '이승만(李承晩) 등이 미국 대통령 윌슨에게 운동한 결과 조선이 독립했으므로 각 지역에서 독립만세를 부르고 있다. 이번 이태

황(李太王, 고종) 전하의 서거는 병사(病死)가 아니다. 일본인이 독살(毒殺)한 것이다' 고 주장하며 독립만세를 부르도록 권유했다.

2) 횃불독립만세운동

3·1독립운동이 지방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3월 6일 오후 11시 반경에 평남 용강군 광양만에서 주민들이 경찰서 부근에 모여 불을 피우고 큰 깃발을 앞세워 경찰서를 공격하려고 했다. 또한 3월 7일 평남 평원군 영유면 어파 터널에서, 3월 13~15일 함북 길주군 덕산면 일대에서 불(篝火)을 피우고 독립만세를 외쳤다. 충청도에서는 3월 23일 충북 청주군 강내면 태성리에서 조동식(趙東植)이 주민 수십 명을 이끌고 산 정상에 올라가서 불을 피우고(篝火ヲ爲シ) 독립만세를 외쳤다. 이날 강외면, 옥산면 등지에서도 주민들이 같은 형태의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했다. 오후 9시경부터 강내면, 강외면 면민들이 충남 연기군 조치원 방면으로 행진해 왔다. 이에 조치원과 부근 마을 주민들도 산위에서 불을 피우고 독립만세를 외쳤다. 이후 연기군을 중심으로 확산되었던 횃불독립만세운동은 충남 전역으로 확산되어 충남지방의 대표적인 3·1독립운동으로 발전했다.

홍성지역의 횃불독립만세운동은 4월 4일 홍성군내 4개면에서 전개됐다. 당시 상황을 기록한 사료는 다음과 같다.

- 4월 4일 밤 … 홍성군내 24개소에서 불(カガリ火)을 피우고 운동했다. 홍성군 … 관헌에 대한 폭행도 있었다. 군대와 협력해 폭민 10명이 사망했다.
- 홍성경찰서 부근 각 면 20개소에서 불(篝火)을 피운 군중이 폭력 행동을 하여 보병이 발포함, 5명이 죽고 5명을 체포했다.

- 4월 4일 밤 홍성경찰서 부근 4개 면의 각 촌락 20여 곳에서 불(篝火)를 피우고 폭력 행동을 함에 따라 보병이 발포하여 2명 사망, 주도자 5명을 체포하다.
- 4월 4일 금마면 일원에서 500명의 군중들이 독립만세를 외쳤다.
- 전보(前電) 외 4월 4일 충청남도 홍성군 읍내 부근 … 폭동이 있어서 다소 사상자가 나왔다.
- 4월 4일 홍성군 홍성에서 다수 군중들이 시위운동 이상을 활동해 발포해서 2명이 사상했다.
- 사월 오일 밤 10시에 또한 슈쳔여명이 끌어 나와 대한독립만세를 부르며 시위운동을 외칠 때에 왜병이 총포로 진압해서 패명한 인민이 이십여명이오 즁샹한 쟈가 수백여명이라 하며…

위의 사료를 통해 4월 4일 금마면에서 500명의 군중들이 독립만세를 외쳤고 횃불독립만세운동으로 전개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른 3개 면은 기록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우리의 기록과 금석문은 다음과 같다.

- 기미 사월 사일 밤 윤형중 윤익중 윤낙중 삼형제는 화계 광성 신풍 등 각 동민을 선동하여 산상에서 봉화를 들고 독립만세를 고창하고…
- 4월 4일에 매봉산에 100여 명의 봉화만세운동을 전개하고…
- 4월 4일 야음을 틈타 화계 광성 신풍리에서 규합된

주민 100여 명이 매봉산에 집결하여 오수남 동지의 타종을 신호로 봉화를 올리고 농악을 울리면서 조선독립만세를 목이 터져라고 외쳤다.

위의 기록과 국가보훈처의 공훈록 등에 의하면, 4월 4일 윤씨 3형제(윤형중, 윤익중, 윤낙중)가 주도하고 윤의석(尹宜錫), 윤만수(尹萬洙), 이문재, 최기석(崔奇錫), 최채선(崔彩仙) 등이 적극 참여하여 장곡면 화계리, 광성리, 신풍리 주민들이 합세해 매봉산에서 횃불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구항면에서는 면사무소 「수형인명표폐기목록」에 대정리 인사 6명이 보안법 위반으로 4월 23일 홍성경찰서에서 즉결처분으로 태형을 당한 기록이 있다. 그리고 홍동면에서도 면사무소의 「범죄인명부」에 신기리 이외에 구암리, 문당리, 수란리, 효학리, 금평리, 운원리, 운용리, 월림리, 대평리, 구룡리 등 주민 50명이 4월 7일부터 4월 14일까지 홍성경찰서에서 즉결처분으로 태형을 당한 기록이 있다.

이상으로 보아 4월 4일 홍성군내 4개면은 금마면, 장곡면, 구항면, 홍동면이고, 이들 면내 20~24개 곳에서 횃불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한 것이다.

홍동면에서는 4월 5일 신기리 주민 100명이 집합해 독립만세를 외쳤다. 『홍동면지』에 의하면, '홍동 신기리 사건'으로 마을 뒷산에서 주민들이 횃불독립만세운동을 전개했다. 신기리 사건은 '이제경(李齊經), 조우식(趙愚植) 등은 3월 5일(양력 4월 5일) 밤 뒷산인 꽃동산에 모여 봉화를 올리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이때 갑자기 총성이 들리더니 순식간에 사방이 피바다로 변하였으니 이희도(李羲圖), 한명교(韓命敎) 등은 현장에서 주고 이석만(李錫滿), 안중호(安重浩) 등은 관통산을 입었다. 경찰은 주민들은 닥치대로 체포하고 13명을 구속, 태형을 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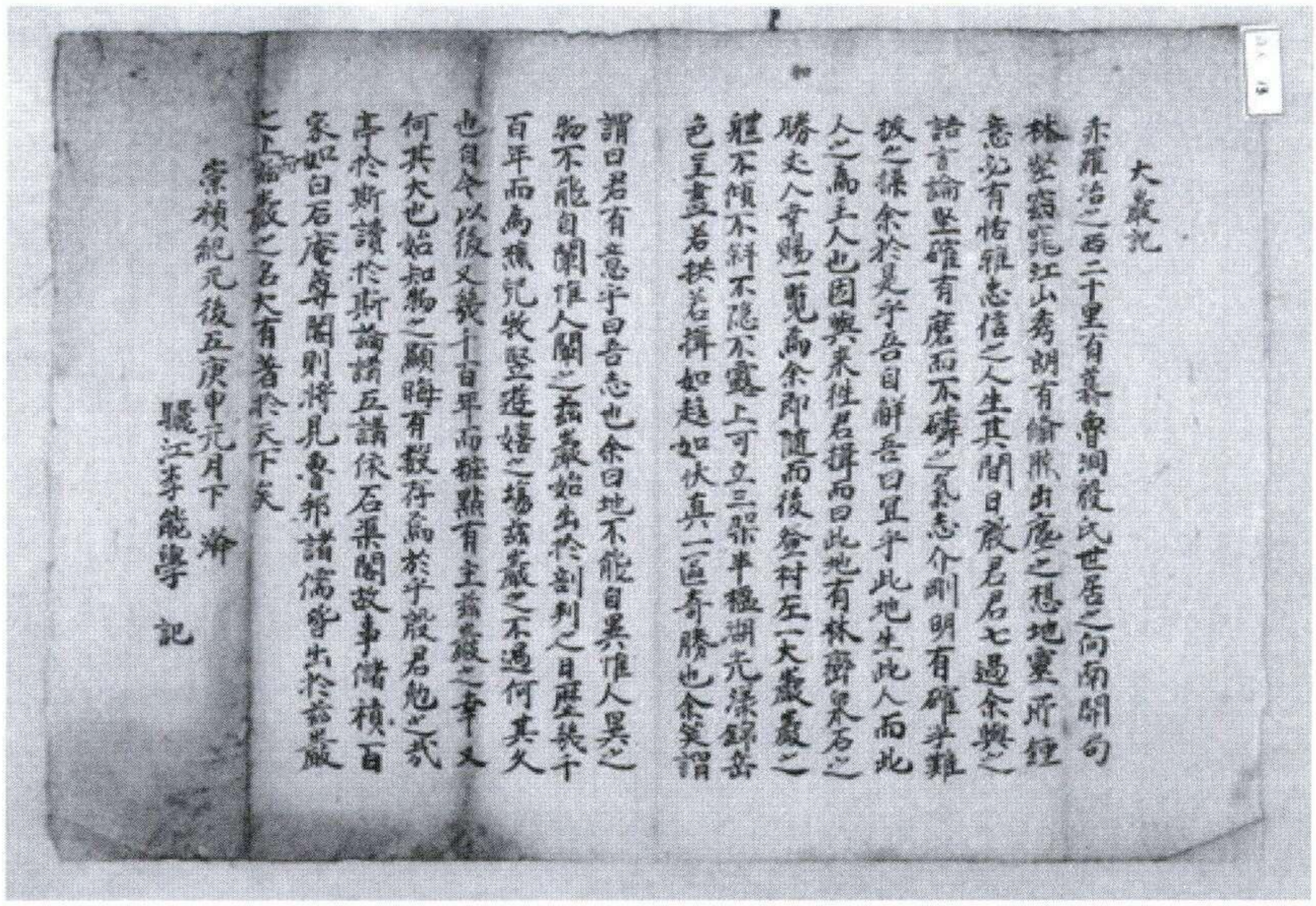
사진 7 | 삼일각(홍동면 운월리)

성낙붕(成樂朋)씨는 고문의 여독으로 사망하였으며 그로 인해 두 아들이 부인과 함께 사망하여 가정 전체가 몰락하였다' 고 한다. 즉 일경들이 무차별 사격을 가해 2명이 죽고 2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체포 구금된 13명은 태형을 당했다.

구항면에서는 4월 중 황곡리(篁谷里)의 이길성(李吉性)은 경성 기타 각지에서 대한국독립만세를 외치며 독립운동을 하고 있음을 듣고 자신도 독립운동을 하고자 '대한독립만세(大韓國獨立萬歲)' 라고 크게 쓴 종이 깃발(구한국국기)을 제작했다. 그는 4월 7일 밤 마을의 월산(月山, 日月山)에 올라가 깃발을 세우고 황문수(黃文秀), 이유홍(李有弘), 이백영(李伯榮), 황통명(黃通明), 하유숙(河有淑), 최순보(崔順甫), 전남규(田南珪), 이희보(李熙輔) 등 여러 명의 주민들과 함께 불(篝火)을 피우고 대한국독립만세를 외쳤다. 일병(日兵)이 출동해 총을 난사해 각각 흩어져서 산을 내려왔다. 그러나 이어 이길성, 황문수, 이유홍, 이희창(李熙昌), 이동규(李東圭) 등 5명은 다시 자리를 옮겨 월산의 한 봉우리인 백월산(白月山)에 올라 홍성 시가를 바라보면 만세를 불렀다.

3) 파리장서운동

민족대표 33인에서 유학자(유림)이 참가하지 않은 것에 대한 유생들의 안타까움이 있었다. 3월 2일 서울 수창동 모 여관에서 유준근(柳濬根), 백관형(白觀亨)은 고예진(高禮鎭), 송주헌(宋柱憲) 등은 만나 협의를 했다. 고석심(高石沈)이 '바야흐르 독립선언이 하루 아침에 진동하고 … 대위(大位)를 회복하고 일국(一國)을 호령하고 각국에 통고하라'는 내용의 상서(上書)를 작성했다. 유준근 등 14명의 유생들은 정서된 상서를 보고 동의했고 3월 5일 13명의 유생들은 청량리로 가서 순종의 반우식(返虞式) 행차 때 전달하고자 했다. 그러나 일경에게 제지를 당하고 상서를 압수당해 상서를 올리지 못했다. 이어 유준근, 백관형은 '선언장서(宣言長書)'를 추진했다. 선언장서는 유생과 기독교 인사(목사)들이 최초로 연합해서 문일평(文一平)이 작성한 문서에 각각 대표자 6명씩 12명이 서명한 것이다. 이들은 장서에서 '독립은 전조선 민족의 양심적



大巖記

余羅治之西二十里有巖曰會洞殷氏世居之向南開旬林竪翁記江山秀明有偷然出塵之想地實所鍾意必有怡雅志信之人生其間日歲君君七過余舆之語言論竪確有庶而不磷之氣志介剛明有確乎拔之操余於是乎吾曰嘻乎此地生此人而此人之高矣人也固與來往君擇而曰此地有林藪勝矣人曾賜一覽焉余即諾而後登村左一大巖巖之體不傾不斜不隘不露上可立三張半楹湖光漾錦岳色呈畫若拱若揖如趨如伏真一區奇勝也余笑謂曰君有意乎曰吾志也余曰地不能自異惟人異之物不能自闡惟人闡之矣巖始為於剖判之日歷幾千百年而為樵兒牧竪遊嬉之場踐蹂之不過何其久也自今以後又幾千百年而稚點有主翫愛之事又何其大也始知物之顯晦有數存焉於殷君施之事於斯請於斯論請立講依石築閣故事儲積百家如曰石庵尊閣則將見會邦諸儒偏學出於斯巖之名大有著於天下矣

崇禎紀元後五庚申元月下 澣

驪江李能學 記

사진 8 | 파리장서

요구이고 세계 대세의 흐름을 이해하고 문명 정의를 깨달은 조선인의 요구이다. 또한 조선의 요구에만 응하는 것이 아니라 동양 평화의 요구에 응하는 것이다' 라 주장했다. 3월 12일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서린동 영흥관에 백관형, 김백원(金百源), 차상진(車相晋), 조형균(趙衡均), 김극선(金極善), 문일평, 문성호(文成鎬) 등이 모였다. 차상진과 문성호가 상서 1통을 총독부 접수처에 제출하러 가고 문일평, 백관형, 김백원, 조형균, 김극선 등 5명은 종로 보신각으로 갔다. 문일평이 장서를 읽자, 주변 200~300명의 군중들이 모여들었다. 한장 정도 읽어 내려 갈 즈음에 일경들이 출동해 주도 인사들을 체포했다. 이에 수십 명의 군중들이 만세를 외치며 종루 옆으로 피신했다.

한편 3월 중에 홍성 서부면 이호리의 김복한(金福漢)은 파리강화회의에 보낼 '조선복국원서(朝鮮復國原書)' 를 작성했다. 원본은 현전하지 않는다. 김복한 장서(호서본)의 원문 사본 가운데 하나는 차자인 김노동(金魯東)이 보관하다가 잊어버리고 또 하나는 제자로 전양진(田穰鎭)의 아들인 전용욱(田溶彧)이 보관하다가 해방 전에 '신병' 이 위험하여 소각했다고 한다. 그러나 『지산집(志山集)』, 『홍양기사(洪陽紀事)』 등을 통해 그 내용을 추론할 수 있다. 『지산집』 연보에

> 왜놈들이 신의를 버리고 약속을 어긴 죄를 낱낱이 말하고, 君上과 國母가 그들에게 죽음을 당한 변을 말하였으며, 또 나라 안 만 백성이 분통해 하는 뜻을 밝히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강토를 회복하고 李氏 宗社를 일으키려는 뜻을 세세히 들었다.

와 김복한이 임한주(林翰周)를 찾아가 말한 내용의 기록으로 『홍양기사』 에

국내의 여러 사람을 얻어 연명하여 파리에 글을 보내어 內敵과 外寇의 情跡을 밝혀 舊臣과 遺民의 원통함과 분함을 표명하고자 하니 그대 뜻은 어떠한가?

를 통해 김복한의 작성한 장서의 내용과 그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김복한은 먼저 임한주에게 동의를 얻고 이어 청양의 안병찬(安炳瓚), 김덕진(金德鎭), 서산의 김상무(金商武), 김봉제(金鳳濟), 보령의 유호근(柳浩根), 신직선(申稷善), 홍성의 최중식(崔仲植, 中植), 전양진, 이길성 등 10여 명으로 부터 서명을 받았다.

임한주는 청양 출신이로 김복한과 함께 홍주 의병으로 활동했고 당시 홍성 서부면 판교리에서 거주했다. 최중식은 태안 출신으로 유학자로서 당시 홍동면 구정리에 거주하고 있었다. 전양진은 형산리에서 전규(全圭)의 장남으로 태어나 한규설(韓圭卨)이 주관하는 시험에 선발되어 연

대장에 발탁되었으나 삭발을 하고 귀향했다. 그의 아들 용욱(溶彧)을 김복한의 문하에서 수학하게 했다. 이길성은 구항 황곡리 출신으로 이설(李偰)의 문인으로 스승이 을사오적을 토벌하는 상소로 옥고를 치룬 후 순국함을 원한으로 품고 생활하던 중 4월 7일 구항 횃불독립만세운동을 전개했다.

김복한은 제자들 가운데 경비 일체를 부담한 황일성(黃佾性)과 이영규(李永珪), 전용학(田溶學) 등을 통해 서울에 있는 제자 임경호(林敬鎬)에게 전달하도록 했다. 임경호는 장서 전달자와 협의해 파리강화회의에 장서를 보낼 준비를 진행했다. 그러던 중에 그는 3월 22~23일경 유진태(俞鎭泰)의 소개로 이득년(李得年) 집에서 김창숙(金昌淑)을 만났다. 이를 통해 추정하면 김복한은 3월 중순 초에 장서를 작성하고 임한주와 협의한 후 서명자를 규합해 늦어도 3월 20일 전후로 임경호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창숙은 3월 초 경성에서 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는 것을 견문

하고 '신진' 유학자들과 협의하고 뜻을 모아 독립청원을 하고자 했다. 그는 경북 성주로 내려가 3월 11일 백세각에서 송준필(宋浚弼)를 만나 파리평화회의에 장서를 보낼 것을 협의하고 다음날 송규선(宋圭善)과 함께 경남 거창으로 곽종석(郭鍾錫)을 만나러 갔다. 이어 장서 작성이 송준필, 장석영(張錫英), 곽종석 간에 진행되고 김창숙은 동지 규합 활동이 이루어졌다. 최종적으로 완성된 곽종석의 장서(영남본)를 갖고 김창숙이 서울로 올라와 장서를 3월 17일경 미리 만주 봉천으로 밀송(密送)했다. 이어 상해로 출발 준비를 하던 김창숙은 유진태의 소개로 임경호를 만났다. 이 자리에서 유진태는 '서로가 아무런 연락도 없이 같은 취지와 같은 목적으로 된 독립청원서를 휴대한 양 대표가 우연히 자리를 같이 하게 된 것은 기연(奇緣)이라' 했다. 이어 호서와 영남의 유림들의 계획과 목적이 동일함을 확인하고 통합하기로 했다. 내용 검토의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만큼 영남본의 뜻이 '극명(極明)하다' 며 영남본을 택하고 서명 순서를 첫째 곽종석, 둘째 김복한으로 하여 137명을 서명자로 했다.

호서지역 인사는 17~18명이다. 파리장서에 서명자는 전술한 인사 11명과 김지정(金智貞), 유준근, 백관형, 이내수(李來修), 김병식(金炳軾), 김학진(金學鎭, 鶴鎭) 등 6명이고 전석윤(全錫允)이 확인되고 있다. 이들의 관련성을 찾는다면, 유학적 학풍으로 유호근, 백관형, 이길성, 이내수 등, 홍주 의병의 참여 활동으로 안병찬, 김덕진, 유호근, 유준근, 백관형 등, '유회세전납부' 활동으로 신직선, 김봉제, 유호근, 유준근 등이 관련을 맺고 있었다. 그외 김봉제, 김상무, 최중식, 전양진, 김병식 등은 지역의 유림으로서 명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영남본의 파리장서는 김창숙이 상해로 가져 가 상해임시정부 요인들과 협의를 거쳐 일부 문구를 수정한 후 영문으로 번역되어 파리에 파견되어 있던 김규식(金奎植)에게 보내졌고, 국내외에도 향교 등의 각처에 우송되었다. 김규식은 1919년 5월 임시정부파리위원부 위원장 명의로

구미 제국의 대표들에게 한국 독립을 요구하는 '한국 국민과 국가의 요구(The claim of the Korean people and nation)' 라는 문서로 제출했다. 이것이 독립기념관에 보관되어 있는 파리장서의 영문판인 것으로 보인다.

| 3 | 3·1독립운동에 대한 일제의 탄압

3·1독립운동에 대한 일제의 탄압은 식민지 직접지배체제의 최대 권력자인 장곡천호도(長谷川好道) 조선총독의 '도배(徒輩)' (3.1. 제1차 유고), '불령(不逞)의 도(徒)' (3.6. 제2차 유고)라는 선포나 일본 언론의 '불온(不穩)', '폭동(暴動)', '조선 소요(朝鮮 騷擾)' 나 3월 7일부터 공공연히 '폭도(暴徒)' 로 기사화된 신문 보도 등을 통해 충분히 예상되었다. 3·1독립운동에 참가한 인사들은 치안기관(경찰, 헌병), 조선주차군, 사법기관(검찰, 법원), 행정기관 뿐만 아니라 일본인 민간인, 소방조, 재향군인회 등을 통해 탄압을 받았다(탄압의 양태는 1차적으로 사전에 '미연방지(未然防止)' 나 독립운동 현장에서 탄압이 이루어졌다. 이어 2차로 경찰기관, 헌병기관(군병력 포함)에서 검거 체포하여 구금한 상태에서 자행된 악행을 당하며 조사를 받은 후 훈방 조치, 방면, 즉결처분(태형)이 되었다. 3차로 검사국으로 송치되어 검사의 신문조사 때 다시 곤욕을 당한 후 불기소, 면소가 되기도 했다. 4차로 검사의 기소로 정식 재판에 회부되어 법원 재판부의 사법적 탄압으로 중형의 형량을 선고받았다. 5차로 형량에 따라 형무소에서 혹독한 수형 생활을 감내해야 하였다. 그리고 6차로 출소 후에는 감시 대상인 요시찰 인물로 치안기관의 감시 감독을 받아야 했고 행정기관에서 차별적 대우를 받았으며 사회에서도 범죄자로 차가운 시선과 멸시를 감수해야만 했다. 주거지 이동 때는 전거주지의 면장이 신거주지의 면장에게 수형 사실을 알리는 '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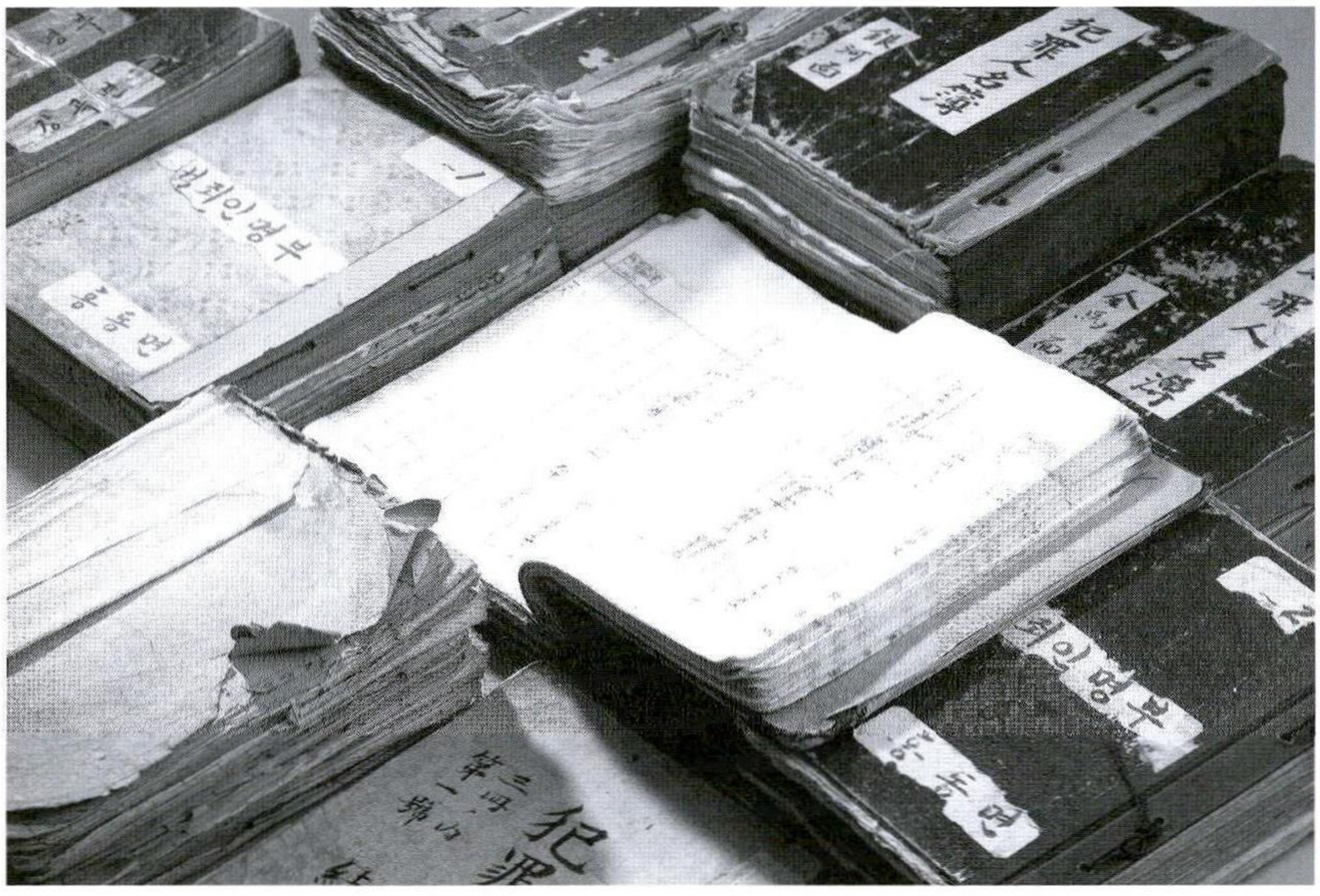


사진 9 | 홍성군 범죄인명부 모음

서'를 송부해 요시찰 인물로 관리했다.).

홍성지역의 치안 기관은 1906년 7월 홍주경찰분견소가 설치된 후 기구와 인원이 증강되어 1909년 7월 홍주경찰서로 확대 개편됐다. 1910년 1월에 홍주구재판소(洪州區裁判所)가 설치되고 1912년 4월에 공주지방법원 홍성지원으로 개칭했다. 3·1독립운동 당시 홍성지역에는 홍성경찰서(홍성군 홍주면), 결성경찰관주재소(결성면 읍내리), 서부경찰관주재소(서부면 이호리), 고도경찰관주재소(고도면 상촌리), 광천경찰관주재소(광천면 광천리)가 치안을 담당했다. 3·1독립운동이 지방에서 점차 확산되어 가자, 조선총독의 명령에 따라 조선군사령관은 3월 12일 독립만세운동을 사전에 제지할 목적으로 대구의 80연대를 분산 배치했다. 대구에 2개 중대, 대전에 1개 중대를 남겨놓고 다른 병력들을 관할 구역인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일부지역에 3월 26일부터 3월 30일까지 사이에 분산 배치되었다. 이에 충남에는 공주 또는 홍성, 온양에 1중대 군병력이 파견됐다. 일제 군경들은 독립만세운동지나 횃불독립만세운동

지에 출동해 발포, 체포 등 무력 진압과 아울러 무력 시위로 진압했다. 독립만세 군중들이 해산한 이후에도 군경을 '출장' 보내 참여 인사들에 대한 검거 색출 작전을 전개했다. 홍성경찰서에서는 구금 인사들에 대한 구타와 고문 등 갖은 악형을 자행하며 즉결처분으로 태형을 가했다. 이어 대전지방법원 검사국 공주지청으로 보내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기소된 인사들은 공주지방법원의 재판에 회부되었다. 그리고 공주지방법원의 판결을 불복한 인사들은 공소를 제기해 경성복심법원의 재판을 받았고 계속해 고등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인사들도 있었다.

일제의 구체적 탄압 실상으로 3월 8일 박원식과 이명종이 광천 시장과 옹암리에서 부착한 격문을 발견하고 탈취한 것과 3월 18일 이명종과 성배호가 옹암리, 광천리의 민가에 복사한 선언서를 배포한 관련자를 검거 체포한 일경들은 광천리 광천경찰관주재소 일경들이었다. 그러나 실제 관련 인사들을 신문하고 조서를 작성해 공주지방법원검사국으로 송치한 것은 관할 경찰서인 홍성경찰서가 아니라 보령경찰서였다(수사 관할권 문제로 격문과 선언서 배포를 주도한 이명종이 주소가 홍성이 아니라 홍성과 인접한 보령군 청소면 죽림리임으로 보령경찰서에서 수사한 것으로 보인다.). 보령경찰서 순사부장 흑전위시(黑田尉市)가 작성한 신문조서를 바탕으로 공주지방법원 검사 산전준평(山田俊平)가 심문하고 보안법 위반과 출판법 위반으로 공소를 제기해 재판에 회부됐다. 공주지방법원은 이명종 징역1년6월, 최응모와 성배호 징역1년, 오인섭 징역10월, 서승태 징역8월을 선고했다. 이어 66세의 고령인 서승태는 공소 제기를 포기해 징역8월이 확정되고 4명은 경성복심법원에서 공소를 제기했다. 경성복심법원에서 2건(이명종과 성배호, 최응모와 오인섭)으로 분리되어 수야중공(水野重功), 삽곡유부(澁谷有孚) 검사의 간여로 6월 7일과 17일에 각각 판결이 선고됐다. 이명종과 성배호는 공주지방법원의 형량과 동일하게 선고됐고, 최응모는 징역6월, 오인섭은 징역3월로 정상 참작으로 조선태형령에 의해 태90이 선고됐다.



사진 10 | 금마면 범죄인명부

4월 1일 금마면 가송리 이원교 집의 임시 가설 연극 공연장에서 민영갑 등이 독립만세를 외쳐 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공주지방법원 재판에 회부되어 민영갑, 이재만은 징역1년, 김재홍, 조한원, 최중삼, 조재학은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4월 4일 밤 홍성군내 24개소에서 전개된 횃불독립만세운동에 홍성경찰서는 군대와 협력해 무력으로 진압함으로 최소 2명에서 최대 10명이 순국하고 5명이 체포되었다.

4월 5일 홍동면에 보병 80연대 상등병 이하 5명이 출동해 독립운동을 진압했다. 이에는 경무관헌도 진압에 나서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이 당했다.

4월 6일 홍북면 상하리 엄중삼 집에서 박성식이 김헌식에게 독립만세를 권유하고 폭행한 사건으로 공주지방법원에서 징역6월을 선고받고 옥고를 겪었다.

4월 7일 장곡면 면사무소에 300명 군중들이 가서 유리창, 문기둥 등을 공격 파괴했다. 장곡에는 경찰관주재소가 설치되지 않아 진압을 하지 못하게 되자, 홍성경찰서에서는 일경과 수비병을 파견했다. 이 독립만세운동으로 김동하는 1920년 1월 16일경 경성에서 체포되어 2월 5일 공주지방법원에서 보안법위반과 소요 죄명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4월 8일에도 4월 7일에 이어 오후 11시 반 장곡면 도산리에서 60명의 학생과 주민들이 면사무소를 공격해 파괴했다. 이에 4월 7일에 홍성에서 출동한 홍성경찰서 일경 2명과 보병 80연대 수비대 보병 2명이 출동해 총기를 발포해 2명이 부상을 당하고 11명이 체포되는 탄압을 함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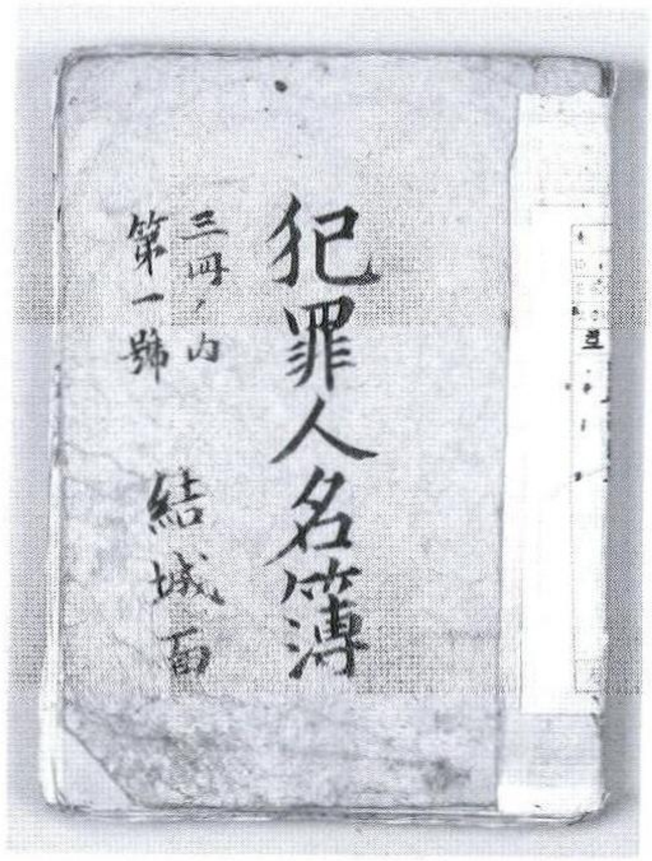

犯罪人名簿
三四ノ内
第一號
結城面

사진 11 | 결성면 범죄인명부

로 군중들은 해산했다.

4월 9일 밤 은하면 장곡리에서 주민 전명규 등 9명은 마을 안에 집합해 독립만세를 외쳤다. 이들은 일경에 체포되어 홍성경찰서에서 즉결처분에 붙쳤다.

4월 24일 결성면 용호리 강진호 집에서 정인하가 독립만세운동과 일제의 고종 독살설을 주장하여 보안법 위반으로 공주지방법원에서 징역6월을 선고받고 옥고를 겪었다.

김복한의 장서 활동으로 김복한 등이 각자 거주지 일경들에게 체포되어 공주지방법원 검사국으로 압송되었다. 당시 『매일신보』에 '충남 홍성군 임한주(林翰周), 최중식(崔仲軾), 전양진(田穰鎭), 청양군 안병찬(安炳瓚), 김덕진(金德鎭) 오명이 공모하야 파리강회의로 독립하야 달나는 청원서를 제출하였는데 중간에서 발각이 되야 홍성경찰서로 통지가 내도 함으로 즉시 수사한 결과 본월 ○일 체포되야 공주지방법원 검사국으로 압송하여 심리하는 중이더라' 고 보도했다. 6월 21일 김복한, 임한주, 전양진, 안병찬, 김덕진, 최중식 등은 공주지방법원 감사국에서 대구지방법원 검사국으로 이송했다. 김덕진, 임한주, 최중식, 전양진, 안병찬 등의 아들인 김양한(金亮漢), 임성호(林誠鎬), 최명용(崔鳴鏞), 전용욱, 안종훈(安鍾勳) 등은 부친을 따라 대구까지 갔다. 이들은 6월 25일 오후 2시에 대구감옥에 입감됐다. 그리고 7월 24일 오전 10시 임한주, 최중식 등의 공판이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렸고 나흘 후인 7월 29일에 선고 판결이 있었다. 김상무는 7월 19일자 대구지방법원 검사국의 불기소로 출감했다. 김봉제는 7월 12일 공주에서 대구지방법원 검사국으로 이송되어 보안법 위반으로 대구지방법원에서 8월 2일 판결 선고를

받았다. 이내수는 8월 2일 대전지방법원 강경지청에서 공주지방법원 검사국으로 이송되었다는 기록만 형사사건부에 남아있다. 그리고 유준근은 경성에서 장서 등의 활동과 관련해 재판을 받았으나 김학진, 김지정, 신직선, 김병식, 유호근 등의 형행(刑行)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은 김복한 징역1년, 최중식, 전양진 징역8월, 임한주, 안병찬, 김덕진, 김봉제 징역6월을 선고하며 김복한을 제외한 모두에게 집행유예2년을 선고해 판결일자(7월 29일, 8월 2일)로 모두 출감했다. 그리고 임경호는 '보안법 위반, 정치범처벌령위반, 대정8년제령제7호위반'으로 입건되었으나 1920년 12월 17일 대전지방검사국 공주지청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이후 임경호는 독립운동 자금 모금 활동에 관여했다. 전주 유생 김진억(金鎭億)이 1920년 11일 전북 정읍에서 부여 유생 이완식(李完植)과 만나 독립운동 자금을 모금하는 활동을 전개했다. 그 과정에서 김진억은 파리장서 서명자인 김병식(金炳軾)의 아들 김충규(金忠圭)의 소개로 1921년 1월경 고양군 숭인면 청량리 홍천식(洪天植)의 자택에서 만나고 이후 독립운동에 대해 논의했다. 5월경 홍천식 자택의 뒷산에서 홍천식은 상해 임시정부의 연락자라며 임경호와 최석천(崔錫天)을 김진억에게 소개하여 함께 독립운동을 할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일행들이 일경에게 체포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으나 임경호, 최석천(소재 불명으로 수사 불가능) 등 6명은 7월 29일 경성지방법원 검사국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또한 같은 날 공주지청에서 '보안법 위반, 정치범처벌령위반, 대정8년제령제7호위반'으로 김병현(金秉鉉)과 김봉규(金鳳圭), '보안법 위반, 정치범처벌령위반'으로 이재찬(李載贊)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이재찬(34)과 김병현(32)은 보령군 청라면 장산리, 김봉규(53)는 나원리 인사이다.). 이들도 파리장서와 관련해 체포되어 검사국에서 송치되었으나 검사의 불기소 처분으로 석방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면사무소에 보관된 일제 강점기 수형 기록은 다음 〈표1〉 홍성지

역 3·1독립운동 관련 수형 기록 자료와 같다.

표 1 | 홍성지역 3·1독립운동 관련 수형 기록 자료

지역	자료명	건수	판결기관	인원	계	비고
결성면	수형인명표폐기목록	2	대구지검	1	1	전양진
구항면	수형인명표폐기목록장	8	홍성경찰서	7	8	
			홍성지청	1		이홍명
금마면	범죄인명부	177	홍성경찰서	176	177	
			공주지방법원	1		김종석
은하면	범죄인명부	11	홍성경찰서	11	11	
장곡면	수형인명표폐기목록	36	홍성경찰서	13	(36)*	
			공주지방법원	17		
			고등법원	6		
	범죄인명부	36	홍성경찰서	13	36	
			공주지방법원	17		
			고등법원	6		
홍동면	수형인명표폐기목록철	1	고등법원	1	(1)*	이화춘
	범죄인명부	50	홍성경찰서	50	52	
	범죄인명부	1	대구지방법원	1		최중식
	범죄인명부	1	고등법원	1		이화춘
합계					285	

참고사항 | 1) (36)* / (1)*은 합계 통계에 장곡면 / 홍동면의 수형인명표폐기목록(철)과 범죄 인명부가 중복 계산되지 않도록 표시한 것임.
2) 판결기관에 홍성경찰서는 홍성경찰서에서 즉결처분으로 태형을 집행한 것임.

위와 같이 홍성지역 각 면의 수형 관련 자료에 의하면, 결성면 1명, 구항면 8명, 금마면 177명, 은하면 11명, 장곡면 36명, 홍동면 52명, 합계 285명이다.

다음으로 재판 상황을 보면 다음 〈표2〉 홍성지역 3·1독립운동 재판 현황과 같다.

표 2 | 홍성지역 3·1독립운동 재판 현황

지역	죄명	판결청	판결·확정일	형명·형기	인원	비고
금마면	정치범처벌령	공주지방법원	4.3.*	징역6월	1	
	보안법	공주지방법원	4.4.*	징역1년	1	
	정치범처벌령	고등법원	7.3.	징역6월	3	
				징역1년	2	
장곡면	보안법 위반 소요	공주지방법원 검사국	5.09.	6월	1	
	보안법 위반	공주지방법원 (검사국)	5.30.	태90	4	
	보안법 위반 소요			징역6월	1	
				징역6월 벌금30원 노역장 유치 30일	10	
	보안법 위반 소요	고등법원	10.18.	징역6월	1	
				징역8월	1	
				1년6월	1	
				2년	3	
				3년6월	1	
구항면	보안법 위반	홍성지청	4.2.*	태90	1	
	정치범처벌령		4.29.	징역6월	1	
			7.3.	징역10월	1	
광천면	보안법 위반 출판법 위반	공주지방법원	4.28.	징역8월	1	
				징역10월	1	
				징역1년	2	
				징역1년6월	1	
홍성 (파리 장서)	보안법 위반	대구지방법원	7.29.	징역1년	1	
				징역8월 집행유예2년	2	
				징역6월 집행유예2년	1	
합계					42	

참고사항 | 판결·확정일에 *표시는 기록 일자의 착오로 보인다.

위와 같이 홍성지역 각 면의 재판 현황은 금마면 7명, 장곡면 23명, 구항면 3명, 광천면 5명, 홍성(파리장서) 4명, 합계 42명이다. 형량으로 보면, 태90 5명, 징역6월 18명, 징역6월 집행유예2년 1명, 징역8월 2명, 징역8월 집행유예2년 2명, 징역10월 2명, 징역1년 6명, 징역1년6월

2명, 징역2년 3명, 징역3년6월 1명이다.

따라서 태형을 당했거나 실형을 선고받은 인사는 〈표1〉과 〈표2〉의 중복 부분을 제외하면 결성면 1명, 구항면 10명, 금마면 183명, 은하면 11명, 장곡면 36명, 홍동면 52명, 광천면 5명, 홍성(파리장서) 2명으로 합계 300명이다.

그리고 국가기록원의 형사사건부에 의하면, 불기소 처분을 받은 인사는 〈표3〉 홍성지역 3·1독립운동 불기소 처분 현황과 같다.

표 3 | 홍성지역 3·1독립운동 불기소 처분 현황(1919)

성명 (한글)	성명 (한자)	연령	주소	죄명	주문	판결 일자	비고
박원식	朴源植	26	광천 광천리	보안법 위반 출판법 위반	기소중지	4.23.	
오형근	吳亨根	31	광천 옹암리	보안법 위반 출판법 위반	기소중지	4.23.	
신정균	申貞均	31	금마 죽림리	보안법 위반 폭행	증거 불충분	4.26.	
이범룡	李範龍	50	금마 화양리	보안법 위반 폭행	기소중지	4.26.	
김동화 김동순	金東化 金東純	29	장곡 가송리	보안법 위반 소요	기소중지	5.6.	
김정낭	金正浪	27	장곡 화계리	보안법 위반 소요	기소중지	5.6.	
박학근	朴學根	25	장곡 화계리	보안법 위반 소요	기소중지	5.6.	
이소만	李小萬	18	장곡 화계리	보안법 위반 소요	기소중지	5.6.	
표흥선	表興先	25	장곡 화계리	보안법 위반 소요	기소중지	5.6.	
윤상운	尹相雲	35	장곡 화계리	보안법 위반 소요	기소중지	5.6.	
윤상운	尹相雲	36	장곡 화계리	보안법 위반 소요	기소유예	10.18.	1921년
오흥순	吳興順	19	광천 옹암리	보안법 위반	경성지방으로 이송	3.25.	
박순화	朴順和	36	광천 광천리	보안법 위반	기소중지	2.5.	1920년

참고사항 | 판결·처분청은 대전지방법원검사국 공주지청임.

박원식은 이명종과 광천면에서 유인물을 제작 배포한 인물로 이명종 등 5명의 판결문에도 활동 내용이 기재된 인사이며 오형근과 같이 체포

되지 않아 공주지청에서 4월 23일에 기소 중지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신정균, 이범룡은 4월 1일 민영갑 등 6명이 주도한 금마면 가산리의 독립만세운동으로 함께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 공주지청에서 4월 26일에 신정균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이 했지만 이범룡은 체포되지 않아 기소 중지로 불기소 처분을 했다.

김동화(김동순), 김정낭, 박학근, 이소만, 표흥선, 윤상운은 4월 7일 장곡면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고 전개한 인사들이다. 공주지청에서 5월 6일에 체포되지 않아 기소 중지로 불기소 처분을 했다. 특히 윤상운은 1921년 10월 18일에 기소 유예로 불기소 처분을 했다.

오흥순은 3월 1일 독립선언서를 러시아 공사관에 전달하고 독립만세운동에 참가했다가 3월 6일 경성을 출발해 3월 7일 오전 11시에 도착해 광천 옹암리 본가로 귀가했다. 그러나 경성에서 활동이 밝혀져 천안헌병분대장이 광천경찰관주재소에 통보해 검거를 지시했다. 오후 7시까지 오흥순을 검거하지 못한 일경을 오후 7시 천안경찰서장에게 상황을 보고했으나 오후 9시에 일경들은 본가에서 오흥순을 체포했다. 이후 오흥순은 공주지청을 거쳐 경성지방법원 검사국으로 송치됐다.

박순화는 1920년 2월 5일에 공주지청에서 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 중지로 불기소 처분을 했다. 그는 광천의 유인물 배포와 관련이 있는지 아니면 광천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했거나 사전에 탐지되었는지는 현재의 자료로는 확언하기 어렵다.

이들 13명 가운데 추후 재판을 받은 김동화, 오흥순, 1921년 기소 유예된 윤상운, 1920년 기소 중지된 박순화 등 4명을 제외하면 9명이 3·1독립운동과 관련한 불기소 처분된 인사이다.

따라서 홍성지역 3·1독립운동을 주도했거나 참여한 인사는 태형을 당했거나 재판에 회부된 인사 300명과 불기소 처분된 인사 9명을 합쳐 합계 309명의 인사가 확인된다.



사진 12 | 1919년 홍성지역의 항일운동을 간략하게 표시한 지도

| 4 | 3·1독립운동의 의의

이상의 논의를 통해 홍성지역 3·1독립운동의 의의로 우선 서울 3·1 독립운동의 영향과 타지방의 독립만세운동에 자극되어 독립운동을 전개했다. 3월 7일 박세화가 형인 박원식과 이명종에서 서울의 독립만세운동 상황을 설명하고 서울에서 가져 온 독립선언서를 보여 줌으로 독립을 주장하는 취지의 유인물을 작성해 3월 8일에 배포하게 했다. 이어 박원식과 이명종은 일경이 유인물을 탈취함으로 인쇄해 배포하기로 결의하고 3월 18일에 복사지로 약 50매를 만들어 재배포했다. 또한 윤낙중도 서울의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고 독립선언서를 가지고 형 익중과 귀향

해 4월 7일 장곡 독립만세운동을 준비하고 실행했다. 그리고 판결문에 의하면, 민영갑의 경성복심법원 진술이나 이길성의 순사부장 죽하신조(竹下新助) 신문조서에서 3월 1일 이후 경성 기타 각지에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친 것을 알고(聞知) 그 취지를 찬성하고 또는 조선 독립을 희망하여 '시위운동'을 전개했다고 했다.

둘째 유학자들이 주도하고 농민들의 적극적 참여로 전개된 독립운동이었다. 구항과 금마의 3·1독립운동을 주도한 이길성, 황문수, 민영갑, 최중삼, 김재홍, 이재만 등은 지방 유림이었고, 특히 파리장서를 주도한 김복한, 임헌주, 전양진, 최중식 등은 대표적 유림들이다. 이는 홍주문화권의 전통적 유림들이 3·1독립운동에 나선 대표적 사례이다. 충남지방의 대표적 3·1독립운동인 횃불독립만세운동은 독립만세운동의 일반화에 따른 농민들의 적극적 주도와 참여로 전개됐다. 첫 횃불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된 4월 4일 홍성군내 20~24개 곳에서 독립운동은 농민들의 참여가 없이는 불가능한 독립운동이었다. 그리고 광부, 노동자(被傭人), 무직자, 잡화상, 양화점 등에 종사하는 인사들의 참여는 독립운동에 있어 직업의 귀천이나 신분의 고하를 막론 누구나 민족과 국가의 자주 독립을 위해 동참하였음을 의미한다(광부로 金明西(장곡 광성리), 피용인으로 崔光仁(德化), 金快成, 무직자로 尹基燮, 李喆林(이상 장곡 화계리), 잡화상으로 민영갑(금마 부평리), 최응모(광천 광천리), 양화점 종사자로 오인섭(광천 옹암리) 등이 있다.). 타지역에서는 기독교 신자나 천도교 교도들의 주도로 독립만세운동이 활발히 전재되었지만 홍성에서는 아직 이들의 활동상이 알려지지 않고 있다. 또한 학생들의 참여로 홍성에서 4월 8일 갈산의 공립보통학교 학생 60명이 교정에서 독립만세를 외치고, 장곡면 도산리에서 학생들이 주민들과 만세를 외쳤다.

셋째 연령층으로는 20, 30대의 청장년층의 적극적 참가와 활동으로 전개된 독립운동이었다. 현재까지 3·1독립운동 인사 309명에 대한 연령층 분포를 보면, 10대 9명(2.91%), 20대 127명(41.10%), 30대 113

명(36.57%), 40대 46명(14.89%), 50대 9명(2.91%), 60대 4명(1.62%)이다. 20대와 30대 참가자를 합치면 240명으로 77.67%이다. 즉 참가자 10명 중에 7~8명이 20대와 30대들이었다. 장곡면의 예로 공주지방법원과 고등법원 재판을 받은 인사 21명 가운데 20대 13명(61.9%), 30대가 5명(23.8.%)이다. 장곡면내 전체에서도 20대가 19명(52.8%), 30대가 8명(22.2%)이다. 즉 20대와 30대를 합치면 75%로 참여 인사 4명 중에 3명이 20, 30대 인사들이다. 연령별 통계에서 장곡면에서는 20대 연령층의 참여가 많아 독립운동이 활발히 전개되는 과정에서 홍성지역에서 유일한 공격적 독립운동으로 4월 7일 면사무소를 공격 파괴했다. 금마면에서도 20대 78명(42.6%), 30대 67명(36.6%)로 합치면 79.2%로 참여 인사 10명 중에 8명이 20, 30대 인사들이다. 그리고 홍동면은 20대 17명(34%), 30대 22명(44%)으로 합치면 78%로 참여 인사 10중에 7, 8명이 20, 30대 인사들이다. 홍성지역에서는 20대가 많이 참여한 면은 장곡면, 금마면이고 30대가 많이 참여한 면은 홍동면, 은하면이다.

넷째 독립운동의 전개 과정에서 평화적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했다. 독립운동 기간 중 총 20개 면에서 전개된 3·1독립운동은 4월 7일 장곡 독립만세운동을 제외하고 모든 독립운동이 평화적으로 독립만세운동이나 횃불독립만세운동을 전개했다. 그러나 일제는 독립만세를 외치는 평화적 독립운동을 무력적 탄압과 시위로 만세 군중들을 해산시키고 이어 대대적인 검거 작전으로 300여명의 인사들을 검거 체포했다.

다섯째 다양한 형태의 독립운동을 전개했다. 홍성지역의 3·1운동은 일반적으로 독립만세를 외치는 독립만세운동이 있었고, 야간에 산위 올라가 불을 피우고 독립만세를 외치는 횃불독립만세운동이 있었으며, '호서본'의 장서를 작성해 '영남본'과 비교해 '영남본'으로 파리강화회의에 제출하는 파리장서운동이 있었다. 이와 같이 3·1독립운동의 3가지 형태인 독립만세운동, 횃불독립만세운동, 장서운동이 모두 전개된 곳은 전국에서 홍성이 유일하다. 타 지역에서는 횃불독립만세운동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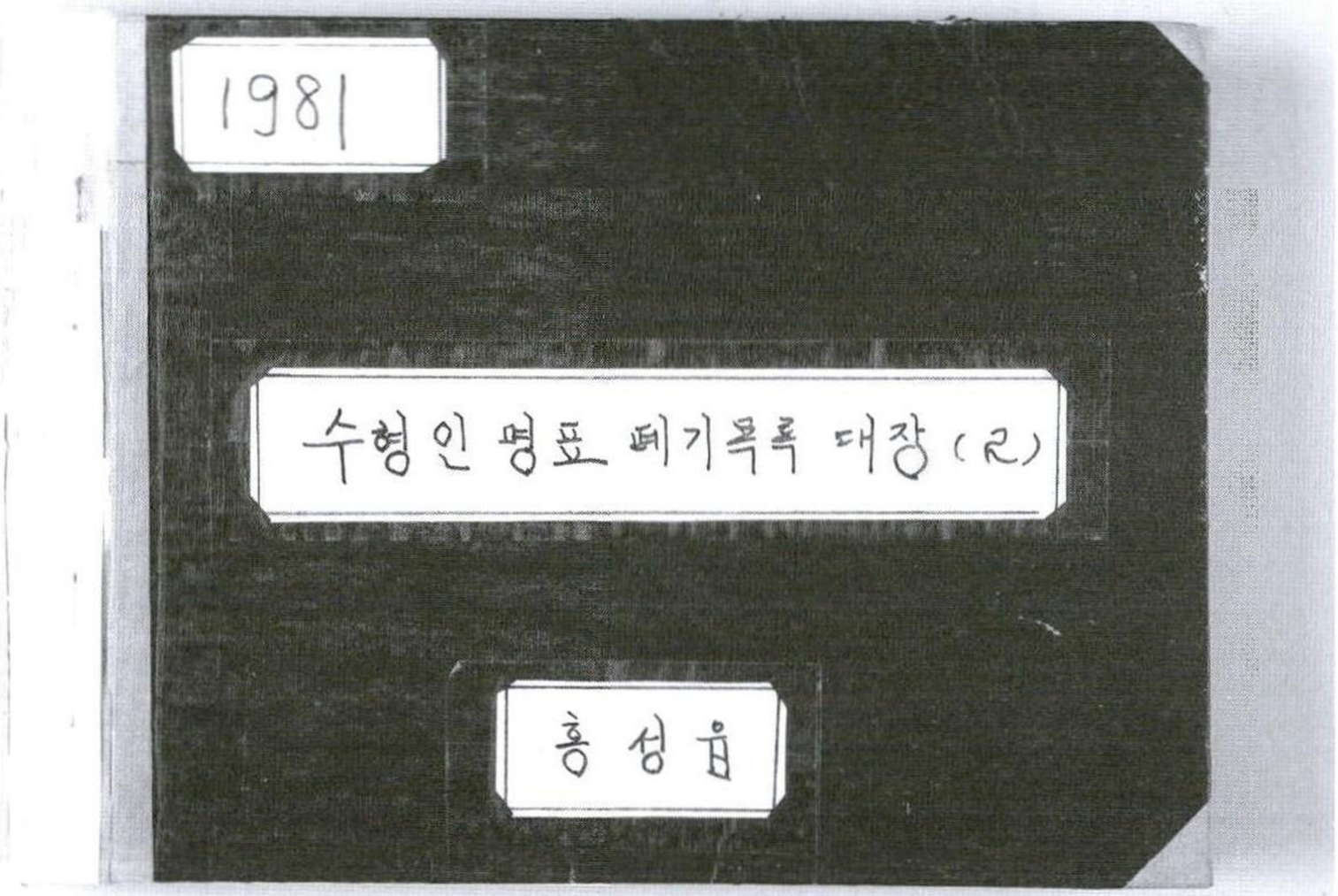


사진 13 | 홍성읍 수형인명표 폐기목록 대장

전개하지 않았거나 장서운동을 전개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독립만세운동의 전개에 있어도 유인물(격문)을 작성 배포해 독립의식을 높이려 했고, '大韓國獨立萬歲' 라는 깃발을 제작해 독립운동에 활용했고, 시장이나 연극 공연장(흥행장)을 이용해 관람객과 독립만세를 외쳤으며, 마을에서 주민들이 집합해 독립만세를 외쳤다. 그리고 4월 4일 홍성 군내에서 전개된 횃불독립만세운동은 아산(3.31., 50곳), 예산(4.4., 18곳), 당진(4.4., 18곳)과 같이 동일 동시에 수십 곳에서 횃불독립만세를 외치는 연합독립운동을 전개했다.

여섯째 독립운동 전 기간 중에 4월 1일부터 9일까지 사이에 10일간 집중적으로 전개됐다. 3월 7일 홍성 읍내의 시장 만세, 3월 8일과 18일 광천 유인물 배포, 3월 21일 은하와 광천에서 만세가 있었다. 하지만 4월 1일 금마의 독립만세를 시작으로 4월 2일 홍성 읍내의 독립만세, 4월 4일 금마, 홍동, 장곡, 구항의 4개면에서 독립만세와 횃불독립만세, 4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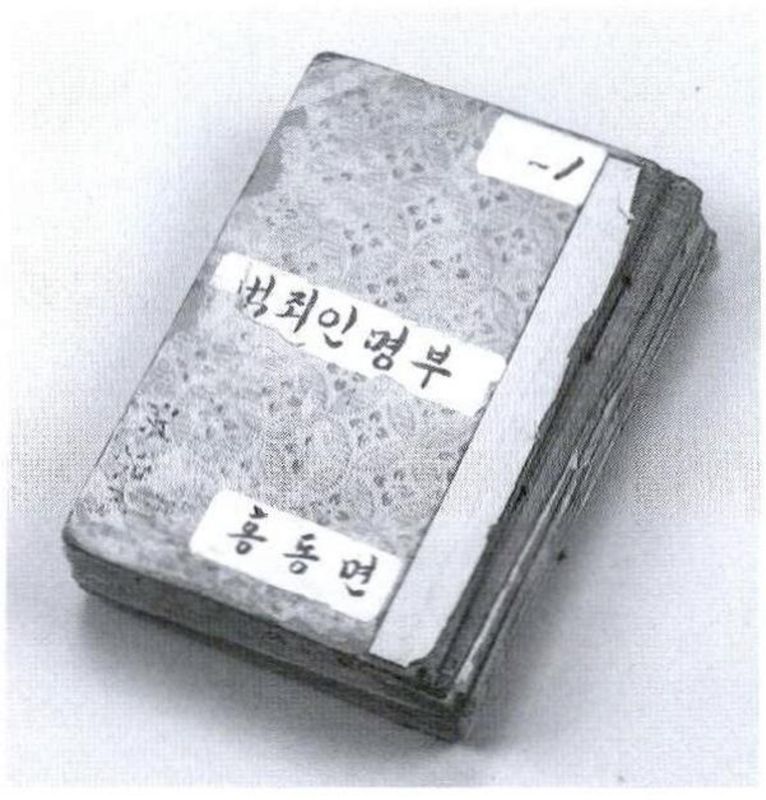


사진 14 | 홍동면 범죄인명부

5일 홍동의 독립만세, 4월 7일 장곡의 독립만세와 구항의 횃불 독립만세, 4월 8일 홍동, 장곡, 갈산의 독립만세, 4월 9일 은하의 독립만세로 이어졌다. 물론 4월 24일 결성에 독립만세를 외치는 이유와 고종 독살설을 주장하기도 했다.

일곱째 독립운동이 전개된 면에서 면내 거의 모든 마을 주민들이 동참해 3·1독립운동을 전개한 사례가 있다. 판결문, 수형인명부에 의하면, 홍동면의 경우는 당시 18개 마을 가운데 구암리, 구룡리, 신기리, 문당리, 수란리, 효학리, 금평리, 원천리, 운월리, 운용리, 월림리, 대평리 등 12개 마을에서 주민들이 참여했다. 특히 금마면의 경우는 당시 13개면 가운데 봉서리를 제외한 12개 마을 전부의 주민들이 독립운동에 참가해 재판에 회부되거나 홍성경찰서에서 태형을 당했다.

여덟째 일제의 잔혹한 탄압을 지역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은 독립운동이었다. 장곡면의 범죄인명부에 의하면, 총 36명 가운데 화계리 주민 22명(61.5%)이고 1명을 제외한 21명이 전부 재판에 회부되어 옥고를 겪었다. 이는 장곡 독립운동은 화계리 주민들의 주도로 전개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36명 가운데 24명이 재판에 회부되어 22명이 옥고를 겪었다. 이들은 면사무소를 공격해 파괴한 독립운동으로 검사가 보안법 위반에 소요(죄)를 적용해 공소를 제기하고 법원에서 이를 인정해 중형을 선고했기 때문이다. 홍성경찰서에서는 4월 14일부터 23일까지 10일 동안 집중적으로 경찰서장의 즉결처분으로 태형을 집행했다. 총 196명이 태형을 당했는데, 30도 1명, 60도 12명을 제외한 183명이 태형의 최고 형량인 태90로 처결됐다. 이는 10일간의 태형을 당한 인사의 93%에 해당

한다. 이는 전국에서도 찾을 수 없는 일제의 비인간적 비윤리적 태형을 자행한 대표적 탄압이었다.

아홉째 일제의 탄압에 대비해 일제와 타협해 구금 인사를 구출한 사례도 있다. 금마면에서 13개 마을 가운데 1개 마을 봉서리 주민들은 금마면 수형인명부에 1명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 평면 면장을 지낸 박병무(朴炳武)가 홍성경찰서에 찾아 가 일경과 타협해 봉서리 주민들을 전부 석방했다고 전해진다(현재 금마면사무소의 서편, 홍성-예산간의 도로에 왼편 쪽 야산의 철마산공원의 3·1기념비로 가는 입구 좌측에 박병무의 공덕비(頌德碑)가 있다. 이 비는 1911년 7월 건립되었는데 박병무가 평면 면장으로 치적이 상당하여 건립된 것이다. 이에 일경도 그의 지역적 영향을 인정하고 요구대로 구금된 주민들을 석방했다고 전한다.).

열째 일제 헌병이 피고인의 금품을 강탈한 사건도 있었다. 이는 금마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한 민영갑 등 5명이 4월 17일 홍성에서 청양을 거쳐 대전지방법원 검사국 공주지청으로 압송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일제 헌병이 피고인을 호송하며 민영갑 등이 소지하고 있던 돈(殘金) 1원(엔) 20전을 강탈해서 자기들의 경비로 사용하는 강도 행위를 저질렀다. 이 강도 행위는 공주지방법원이나 경성복심법원의 심리에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고등법원에서 상고하면서 추가상고취의서에 민영갑 등이 적시하고 고등법원 재판부가 판결문에 인용함으로 알려졌다.

홍성지역은 충남과 같이 민족대표 33인이나 독립선언 추진 세력과 연계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독립선언서가 전래되고 전국 각지에서 독립만세를 외치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게 되었다.

홍성지역의 3·1독립운동은 3월 6일 광천에서 첫 모임이 있은 이후 3월 7일 홍성 읍내에서 독립만세를 외친 후 4월 9일 은하에서 독립만세를 부르기까지 전개되었으며 4월 24일 결성에서 독립만세를 부르는 이

유와 고종 독살설이 주장됐다. 3월 6일 박원식과 이명종이 만나 박세화의 경성독립만세운동을 듣고 독립선언서를 보고나서 유인물을 만들어 3월 8일 광천 시장과 옹암리에 부착했다. 이어 3월 18일에는 이명종 등 5명이 복사지로 50매의 유인물을 제작해 옹암리와 광천리 민가에 배포했다. 홍주 읍내 장터에서는 3월 7일에 독립만세를 외쳤다. 이어 금마에서는 4월 1일 민영갑 등이 주도한 독립만세운동이 있었고, 4월 4일 홍동, 금마, 구항과 같이 횃불독립만세운동을 전개했다. 장곡에서는 4월 7일에는 김동하 등이 주도해 약 300명의 면민들이 응봉산에서 만세를 외치고 면사무소를 공격 파괴한 후 4월 8일에도 약 60명이 도산리에서 학생과 주민들이 독립만세를 불렀다. 은하면에서는 3월 21일 대천리에서 주민들이 독립만세를 외치고 4월 9일에 장곡리에서 전명규 등이 마을 안에서 주민들과 만세를 불렀다. 고도면에서는 4월 8일 상촌리 갈산공립보통학교 학생들이 교정에서 독립만세를 외치고 일경들이 출동하기 전에 학교를 떠났다. 홍동에서는 4월 4일과 5일 양일간 횃불독립만세운동이 있었고 4월 8일에도 황윤성의 주도로 면내 마을에서 독립만세를 외쳤다. 구항에서는 4월 4일에 이어 4월 7일에 이길성의 주도로 월산에서 횃불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됐다. 이외 홍북에서는 4월 6일 예산의 박성식이 독립만세를 권유했고, 결성에서는 4월 24일 예산의 정인하가 독립만세를 부르는 이유와 고종 독살설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리고 김복한의 주도 '호서본'의 장서가 제작되고 임헌주 등의 서명을 받아 임경호를 통해 파리강화회의에 제출하려던 중 김창숙 등과 협의로 곽종석의 '영남본'을 파리로 보내는 파리장서운동이 있었다. 호서지역 인사로 18명이 서명자로 장서에 기록되었다.

일제의 탄압으로 4월 4일 밤 홍성군내 4개 면내 20~24개소의 횃불독립만세운동으로 2명 사망과 5명 체포(혹은 10명 사망), 4월 5일 홍동면 횃불독립만세운동으로 2명 사망과 2명 부상, 4월 8일 장곡면 독립만세운동으로 2명 부상과 11명 체포 등의 현장에서 무력 진압으로 만세

군중들은 해산을 당했다. 이어 일제 군경의 검거 체포로 300여명이 구금되어 일제의 참혹한 탄압을 받았다. 광천에서 이명종 등 5명, 금마에서 민영갑 등 6명, 장곡에서 23명, 홍북에서 박성식, 은하에서 정인하가 공주지방법원 재판에 회부되었다. 파리장서운동으로 김복한 등 4명이 대구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수형 기록 자료에 의하면, 재판에 회부된 인사는 총 42명이다. 홍성경찰서나 홍성지청에서 태형이나 형벌을 받은 인사가 286명이 확인된다. 그리고 형사사건부에 의하면, 9명이 공주지방법원 검사국에서 기소 중지나 기소 유예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현재까지 3·1독립운동을 주도했거나 참여한 인사로 309명이 확인된다.

홍성지역의 3·1독립운동은 유학자들이 주도하고 농민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주도해 전개한 독립운동으로 20, 30대의 청장년층이 주된 역할을 했고 평화적인 방법을 통한 독립운동으로 독립만세운동, 횃불독립만세, 장서운동을 4월 1일부터 9일까지 10일 동안 집중적으로 전개했으며 현장에서 무력 진압과 사법적 탄압을 받고 비인간적이고 비윤리적인 참혹한 태형을 당한 대표적 독립운동이었다.

| **김진호** | 충남대 충청문화연구소 연구원



홍성의 독립운동사 1

홍성 결성금광 동맹파업 사건은 열악한 노동조건과 일제의 지하자원 수탈 야욕을 인식하고 있던 금광 노동자들의 항쟁의지에서 비롯되었다.

제6장

1920~1940년대 홍성의 독립운동

1. 홍성의 청년학생운동
2. 홍성의 사상단체 무공회 활동
3. 신간회 홍성지회의 활동
4. 홍성지역의 농민운동
5. 홍성지역의 노동운동

제6장

1920~1940년대 홍성의 독립운동

1 | 홍성의 청년학생운동

홍성의 청년운동 조직에 대한 자료는 1919년 3월 광천청년회(廣川青年會)가 30여 명의 회원으로, 같은 해 10월 홍성청년회(洪城青年會)가 50여 명의 회원으로 성립되었다는 동아일보 1929년 1월 12일자 보도기사가 있다. 하지만 1922년 광천청년회와 홍성청년회가 재차 창립되는 것으로 봐서 이들 청년회는 유명무실했던 것 같다.

그렇다면 홍성의 청년운동은 홍성엡윗(懿法-의법)청년회가 열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홍성은 감리교 선교구역으로 다수의 감리교회들이



懿法青年講演隊
洪城郡懿法青年會에서는地方人士의指導啓發에努力中인데今年夏季에는南北二隊로分하야各地에巡回講演을開催하고洪城地方을巡回하는中임대開催日字는左記와如하다더라
基督青年英語夜學
基督青年會主催로九月五日부터平壤女子師範學校內에서英語講習會를開設한다는데程度는初等으로하고每日午後八時에始하며講師는崔賢大學出身崔致求兩氏라더라(平壤)

사진 1 | 홍성의법청년회 활동기사
(동아일보 1922년 9월 3일자)



사진 2 | 조선청년당대회 대표자 출석기념(1923.3.24)

활동하였는데, 엡윗청년회는 바로 감리교계의 전국적 청년조직이었다. 1920년 홍성읍에서 기독교감리교 청년들을 중심으로 창립한 엡윗청년회는 전도사업과 강연, 그리고 야학 등을 통한 계몽운동과 민족의식 고취 활동을 벌였는데, 주요역원은 안성호(安聖鎬)·손재학(孫在學)·이병승(李秉昇)·김기인(金起寅)·유병수(柳丙秀)·김규호(金圭鎬)·손원옥(孫元玉) 등이었다. 엡윗청년회의 이러한 활동은 1922년 7월 총회에서 가결된 사항, 즉 동아일보 1922년 7월 19일자에 보도된 "하기 순회전도의 건, 노동야학생 모집과 이에 대한 선후책, 하기 위생강연과 위생선포문 인쇄 산포의 건, 소년부 원조의 건, 신문잡지 강독의 건, 기타사항" 등을 보아도 알 수 있다.

특히 광천에서 개최한 아래와 같이 동아일보 1922년 9월 3일자에 보도된 강연회는 엡윗청년회의 계몽적 성격을 잘 말해준다고 하겠다.

충남 홍성군 의법청년회에서는 지방인사의 지식계발에 연내 열심이던 중 금년 하계에는 남북 2대의 강연단을 조직하고 홍성지방을 순회하는 중인데 도처의 성황은 물론이오, 8월 24일 오후 2시에는 광천에 도착한 바 광천청년회에서는 다수 인사가 출영하였고, 동 5시에 만찬회가 유(有)한 후 동 7시에 광천상회 전에서 강연을 시한 바 200여명의 청중이 있었고 박수 갈채중 동 11시 경에 폐회한 바 연사와 연제는 좌와 여하더라. 김병제(金炳濟)씨는 '우리의 낙원', 전용규(田溶圭)씨는 '시대관과 우리의 각성', 박상진(朴相眞)씨는 '우리의 할 바.'

이후 1922년 8월 광천청년회와 같은 해 11월 홍성청년회가 창립되어 활동하여 갔다. 이들 또한 조선일보 홍성지국과 동아일보 홍성분국 등의 후원으로 "지방의 발전과 인지의 계발"을 위하여 계몽운동을 벌이는 합법적 청년단체로 홍성지역 청년유지 단체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이와 함께 경성에 유학하는 홍성지역 출신 학생들로 조직된 재경성 홍성학우구락부도 방학을 이용하여 고향에서 강연활동을 벌였는데, 이들은 서울 학생운동의 동향과 사상적 신사조를 전파하는 매개 역할을 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것은 홍성지역 청년운동이 이들 출신과 사상단체인 무공회의 지도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는 데서도 알 수 있다. 즉, 홍성청년회의 방향전환은 무공회와 재경성 홍성학우구락부 출신들을 중심으로 1926년 10월 3일 혁신총회를 개최하여 회장에 김재한(金在翰)을 선임하는 등 새로운 진용과 내용을 갖춤으로써 이루어졌다.

혁신이후 홍성청년회는 1926년 12월 전홍성 청년간담회를 개최하여 면단위 청년회 조직, 청년교양 등에 대한 토론과 청년운동·농촌운동·형평운동·여성운동·노동운동·소년운동 등에 대한 토론회를 갖는 등 새로운 면모를 과시하였던 것이다.



사진 3 | 조선노동총동맹 창립 기념(1924.4)

이 시기 학생운동은 3·1운동과 6·10만세운동으로 고조된 민족의식의 영향 아래 일제 식민지 교육에 대한 반대운동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었다. 즉, 일본어와 일본역사 교육의 강화, 그리고 일본인 교사의 한국학생 모욕과 멸시에 대항하여 '조선본위 교육'을 요구하고, 일본인 교사 배척을 위해 동맹휴학을 전개하여 갔던 것이다. 이 같은 학생운동의 조류는 홍성에도 영향을 끼쳐 1926년 5월 홍성공립보통학교에서도 동맹휴학이 발생하였다. 그런데 그 원인은 홍성지역의 특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겠다. 우선 당시의 조선일보 1926년 5월 6일자 보도기사를 살펴보자.

지난 달 28일에 충청남도 홍성공립보통학교 생도 일동은 돌연히 동맹휴교를 단행하였다는데 그 내용은 이번 창덕궁전하께옵서 승하하셨다는 비보를 접한 당지 시민들은 애통에 쌓여서 망곡을 하고자 하였으나 동교 당국에서는 하등의 말 한마디가 없었음으로 생도측에



酒池肉林에
作團暴行사지
국상중에유흥한량산의부자
게다가삐지여청년에게폭행
市民哀悼中富豪의悖行
釋尊降誕祭
汽車賃割引
洪城公普盟休
仁川傳染病
獨子溺死
웅덩에빠져서
◇휴지통

사진 4 | 홍성공립보통학교 동맹휴학 보도기사
(동아일보 1926년 5월 5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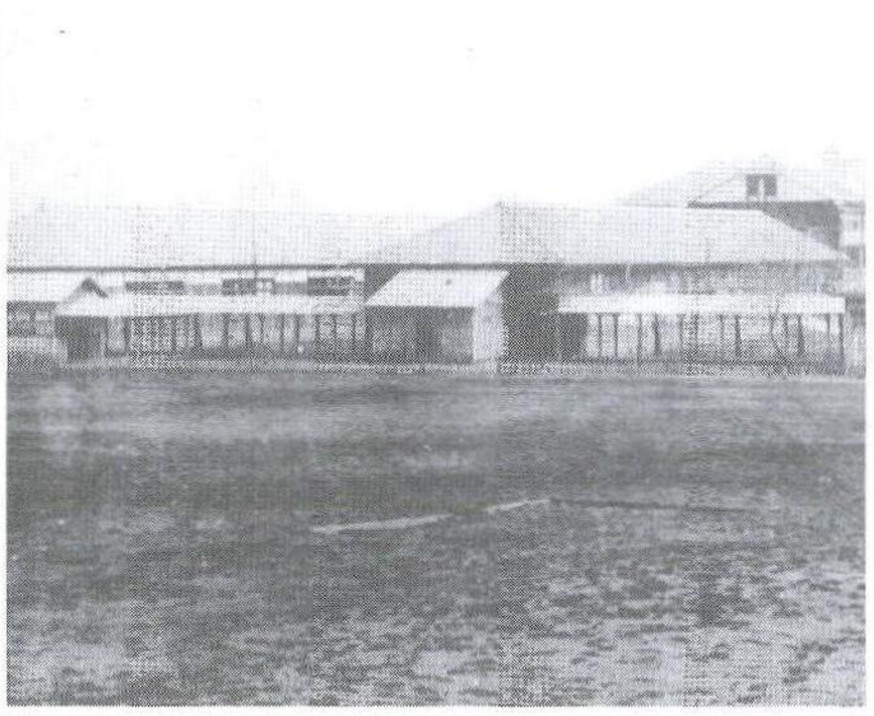


사진 5 | 홍성공립보통학교
(1939년, 현 홍성초등학교)

서는 그 이유를 질문하였던 바 동교 건부(建部) 훈도는 "조선인이 죽었는데 무슨 상관이냐" 하면서 무수히 야단을 하였음으로 이에 분개한 일동은 자기들끼리 망곡을 할 양으로 교문을 나서매, 동교 내등(內藤) 교장이 교문을 닫고 신문지에 보도된 것을 신용할 수 없은 즉 사실 창덕궁전하께서 승하하셨는지 알 수 없으니 수업을 계속하라고 설유도 하고 혹은 위협까지 하였으나 생도들은 종시 듣지 않고 일제히 휴학을 한 후 남생도는 모자에 흰 테를 두르고 여생도들은 물색 당기를 끌르고 치마와 또는 책보를 찢어서 검정 당기를 두른 후에 필경 망곡을 하였다더라.

이 같이 홍성공보의 동맹휴학 사건은 남달랐던 홍성지역의 유학적 전통과 항일의식의 표출이라고 생각된다. 즉, 1926년 4월 26일 조선조 마지막 임금인 순종황제가 굴욕적인 삶을 살다가 서거하였던 것이다. 일제의 압제 아래 신음하던 한국민족은 그 죽음이 자신의 처지인 양 애도하였다. 당시 비통한 분위기와 애도의 물결은 전국을 휩쓸고 있었다. 그것



사진 6 | 홍성공립공업전수학교 동맹휴학 터 (현 홍성의료원)

은 순종황제 한 사람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만이 아니고, 식민지 상황에서 울려고 해도 울지 못했던 한국민족의 마음이 순종황제의 서거를 계기로 표출한 것이다. 그런데 일본인 교사가 '조선인'을 멸시하고, 순종황제에 대한 봉도(奉悼) 행위를 금지하였던 것이다. 유달리 유학적 전통이 강하고 항일의식이 높았던 홍성지역의 학생들은 그런 모욕적인 말을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다. 홍성지역에서 최초로 일어난 학생의 맹휴는 바로 이렇게 그 역사적 전통과 맞닿아 있었다.

이후 홍성지역의 본격적인 학생운동으로 동맹휴학은 홍성공립공업전수학교에서 일어났다. 이유는 학교 승격과 설비 문제였다. 이 학교는 을종학교로 개교하였는데, 설비가 불충분하였기 때문에 학생들의 불만이 많았던 것 같다. 그래서 학생들은 설비의 충실과 갑종학교로의 승격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학교와 도당국에 제출하였다. 그리고 요구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1928년 12월 13일부터 17일까지 동맹휴학에 들어갔다. 당시 조선일보 1928년 12월 24일자 보도에 따르면, "학무과장 이창근(李昌根)씨가 출장하야 일반학생의 량해를 구하며 동교 학부형회까지 열고 원만 토의한 결과 학생들의 요구조건 중 내용충실에 대하야는 될 수 잇는대로 래년도에는 완전히 설비하겟다는 조건으로 학생측에서 다소 양보하고, 학교당국에서는 관대한 처분으로 생도에게 희생자를 내지 아니하겟다는 쌍방의 양보로 문뎨는 원만히 해결되야"다 고 하였다. 그래서 12월 18일부터 학생들이 등교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이때의 맹휴는 여기에서 그쳤지만, 이 같은 운동 경험은 광주학생운동에 대한 동조운동으로 발전하였다. 홍성공립공업전수학교 학생들은



사진 7 | 홍성공립공업전수학교 동맹휴학 보도기사(동아일보 1928년 12월 16일자)



사진 8 | 홍성공립공업전수학교 동맹휴학 보도기사(동아일보 1930년 1월 21일자)

1929년 11월 광주학생운동이 발발하여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가자 이에 동조하는 시위운동를 계획하였다. 즉, 광주학생운동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던 1930년 1월 19일 홍성공립공업전수학교 학생들은 '광주학생을 석방하라' 고 하는 격문 수천 매를 시가에 살포하고, 다음날 20일 홍성읍 장날을 기회로 시위운동을 전개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 사건의 배후에는 조선일보 홍성지국장이자 신간회 홍성지회 집행위원인 박원식과 조기형, 광천노동조합 간부 우성근, 그리고 기독교 전도부인회의 황현숙(黃



號外

實踐女生을 爲始하야

市內各女校大動搖

堅志洞路上에서萬歲高唱

現場에서多數女學生檢擧

男學生도呼應

徽文生二十名檢擧

梨花와培材生合勢

西小門町에서萬歲

現場에서培材生廿名被檢

牧師된光州學生

私食을拒絶

理由는監食도滿足

사진 9 | 광주학생독립운동 보도 호외 기사(중외일보 1930년 1월 15일자)

賢淑)이 관련되어 있었다.

그렇다면 홍성공립공업전수학교의 시위운동계획은 신간회 중앙본부에서 광주학생운동 진상보고 민중대회를 개최하려고 시도했던 것처럼, 신간회 홍성지회와 학생층이 연대하여 대중운동으로 추진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 시기에 이르면 홍성지역 독립운동은 사회운동 단체들 간에, 또는 사회계층 간에 연대운동의 기반과 조직이 성장되어 있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 2 | 홍성의 사상단체 무공회 활동

홍성의 사회운동과 독립운동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계기는 무공회(無空會)의 출범이었다. 1925년 10월 동아일보 홍성분국과 조선일보 홍성지국에 관계하면서 사상적 조류에 민감하였던 손재학·김동진·김창식·김성곤·이벽규·이두성·김흥선 등 7인은 사상단체 무공회를 조직하고, 이념과 행동을 통일하는 동시에 동지를 규합하여 방계(傍系)단체를 조직하기로 의결하였다. 이들 청년지식인들이 중심이 되어 결성한 사상 연구단체인 무공회는 표면적인 활동으로는 월 2회 연구반 집회를 갖는 것이었

다. 하지만 점차 사회운동의 중진으로 향리인 홍성에 내려와 있던 조선민족대동단 출신의 최익환, 서울청년회계의 김재한, 화요회계의 김연진, 북풍회계의 방두파(방우석) 등이 참여하였고, 정동량·조대봉 등 토착 사회주의세력과 박원식·김구한 등 우파계열 민족운동가들이 가세하면서 홍성지역 사회운동을 실질적으로 지도하는 전위단체로 부상하였다.

다양한 이들 운동계열의 인물들이 언제 무공회에 입회하였는지 알 수 없지만, 신간회 홍성지회가 성립하는 1927년 8월 이전에 참여하였던 것 같다. 그것은 무공회가 중심이 되어 신간회 홍성지회를 성립시키고, 그 중심인물들이 각부 간사로서 홍성지회를 실질적으로 주도해가는 사실을 봐서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사회주의계열의 인물들은 1926년 11월 정우회 선언을 통하여 민족협동전선론과 방향전환론이 발표된 뒤, 지역적 차원에서 파벌의식을 극복하면서 민족주의자들과의 협동을 모색하기 위해 무공회에 입회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 시기는 1926년 11월부터 1927년 8월 사이가 될 것이다. 이는 무공회에 참여하였던 조선일보 홍성지국 기자 박원



裡里雄辯延期 全北裡里青年會主催의雄辯大會는 諸般事情으로因하야來二十九日午後八時부터自成組合會館에開催하기로延期變更하엿다더라(裡里)

無空會機關紙發行? 忠南洪城邑內에事務所를置한思想團體無空會에서는去二十五日同會硏究班第會를利川하야同例會를開催하고左記事項을決議하엿다더라(洪城)

一、會員敎育에關한件
一、機關誌를利으로 發行할 일

森西農民組合 創立發會式

金南長城郡森西面農民들이階級解放과貧困利益을目標로森西農民組合을去五月에創立하얏다하는바既報한바어니와此間에本組合에서는各洞里에七個團體를設置하야全組合員이六百餘名에達하얏슴으로去二十二日午前十時에森西青年會館內에서森西農民組合創立發會式을擧行하얏다는데午餘참록소리로運動歌를부르며奏樂으로開式한後金洪範氏의開式辭가잇나자各地에서온祝電文을朗讀하고來賓으로振洪泳, 朴

嶺南地方

●咸柏間自働車開通 慶南咸陽咸陽間上利洑萬秀氏는單獨으로咸陽柏田間自働車營業許可願을얼마前에申請하엿든바去二十一日附로許可되엿슴으로一個月以內에開業式을擧行하리라더라(咸陽)

●共信興產組合創立 金泉郡農山代項面有志李坤碩外數氏는面內貧民救濟와副業奬勵를圖함을目的으로共信興產組合을發起하야去七月中旬頃에創立委員會를開催하고諸般事項을決議한結果總資本金五萬圓을五千口(一口十圓)로하야 第一回佛込二萬二千五百圓으로써以共同販賣、肥料共同購入、牛馬、農具金融通等의事業을營爲하기로하엿다더라 創立委員長楠碩奎氏外十人


竹山線不遠開通?
四月十六日早日開通될듯
正友解體에共鳴
明太漁業不振
海坪住民의困境
兩氏三百餘戶救濟
無産青年創立
小作人總親會

사진 11 | 무공회의 홍성소작인간친회 개최 보도기사 (동아일보 1927년 3월 17일자)

식과 박윤식 등이 1926년 9월 24일 광천에서 홍성지역의 또 다른 사상단체로 정진회(正進會)를 출범시켰지만, 이후 정진회의 활동 내용이 드러나지 않은 사실로도 짐작된다. 즉 그들이 무공회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정진회는 유명무실화 된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무공회는 창립 이후 다양한 계열의 인물들을 끌어들이면서 조직을 확대하여 갔다. 그리하여 처음 7인의 회원으로 출발하여 1929년 현재 25인의 회원을 가진 조직으로 발전하였는데, 이들은 모두 홍성지역 사회운동의 중심적 지도인물들이었다. 나아가 무공회가 홍성지역 사회운동의 중심으로 부상하면서 홍성교육회가 중심이 되어 전개한 홍성고보 유치운동으로 대표되는 1920년대 전반 유산자층이 주도하던 관변(官邊)적 지역운동의 미온성과 타협성을 비판하는 한편, 청년회의 혁신과 노동조합의 조직 등을 통해 홍성지역 사회운동의 방향을 정치 지향적 독립운동으로 변화 발전시켜 갔다.

특히 무공회는 월 2회 정도의 연구반 집회와 월례회를 개최하고, 월간으로 기관지를 발행하면서 회원들에 대한 사상교육과 대중들에 대한 정치의식과 계급의식 전파에 힘써 나갔다. 그 결과 충청지역에서 처음으로 신간회 홍성지회의 창립을 주도하였던 것이다. 즉 무공회는 1927년 2월 15일 중앙에서 민족협동전선으로 신간회가 성립하자, 같은 해 3월 25일 정기총회에서 향후 운동방향에 대하여 장시간 토의하고, 신간회 후원을 결의하였다. 이어 다음달 14일에 개최된 무공회 월례회에서는 '충청도 민중운동자 간담회 소집에 관한 건, 메이데이 기념에 관한 건, 그리고 신간회 지지' 문제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논의하면서 홍성지

회 창립을 강구한 것으로 생각된다.

| 3 | 신간회 홍성지회의 활동

사회운동 차원에서 홍성 지역의 민족협동전선 조직체로 성립된 신간회 홍성지회는 1927년 8월 25일 창립되었다. 이날 설립대회 상황을 보도한 조선일보 1927년 8월 28일자 기사를 보면 다음과 같다.


井邑과 苗浦間에
鐵道敷設運動
井邑에서期成會組織
浮塵子更發
高敞農家憂慮
春秋期委員會

사진 12 | 신간회 홍성지회 창립기사
(동아일보 1927년 8월 18일자)

충청남도 홍성 신간지회 설립대회는 예정과 같이 (8월) 25일 오후 2시부터 홍성읍내 동지회 설립준비 사무소 안에서 윤대영(尹大榮) 씨를 의장으로 추천한 후 이의 사회로 개최하였는데, 충청남북도에 있어서 처음으로 되는 발회인 만큼 원근간에 다수한 참회자가 있어 전에 볼 수 없던 큰 성황을 이루었으며, 회순대로 의사를 진행하다가 본부 대표로 출석한 박동완(朴東完) 씨와 경성지회 대표 이관구(李寬求) 씨의 만장의 의기를 고무하는 의미의 축사가 있은 후 규약을 통과하고 임원을 선정한 후 유지 방침과 간사회 집회일(매월 15일)에 대한 것을 토의하고 폐회하였는데 선임된 임원은 다음과 같더라.

회　장 : 윤대영

부회장 : 윤익중(尹益重)

서무부 총무간사 : 손재학(孫在學), 상무간사 : 이동룡(李東龍)

조직부 총무간사 : 김용한(金龍漢), 상무간사 : 김인환(金麟煥)

정치문화부 총무간사 : 김재한(金在翰), 상무간사 : 김영희(金英希)

조사연구부 총무간사 : 김흥선(金興善), 상무간사 : 강범진(康范鎭)

선전부 총무간사 : 김연진(金淵鎭), 상무간사 : 이진비(李鎭飛),

간 사 : 박원식(朴源植), 구연홍(具然弘), 이승재(李昇載), 정해원(鄭行源), 김종학(金鍾學)

이후 신간회 홍성지회는 면단위까지 조직을 확대하여 홍성주민의 실질적 대표기관으로 자리를 잡아가면서 1929년 1월 현재 200여 명의 회원을 가질 정도로 성장하였다. 회원 가운데는 홍성교육회 이사로 홍성고등보통학교 유치운동에 앞장섰던 윤대영, 중앙고보 재학 중 서울에서 3·1운동에 참여한 뒤 귀향하여 장곡면 만세시위를 주도한 윤익중, 동아일보 홍성분국장 손재학, 반일 유림으로 한말의병장 김복한의 장자인 김은동과 김익한, 비밀결사 광복회의 회원으로 활동한 정태복, 광천면 만세시위를 주도한 뒤 조선일보 홍성지국 기자로 활동하던 박원식 등 우파



新幹洪城支會
趙大奉氏 拘引
홍성지국 기자로 활동하던 박원식 등 우파
軍隊不穩文事件再燃?
下水川工事場
怠業狀態
요구 조건의 불응으로
元山署干涉開始
閔張兩富豪의爭訟
勞働者側

사진 13 | 신간회 홍성지회 보도기사(중외일보 1929년 11월 1일자)



사진 14 | 신간회 초대회장 이상재 사회장(1927.4.7)

민족주의자들이 포진하고 있었다.

또한 화요회계열의 인사로 조선일보 홍성지국장인 김연진과 홍성노동조합 상무집행위원 구연홍, 서울청년회계열의 김재한, 만해 한용운의 아들인 한보국, 홍성노동조합 광천지부 간사인 조대봉, 홍성청년회장이자 홍성기자단원 정동량, 북풍회계열의 홍성기자단원 방우석 등 좌파 사회주의운동가들이 참여하고 있었다. 즉 지역 내 명망가들은 물론 무공회·청년회·노동조합 출신의 좌우파 소장 사회운동가들이 총망라되었던 것이다.

실제로 신간회 홍성지회 결성이후 이를 구심으로 하는 사회운동 단체간의 연대활동이 한층 강화되었고, 그 결과 1930년 1월 광주학생운동 시기에 홍성공립공업전수학교 학생들의 시위운동 계획에도 참여하였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1929년 6월 28~29일 양일 간에 열린 중앙의 복대표(複代表)대회에 충남을 대표하여 김연진을 대의원으로 파견한 데서 알 수 있듯이 홍성지회는 충남의 대표적 신간회 지회이기도 하였다.

나아가 신간회 홍성지회는 중앙 본부가 복대표대회에서 규약을 변경하여 회장제에서 집행위원제로 조직을 변경하자, 이에 의거하여 같은 해 7월 30일 임시대회를 열어 조직을 개편하고 임원을 개선하였는데, 조선

일보 1929년 8월 4일자에 따르면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충남 홍성에 있는 신간 홍성지회에서는 기보한 바와 같이 지난 달(7월) 30일 하오 2시 15분에 기독교예배당에서 임시총회를 회장 윤대영씨 사회로 개회하고 임시집행부로 의장 김연진씨, 부의장 김재한씨, 서기장 박원식씨, 서기 이범수(李範洙)씨가 피선되어 축문 축전낭독, 내빈축사, 경과보고, 집행위원 선거가 있었다더라.

| 위　　원 |

집행위원장 : 윤대영

집행위원 : 조기형(趙奇衡), 이범수, 한보국(韓保國), 정동량(鄭東亮), 박재범(朴在範), 박원식, 김연진, 조대봉(趙大奉), 박원식, 김노한(金盧漢), 박종헌(朴鍾憲), 이동룡(李東龍), 김재한(金在翰), 조덕룡(曺德龍), 김치경(金致經)

후보 : 이진비, 김진요(金鎭堯)

검사위원 : 이성래(李成來), 김은동(金殷東), 원준성(元俊成), 이승재(李昇載), 이환규(李桓珪)

| 위 원 회 |

별항과 같이 신간회 홍성지회 대회가 끝난 후 동일 하오 9시에 집행위원회를 윤대영씨 사회로 동회관 안에서 개최하고 부서 분담과 상무집행위원 선거와 지회규약 작성위원 등을 선거하였다더라.

| 부서 분담 |

서기장 : 정동량　　회계 : 임재범　　교육부장 : 조기형

조직선전부장 : 박원식　조사부장 : 김재한

각 부원 : 이범수, 이동룡, 박종헌, 김구한, 조대봉, 한보국, 조덕룡

상무집행위원 : 조기형, 김연진, 한보국, 정동량, 박재범, 김재한, 박원식

규약작성위원 : 정동량, 박재범, 조기형, 김재한, 박원식

이후 1931년 5월 15일 신간회 해소문제를 둘러싸고 전국대회가 소집되자 홍성지회는 5월 9일 상무집행위원회를 열고 "이론상으로는 타당하나 시기상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신간회 해소 반대를 결의하였다. 이러한 홍성지회의 결정은 중앙본부의 우경화에는 반대하지만 현실적 대안 없는 신간회 해체는 반대한다는 것으로, 홍성지역 사회운동의 좌우 합작적 특성을 잘 대변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 4 | 홍성지역의 농민운동

1910년대 농민운동은 일제의 조선토지조사사업 실시에 대한 반대투쟁이 주를 이루었다. 일제가 토지조사사업을 통해 국유지를 창출하여 조선총독부 소유지로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식민수탈을 감행하고자 하였기 때문이었다. 특히 더 많은 국유지를 창출하기 위해 일제는 역둔토와 국유 미간지 등에 발생한 한국농민의 사적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역둔토 등 국유지에 발생한 사적 소유권을 둘러싼 소유권 분쟁이 전국적인 현상으로 일반화하였다.

또한 〈표 1〉과 같이 농촌의 계급구성도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었다. 즉 자작농층을 비롯하여 자작과 소작을 겸영하는 자소작농층이 계급적으로 몰락하고 소작농층이 증대하였다. 이 결과 한국농촌의 계급구성은

지주 대(對) 소작농을 중심으로 자소작농을 포함하는 빈농층으로 양극화하고 있었다.

표 1 | 1910년대 농촌의 계급구성 (단위: %)

연도	지주	자작농	자소작농	소작농	빈농층비중 (자소작 + 소작농)
1913	3.1	22.8	41.7	32.4	74.1
1915	3.1	21.7	40.9	35.9	76.8
1918	3.1	19.7	39.4	37.8	7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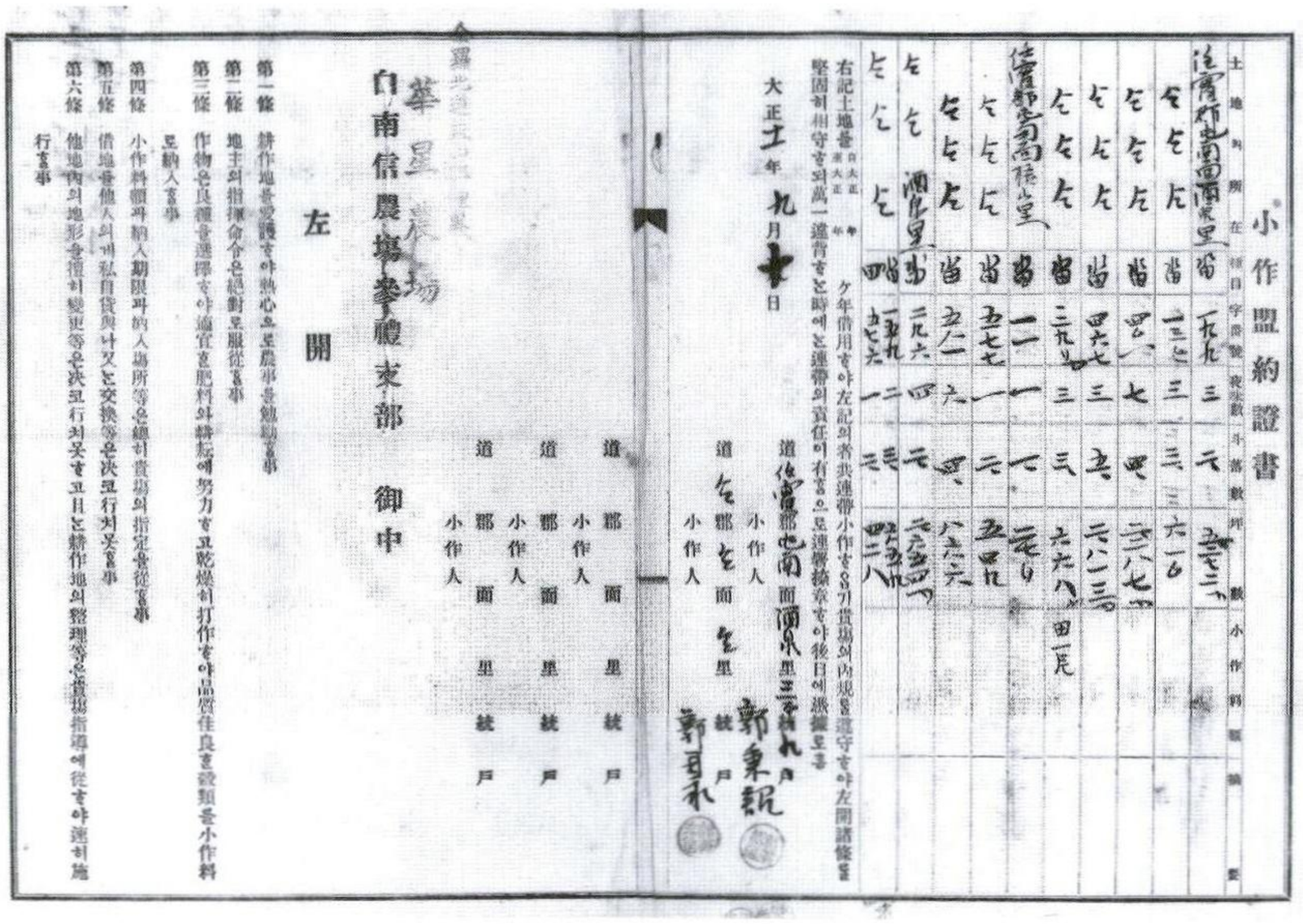
비고 | 1. 지주는 농지 전부를 소작 주는 '지주 갑', 농지 대부분을 소작 주고 일부를 자작하는 '지주 을'을 포함한 수치

출전 | 조선총독부, 『조선의 소작관행』하권, 1932, 74-75쪽 및 『조선총독부통계연보』각 년도에서 작성

이와 같이 한국농촌의 계급구성이 지주 대 빈농층으로 양극화하여 농민계층의 계급적 동요가 가시화되자 일제는 국유지 소작농민들을 중심으로 어용단체로 '국유지 소작인조합'을 조직하여 갔다. 이를 통해 농민대중의 동요를 방지하고, 농사개량이라는 이름 아래 농사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강화하여 안정적으로 식민지 미곡 수탈을 감행하기 위해서였다.

충남지역에서도 토지조사사업 과정에서 토지소유권 분쟁이 있었다. 충남 서천군에 소재하던 육상궁(毓祥宮) 장토와 기로둔전(耆老屯田)에서 토지소유권 분쟁이 발생하였고, 또 대전에 소재하던 능원묘위토(陵園墓位土)에서 토지소유권 분쟁이 일어났다. 이밖에도 보령에서는 목장토(牧場土)를 둘러싼 토지소유권 분쟁이 발생하였으며, 제언(堤堰)과 보를 둘러싼 토지소유권 분쟁도 충남지역에서 일어났다.

또한 일제가 국유지 소작농민들을 통제하기 위해 어용단체로 '국유지 소작인조합'을 조직해 가면서 충남지역에서도 국유지 소작인조합이 결성이 추진되었다. 당시 매일신보 1913년 3월 13일자에 의하면, "충청남도에서 본년에 신설할 국유지 소작인조합의 예정지는 목하 조사 중인데 기설(旣設) 조합의 관계 및 국유지 집단의 상황 등을 참작하여 연산,


小作盟約證書
土地所在 字番號 地目 段歩 斗落數 小作料額 小作人
注意事項
一 小作料ハ米穀ヲ以テ納入スルコト
二 小作料ハ毎年十一月末日迄ニ納入スルコト
三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納入スルコト
四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五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六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七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八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九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十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十一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十二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十三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十四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十五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十六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十七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十八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十九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二十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二十一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二十二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二十三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二十四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二十五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二十六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二十七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二十八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二十九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三十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三十一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三十二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三十三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三十四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三十五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三十六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三十七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三十八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三十九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四十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四十一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四十二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四十三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四十四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四十五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四十六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四十七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四十八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四十九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五十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五十一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五十二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五十三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五十四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五十五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五十六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五十七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五十八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五十九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六十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六十一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六十二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六十三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六十四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六十五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六十六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六十七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六十八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六十九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七十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七十一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七十二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七十三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七十四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七十五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七十六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七十七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七十八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七十九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八十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八十一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八十二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八十三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八十四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八十五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八十六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八十七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八十八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八十九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九十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九十一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九十二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九十三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九十四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九十五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九十六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九十七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九十八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九十九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百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百一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百二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百三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百四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百五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百六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百七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百八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百九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百十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百十一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百十二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百十三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百十四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百十五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百十六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百十七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百十八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百十九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百二十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百二十一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百二十二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百二十三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百二十四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百二十五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百二十六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百二十七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百二十八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百二十九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百三十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百三十一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百三十二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百三十三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百三十四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百三十五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百三十六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百三十七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百三十八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百三十九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百四十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百四十一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百四十二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百四十三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百四十四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百四十五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百四十六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百四十七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百四十八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百四十九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百五十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百五十一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百五十二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百五十三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百五十四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百五十五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百五十六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百五十七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百五十八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百五十九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百六十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百六十一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百六十二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百六十三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百六十四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百六十五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百六十六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百六十七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百六十八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百六十九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百七十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百七十一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百七十二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百七十三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百七十四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百七十五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百七十六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百七十七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百七十八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百七十九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百八十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百八十一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百八十二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百八十三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百八十四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百八十五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百八十六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百八十七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百八十八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百八十九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百九十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百九十一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百九十二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百九十三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百九十四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百九十五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百九十六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百九十七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百九十八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百九十九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二百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二百一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二百二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二百三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二百四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二百五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二百六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二百七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二百八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二百九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二百十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二百十一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二百十二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二百十三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二百十四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二百十五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二百十六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二百十七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二百十八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二百十九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二百二十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二百二十一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二百二十二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二百二十三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二百二十四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二百二十五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二百二十六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二百二十七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二百二十八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二百二十九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二百三十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二百三十一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二百三十二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二百三十三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二百三十四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二百三十五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二百三十六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二百三十七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二百三十八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二百三十九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二百四十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二百四十一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二百四十二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二百四十三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二百四十四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二百四十五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二百四十六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二百四十七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二百四十八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二百四十九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二百五十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二百五十一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二百五十二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二百五十三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二百五十四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二百五十五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二百五十六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二百五十七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二百五十八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二百五十九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二百六十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二百六十一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二百六十二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二百六十三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二百六十四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二百六十五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二百六十六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二百六十七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二百六十八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二百六十九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二百七十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二百七十一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二百七十二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二百七十三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二百七十四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二百七十五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二百七十六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二百七十七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二百七十八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二百七十九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二百八十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二百八十一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二百八十二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二百八十三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二百八十四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二百八十五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二百八十六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二百八十七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二百八十八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二百八十九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二百九十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二百九十一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二百九十二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二百九十三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二百九十四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二百九十五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二百九十六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二百九十七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二百九十八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二百九十九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三百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三百一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三百二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三百三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三百四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三百五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三百六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三百七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三百八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三百九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三百十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三百十一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三百十二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三百十三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三百十四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三百十五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三百十六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三百十七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三百十八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三百十九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三百二十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三百二十一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三百二十二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三百二十三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三百二十四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三百二十五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三百二十六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三百二十七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三百二十八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三百二十九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三百三十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三百三十一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三百三十二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三百三十三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三百三十四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三百三十五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三百三十六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三百三十七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三百三十八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三百三十九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三百四十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三百四十一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三百四十二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三百四十三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三百四十四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三百四十五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三百四十六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三百四十七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三百四十八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三百四十九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三百五十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三百五十一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三百五十二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三百五十三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三百五十四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三百五十五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三百五十六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三百五十七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三百五十八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三百五十九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三百六十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三百六十一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三百六十二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三百六十三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三百六十四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三百六十五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三百六十六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三百六十七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三百六十八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三百六十九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三百七十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三百七十一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三百七十二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三百七十三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三百七十四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三百七十五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三百七十六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三百七十七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三百七十八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三百七十九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三百八十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三百八十一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三百八十二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三百八十三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三百八十四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三百八十五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三百八十六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三百八十七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三百八十八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三百八十九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三百九十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三百九十一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三百九十二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三百九十三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三百九十四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三百九十五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三百九十六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三百九十七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三百九十八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三百九十九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四百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四百一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四百二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四百三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四百四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四百五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四百六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四百七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四百八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四百九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四百十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四百十一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四百十二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四百十三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四百十四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四百十五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四百十六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四百十七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四百十八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四百十九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四百二十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四百二十一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四百二十二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四百二十三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四百二十四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四百二十五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四百二十六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四百二十七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四百二十八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四百二十九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四百三十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四百三十一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四百三十二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四百三十三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四百三十四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四百三十五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四百三十六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四百三十七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四百三十八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四百三十九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四百四十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四百四十一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四百四十二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四百四十三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四百四十四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四百四十五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四百四十六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四百四十七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四百四十八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四百四十九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四百五十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四百五十一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四百五十二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四百五十三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四百五十四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四百五十五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四百五十六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四百五十七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四百五十八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四百五十九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四百六十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四百六十一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四百六十二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四百六十三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四百六十四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四百六十五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四百六十六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四百六十七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四百六十八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四百六十九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四百七十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四百七十一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四百七十二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四百七十三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四百七十四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四百七十五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四百七十六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四百七十七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四百七十八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四百七十九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四百八十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四百八十一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四百八十二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所ニ運搬スルコト
四百八十三 小作料ハ地主ノ指定スル場

조선식산은행이 관장한 자금은 그 산하 조선토지개량주식회사를 통하여 집행되었다.

농사개량사업은 제1차 산미증식계획에서는 그 자금을 지주와 자작농에게 의존하였다. 그러나 제2차 산미증식계획에서는 4,000만원의 예산을 따로 책정하여 실시하였다. 주로 조선농회를 중심으로 소위 '우량품종'의 보급, 화학비료 사용의 확대, 그리고 퇴비 등 자급비료의 장려를 강제하면서 추진되었다. 농사개량사업은 세계 대공황 이후 토지개량사업이 중지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되었는데, 그것은 이 사업이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닐 뿐 더러 그 시행효과가 컸기 때문이었다.

1920년대 일제는 산미증식계획에 의한 생산량의 증대를 빙자하여 미곡의 본격적인 수탈에 나섰다. 이는 산미증식계획의 목적이 한국 미곡의 수탈에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다. 산미증식계획 기간에 토지개량과 농사개량으로 미곡의 단위당 수확량과 연평균 생산량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다.

표 2 | 1920년대 미곡 생산량과 대일 반출량 및 일인당 미곡 소비량

연도	미곡생산량		대일반출량			연평균 일인당 미곡 소비량(석)
	연평균 생산량 (천석)	증가 지수(%)	연평균 반출량 (천석)	반출 비중(%)	증가 지수(%)	
1910~1914	11,820	100	842	7	100	0.7
1920~1924	14,523	123	3,474	24	413	0.6
1925~1929	14,917	126	5,954	40	707	0.5

출전 | 조선총독부 농림국,『조선미곡요람』, 1937에서 작성

〈표 2〉와 같이 연평균 미곡생산량은 1910~1914년 평균 11,820천석에서 1920~1924년 평균 14,523천석으로 123% 정도, 그리고 1925~1929년 평균 14,917천석으로 126% 정도 증가하였다. 이에 비하여 미곡의 대일 반출량은 1910~1914년 평균 842천석에서 1920~1924년 평균 3,474천석으로 413% 증가, 그리고 1925~1929년

평균 5,954천석으로 무려 707% 정도 급증하였다. 즉 수확량은 산술적으로 증가한 반면에 반출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것이다.

더구나 연평균 미곡생산량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의 1인당 미곡 소비량은 1910~1914년 평균 0.7석에서 1920~1924년 평균 0.6석으로, 그리고 1925~1929년 평균 0.5석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분명 한국 농민의 식량을 약탈하여 일본인들의 배를 채우는 제국주의 식량수탈정책의 표본이었고, 또한 일본의 선진 공업화를 위한 저미가 정책의 희생양이 한국 농민이라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1920년대 산미증식계획의 일환으로 시행된 토지개량사업은 대지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수리조합 설치비용을 중소지주, 자작농, 자소작농, 심지어 소작농민들에게까지 전가함으로써 이들의 경제적 몰락을 촉진시켰다. 따라서 1920년대 농민층은 아래 〈표 3〉와 같이 자작농 → 자소작농 → 소작농·화전민으로 하층분해되어 갔다.

표 3 | 1920년대 농촌의 계급구성 (단위: %)

연 도	지주	자작농	자소작농	소작농	빈농층비중 (자소작 + 소작농 + 화전농)
1920	3.5	19.5	37.4	39.8	77.2
1921	3.6	19.6	36.6	40.2	76.8
1922	3.6	19.7	35.9	40.8	76.8
1923	3.7	19.5	35.2	41.6	76.8
1924	3.8	19.4	34.6	42.2	76.8
1925	3.7	19.9	33.2	43.2	76.4
1926	3.8	19.1	32.4	43.3(1.3)	77.0
1927	3.8	18.7	32.7	43.8(1.0)	77.5
1928	3.7	18.3	31.9	44.9(1.2)	78.0
1929	3.8	18.0	31.4	45.6(1.2)	78.2
1930	3.6	17.6	31.0	46.5(1.3)	78.8

비고 | 1. 지주는 농지 전부를 소작 주는 '지주 갑', 농지 대부분을 소작 주고 일부를 자작하는 '지주 을'을 포함한 수치
2. ( ) 안은 화전민

출전 | 조선총독부, 『조선의 소작관행』 하권, 1932, 74-75쪽 및 『조선총독부통계연보』 각 년도에서 작성

소작농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든 것은 지주의 고율소작료 부과와 마름의 횡포였다. 소작인은 지주의 지시에 따라 소작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소작계약서에는 소작료의 납입 방법과 기준, 계약기간 설정 등이 명시되어 있다. 이 기준에 의하면 소작인이 부담해야 할 소작료는 지대(地代)와 토지개량비, 영농에 필요한 자재비, 공과금을 포함한 것이다. 그밖에도 소작인들은 소작료 운반비와 종자대, 수리조합비, 비료대까지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따라서 소작인들은 수리조합 구역 내에서는 수확량의 7~8할까지도 소작료로 지불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마름은 지주를 대신한 소작지 관리인으로 농민들에게는 절대적인 존재였다. 이들은 소작계약을 남용하여 소작인들의 경작권을 위협했고, 소작료를 증액하며, 소작인들의 선물증여 등 물품공세 여부에 따라 소작권을 이동하는 등 각종 폐해를 자행하였다. 그 외에도 소작인에게서 받는 소작료와 지주에게 납부하는 소작료 사이의 차액을 가로채고, 추수 종사원들의 접대비를 소작인에게 전가시키며, 소작인에게 금전이나 곡물을 고리대로 빌려주거나 물자를 고가로 팔아 폭리를 취하는 등 횡포는 끝이 없었다. 따라서 1920년대 농촌은 산미증식계획에 따른 수리조합 건설비의 부담과 고율 소작료 등으로 농민층은 경제적으로 몰락하여 갔고, 거기에 더한 마름의 횡포로 인해 소작농민의 궁핍화는 만연되어 절량(絕糧) 농가가 속출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홍성지역도 마찬가지였다. 〈표 4〉와 같이 홍성지역의 농가구성의 변화추이도 농민층의 하층 분해현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 즉, 자작농은 1913년 15.5%에서 1929년 10.6%로 5퍼센트 가까이 감소하고 있었고, 자소작농은 53.2%에서 39.4%로 13% 이상 크게 하락하고 있었다. 그 대신 소작농은 30.63%에서 46.67%로 16% 이상 증가하였다. 이는 자작농은 자소작농으로, 자소작농은 소작농으로 하층 분해되어 가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표 4 | 홍성군의 계층별 농가구성과 변화 추이

구 분		홍성군				충청남도				전 국			
		1913	1921	1929	1931	1913	1921	1929	1931	1913	1921	1929	1931
지주	호			373	381		4,783	4,912	4,963	80,608	97,105	104,496	104,704
	%			3.23	3.25		2.58	2.69	2.68	3.13	3.58	3.71	3.64
자작농	호	1,316	1,624	1,235	1,222	23,596	15,009	15,418	15,332	586,471	533,188	507,384	488,579
	%	15.56	15.48	10.68	10.45	13.05	8.08	8.44	8.28	22.79	19.62	18.02	16.95
자소작농	호	4,505	5,005	4,559	4,541	80,313	65,414	57,943	57,154	833,771	994,976	885,594	853,770
	%	53.27	47.72	39.42	38.82	44.44	35.23	31.73	30.86	32.41	36.62	31.46	29.63
소작농	호	2,590	3,859	5,398	5,563	75,108	100,483	104,252	107,722	1,072,194	1,091,680	1,283,471	1,393,424
	%	30.63	36.80	46.67	47.48	41.56	54.11	57.08	58.17	41.67	40.18	45.59	48.35
화전민	호							101	24			34,332	41,212
	%							0.06	0.01			1.22	1.43
계	호	8,457	10,488	11,565	11,696	180,738	185,689	182,626	185,195	2,573,044	2,716,949	2,815,277	2,881,689
	%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출전 | 조선총독부, 『충청남도 통계연보』, 1915, 128쪽.
조선총독부, 『조선총독부 통계연보』, 1931, 88-89쪽.
조선총독부, 『조선의 소작관행』 하권, 1932, 74-75쪽.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대목은 홍성지역의 농촌사회도 일제의 농업수탈로 인해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농민대중의 하층 분해 현상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었지만, 충남지역의 평균에 비해 자작농의 규모가 약 2.5%에서 7.4% 정도 높았고, 자소작농의 규모도 약 7.6%에서 12.4% 정도 높았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홍성지역은 충남의 다른 지역에 비해 중소규모 토지소유자인 자작농과 자소작농이 전체 농가의 68.8%에서 49.2%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홍성지역이 비교적 안정적인 농가구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지만, 계급변동의 폭은 오히려 다른 지역보다도 컸다. 즉 자작농은 1921년 15.4%에서 1929년 10.6%로 4.8% 하락하였고, 또 자소작농은 47.7%에서 39.4%로 8.3% 하락하였다. 이에 반해 같은 시기 소작농은 36.8%에서 46.6%로 9.8% 증가현상을 보인다. 이런 변화양상은 같은 시기 다른 지역에서 나타나는 계급변동에 비

해 매우 급격한 하층 분해 현상인 것이다. 결국 이 같이 급격한 계급변동이 1920년대 홍성지역 독립운동을 활성화하며 계급적 연대의 가능성을 증폭시켜 주고, 나아가 그 성격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된다.

이 같은 계급변동은 필연적인 계급동요를 가져왔고, 그 변동의 원인이 일제의 식민지 농업정책과 그 앞잡이인 식민지 지주계급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따라서 충남지역의 농민운동도 일제강점기 농민운동의 일반적 양상처럼, 일제에 대한 민족투쟁과 식민지 지주에 대한 계급투쟁의 성격을 띠고 전개될 수밖에 없었다.

처음 농민조직도 없는 상태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전개되던 충남의 농민운동은 점차 민족적, 계급적 각성을 토대로 농민단체를 만들어 조직적인 항쟁으로 펼쳐졌다. 충남지역 농민운동의 첫 봉화는 예산 오가면에서 타올랐다. 이는 임야 대부권을 둘러싼 분쟁이었다. 총독부에서 일본의 식민농업회사인 해외척식주식회사에 예산군 오가면의 임야를 대부해 주었는데, 여기에는 개인의 묘지를 비롯하여 나라에 공을 세워 국왕으로 하사 받은 토지로 사유지인 사패지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를 둘러싸고 일본의 해외척식주식회사와 오가면민의 분쟁이 발생한 것이다. 예산군 오가면 임야 대부문제는 무리한 식민지 농업정책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었다. 예컨대 사적 소유권이 유지되어 온 사패지인 임야 일부를 산림령에 의해 국유 임야로 사정하여 총독부 재산화하고, 나아가 국유지 창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사유 임야 일부를 미간지로 사정하여 국유화 즉 총독부 재산화한 뒤 일본의 식민농업회사에 대부한 사례가 그것이다. 뿐만 아니라 오가면은 아니지만, 일제의 수탈 기반 마련을 위한 사유 토지의 무리한 국유화 정책과 토지 불하, 즉 대부 문제는 경상남도의 간석지에서도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빙산의 일각이었고, 사실 이러한 사례는 전국에서 흔히 발생하고 있던 일들이었다.

대개 이런 일들의 결말은 현지 한국농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총독부

와 일본 식민농업회사의 이해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매듭지어졌다. 오가면민의 항쟁도 마찬가지였다. 예산군 오가면민들은 충남 도지사 김관현을 찾아가 항의하고, 여러 차례 총독부 당국에 탄원도 하고 진정도 하고, 나아가 요구의 관철을 위해 상경하여 총독부 정문 앞에서 연좌농성하며 대성통곡도 하였지만,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하지만, 예산군 오가면 면민들은 쟁의 과정에서 운동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1923년 8월 12일 예산공립보통학교에서 면민대회를 열고, 운동조직을 결성하는 성과를 냈다. 즉 오가면 면민들의 운동 역량을 조직한 뒤, 요구가 관철되지 않자 면민들은 면장 임명호(任明鎬)를 자갈밭으로 끌고 다니며 얼굴에 똥칠하는 등 과격한 행동으로 일제와 그의 주구인 면장에 대해 분풀이를 하였다. 더욱이 이들의 행동은 임야 대부 사건만이 아니라 여기에 수리조합을 설치하여 농장을 만들어 식민수탈을 심화하려는 데 대한 응징이자 분노의 폭발이었다. 이는 예산군 오가면을 비롯한 충남지방에도 일제의 산미증식계획을 통한 식민지 미곡수탈의 촉수가 미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충남지역의 농민항쟁은 예산만이 아니었다. 충남 금산에서는 1923년 10월 추수기에 마름의 횡포로 농민항쟁이 일어났다. 조선일보 1923년 10월 30일자에 따르면 금산의 소작인들이 "예전보다 매석에 6두를 가봉, 지주가 시켰는지 마름의 소위인지 소작인들은 살 수 없다고 떠드는 중"이라고 기사를 실었다. 즉, 예년보다 마름이 매석에 6두씩을 소작료로 더 받아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이는 일제강점기 흔히 보이는 마름의 횡포로 인해 쟁의가 일어난 것이다.

마름의 횡포로 인해 쟁의가 발생한 곳은 금산만이 아니었다. 1924년 3월 예산 옥계리에서도 마름의 무리한 소작권 이동으로 인행 쟁의가 일어났다. 마름의 횡포와 식민지 지주제에 의한 가혹한 수탈로 생활상의 위기에 처한 소작농민들은 자신들의 힘을 모아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주체적인 운동조직으로 소작조합을 결성하는 것이 1920년대 들어와 나타

나는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충남에서도 1920년대 소작농민들의 주체적인 권익단체인 소작조합이 출현하였다. 자료상으로 나타나는 충남지역의 첫 소작인 단체는 1924년 3월 조직된 당진소작조합이다. 1924년 3월 27일 면천 영화학원에서 500여 명의 소작농민들이 모여 당진소작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한 뒤, 소작인 권익에 대한 결의사항을 결정하였다. 특이한 점은 소작권의 영구 보장을 요구한 일이다. 소작권 이동을 반대하는 조항은 소작조합의 일반적인 결의사항으로 들어가 있지만, 소작권의 영구 보장을 요구하는 일은 흔치 않았다. 이로 보아 당진소작조합의 결의사항은 매우 진보적이며 선도적인 내용이었다고 하겠다. 더욱이 당진소작조합은 지주와 마름의 반격이 예견되자 중앙의 전국적인 농민운동 단체로 1924년 4월 결성된 조선노동총동맹과 연계하여 투쟁역량을 강화하였는데, 이는 매우 현명한 조치로 보인다.

나아가 서울에 거주하며 당진군 신평면에 소유한 농지를 소작제로 경영하던 지주 김영시(金永始)를 상대로 투쟁을 벌였다. 김영시 지주의 소작료 인상과 이를 위한 소작권 이동에 반대하여 소작농민들은 당진소작조합의 지원을 받아 법정 소송까지 불사하는 쟁의 끝에 지주의 무리한 요구를 수포로 돌아가게 만들었다. 또한 1920년대 산미증식계획의 일환으로 수리조합 설치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무리한 사업 시행과 수리구역 내 소작료 문제를 둘러싼 수리조합 반대투쟁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사례는 충남 당진에도 있었다. 충남 당진에는 충남지역 최초의 주체적 소작농민운동 조직으로 당진소작조합이 활동하고 있었다. 때문에 여기서 수리조합 반대투쟁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당진 신평면 오봉제 수리조합을 둘러싼 쟁의 상황은 동아일보 1924년 8월 28일자에 자세히 언급되어 있다.

여러 차례의 쟁의를 계기로 당진소작조합은 9월 10일 집행위원회를 열고, 기존의 결의사항을 더욱 보강하여 소작농민들의 권익을 강화하는 4개조의 새로운 결의사항을 발표하였다. 동아일보 1924년 9월 14일자

에 의하면, "충남 당진소작조합에서는 9월 10일 오후 1시에 운산리 의법(懿法)청년회관에서 집행위원회를 개(開)하고 좌기 사항을 결의하였다. 결의사항. 一. 한해(旱害) 피해로 수확이 3할에 불급하는 자는 소작료를 전감(全減)하고 기타는 피해 정도에 의하여 체감할 일, 一. 수확 예매를 방지할 일, 一. 악덕 지주, 악덕 마름 등은 차를 성토할 일, 一. 부정매매 악덕 행상을 방지할 일" 등이었다. 이처럼 당진소작조합은 결성 직후 여러 차례 쟁의를 지도 후원하면서 소작농민의 권익 보호와 생활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충남지역의 농민운동을 선도해 갔다.

이렇게 되자 당진소작조합에 대한 일제 식민통치 당국의 탄압이 시작되었다. 1925년 2월 일제의 말단 식민통치기관인 당진경찰서는 당진소작조합의 회합을 일체 불허하고, 나아가 당진소작조합의 집행위원을 호출하여 취조하였다. 동아일보 1925년 2월 6일자에 의하면, "당진경찰서에서는 돌연히 신합청년회 위원과 당진소작조합 위원 정형택(鄭亨澤)·정학원(鄭鶴源)·배기영(裵基英)·심종관(沈鍾觀)·조이환(曺利煥) 등을 지난 2일에 호출하여 1인씩 취조를 한 후 양 단체의 강령은 위험하니 전문을 삭제하는 동시에 어떠한 강령을 가진 단체집회도 위험하다 함으로 어떠한 명목하의 집회를 물론하고 금지한다 하였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일제는 소작조합이 운동역량을 갖기만 하면 탄압을 개시하여 일제의 식민지 지주제와 그를 기반으로 하는 식민수탈체제를 보호 유지하는데 혈안이 되었다.

식민수탈체제로 인한 농민대중의 불평과 불만, 그리고 궁핍한 생활은 당진만이 아니었다. 충남 연기에서도 지주들의 무리한 수탈로 인해 소작인들의 불평이 비등함은 물론 고율의 소작료로 때문에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어 추위에 떨고 떠돌아다니며 걸식하는 소작인들이 많다고 조선일보는 1925년 12월 16일자로 보도하고 있다. 이런 사정은 공주도 마찬가지였다. 시대일보 1926년 6월 8일자에 따르면, 소작료 과다로 인해 공주의 소작농민 30여 호가 파산 지경이라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소

작농민들의 삶을 궁핍하게 하고, 더 나아가 농촌을 떠나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은 고율의 소작료이지만, 이를 가능케 하는 무기는 소작권 이동이었다. 특히 소작권 이동은 지주의 소작지를 관리하는 마름들의 횡포가 주된 이유였다. 따라서 소작권 이동을 둘러싼 마름들의 횡포는 소작쟁의 주요한 요인이었는데, 그런 사례는 충남 예산에서도 발생하였다. 예산에서는 1926년 2월 마름이 지주의 사돈이라고 소작인들의 소작권을 함부로 박탈하여 소작쟁의가 일어났다. 조치원에서도 소작지 관리자인 마름의 장난질로 인한 소작료 문제로 1927는 11월 분쟁이 있었다. 이밖에도 조선일보 1929년 6월 14일자에 따르면, 천안군에서도 지주의 과도한 착취로 말미암아 소작인들의 원성이 하늘을 뚫었고, 이로 인해 분쟁의 조짐이 보인다고 하였다.

1920년대 일제가 미곡 수탈을 위한 산미증식계획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면서 토지개량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된 수리조합 설치 문제를 둘러싼 분쟁이 자주 발생하였다. 수리조합 반대 투쟁은 일제강점기 농민운동은 물론 민족해방운동 양상을 크게 변화 발전시켰다. 1920년대 전반기 소작쟁의를 중심으로 전개된 농민운동의 주체는 주로 소작농민과 자소작농민이 중심이었다. 하지만 1920년대 후반기 일제의 수리조합 설치 사업이 본격화하면서 농민운동의 주체에 변화를 가져왔다. 수리조합이 설치되면 수리구역 내의 농지 소유자는 수리조합 건설비와 수리조합세 즉 수세를 부담해야 했다. 반면에 수리구역 내의 대지주나 일제 식민농업회사는 관개 수리의 이점(利點)을 이유로 소작료를 인상하고, 더 나아가 수세를 소작농민들에게 전가하는 경우도 많았다. 때문에 과외(課外)의 부담을 떠안게 된 수리구역 내 소규모 토지소유자인 소지주와 자작농, 그리고 자소작농과 소작농민들의 불만과 반일의식이 고조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소지주와 자작농, 그리고 자소작농과 소작농민들이 자연스럽게 연대를 형성할 공감대가 조성되었고, 그 결과 소작농민 중심의 소작조합은 자작농민까지 참여하는 농민대중의 농민조합으로 확대 발전

하여 갔다. 이런 계급적 지평 위에서 1927년 민족통일전선체로 좌우합작 민족운동단체인 신간회가 결성됨으로써 농민운동뿐만 아니라 민족해방운동의 비약적 발전을 가져왔던 것이다.

충남지역에서도 이런 현상이 어김없이 나타나고 있다. 동아일보 1926년 10월 19일자에 따르면 공주에서 우성(牛城)수리조합 건설을 둘러싸고 수리조합 반대투쟁이 발생하여 지주들이 도당국에 진정하는 일이 생겼다. 공주의 우성수리조합 반대투쟁은 이듬해로 이어져 지주 100여 명과 함께 수리구역 내 소작인들까지 참여하여 군·도 당국에 진정하는 한편, 건설업자와 무력 충돌하는 등 공동투쟁의 양상으로 발전하기도 하였다. 또한 충남 목천에서도 1927년 9월 목천수리조합 설치를 둘러싸고 주민들의 반대운동이 일어났다.

이밖에도 1920년대 대전, 공주, 논산 등지에서도 농민단체를 건설하여 다양한 농민운동을 전개하였다. 대전지역에서는 1925년 10월 대전노농회를 결성하여 농민운동을 지도하였고, 이후 중앙의 노농운동의 분화 발전에 따라 1927년 10월 대전노농회를 대전농민조합과 대전노동조합으로 분리하였다. 이 가운데 대전농민조합은 기성면·유천면·유성면·진금면 등 소작농민운동이 활발하던 곳을 중심으로 지부를 설치하였다. 그럼으로써 1929년 현재 700여 명의 회원을 보유한 농민단체로 성장하였고, 이런 조직 기반을 토대로 대전노동조합과 연대하여 농민운동을 지도하여 갔다.

공주에서는 1926년 1월 공주군내 각 면의 중심적인 활동가들이 노농운동의 발전을 위해 노농협성회 조직을 시도하였다. 그리하여 일경의 계속된 방해에도 불구하고 1927년 초 마침내 공주노농협성회를 결성하는데 성공하였다. 이후 공주군내 주외·화은·계룡·장기·우성면 등지에 노농협성회 지부를 설치하고, 이를 기반으로 농민운동을 폈다. 야학을 개설하여 농민의 의식을 계발하고, 소작조건 개선 투쟁을 전개한 것이다.

논산에서도 1927년 1월 상월면 대명리 농민야학 회관에서 노성농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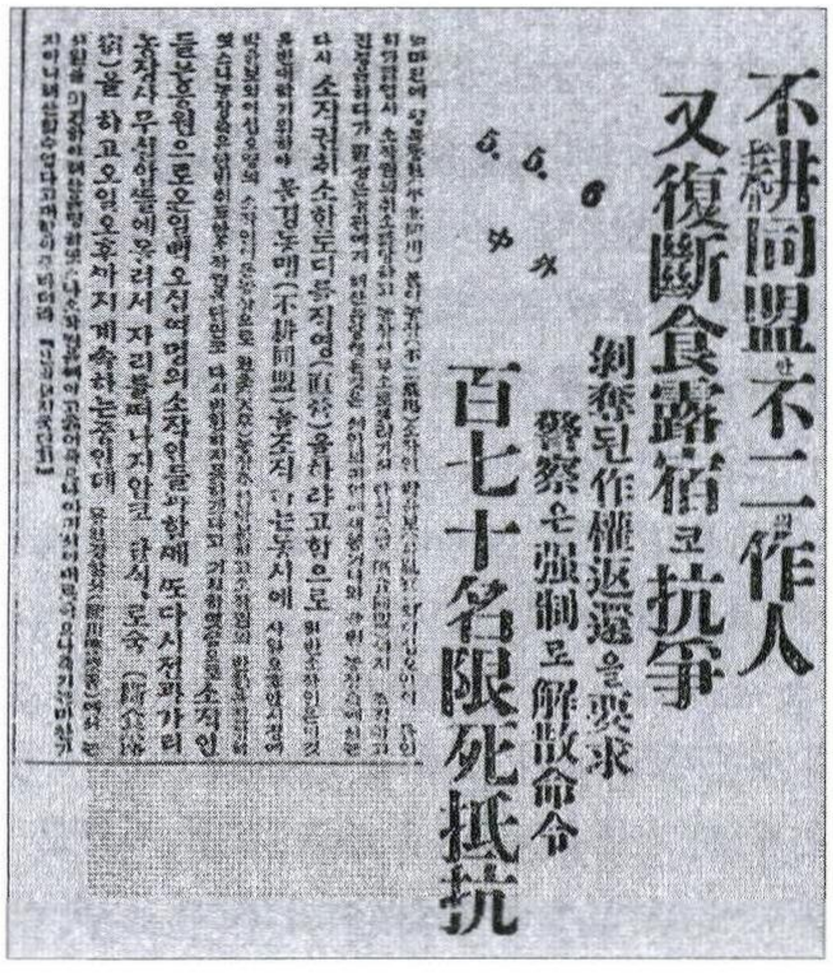

不耕同盟 不二作人
又復斷食露宿코 抗爭
小作權返還을 要求
警察은强制로 解散命令
百七十名限死抵抗

사진 16 | 용천 소작쟁의 기사
(중외일보 1930년 5월 6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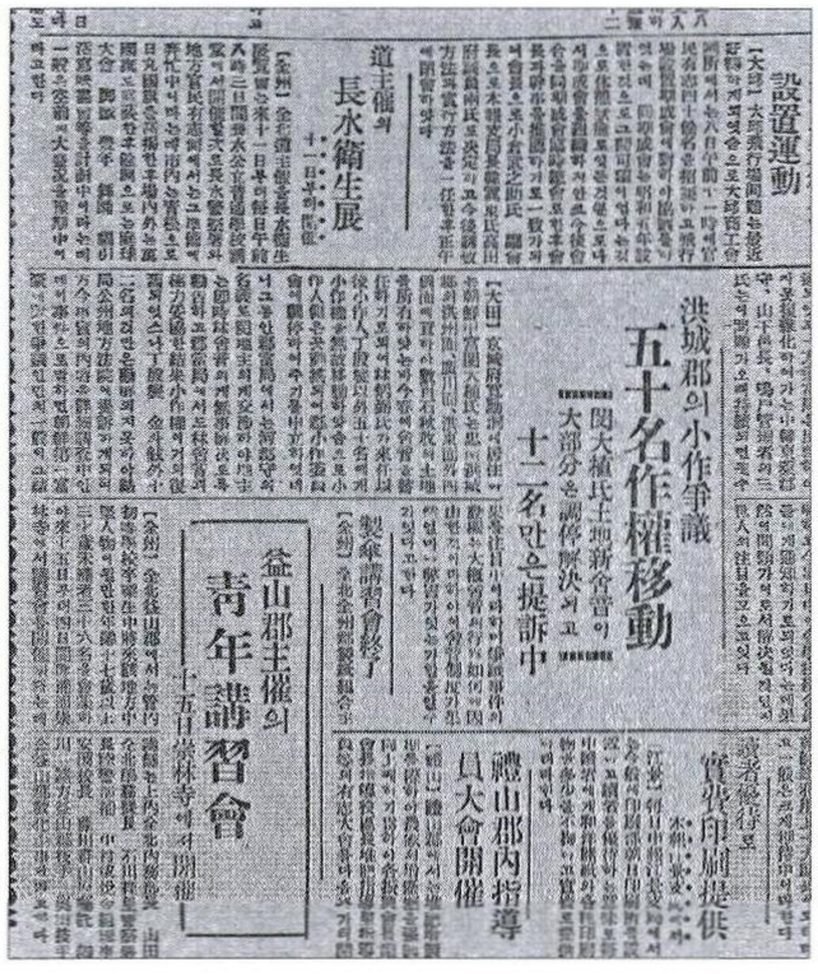

洪城郡의 小作爭議
五十名作權移動
十二名만은提訴中
益山郡主催의
青年講習會
十五日崇林寺에서開催
體山郡內指導
員大會開催
實費印刷提供

사진 17 | 홍성 소작쟁의 기사
(매일신보 1933년 8월 10일자)

조합의 결성이 이루어졌다. 이후 노성농민조합은 대명농민조합으로 이름을 바꾼 뒤, 중앙의 조선농민총동맹에도 가입하여 연계투쟁을 모색하였다. 이밖에 논산군 채운면과 성동면에도 면단위 농민회가 조직되어 활동한 사례가 보인다.

1920년대 홍성의 소작쟁의와 수리조합 반대운동 등 농민운동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1927년 홍성지역에서 활동하던 사상단체 무공회는 노동조합을 조직하면서 소작조합도 함께 결성하려고 하였다. 그것은 동아일보 1927년 3월 17일자 보도기사, "충남 홍성 무공회에서는 내월(4월) 18일 오전 11시부터 동 회관에서 전홍성소작인간친회를 개할 터이라더라"고 하는 사실에서도 잘 드러난다. 이와 같이 무공회는 농민단체로서 소작인조합을 조직하기 위하여 소작인간친회를 개최하고, 수만 매의 선전문을 살포하는 동시에 군내 각 시장을 순회하며 농민대중의 결속을 추진하였다. 그리하여 소작인조합을 결성하려던 당시 창립총회장 주변에는 수백 명의 소작인들이 모여들었다. 하지만 소작권 이동에 대한 공포와 경찰의 위협으로 입장하지 못하고 관망함으로써 소작인조합의

설립은 유산되고 말았던 것이다. 이는 본질적으로 홍성지역의 소작농비율이 충남의 여타 지역은 물론 전국보다 낮아 지주·소작관계의 모순이 심화되지 않았던 이유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1930년 초반의 농업공황은 일제의 식민지 농업정책을 크게 변화시켰다. 산미증식계획은 1930년대 전반기에 사실상 중단되고, 이른바 '농촌진흥운동'이라는 식민지 농업정책이 시행된 것이다. 아울러 1930년대 전반기에는 1928년 코민테른 「12월 테제」를 계기로 농민운동에 큰 영향을 주던 사회주의의 운동 노선이 바뀌었고, 경제공황의 타개책으로 1931년 9월 일제가 만주침략을 도발하면서 식민지 정책 또한 변경되어 객관적 조건이 변화하였다. 특히 1930년대 전반 일제의 농촌진흥운동의 실시와 '조선농지령(1934)'의 시행은 식민통치 체제 내로 한국 농민을 끌어들이기 위한 유화책으로 이해된다. 특히 '고리대 정리사업'과 '자작농 창정사업'의 시행에 따라 농민조합을 같이 하던 일부 자작농 상층과 자소작농 일부가 이탈하여 갔고, 그로 인해 농민조합의 빈농적(貧農的) 요소가 강화되고 있었다.

이와 함께 코민테른 「12월 테제」 이후 사회주의자들은 밑으로부터 노동자·농민을 조직하여 조선공산당을 재건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노동조합과 농민조합에 뛰어 들게 된다. 반면에 이 시기 동아일보를 중심으로 전개된 브나로드 운동과 조선일보를 중심으로 전개된 문자보급운동, 그리고 YMCA·YWCA·조선농민사·학생층 등의 농촌계몽운동도 전개되었다. 이러한 농촌계몽운동을 농민대중의 주체적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농민운동에서 배제하기도 한다. 그러나 달



사진 18 | 조선일보사 문자보급운동


第一回 學生夏期브나로드運動

男女學生總動員·休暇를奉仕的으로

第一學生啓蒙隊
【中學四、五年生에限함】

種目
(一) 朝鮮文講習 (期間一週以上)
(二) 數字講習 (同上)
1. 敎授 敎材와 台本等은 本社에서 印刷提供함
2. 處所 講習地는 各自의 鄕里나 隣近으로함
3. 講師 一處에 二人以上이 協力敎授하도 無妨함
4. 施賞 成績을 考査하야 優等한 講習會에 表함
5. 通信 講習會消息은 隨時 本紙에揭載함

第二學生講演隊
【專門學校學生에限함】

種目
(一) 衛生講演 (民族保健、公衆衛生에關한것)
(二) 學術講演 (自然科學及社會科에關한것)
1. 衛生 講演에 幻燈이나活動寫眞等도無妨
2. 學術 講演에 音樂이나 無妨
3. 處所 講演地는 各自의 鄕里나 隣近에 限定함
4. 演士 一處에 二人以上이 協同함도 無妨함
5. 援助 本社支局所在地면 支局에서 斡旋함

第三學生記者隊
【專門及中學上級生에限】

種目
(一) 紀行、日記 (登山、旅行、探險等에關한것)
(二) 滌暑風景 (避暑地、水浴場、鄕村의風景等)
(三) 故鄕通信 (夏期의年中行事、其他特異한消息)
(四) 生活體驗 (休暇를利用한生活의體驗記)
例하면 勞働、牧畜、行商等
1. 原稿 優秀한記事는 紙上에發表하고 實費를本社에서 弁償함
2. 寫眞 特殊한寫眞에는그實費를本社에서 弁償함
3. 費用 目的地의如何를不拘하고 一切費用은自辨

隊員募集規程

一. 隊員되기를 希望하는분은 別紙에 左記各項을 記載하야 東亞日報社 『夏期學生係』로 보낼일
A 在籍校名、學年、姓名、生年月日。
B 本籍地、現住所、目的地。
C 志望하는 隊別及그隊의種目別。
二. 應募期限은 七月二十五日까지로함
三. 採擇者에게는 別別로 注意事項을 通知함

사진 19 | 동아일보사 브나로드운동

리 생각한다면 농촌계몽운동은 당시의 역사적 조건 속에서 미약하나마 민족적 과제를 안고 살아가던 민족주의 좌파의 한 모습일 수도 있다는 점을 놓쳐선 안 되겠다. 모든 운동은 의의와 한계를 동시에 지닌다는 입장에서서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농민운동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여 혁명적 농민조합운동, 이른바 '적색 농민조합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혁명적 농민조합운동은 농민의 경제적 이익을 옹호하는 운동뿐만 아니라 사회주의자들의 혁명적 지도 아래 토지혁명을 비롯한 민족혁명의 주요 과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다. 이 운동은 1930년에 접어들면서 강화된 일제의 파쇼적 탄압에 대응한 폭력 혁명적인 농민운동으로서, 혁

명적 노동조합운동과 마찬가지로 사회주의자들의 조선공산당 재건운동과 깊은 관계를 갖고 진행되었다. 사회주의운동가들은 혁명적 농민조합운동을 매개로 선진적인 농민대중을 조직하고 빈농 출신의 활동가를 양성하면서 조선공산당 재건운동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1930년대 혁명적 농민조합운동의 투쟁양상은 1920년대 농민운동 양상과 큰 차이를 보인다. 1920년대의 농민운동이 소작료 인하와 소작권 이동 반대 등 주로 경제권익 투쟁 중심이었는데 비해, 혁명적 농민조합운동은 소작료 및 각종 공과금을 불납하거나 고리대를 상환하지 않는 등 식민지 수탈 경제체제에 도전하였다. 나아가 면사무소·군청·경찰서 등 말단 통치기관과 수리조합·삼림조합·농장사무소 등 수탈기관을 습격 파괴하거나, 각종 '기념일투쟁'·'구속 동지 탈환투쟁' 등 폭력적이며 혁명적인 투쟁을 펼쳤다.

충남지역의 1930년대 이후 농민운동의 양상은 크게 두 흐름으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악덕 지주와 마름에 대한 투쟁과 수리조합 설치 반대운동 등 1920년대 농민운동의 전통을 지속하는 흐름이 있고, 다른 하나는 1930년대 들어와 새롭게 전개되는 혁명적 농민조합운동의 흐름에 보조를 같이하는 것이다.

우선 1920년대 농민운동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 것은 1930년 3월 발생한 예산·당진지역 1만여 정보에 설치되는 예당수리조합 건설문제를 둘러싼 분쟁, 그리고 1931년 1월 아산군 송악수리조합 설치 반대운동, 같은 달 전개된 서산군 해미수리조합 건설 반대운동 등이 1930년대 벽두부터 터져 나왔다. 나아가 1931년 2월에는 아산군 도고수리조합에서 수리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소지주 농민들에게도 조합비와 수세를 징수하려고 하여 분쟁이 일어났다. 이런 문제는 비단 도고수리조합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비일비재한 일이라는 것인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1929년 경제대공황에 따른 농업공황으로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자 일본인 식민농업회사와 대지주를 비롯한 식민지 지

주들이 줄어든 농업경영 수익의 보전을 위해 소작료를 인상하고, 수세와 조합비는 물론 비료대·종자대 등 각종 부담을 소작농민들에게 떠넘겼기 때문이다.

이런 사정은 부여군에서도 발생하였다. 1931년 2월 부여군에 소재한 일본인 우근(右近)농장에서는 수리조합 구역이라는 이유로 도조(소작료)를 5할씩이나 올리고, 여기에 불응하면 소작권을 강제 해제하였으며, 더 나아가 정해진 소작료만 가져왔다고 소작인들을 구타하는 횡포를 일삼았다. 또 1931년 3월에는 서천군에 소재한 일본인 길산(吉山) 농장에서도 소작료 인상을 획책하다가 이에 반항하는 소작인들의 소작권을 강제로 박탈하기도 하였다. 마름의 횡포도 여전하여 서천군에서는 1931년 4월 마름이 이중 삼중으로 소작료를 가혹하게 징수하고, 이에 저항하는 소작인들의 소작권까지 함부로 이동하여 분쟁이 일어났다.

이렇게 일본인 식민농업회사와 대지주의 수탈이 강화되자 소작농민들의 투쟁 또한 격화되어 갔다. 혁명적 농민조합의 결성들 시도하거나 인근지역 소작농민들과 연대하여 투쟁을 강화하는 것이다. 예컨대 부여군에서는 1931년 6월 부여농민조합 창립대회를 열려고 시도하다가 일경의 금지로 불발되자, 해산 군중들이 시내로 행진하며 울분을 터뜨리기도 하였다. 나아가 1931년 11월에는 공주군 우성면의 120여 소작농민들이 결속하여 지주에게 마름제도 철폐 등 9개조항의 요구사항을 내걸고 소작쟁의 시작하였다. 소작농민들은 소작인동맹을 조직하여 결속력을 강화한 뒤 쟁의에 돌입하면서 도조(소작료) 불납까지 결의하였다. 여기에는 우성면 내흥리와 구왕리 소작농민, 그리고 중장리 소작농민들이 대거 참여하여 그해 12월까지 강력한 쟁의를 펼친 끝에 지주측의 양보를 얻어내는데 성공하였다.

1930년대 들어와서도 마름의 횡포는 여전하였다. 1933년 4월 홍성에서 소작쟁의가 발생하였는데, 그 이유는 마름의 무리한 소작권 박탈 때문이었다. 조선일보 1933년 4월 30일자에 따르면, "지난 4월 21일

충남 홍성군 홍동면 원천리 정은섭(丁殷燮) 외 51인의 소작인들이 연명 날인하여 진정서를 제출하였음으로 당국에서는 지주에게 교섭하는 동시에 각 면에 통지하여 사실을 조사한다는 바, 그 내용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동군 장곡면 도산리 임병필(林炳弼)이 금년 정월에 경성 대지주 민대식(閔大植)의 마름된 것을 기화로 동 군내 홍주, 홍동, 장곡, 광천, 은하, 결성, 구항 등 7개면에 산재하여 있는 토지 200두락의 소작인 52명의 소작권을 이전 박탈한 까닭"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주의 소작료 인상 및 마름의 횡포, 그리고 수리조합 건설을 둘러싼 분쟁으로 1930년대 농촌지역의 농민분쟁은 격화되고, 소작농민을 필두로 하는 농민대중의 혁명적 진출도 눈부셨다. 때문에 이를 지도하기 위한 혁명적 농민조합의 출현은 필연적인 일이었다. 아울러 〈표 5〉와 같이 1930년대 들어와서도 지속적으로 나타난 농민층의 경제적 몰락 또한 이 시기 농민운동을 혁명적 양상으로 분출하게 만든 객관적 조건이 되었다.

표 5 | 1930년대 농촌의 계급구성 추이

연도	지주	자작농	자소작농	소작농	농업 노동자	빈농층비중 (자소작 + 소작농 + 화전농 + 농업노동자)
1931	3.6	17.0	29.6	47.4(1.4)		78.4
1932	3.6	16.3	25.3	52.8(2.1)		80.2
1933	(3.1)	18.1	24.1	51.9(2.8)	3.1	81.9
1934	(3.1)	18.0	24.0	51.9(2.7)	3.4	82.0
1935	(3.1)	17.9	24.1	51.9(2.5)	3.6	82.1
1936	(3.1)	17.9	24.1	51.8(2.4)	3.8	82.1
1937	(3.1)	18.0	25.1	51.7(2.4)	3.8	83.0

비고 | 1. 1932년까지 지주는 농지 전부를 소작 주는 '지주 갑', 농지 대부분을 소작 주고 일부를 자작하는 '지주 을'을 포함한 수치
2. 1933년부터는 '지주 갑'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지주 을'은 자작농에 포함
3. 1933년부터는 화전민과 함께 농업노동자를 조사함. 그 수치는 화전민 통계에 포함
4. ( ) 안은 화전민

출전 | 조선총독부, 『조선의 소작관행』하권, 1932, 74-75쪽 및 『조선총독부통계연보』각 년도에서 작성

1930년대 초반 이른바 '적색비밀결사' 즉 사회주의운동가들의 비밀결사 사건은 공주에서 가장 먼저 발생하였다. 1932년 4월 공주에서 안병두(安秉斗) 등 5인 적색 비밀결사 사건이 발생하여 공판이 있었으나, 관련자 전부가 집행유예를 받았다. 하지만 이듬해 다시 '적색비밀결사' 사건이 발생하여 이용하(李溶夏) 등 11명의 청년들이 검거되었다. 이들 가운데 주모자인 이용하 등 3인은 예심을 거쳐, 공주지방법원에서 1년 6개월에서 2년까지의 형을 받았다. 공주지역의 이들 비밀결사의 활동은 혁명적인 청년운동은 물론 노동·농민운동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논산에서는 양촌면 지역에서 혁명적 농민운동이 일어났다. 1932년 5월 일경이 머슴계를 허가하지 않자 머슴을 중심으로 하는 70여 명의 농민들이 적기(赤旗)를 들고 항의 시위를 벌였다. 나아가 일경이 주동자들을 검거하자 동지 탈환투쟁까지 전개하였다. 부여에서는 일경이 농민조합 결성을 위한 집회를 불허하자 1931년 6월 서면(書面)대회 방식으로 부여농민조합을 창설하였다. 부여농민조합은 1931년 8월 일경의 강력한 탄압으로 말미암아 별다른 활동을 하지 못한 채 곧 바로 해체되었다. 하지만 부여지역의 사회주의 활동가들은 1933년 '공산주의자협의회'를 건설하고, 홍산면·규암면·부여면·장암면 등지에 각각 세포조직을 만들어 활동하였다. 야학을 개설하고 연극공연 등으로 농민의식 계발운동을 전개한 것이다. 그러다가 비밀결사가 탄로나 1935년 11월 유기섭을 비롯한 주동자들이 징역 3년에서 1년까지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밖에도 1933년 12월 아산군 도고면 향산리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이선준(李銑濬) 등 3명이 공산주의 선전 활동으로 검거된 사례가 있었다. 일경은 이를 이른바 '아산적색농조사건'으로 불렀는데, 이로 보아 아산에서도 혁명적 농민조합운동이 전개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이 1930년대 들어와 일본인 식민농업회사와 대지주의 수탈, 그리고 마름의 횡포가 더욱 기승을 부리면서 이에 대한 농민대중의 항쟁

도 폭력적이고 혁명적으로 격화되어 갔다. 따라서 일제는 1932년 12월 '조선소작조정령'과 1934년 4월 '조선농지령'을 발포하여 법으로 소작쟁의 조정을 가능케 하고, 더 나아가 소작농민들의 소작권 안정을 위해 소작계약기간을 최소 3년으로 규정하였다. 하지만 한국농촌에서 소작쟁의를 중심으로 전개된 농민항쟁은 줄어들지 않았다.

충남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조선일보 1934년 6월 8일자에 따르면, "충남지방은 금년에 들어서며 발생한 소작쟁의 건수는 360여 건인데 대부분이 3월 이후 5월까지 약 3개월 동안에 발생한 것이며, 원인은 대개 부도덕한 지주가 무고히 소작권을 이동하여 소작인의 생존권을 빼앗는 관계로부터 발생한 것이라는 바, 소작쟁의에 대한 통계가 아직 작성되지 못하여 지방별로 정확한 숫자는 자세치 못하나 제일 많이 발생한 곳이 아산, 연기, 서산 등지이라고 한다"라고 보도하고 있다. 충남지역에서 1934년 3월부터 5월까지 발생한 소작쟁의만도 360여 건이고, 그 주요한 원인은 소작권 이동이었으며,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이 아산·연기·서산지역이라고 것이다.

이듬해에도 마찬가지였다. 조선일보 1935년 4월 21일자에 따르면, "충청남도 내에서 1월부터 4월 중순 현재의 소작쟁의 건수는 247건인바, 1934년도 총계 549건에 비하여 약 4배나 격증되었다는데 이것을 각 군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한다. 소작쟁의 발생건수 대전 : 45, 연기 : 24, 부여 : 6, 논산 : 17, 공주 : 11, 서천 : 21, 보령 : 12, 청양 : 1, 홍성 : 10, 아산 : 38, 당진 : 1, 천안 : 29, 예산 : 11, 서산 : 21, 계 : 247"이라고 전하고 있다. 더욱이 이런 상황은 일제가 이른바 획기적인 소작인 보호법이라고 생색을 낸 '조선소작조정령'과 '조선농지령' 발표 이후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그런 미봉책으로는 식민지 지주제에 의한 수탈로 피폐화된 농민대중의 분노를 잠재울 수 없었고, 더 나아가 일제 식민수탈체제에 대한 투쟁과 사회주의 교양사업을 통해 혁명적으로 진출하던 농민대중의 변혁의지를 꺾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런 사정은 1930년대 후반이 되어도 마찬가지였다. 중일전쟁이 한창이던 1938년에도 충남의 소작쟁의는 줄지 않았다. 조선일보 1938년 5월 15일자에 의하면, "금년에도 농번기를 당하여 소작쟁의 조정사건은 날로 늘어간다 하여 1월부터 3월말까지 충남도 농무과에 의하면 130여건으로 전년도 동기에 비하면 20여건이 증가되었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렇게 1920년대와 30년대에 한국농촌의 일반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던 소작쟁의를 중심으로 하는 농민운동은 1939년 '소작료통제령' 이후 잠적하여 갔다. 일제는 중일전쟁을 도발한 뒤 1938년 '국가총동원법'을 발포하여 총동원체제를 구축하여 한국내의 민족운동을 압살하고, 나아가 한국에서 인적·물적 전쟁물자 수탈에 혈안이 되어 갔다. 때문에 이른바 '총후의 안정' 즉 후방의 안정을 위해 한국농촌의 일반적인 현상으로 전개되던 소작쟁의를 잠재울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국가총동원체제를 구축하면서 1939년 12월 '소작료통제령'을 공포하여 소작쟁의를 일체 봉쇄하였던 것이다.

| 5 | 홍성지역의 노동운동

1910년대에 조선토지조사사업을 통해 식민지 수탈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한 일제는 1920년대에 들어와서 식민지 경영의 독점적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회사령'을 철폐하고 산미증식계획을 실시하여 한국을 식량 및 원료공급지, 일본 공산품의 판매시장, 값싼 노동력 수탈 시장 등으로 만들어갔다. 이러한 일제의 식민지 경제정책의 결과 노동자계급도 양적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1911년에 225개에 불과하던 공장은 〈표 6〉과 같이 1919년에 1,900개에 이르렀고, 이어 1929년에는 4,025여 개, 그리고 1940년 7,142개로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노동자수의 증가도 공장수의 증가와 맞물려

1919년 48,700명에서 1929년 93,800명으로, 그리고 1940년 295,000명으로 상승하였다. 그러나 공장과 노동자수의 증가 추이가 반드시 한국의 공업 발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공업 발전의 기준은 공장 당 노동자수, 자본금의 규모, 생산액 규모별 추이가 얼마나 균형 있게 발전하는가 하는 것에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일제강점기 한국의 경우는 공업 발전을 이야기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

표 6 | 일제강점기 공장수·생산액·종업원수 추이

연도	공장수	생산액		종업원수	
		전체(100만원)	공장당(1만원)	전체(천인)	공장당(인)
1919	1,900	225.4	11.9	48.7	25.6
1921	2,384	166.4	7.0	49.1	20.6
1923	3,442	214.1	6.2	69.4	19.8
1925	4,168	320.3	7.7	80.4	19.0
1927	4,914	369.6	7.5	89.1	18.1
1929	4,025	351.5	8.7	93.8	23.3
1931	4,613	275.2	6.0	106.8	23.2
1933	4,838	384.8	8.0	120.3	24.9
1935	5,126	644.0	11.4	168.8	30.0
1937	6,298	967.4	15.4	207.0	32.9
1939	6,953	1,459.8	21.0	270.4	38.9
1940	7,142	1,645.0	23.0	295.0	41.3

출전 | 조선총독부, 『조선총독부통계연보』 해당 연도

산업별 노동자 구성에서 막벌이꾼·지게꾼·토방(흙일꾼) 등으로 불리는 일용노동자들은 수적으로 훨씬 우세했지만, 그 분산성·미(未) 숙련성 등으로 말미암아 집단적 행동을 취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와는 달리 공장노동자·광산노동자와 부두노동자 등은 같은 직장에서 장기적으로 복무하며, 기능적으로도 숙련을 요하는 부문이 많았으므로 기업주들이 마음대로 다른 노동자들로 대체하기 힘들었다.

하지만 이런 노동자들은 기아적인 저임금(低賃金)에 시달렸다. 저임금정책은 장시간 노동 강요와 함께 일본과 같은 후발 자본주의국가의 자본축적 방식이었다. 일제는 자본 축적을 위해 노동자들을 산업별·공업부문별·민족별·성별·연령별 등으로 분할하고, 다시 여기에 임금구조별·노동시간별로 분할하여 노동자들끼리 상호 경쟁을 유발시켜가면서 더욱 더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을 강요했다.

이러한 노동조건 하에서 노동자들의 재해나 사고율이 높지 않을 수 없었다. 더구나 한국인 노동자들은 극도의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했으며, 일본인에 비교하여 '민족차별임금'을 받았다. 즉 한국인 노동자는 일본인 노동자와 같은 시간에 같은 공장에서 같은 노동을 하고서도 그 임금은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표 7〉와 같이 일본인 노동자에 비해 평균 2분의 1 이하의 '민족차별임금'을 받은 것이다.

표 7 | 민족별·성별 노동임금의 추세 (1일 평균) (단위 : 원)

연도	한국인				일본인			
	남		여		남		여	
	성년	유년	성년	유년	성년	유년	성년	유년
1920	1.00	0.44	0.59	0.32	2.32	0.71	1.01	0.61
1930	0.94	0.47	0.61	0.39	1.96	0.63	1.02	–
1935	0.90	0.49	0.49	0.30	1.83	0.81	1.06	0.43
1936	0.92	0.30	0.47	0.30	1.85	0.82	1.04	0.67
1939	1.10	0.50	0.55	0.41	2.32	1.17	1.17	0.76

출전 | 김윤환, 『한국노동운동사』 I, 청사, 1981, 136쪽 · 244쪽 참조.

이 같은 열악한 노동조건 이외에도 노동자들은 임금의 수취와 고용방식에서 고용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고용주들은 강제저축과 보증금이라는 명목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고용주가 마음대로 3년에서 5년의 의무고용제를 채택하여, 그 이전에 퇴직하

는 노동자에게 저축금을 주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계약 위반금을 부과하기까지 하였다. 작업장 내 각종 벌금제도는 임금삭감의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운영되고 있었다. 이를 통해 고용주는 임금을 약탈하는 한편, 노동자들의 인신을 구속하여 노동력의 이동을 막았던 것이다. 일본인 자본가들의 자본축적 욕망은 한국인 노동자들의 생명이나 건강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었고, 여기에 식민통치 권력도 노동자들의 비인간적인 노동조건을 개선하여 줄 어떠한 정치적·법률적·제도적 권리를 강구하지 않았다. 오히려 일제는 1925년 '치안유지법'이라는 악법을 만들어 노동자계급의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존권 요구조차도 탄압했다.

한국 노동자들은 정치적 무권리 상태에 있었고, 이러한 억압과 모순에 대해 노동자들은 도주나 탈주 등 소극적인 저항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억압과 모순이 강화되고 노동자의 생존권을 박탈당하게 되자 소극적인 저항방식은 노동쟁의나 연대파업 등 적극적인 저항방식으로 바뀌어 갔다.

특히 3·1운동 이후 고조된 민족의식으로 1920년대에는 많은 대중적 노동단체가 조직되었다. 1920년 4월 조선노동공제회가 창립된 이후 전국 각지에서 노동회·노우회·노동친목회·노동조합·노동계 등의 이름을 가진 노동단체들이 활발하게 조직되었다. 나아가 이 시기 노동단체는 사회주의 사상단체와 직·간접적인 관련 속에서 조직되거나, 청년운동과 밀접한 연관을 맺으면서 활동하였다. 1920년대 초기의 노동단체는 기본적으로 친목회나 계(契)와 같은 성격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노동자들이 계몽과 의식 각성 및 단결과 연대성을 강화하는데 일정한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이전 시기와 차별성을 갖는다.

1920년대 활동한 주요한 노동운동단체로는 조선노동공제회·조선노동대회·조선노동연맹회·조선노농총동맹, 그리고 조선노동총동맹 등이 있다. 1920년 4월 11일 서울에서 전국적이고 대중적인 노동단체로는 최초로 조선노동공제회가 선진적 노동자들과 노동운동에 관심을 가진 지식인

들에 의하여 조직되었다. 그러나 노동공제회는 노동자들의 절실한 일상적 요구들을 당면한 투쟁과업으로 제기하지 못했으며 노동자계급 단결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했다. 초기에 상호부조와 계몽적인 성격의 노동단체로 출발했던 노동공제회는 내부의 사회주의자들이 활약에 의하여 점차로 노동자계급의 조직으로 변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 갔다. 하지만 노동공제회는 노동자를 조직화하고 파업이나 태업 등 직접 행동을 통하여 노동계급의 이익을 추구하기보다, 선진적인 사상을 가진 지식인들이 일반인에게 노동문제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목표를 두었다. 이러한 단체의 활동내용과 구성원의 성격으로 말미암아 조선노동공제회는 지속적인 생명력을 가질 수 없었다.

충남 최초의 노동운동 단체도 조선노동공제회의 출범과 함께 이루어졌다. 동아일보 1920년 7월 26일자에 따르면, "창립 계획 중이던 조선노동공제회 예산지회는 본월(7월) 21일 오후 3시 개회식을 거행하였는데 회원이 무려 300여 명에 달하였으며 개회순서로 경성 본회 회장 박중화(朴重華) 씨의 취지설명이 있었고, … 폐회한 후 동일 오후 8시에 동회 간사회와 의사회를 예산구락부에서 개최하였는데 회원 간의 각각 원조한 금액이 600여원에 달하였고 기타 일반 계획을 강구하였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로 보아 예산에서 충남 최초의 노동운동 단체로 조선노동공제회 예산지부가 결성된 사실을 알 수 있다. 동아일보 1922년 8월 31일자는 공주노동공제회에서 강연회를 개최한 사실을 보도하였다. 이는 공주에서도 조선노동공제회 지부가 성립되어 활동한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밖에도 동아일보 1922년 3월 13일자에 따르면, 연기군에서 조치원노동조합이 창립총회를 개최한 사실을 전한다. 따라서 중앙의 조선노동공제회와 조선노동대회 결성 직후 이들의 영향 아래 충남에서도 연달아 지방 노동운동 단체가 성립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1922년 10월 16일 조선노동공제회를 해체한 사회주의 계열의 인사들은 조선노동연맹회를 조직했다. 노동연맹회는 강령을 통해 막연

하게나마 자본주의 제도를 부정하고 필연적으로 도래할 신 사회 건설 투쟁과 이를 위한 계급적 단결을 주요 활동목적으로 삼았다. 이러한 노동연맹회는 노동공제회에 비해 여러 가지 면에서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 주었다. 노동공제회는 개별적인 노동자들과 함께 소작농민들을 적지 않게 망라했지만, 노동연맹회는 노동자들만으로 조직된 직업별 노동조합들과 또는 지역적 노동조합들로 결성된 노동조합 연합체였다. 또 자유노동자들을 비롯하여 공장노동자들과 소작농민 등 2만여 명이 참가했다. 이러한 조직형태와 구성은 조선노동공제회에 비하여 일보 전진한 모습이었다. 또한 노동연맹회는 전국적 노동단체로는 최초로 5·1절(May Day) 기념투쟁을 조직했고, 나아가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을 지도하였다.

1920년대 초반까지 노동문제와 농민문제는 분명히 구별되는 것이 아니었다. 임금노동자의 사회적 기반이 농촌이었고, 소작인 출신이 지배적이었으며, 수적으로도 농업노동자가 임금노동자를 압도하는 상황에서 농민과 노동자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1924년 4월 조선노농총동맹은 탄생하였다. 노농총동맹이 결성되자 전국 각지의 노농단체들이 연속 가입하여 산하단체가 260여 개, 회원수가 5만 3,000여 명이 되었다. 이는 노동자·농민운동의 큰 진전을 의미했다. 노농총동맹은 이해관계가 다른 노동자와 농민을 전부 망라한 조직상의 약점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 내부의 사회주의 지도자와 지방조직들은 노동자·농민들과 연계를 강화하면서 노농운동을 조직 지도하기 위하여 노력했다. 노농총동맹이 결성된 이후 각지에서 노동자들의 투쟁이 더욱 강화되었으며 그 혁명성과 조직성이 크게 고양되었다.

전국적인 노농운동 조직으로 조선노농총동맹의 창립은 노동쟁의는 물론 강연회·노동야학회 등 노동운동을 크게 향상시켰다. 1920년대 전반기 노동쟁의는 자발적인 투쟁으로 주로 임금인상의 요구, 임금인하 반대 등을 요구한 경제적 투쟁이었다. 이러한 노동쟁의는 대부분 일본인 자본가들을 반대하는 투쟁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일경의 탄압을 받았

다. 그 결과 노동쟁의는 일경의 폭압을 반대하는 투쟁과 결부되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인 노동자계급의 반일의식도 빠르게 고양되어 갔고,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들에게는 정치권력 장악을 위한 정치투쟁의 필요성을 피부로 느끼게 하는" 효과를 낳았다. 또 이 시기 노동단체들의 역할을 보면, 계몽적인 성격이 강한 조선노동공제회·조선노동대회, 그리고 이들 산하단체들이 활동하던 1920~1922년간에는 그들의 활동이 미약하여 노동자들의 투쟁을 직접 조직하거나 지도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그러나 사회주의 성격이 강한 조선노동연맹회와 조선노농총동맹, 그리고 이들 산하단체들이 활동하기 시작한 1923~1925년간에 와서 노동쟁의에서 노동단체들의 역할이 강화되어 갔다. 노동조합들은 노동자 대중 속에 침투하기 시작했으며 노동자들의 생활과 노동조건들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자본가들에 대한 그들의 불만과 불평을 조직적 투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각지 노동단체들은 동일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의 노동쟁의까지도 성원하기 위하여 '쟁의 응원'의 구호 아래 파업기금의 모집, 격문·격전의 발송, 동정연설회 등을 조직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노동자 대중의 계급적 연대성은 강화되어 갔다.

이런 양상은 충남의 노동운동에서도 유사하게 드러난다. 예컨대 1922년 9월 연기군 전의에서 노동야학회가 개설된 사실(동아일보 1922년 10월 9일자), 같은 해 10월 공주에서 노동야학회가 개시된 사실(동아일보 1922년 10월 24일자), 그리고 서산에서 노동야학회가 성황리에 운영되는 사실(조선일보 1922년 12월 25일자)이 연달아 보도되고 있는 것을 보아도 짐작된다. 나아가 노농대중의 권익 보호를 위해 1923년 4월에는 공주에서 공제조합을 설립할 계획이라는 소식(동아일보 1923년 4월 25일자), 이어 1925년 4월 홍성에서 홍성노동조합이 창립되고(조선일보 1925년 4월 26일자), 같은 해 7월 서산노동공제회가 창립총회를 가진 사실(동아일보 1925년 8월 5일자), 그리고 같은 해 8월 공주에서 노동협성회가 발기한 사실(동아일보 1925년 8월 25일자) 등을 통해서도 짐작된다.

나아가 노동자계급의 경제적 권익 보호와 계몽활동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노동쟁의를 통한 일본인 자본가와 그를 비호하는 일제 식민통치 권력에 직접 대항하는 사례도 보인다. 예컨대 1925년 8월에는 공주에서 일경의 노동쟁의 탄압에 항의하여 50여 노동자가 경찰서로 쇄도한 사실(동아일보 1925년 8월 16일자)과 1926년 4월에도 공주인쇄공이 동맹파업을 단행한 사실(조선일보 1926년 4월 3일자), 또한 조치원에서 매가리 인부 수백명이 동맹파업을 단행하자 점차 조치원 전역으로 파업이 확대되고 있다는 소식(조선일보 1925년 12월 27일자와 28일자)으로도 알 수 있다.

1920년대 후반기에 들어와 조선노농총동맹은 1926년 12월 '조선노농운동에 대한 신정책'을 발표하는데 그 요지는, 첫째로 노농운동은 경제투쟁을 위주로 한 대중적 조합운동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운동조직은 소수 선각분자의 사상운동 조직에 불과했다는 점, 둘째로 노동자와 농민은 본래 계급적 차별성이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양자를 한 조합 내에 혼합하여 운동의 발전을 저해했으므로 앞으로 분맹(分盟)을 한 뒤 두 동맹 사이의 협조기관을 설치해야 한다는 점, 셋째로 종래에는 정치투쟁을 부정해왔으나 이후에는 노동자대중의 정치의식을 향상시켜 적극적 정치투쟁을 전개해야 한다는 점 등이었다. 노농총동맹은 지방의 노동자·농민 연합단체의 분화와 신정책에 기초하여 1927년 9월 '조선노동총동맹'과 '조선농민총동맹'으로 분리 개편되었고, 이것은 노동자·농민단체의 조직적 발전에 있어서 하나의 큰 진전을 의미했다. 노동총동맹은 노농총동맹의 활동을 계승하여 수많은 노동쟁의를 조직 지도했다. 그러나 일제의 집회금지와 '제 3·4차 조선공산당 사건'으로 중요 간부가 검거됨으로써 노동총동맹은 큰 타격을 받았다. 이 사이에 잠입한 노동총동맹 지도부의 개량주의적 경향은 일제 경찰의 탄압에 반대하여 강고히 투쟁하지 않거나 파업투쟁에 궐기한 노동자들에게 타협을 설교하거나 조정안을 제기하고, '상업회의소'와 일경 등에 탄원이나 중재를 요청하는 데 이르렀다. 그러나 노동총동맹 지도부가 개량주의적 노

선에 빠졌다고 해서 그에 소속된 지방조직들과 일반 조직원들 모두가 개량주의적 입장에 동조한 것은 아니었다. 지도부와 달리 조직원들은 혁명적 진출을 강화했으며 일부 지방조직들에 참가하고 있던 사회주의자들도 그 조직을 혁명화하기 위하여 투쟁했다.

1920년대 후반기 노동운동에서는 노동자들의 계급적 연대성도 강화되었다. 어느 사업장에서 파업투쟁이 발생하면 동일부문·동일지역 노동자들의 동조 파업이 빈번히 전개되었고, 실업 노동자들도 자본가들의 파업 무산을 위한 새 노동자 모집 음모를 단연 배격하고 파업투쟁을 지지했다. 이 시기의 노동운동은 경제적 투쟁의 성격뿐만 아니라 점차 정치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 점차 노동현장을 떠나 공장 습격이나 경찰서 파괴 등 혁명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이러한 양상은 노동운동이 민족해방운동으로 발전 할 수 있는 가능성과 잠재성이 내포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노동운동에서 나타난 투쟁양상은 국경지대에서 전개된 무장투쟁이나 농촌의 농민운동보다 대중적 기반과 투쟁의 지속이라는 면에서 미약함을 보여주는데, 이 점은 노동운동이 도시를 기반으로 전개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한 것이었다.

이 같은 1920년대 후반기 노동운동의 발전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홍성의 노동운동이다. 1920년대 전반 홍성지역에는 인력거조합을 제외하고는 노동단체가 없었다. 이에 사회주의 사상단체로 1925년 10월 창립된 무공회(無空會)는 "노동자의 권익을 전취(戰取)하는 유일한 무기는 단결에 있다"는 구호 아래 홍성노동조합의 조직에 착수하였다. 그리하여 1927년 3월 8일 이미 설립하여 있던 인력거조합을 모체로 하고 인력거조합장 김예경을 조직책으로 정한 뒤, 8백여 명을 조합원으로 획득하여 홍성노동조합을 창립하고 조합장에 김예경, 부조합장에 김연진, 상무집행위원으로 이동룡·최덕길·이범수·구연홍 등을 선임하고 직종별 대의원을 선출하였다. 같은 해 7월 15일에는 광천시장을 중심으로 조합원 6백 명을 획득하여 박원식을 지부장으로 광천(廣川)지

부를 조직하고, 9월 15일 용호(龍湖)시장을 중심으로 조합원 5백여 명을 결속하여 김구한을 지부장으로 용호지부를 설립하였다.

이후 홍성노동조합은 조합원을 확보하는데 주력하여 1929년 1월 현재 홍성지부 420명, 광천지부 350명, 용호지부 500명, 도합 1,270명의 조합원을 가진 홍성지방 최대의 대중조직으로 발전하였다. 주요활동으로는 월례회 개최, 메이데이 기념식, 반회 설치, 원산총파업 후원 등이 있었으나, 출범 초기부터 각종 집회를 금지당하는 등 일경의 탄압으로 조직적인 활동을 전개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1928년 1월 29일 개최된 홍성노동조합 광천지부 정기대회에서 토의된 내용을 보면, 이들의 지향을 짐작할 수 있다. 조선일보 1928년 2월 2일자에 따르면, 이 날 광천지부 정기대회에서 토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토의안 |

一. 신입 회원 수리의 건.

一. 회원정리 – 신임간부에게 일임.

一. 금후 진행방침 – 신임간부에게 일임.

一. 청년운동에 관한 건 – 신임간부에게 일임.

一. 여성운동에 관한 건 – 신임간부에게 일임.

一. 형평운동에 관한 건 – 신임간부에게 일임.

一. 소년운동에 관한 건 – 청년회 교양부에 일임함.

一. 농민운동에 관한 건 – 우리는 악덕 지주와 악덕 마름에게 절대 반항함.

一. 교육문제에 관한 건 – 본 지부 교양부에 일임함.

一. 종교문제에 관한 건 – 신임간부에게 일임함.

一. 경제문제에 관한 건 – 보류하기로 동의하다.

一. 전 민족적 단일당 조직촉성의 건(금지).

一. 반동분子 박멸에 관한 건(금지).

一. 조혼문제에 관한 건 – 본 조합원으로는 20세 미만
에는 결혼치 아니하기로 함.
一. 동아일보 인물투표에 관한 건(삭제).
一. 언론 출판 집회 자유 획득의 건(금지).
一. 제령 제7조, 치안유지 악법 철폐에 관한 건(금지).
一. 도일 로동자 방지에 관한 건(금지).
一. 조선소방협회 설립 반대의 건(금지).
一. 인신매매의 건 – 신임간부에게 일임.
一. 선전과 조합원 모집에 관한 건 – 신임간부에게 일임
一. 예산안에 관한 건 – 경리부에서 낭독한다.
一. 본 지회에 관한 건 – 본부 대회일까지 보류하기로
한다.
一. 회관문제에 관한 건 – 신임간부에게 일임하기로 함.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노동조합 본연의 노동문제만이 아니라 민족문제, 정치문제, 사회문제, 그리고 농민문제까지 광범위하게 거론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당시 홍성지역에는 농민운동단체가 없는 상황에서 "농민운동에 관한 건 – 우리는 악덕 지주와 악덕 마름에게 절대 반항함"이라고 하여 소작문제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소작농민들을 후원하고 있는 사실이 주목된다. 이는 홍성노동조합이 노동문제만이 아니라 농민문제도 담당하는 노농연대 조직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홍성노동조합이 조직되어 활동하였지만, 1920년대 조직적인 노동쟁의에 대한 자료는 찾을 수 없다. 당시 홍성지방의 공업은 가내수공업이나 소규모 공장에서 생활용품이나 농구 등을 생산하는 영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었다. 따라서 홍성지역에서 노동자계급의 형성이 매우 미약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1927년 결성된 노동조합이 여관·음식점·운송점 등 서비스업 고용인들과 농촌의 머슴과 날품팔이 등 주로 자유노동자층

을 중심으로 하고 있던 것도 그런 이유였다.

이밖에도 충남지역의 1920년대 후반기 노동운동은 여러 곳에서 노동단체의 조직과 노동자 계몽운동, 그리고 파업투쟁 방식으로 동시 다발적으로 전개되었다. 연기군에서는 1927년 11월 부강(芙江)노동동맹위원회가 결성된(동아일보 1927년 11월 23일자) 뒤, 그 조직적 기반 위에서 1929년 10월 조치원역 운송인부의 동맹파업이 전개되었다(중외일보 1929년 10월 7일자). 공주에서는 1926년 공주노동협성회의 창립을 시도하다(동아일보 1926년 3월 2일자) 일경의 금지로 무산되자(동아일보 1926년 12월 22일자), 1927년 동시 다발적으로 공주노동회와 공주노동협성회를 창립하고 각 면에 지회를 설치하기도 하였다.

특히 이 시기에 오면 '신 사회의 건설', '무산계급의 사상통일', '노동계급의 해방' 등의 정치·사회적 구호와 그를 통한 변혁 의식, 즉 민족해방운동의 의지가 충남 일원의 지방 노동조합에 퍼져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양상은 충남 지방의 노동운동의 양상이 중앙과 그 보조를 같이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1930년대는 노동운동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시기인데, 신간회를 비롯한 여러 대중단체들이 해소의 길을 밟으면서 새로운 운동노선이 모색되었다. 더욱이 1929년의 경제 대공황으로 노동자·농민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지고, 해고·임금저하·생활고·노동조건 악화 등의 상황이 전개되면서 노동자들은 생존하기 위해 식민체제에 굴종했던 것이 아니라 노동쟁의와 같은 적극적인 대응으로 맞서 나갔다. 1930년 1월 벽두에 일어난 조선방직노동자 파업을 시작으로 신흥탄광노동자파업·평양고무공장노동자파업(1930)과 평양면옥노동자파업(1931), 청진부두노동자파업(1932), 부산고무공장노동자파업(1933) 등 1930년과 1931년에 가장 많은 노동쟁의가 발생하였으나, 그 결과는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나타났다. 노동자들의 요구가 관철되는 비율은 노동쟁의의 20%에 그쳤다. 결국 일제의 탄압정책이 강화됨에 따라 노동쟁의를 통해 요구조건을 관

철할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

1931년 9월 일제의 만주침략 이후 이른바 전시체제로의 이행을 배경으로 일제 식민통치 권력의 탄압이 강화되면서, 노동자들의 파업은 말할 것도 없고 합법 노동운동 단체들이 존속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노동운동은 비합법의 방식에 의한 지하활동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따라서 혁명적 노동조합운동이 이 시기 노동운동의 주류를 일컫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1931년 9월 일제는 만주침략을 도발한 뒤, 침략전쟁에 전시 물자를 동원하기 위한 각종 토목공사와 금을 비롯한 지하자원의 약탈을 본격화하였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금광개발의 열풍이 불었고, 그와 함께 광산노동자들이 〈표 8〉와 같이 1930년 9,967명에서 1935년 90,202명으로, 나아가 1942년 117,819명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표 8 | 1930~1940년대 광산노동자 수의 추이 (단위 : 명)

연도	금은광산	석탄광산	기타광산	총계
1930	9,967	12,937	8,199	31,100 (100)
1931	16,533	11,511	7,851	35,895 (115)
1932	44,702	11,564	8,193	64,466 (207)
1933	49,954	11,691	9,066	70,711 (227)
1934	68,507	14,747	12,463	95,717 (307)
1935	90,202	23,144	18,495	130,841 (420)
1936				152,723 (491)
1940		53,493		226,000 (726)
1941		64,871		211,930 (681)
1942	117,819	60,585	34,020	212,424 (683)
1943	90,621	57,296	35,380	183,296 (589)
1944		69,738		288,071 (926)

출전 | 1. 正久宏至, 「朝鮮に於ける勞動力の量的考察」, 『식은조사월보』 32, 1941, 59쪽.
2. 조선총독부, 『조선노동기술통계조사결과보고』, 1942.
3. 조선상공회의소, 『조선경제통계요람』, 1949, 118쪽.
4. 국민총력조선광산연맹, 『광산종업원조』, 1944 참조.


礦夫七十餘名이結束
金鑛機械場을襲擊
洪城結城金鑛에서十三名檢事
坑夫一名橫死에激憤
金鑛探險中
反滿軍이包圍
警察隊가急行救出

사진 20 | 결성금광 동맹파업 보도기사
(동아일보 1933년 5월 10일자)

1930년대 이후 충남에서 혁명적 노동조합운동은 드러나지 않지만, 일제의 노동수탈과 전시 물자동원을 위한 군수공장이나 금광에서 노동자 항쟁은 전개되었다. 그러한 사례는 1930년 5월 광천 제방공사장 인부들의 동맹파업, 10월 서산의 일본인 간석지 공사장 노동자 파업, 1932년 3월 공주 하천공사 인부 총파업, 1933년 5월 홍성 결성금광 광부들의 동맹파업, 1934년 6월 광천 황보금광 광부들의 동맹파업 등 산업재해와 일본인 감독의 구타에서 비롯된 자연발생적 노동쟁의가 잇달아 일어났다. 예컨대 홍성군에 소재한 일본인 소유의 결성금광에서 발생한 한국인 광부들의 노동쟁의를 동아일보 1933년 5월 10일자 보도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자.

> 지난 5월 1일에 광주(鑛主)에 대한 평소의 쌓인 불평과 설비 불완전으로 동지 1명이 즉사한 것에 격분되어 광부 70여 명이 곤봉과 장작 등을 가지고 금광 기계공장을 습격하여 간부들을 난타한 사건이 있었다. 지난 4월 29일 밤 10시 반경에 홍성군 서부면 판교리에 있는 경남철도회사 부사장 추본풍지진(秋本豊之進) 씨 경영인 결성금광에서 채광 중에 책반이 떨어져서 광부 박양복(39)이가 즉사를 하였다 한다. 이 참혹한 광경을 목도한 전 광부 70여 명은 그 이튿날인 5월 1일에 사체를 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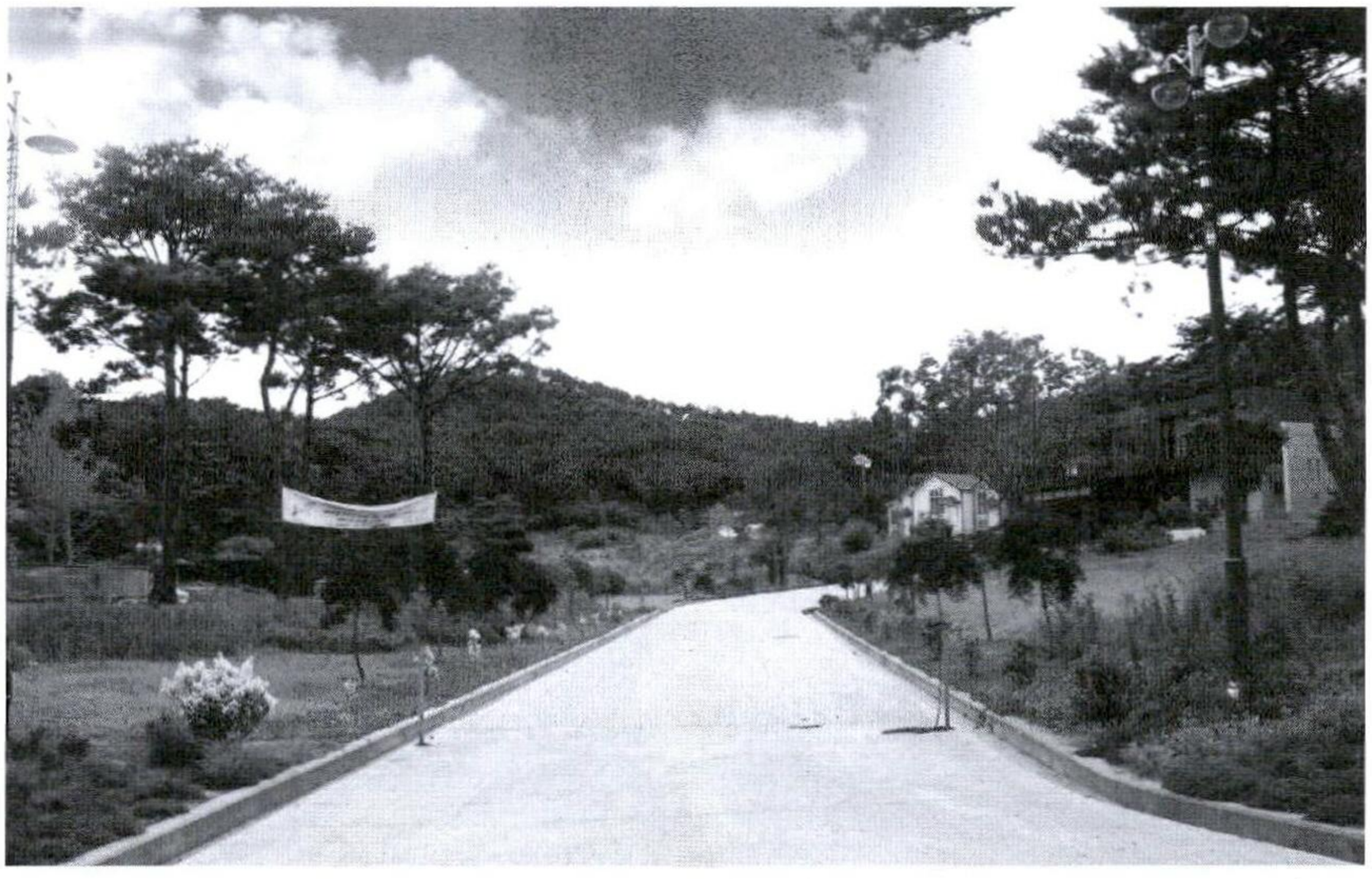


사진 21 | 결성금광 동맹파업 터

집에 운반하는 동시에 전부 작업을 쉬어서 조의를 표하고자 하니 광주 측에서도 조의를 표하는 의미로 광부 전부에게 일당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한 바 주임 복부철부(服部哲夫)는 단연 일축하여 광부 등은 불만을 품은 그대로 사체를 비장한 속에 운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광부의 가슴에 쌓인 불평이 전기주임 복부(服部)가 신임자로 공사 지휘에 불량하였기 때문에 이런 참사자를 낸 것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부르짖게 되자 이어서 그 길로 곤봉과 장작을 들고 일거에 기계공장을 습격하여 마침 있던 동기계장 직공 조창호를 동지의 주검에 조의를 표치 않고 있다하여 구타 응징하는 동시 복부(服部) 주임을 포위하고 난타한 후 다시 인사계주임 고교원조(高橋源造)의 숙사를 습격하였다.

홍성 결성금광 동맹파업 사건은 결국 정장근·임장손 등 17명의 주동자가 일경에 피검되는 희생을 당하고 끝났다. 하지만 열악한 노동조건과 일제의 지하자원 수탈 야욕을 어렴풋이 인식하고 있던 금광 노동자들의 항쟁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다. 따라서 이듬해 홍성 광천면의 일본인 금광인 황보금광에서도 격렬한 노동쟁의가 일어났다. 조선일보 1934년 6월 19일자와 20일자는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상세하게 전하고 있다.

> (19일자) 충남 홍성군 광천면 담산리에 있는 황보금광에서는 지난 15일 오후 5시경에 감독으로 있는 고하손차(高下孫次)라는 자가 그 광산 광부 고윤선(高允善)과 김병옥(金炳玉) 두 명을 권총으로 난사하여 현장에 꺼꾸러뜨린 사건이 발생되었다. 이 급보를 접한 광천주재소에서는 현장에 급파하여 가해자 고하를 체포하여 피해자 등을 광천 회춘의원에 운반하여 응급수술을 하


監督의 拳銃亂射로
二百餘鑛夫、盟罷
鑛夫두명이拳銃맛고危篤
洪城黃寶金山에서
上海○○政府를
援助하려고計策
警察署一帶住民이
設置를陳情
刑務所
四人

사진 22 | 황보금광 동맹파업 보도기사(조선중앙일보 1934년 6월 18일자)



사진 23 | 황보금광 동맹파업 터

게 하는 일방 홍성경찰서와 검사국에 보고하였다. … 이 같은 사실이 돌발하자 그 광산에 수용되어 있는 광부 200여명은 동맹파업을 단행하고 즉시로 경찰서에 쇄도하여 고하를 내어 놓으라, 그 놈을 당장에 때려죽이겠다고 고함을 치면서 일대 소동을 일으키고 있다하며 파업은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

(20일자) 충남 홍성군 광천면 담산리에 있는 경성 당방유차랑씨가 경영하는 황보(黃寶)금광의 악(惡) 감독 고하손차(46)란 자가 권총을 난사하여 광부 두 명을 현장에 꺼꾸러뜨린 참상이 있었다 함은 기보함과 같거니와 그후 사실을 듣건대 피해자 고윤선(30, 원적-서산군 태안면 남산리)과 김병옥(29, 원적-부여군 홍산면 판교리) 등은 광천 회춘의원에서 응급수술을 받은 후 곧 군

산 도립의원으로 보내어 치료를 받던 중 고(高)는 지난 17일 오후 두시에, 김(金)은 동 9시에 다 절명하여 버렸다 한다.

1930년대 일제의 군국파쇼체제 하의 노동조건은 열악하였고, 수탈을 극대화하기 위한 일본인 광업주와 감독의 횡포는 포학하여 노동자들이 생명을 잃는 경우도 다반사였다. 공장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였다. 일제는 1930년대 침략전쟁을 도발하면서 한국에서 군수물자를 싼 값에 조달하기 위해 병참기지화정책을 감행해갔다. 이런 일제의 병참기지화 정책은 식민통치 권력을 이용한 한국 노동자의 인력 동원과 수탈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따라서 이 시기 노동쟁의를 통한 공장 노동자들의 항쟁도 잇따라 일어났다. 충남지역 공장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였다. 1930년대 들어와 충남지역 공장 노동자들의 항쟁으로는 1934년 3월 조치원에 소재한 백정제사(白井製絲)회사 공장 노동자 170여 명이 일으킨 총파업, 그리고 1935년 대전에 소재한 군시제사(郡是製絲)회사 공장 노동자의 동맹파업과 같은 해 8월 예산군에 소재한 충남제사회사 공장 여직공 300여 명의 동맹파업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와 같이 일본인 자본가들은 갖은 명분으로 노동자들의 임금을 수탈하면서 식민지 경영의 독점적 이윤을 추구했다. 이에 대항하여 한국 노동자들은 처음에는 경제적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노동쟁의를 벌였고, 나중에는 경제적 권익 보호는 물론 식민지수탈체제 자체를 철폐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여 노동운동을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발전시켜 갔다.

1938년 국가총동원법 시행 이후 한국사회는 이른바 일제의 본격적인 전시동원체제로 편입되면서 노동력의 강제동원과 노동능률의 극대화를 위한 극심한 통제와 억압을 경험하였다. 이에 따라 흔히 이 시기의 노동운동은 '침체기' 또는 '암흑기'로 알려져 왔다. 전시동원체제 하에서 인적·물적 수탈을 목적으로 전반적인 억압이 가중되었던 상황에서 노동

운동이 상대적으로 부진하였다고 평가해 온 것이다. 하지만 일제의 침략 전쟁과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노동자들의 투쟁은 1940년대 들어와서도 노동쟁의는 물론 징용·징병 반대, 노무동원 거부 항쟁 등 이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기도 하였다.

그런 사례로 1940년 2월 충남 청양의 미량(美良)광업소에서 200여 명의 광부들이 청부제에 반대하여 총파업하였고, 4월에는 전북 장수에서 일본인이 경영하던 명덕(明德)광산과 소화전기공업회사 장수광업소에서 광부들이 쟁의를 일으켰고, 같은 달 목포에서도 일화제유(日華製油)회사 공장 노동자들이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파업을 단행하였다. 같은 해 5월에는 평북 벽동의 일본광업회사 발은(發銀)광산 광부들과 목포 조선면화회사 노동자들이 파업투쟁을 전개하였고, 이어 6월에는 경남 부산에서 대삼(大森)건구제조공장 노동자들과 전남 해남의 소화광업회사 해남광산 300여 명의 노동자들이 쟁의에 돌입하였다. 또한 같은 해 7월에는 충남 청양의 중외(中外)광업회사 구봉(九峯)광업소 광부들과 충북 영동의 황학금산(黃鶴金山) 광부들이, 그리고 8월에는 부산의 피복회사 노동자들이 파업에 참가하였다. 같은 해 10월에는 인천 부두노동자들이 임금인상을 요구하면서 공업용 석탄 하선작업을 중지하는 집단적 파업투쟁을 전개함으로써 서울 지역 군수 공장들의 전시 군수품 생산에 타격을 주었다.

이와 같이 일제강점기 충남을 비롯한 각지의 노동자들은 노동쟁의를 통해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 신장하였고, 이를 통해 투쟁역량과 항일의지를 배양하였다. 더욱이 사회주의사상의 수용과 사회주의운동가들의 참여로 노동운동의 역량이 급격히 성장하였고, 나아가 노동자·농민의 세계관이 형성되기에 이르렀다. 이를 토대로 일제 식민지 수탈체제 자체의 철폐를 지향하였던 노동운동은 노동자계급의 해방과 민족해방이라는 두 가지의 과제를 동시에 실천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일제강점기 모든 노동운동은 민족해방운동이자 항일독립운동의 한 부문운동으로 자리 매김되

며, 그런 성격은 1920년대에서 1930년대, 그리고 1940년대 전반기로 오면서 더욱 강화된다고 하겠다.

| **김용달** | 전) 독립운동사연구소장



홍성의 독립운동사 1

한인이 국외에 독립운동기지를 건립하고자 했던 이유는 1910년 경술국치 이후 일제가 한국에서 실시한 무단통치와 날로 가중되는 무단 탄압 아래에서 독립운동을 진행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에 이주 한인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을 민족정신이 투철한 항일운동의 근거지로 만들어 일제와의 독립전쟁을 준비하려고 했던 것이다.

제 7 장

홍성인의 국외독립운동

1. 홍성인의 독립운동 현황
2. 만주방면 활동
3. 중국방면 활동
4. 대한민국임시정부 활동
5. 한국광복군 활동
6. 한용운의 국외 순유

제7장

홍성인의 국외독립운동

1 | 홍성인의 독립운동 현황

1) 홍성 출신의 독립유공자

2019년 8월 현재, 정부로부터 독립운동의 공적을 인정받아 훈포장을 수여받은 독립유공자는 15,825명이다. 이 가운데 홍성 출신의 독립유공자는 230명으로 전국 대비 약 1.45% 정도이다.

국가보훈처는 독립유공자를 의병, 애국계몽운동, 3·1운동, 의열투쟁, 국내항일, 학생운동, 민족문화운동, 만주·노령방면, 임시정부·중국방면, 한국광복군, 일본방면, 미주방면, 독립운동 지원(외국인) 등 13개 운동계열로 분류하여 포상을 실시하고 있다.

홍성 출신 독립유공자 230명의 운동계열을 분류하면 3·1운동 196명, 국내항일 11명, 의병 7명, 만주방면 5명, 학생운동·계몽운동·임시정부·한국광복군·의열투쟁이 각각 2명, 중국방면 1명 순이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 홍성 출신 독립유공자 운동계열별 분류

운동계열	3·1운동	국내항일	의병	만주방면	학생운동	계몽운동	임시정부	한국광복군	의열투쟁	중국방면	계
인원	196	11	7	5	2	2	2	2	2	1	230

그런데 홍성 출신 독립유공자의 운동계열은 3·1운동 참여자가 196명으로 전체 유공자의 85%를 상회하는 심한 편중 현상을 보인다. 전국적 통계로 볼 때 독립유공자 15,825명 가운데 3·1운동 참여 공적으로 독립유공자로 서훈된 분이 5,444명으로 34.4%인 사실을 감안하면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

홍성은 전국의 시·군별 독립유공자 운동계열별 통계에서 3·1운동 참여자가 가장 많은 특징적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 까닭은 홍성인의 독립운동 가운데 3·1운동이 가장 활발했기 때문이기도 하나,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와 관련이 있다. 즉, 홍성지역은 3·1운동 참여자의 행형기록, 예컨대 『수형자명부』 등이 잘 보존되어 있어서 독립운동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었던 것이다.

과거의 독립유공자 심사기준에 의하면 대통령표창을 수여받기 위해서는 3개월의 옥고를 치르거나 90도 이상의 태형 처분을 받아야만 하였다. 그런데 홍성의 3·1운동 참여자 가운데에는 그 기준에 미달하는 60도 또는 30도 태형 처분자가 상당히 있었다. 다행히 2018년부터 독립유공자의 심사기준이 완화되어 그 동안 태형 90도 이하 처분을 받아 '기준미달' 로 서훈이 보류된 분들이 독립유공자로 인정되고 있다. 홍성 출신 독립운동가 가운데에는 새로운 심사기준에 의해 심사에 부의되어 독립유공자로 서훈이 예정된 분이 다수 있고, 향후에도 계속 서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럴 경우, 홍성 출신 독립유공자의 운동계열에서 3·1운동이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커질 것이다.

한편, 홍성 출신 독립유공자를 훈격별로 보면 1등급 대한민국장은 청



김복한



김좌진



김종진



박의성



윤형중



이상만



최중삼



한용운

사진 1 | 홍성의 독립운동가

산리대첩의 주역 김좌진과 3·1운동 민족대표였던 한용운 등 2명인데, 2등급 대통령장은 수여자가 없다. 3등급 독립장은 의병 김복한과 이필봉, 중국방면 노을룡, 임시정부 이상만, 계몽운동 이설 등 5명이고, 4등급인 애국장은 임시정부 김우진 등 12명, 5등급 애족장은 만주방면 김동진 등 33명, 6등급 건국포장은 국내항일 김용 등 3명, 7등급 대통령표창은 3·1운동 김용숙 등 175명이다. 대통령표창이 76.1%로 가장 많고, 애족장 14.3%, 애국장 5.2%, 독립장 2.2%, 건국포장 1.3%, 대한민국장 0.9% 순이다. 대통령표창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3·1운동 참여자와 태형처분자가 많은 사실과 관련이 있다. 홍성 출신 독립유공자의 훈격별 분류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2 | 홍성 출신 독립유공자 운동계열별 분류

운동계열	대한민국장	독립장	애국장	애족장	건국포장	대통령표창	계
인원	2	5	12	33	3	175	230

2) 홍성인의 국외독립운동

홍성 출신 독립유공자가 3·1운동 계열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사실은 한편으로는 그 이외의 운동계열 참여자가 많지 않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국외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는 10명으로 2.27%에 불과하다. 그나마도 운동계열은 만주방면 5명, 임시정부·한국광복군 각 2명, 중국방면 1명 등 모두 중국을 무대로 활동한 편중성을 보인다. 현재 전 세계 24개국에서 1천여개소 이상의 독립운동유적지가 확인된 것에 비해 본다면 홍성 출신 독립유공자의 국외 독립운동은 중국으로만 한정되는 특징적 양상을 보이며, 김좌진과 그 일족의 활동이 돋보인다.

국외에서 활동한 홍성 출신 독립운동가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 홍성 출신의 국외 독립운동 현황(가나다 순)

독립유공자	운동계열	생몰년월	훈격	서훈년도
김동진(金東鎭)	만주방면	1892~1938	애족장	1990
김우진(金宇鎭)	임시정부	1890~1952	애국장	1995
김종진(金宗鎭)	만주방면	1901~1931	애국장	1990
김좌진(金佐鎭)	만주방면	1889~1930	대한민국장	1962
남중희(南重熙)	만주방면	(1873)~(1945)	애국장	2005
노을룡(盧乙龍)	중국방면	1895~(1944)	독립장	1995
방경한(方景漢)	만주방면	비공개	애족장	1990
이상만(李象萬)	임시정부	1884~1955	독립장	1963
최덕휴(崔德休)	한국광복군	1922~1998	애족장	1990
한필동(韓弼東)	한국광복군	1921~1993	애족장	1990

* 생몰년도가 괄호로 처리된 것은 확실치 않은 경우임.

| 2 | 만주방면 활동

1) 만주지역의 독립운동

(1) 한인사회의 형성

간도는 지리적으로 한국과 인접해 있어서 함경도와 평안도 일대의 변경지대에서 압록강과 두만강만 건너면 바로 간도로 들어갈 수 있는 이점이 있어 이주 여정이 용이하다. 또한 국내와 비슷한 산천 지형이 낯설지 않아 서북지방의 빈민이 쉽게 간도로 이주할 수 있는 조건이 되었다. 특히 예로부터 만주가 우리의 땅이었다는 고토인식(故土認識)은 이주는 물론 독립운동 시기의 정신적 기축이 되었다.

19세기 이전부터 변경지대의 한인들이 두만강과 압록강을 건너 간도 땅에 농사를 짓고 가을이면 타작한 곡식을 가지고 돌아오는 '계절 출가이민' 이 있기는 했으나, 강을 건너 이주하는 것은 국법으로 금지되어 있었다.

1895년 청일전쟁 후 청은 조선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하였고 조선은 청의 종속국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 1897년 대한제국 수립 이후 한국 정부는 조·청 국경 문제와 한인 이주민 문제에서 압록강, 두만강 이북지역 한인들에 대한 보호 대책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하면서 1910년에는 두만강 연안 지역에 진위대의 설치, 1903년에는 간도관리사의 파견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하여 간도 거주한인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려 하였다. 이에 한인의 이주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을 취하게 되자 이주민의 수는 더욱 급증하게 되었다.

한인이 국외에 독립운동기지를 건립하고자 하는 이유는 1910년 경술국치 이후 일제가 한국에서 실시한 무단통치와 날로 가중되는 무단 탄압 아래에서 독립운동을 진행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에 이주 한인이 많이 살고 있는 여러 지역을 민족정신이 투철한 항일운동의 근거지로 만들어 그곳을 중심으로 일제와의 독립전쟁을 준비하려고 했던 것이다. 만주

는 지리적으로도 조선과 가까워 언제든지 군자금의 모집과 국내진공작전과 같은 독립전쟁론을 구현하기 위한 적합한 곳이었다.

(2) 북간도지역의 민족운동

1905년 을사늑약 전후부터 한인의 간도 이주는 경제적인 면에서뿐만 아니라 정치·사회적인 면에서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다. 일제에 의한 국권침탈과 경제 수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국권회복을 도모하고 일제의 탄압을 피하기 위한 항일의병의 이주가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서도 국내에서 항일전을 수행하던 항일 의병의 북상 망명은 항일무장투쟁의 국외 확대인 동시에 무장투쟁의 새로운 국면 전환이었다. 북간도에서는 함북 경성의병의 핵심인물인 이남기·최경희 등이 1908년 무렵 북간도와 연해주 등지로 집단 망명하였고, 함남에서 항일전을 수행하던 홍범도·차도선 등이 서북간도와 연해주 일대에서 항일활동을 지속했다. 이와 같이 간도로 망명한 의병은 1919년 3·1운동 이



사진 2 | 간도지역의 민족운동

후 무장투쟁론에 입각한 '독립전쟁론' 구현 분위기가 급속하게 확산되자 대한독립군과 대한의군부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독립군단을 편성하게 되었다.

한편 국내에서 애국계몽운동을 벌이던 민족운동자들도 을사늑약 이후 대거 망명 이주하게 되었다. 국망을 예견한 이상설·이동녕·정순만·여준 등이 일제의 한국통감부가 들어선 1906년부터 용정촌을 독립운동 기지로 건설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용정촌에 정착하여 민족주의교육의 요람인 서전서숙을 열었다. 그러나 1907년 일제의 통감부 간도파출소가 설치되어 일제의 감시와 방해, 그리고 재정난까지 겹쳐 그 해 10월경 문을 닫고 말았다.

서전서숙의 폐숙 후에도 용정촌은 물론 북간도 각 지방에는 국내에서 활동하던 애국계몽운동자와 의병의 망명이 계속되어, 용정촌 부근인 명동촌에 김약연·박정서 등이 서전서숙의 이념을 계승한 명동서숙을 건립하고 이를 명동학교로 발전시켜 북간도 민주주의의 본산으로 삼았다. 한편 이동휘·정재면 등의 기독교와 서일·계화 등의 대종교 등 여러 종교계 인물들이 망명하여 선교 활동을 통한 독립운동도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민족운동자들의 망명은 결국 이 지역의 대규모 한인사회를 규합, 항일운동 전력의 극대화를 구상한 결과였다. 곧 이 시기 망명 지사들은 일제와 독립전쟁을 결행해 조국 광복과 민족 해방을 달성하는 것을 최고의 이념으로 삼고 있었다. 이를 위해 민족운동자들은 항일민족운동의 기반이 되는 교육·종교·실업 등 각 방면에 걸쳐 심혈을 기울이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더욱 조직적이고도 효과적인 항일민족운동을 추진하기 위한 자치단체의 설립을 필요로 했고, 그 결과 1913년 1월 북간도지역의 한인자치와 민족운동을 도모하기 위한 결사인 간민교육회의 결성을 보게 되었다.

간민교육회의 활동내용은 일반 교육뿐만 아니라 항일과 자치활동을 다 같이 신장시키며 조국독립운동을 추진하는 것이다. 또한 간민교육회

는 명동학교와 같은 성격의 민족주의 교육기관을 각지에 설립·운영하였다. 그 결과 북간도 한인사회에서는 국내 각지보다 더 많은 수의 학교가 설립되었을 뿐만 아니라 연해주의 한인 자치단체인 권업회와 연계하여 서구의 신문화를 국내보다 높은 수준으로 수용할 수 있었다.

북간도의 한인사회는 이와 같이 1906년 서전서숙의 개숙으로 국외 독립운동 기지화가 추진된 이래로 일제의 간도파출소라는 침략세력의 방해와 탄압에도 불구하고 독립전쟁론을 구현시킬 독립운동기지의 터전을 굳혀갔던 것이며, 이와 같은 터전을 통해 3·1운동 이후 1920~1930년대의 강인한 무장독립투쟁을 전개해 갈 수 있었던 터전을 마련하였다.

(3) 서간도지역의 민족운동

서간도는 독립운동자들에 의해 북간도보다 앞서 독립운동기지로 구상되었다. 김구와 김형진이 삼원포를 두 차례 이상 답사하였고, 그 뒤 을미의병 실패 후 유인석과 제천의병 계열의 인물들 다수가 통화현 오도구로 들어와 정착하면서 이 지역이 한민족의 부흥기지로 구상되었다. 또한 평북 의병장 전덕원을 비롯하여 강원도의 박장호 등도 서간도로 망명한 대표적인 의병세력으로, 후일 서간도 독립운동에서 중요한 인물들로 부상하게 된다. 특히 3·1운동 이후 서간도지역의 대표적인 독립군단 가운데 하나로 편성된 대한독립단은 이들 세력을 근간으로 조직된 단체였다.

신민회 계통의 애국계몽운동자들 역시 서간도지역으로 망명하였다. 이들의 서간도 망명은 곧 신민회가 추진한 독립군기지 건설사업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었다. 이회영과 이시영을 비롯한 이들은 1911년 초까지 환인현 횡도천과 유하현 삼원포 일대에 도착해 독립운동기지 건설을 위한 기초를 닦았다. 서간도로 망명한 이들은 북간도의 경우와 같이 항일독립운동의 구체적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이주 한인사회의 경제력 향상 문제 등의 해결에 고심했다. 이를 위해서는 한인사회

를 하나의 단체로 규합, 세력을 극대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그 결과 1911~1912년 사이에 한인자치단체인 경학사와 이를 계승·발전시킨 부민단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경학사는 생산과 교육에 중점을 두고 병농일치의 원칙에 따라 농업개발과 군사교육, 민족의식의 고취, 구국인재를 양성하여 무장투쟁을 전개하는 것을 교육의 주된 활동 목표로 삼았다. 또한 부설기관으로 신흥강습소를 설립하였다. 그러나 경학사와 신흥강습소는 자금난과 중국 정부의 탄압이 겹쳐 해산하였고, 이 후 1914년에 이회영과 이상룡 등을 중심으로 하여 부민단을 조직하고 신흥강습소를 신흥학교로 개칭했다. 더불어 한인 자제들의 교육을 위해 삼광학교·동화학교·배달학교 등 수많은 민족주의 교육기관을 각지에 세웠다. 부민단은 1919년 3·1운동 직후에 한족회로 개편되었고, 한족회는 군사기관인 서로군정서를 설립하고 신흥강습소의 후신인 신흥학교를 신흥무관학교로 개편하여 독립군을 양성하는 중추기관으로 자리를 잡았다.

2) 만주에서 활동한 홍성인

(1) 김동진

본적 : 충청남도 홍성 갈산 상촌

주소 : 만주 길림성 영안현 산지역

김좌진의 친동생이다. 1920년 6월 서울에서 임시정부 연통제 및 교통국 설치와 관련한 비밀결사 주비단(籌備團)이 조직되고, 소진형(蘇鎭亨)이 단장에 추대되자 이에 가입하여 군자금 모집 등 활동을 벌이다가 동년 말에 일경에 체포되었으나, 다행히 증거 불충분으로 1921년 12월 면소 석방되었다.

1922년 10월에는 다시 경상도 일대에서 신태식(申泰植)을 단장으로 하여 조직된 의용단(義勇團) 조직에 참가하여 군자금 모집 활동을 하다가 만주로 망명하였다. 1927년 만주에서는 각 독립운동 단체의 통합운

동이 한창이었는데, 그는 1928년 1월 김동삼(金東三)이 위원장으로 추대된 군민회의(軍民會議)의 민사위원(民事委員)으로 선임되어 활동하였다. 동년 5월에는 길장연로서방(吉長沿路西方)에 참의부(參議府)·신민부(新民府)·정의부(正義府)의 3부대표가 모여 유일대독립당을 조직하여 각 단체를 통합하는 회의가 있었는데, 그는 김좌진 등과 함께 신민부 대표로 참석하였다.

1929년 초에는 김좌진과 함께 만주 중동현에서 한족연합회를 조직하여 독립운동을 계속하던 중 1937년 7월 7일에 중일전쟁이 일어나자 만주에서 일군에게 포로로 체포되어 국내로 압송되었다. 그후 일경에게 모진 고문을 당하는 옥고 끝에 1938년 3월 옥고의 여독으로 순국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77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2) 김종진

본적 : 충남 홍성 구항 내현 366

주소 : 중국 중동선 해림역 부근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3월 7일 홍성에서 시위 군중을 지휘하다가 주동자로 구속되어 수개월동안 옥고를 겪고 동년 6월에 미성년자라 하여 석방되었다. 그 후 상경하여 중동중학 속성과(中東中學速成科)에 학적을 두고 지하운동에 전념하다가 1920년 4월 봉천(奉天)으로 망명하여 형 김연진(金淵鎭)과 같이 내외 연락을 하던 중 국내로 무기를 반입하다가 홍경식(洪景植)이 체포되자 동년 가을 다시 북경(北京)으로 피신하였다.

북경에서 홍성 의병이었던 이세영(李世永)과 북로군정서 대표 조성환(曺成煥), 그리고 이회영(李會榮) 등 다수 동지들과 접촉하면서 내외 정세를 관망하다가 독립운동가로서의 자신의 교육과 훈련의 필요성을 깨닫고 상해의 임시정부 법무총장 신규식(申圭植)을 찾아 그의 소개로 운

남성 군관학교교도대(雲南省軍官學校教導隊)에 입대하였다. 그 후 교도대 2년, 군관학교 2년 반의 교육과정을 밟고 군인으로서의 실력은 물론 정치·경제·사회 각 방면의 지식을 고루 갖추고 1925년 9월에 졸업하였다.

졸업 후 곧 상해로 돌아왔는데 이때 독립운동 진영은 급변하여 민족주의·공산주의·무정부주의 등 3파로 나누어져 있었다. 그는 그중 무정부주의자들과 의기가 상통하였으며, 독립운동의 근거지인 북만주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하고자 1926년 봄 남경(南京)·한구(漢口)·무창(武昌) 등지를 돌아다니면서 동지규합에 나섰다. 1927년 10월에 북만으로 가 신민부(新民府)의 지도자이며 족형(族兄)인 김좌진을 방문하였다.

김좌진으로부터 북만의 제반 사정을 들은 그는 각 지방의 실정과 적정(賊情)을 살피기 위하여 중동길돈연선(中東吉敦沿線)과 장백(長白)·무송(撫松) 등 일대를 시찰한 뒤 1928년 8월 김좌진에게 운동조직의 개편과 재훈련, 교민에게 항일 반공 계몽운동을 전개할 필요성과 아울러 교포와 독립군과의 단결이 긴요함을 건의하였다.

1929년 7월에는 사상 계몽 단체로 재만조선무정부주의자연맹(在滿朝鮮無政府主義者聯盟)을 조직하고 그 대표가 되었으며, 김좌진의 위탁으로 신민부의 개편 정비 작업에 착수하였다. 동년 8월에는 교민의 자치단체로서 재만한족총연합회(在滿韓族總聯合會)를 결성하고 일체 조직을 일원화하여 조직부 위원장 겸 농무부 위원장에 취임한 후 사상계몽과 적색분자 제거, 농민의 집단 정착 및 민심의 안정에 주력하였다. 동년 12월 10일에는 해림(海林)에서 교포 자제의 자주 자립 정신을 배양하기 위한 민립중학기성회(民立中學期成會)를 전명원(全明源, 일명 李乙奎)·김야운(金野雲)·이강훈(李康勳) 등과 함께 창설하였는데 그 집행위원으로 임명되어 활동하였다.

1930년 봄에는 북경에서 개최된 재중국조선무정부주의자대표대회에 북만대표로 참석하여 북만한족총연합회운동에 참여할 것을 결의케 하였다. 그 결과 동년 말에 다수 동지가 만주로 들어와 독립운동이 크게 활

기를 띠게 되었다. 그러나 1931년 7월 11일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중동선해림역(中東線海林驛) 교외에서 살해당하고 말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1977년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3) 김좌진

본적 : 충남 홍성 고도 삼촌

주소 : 중국 동녕 소수분

1905년 서울로 올라와 대한제국무관학교(大韓帝國武官學校)를 졸업하고 고향으로 내려가서 가산을 팔아 호명학교(湖明學校)를 설립하고 지방 청년 자제들에게 신학문을 교육시켰다. 1907년 다시 상경하여 노백린(盧伯麟)·윤치성(尹致晟) 등과 함께 조직적으로 구국운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홍성에 대한협회지부(大韓協會支部)를 설치하고 민중의 계몽에 노력하는 한편 기호흥학회(畿湖興學會)를 창설하여 지방에 있는 유능한 자제를 뽑아 서울에 유학케 하였다.



사진 3 | 김좌진장군 생가



사진 4 | 김좌진장군 동상

우리나라 역사에서 노비제도는 1894년의 갑오개혁 때 공식적으로 폐지되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신분질서는 엄존하였고, 노비도 여전히 가장 하층민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민족해방운동은 봉건적 신분의 해방으로부터 시작한다. 따라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독립운동에 나서며 자기 집의 노비를 해방시킨 사례가 확인된다. 박상진을 비롯하여 이상룡·김좌진·이회영·여운형·류인식 등이 그들이다.

김좌진도 고향인 홍성에서 국권회복운동에 나서며 노비의 해방부터 실천하였다. 그가 노비 해방을 단행한 시기는 기록에 따라 15~17세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사실 자체는 명백하다. 그의 집은 부호로서 많은 노비를 거느리고 있었는데, 그는 어느 날 노비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인 뒤에 노비 문서를 불태우고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전답을 노비들에게 골고루 나눠주었다. 그리고 곧 신교육운동을 전개하여 호명학교의 설립을 주도하였다. 가노를 해방시키고 학교 건립에 나서는 것은 김좌진과 류인식이 거의 같은 시기에, 같은 방법으로 벌인 계몽운동이었다. 현재 그의 홍성 생가 대문 입구에는 '가노를 해방시킨 것은 민족의 봄이요(家

奴解放民族春), 청산리 대첩은 광복의 몸통이다(靑山大捷光復身)' 라는 문구가 새겨져 걸려 있다. 이는 가노 해방과 청산리 대첩을 그의 대표적 업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김좌진은 고향 홍성에서 노비해방과 호명학교 설립에 참여한 후 부인 오씨와 함께 상경하였다. 그의 상경 시기는 기록에 따라 약간의 편차는 있으나 1907년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상경한 김좌진은 김덕규에게 양자로 출계한 형 경진의 집에 머물렀다. 이 무렵 그는 박상진을 만나 의형제를 맺었다. 당시 김좌진이 박상진과 의형제를 맺었던 사실은 박상진 순국 후 그가 보낸 만사에서도 확인된다. 즉, 만사인 「곡박의사상진씨(哭朴義士尙鎭氏)」에 보면 '결의도원이십년(結義桃園二十年) …' 이라 한 부분이 보인다. 박상진의 순국이 1921년이니, 약간의 과장을 감안하면 이들이 상경시절 만났음을 알려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김좌진은 이 만사에서 박상진에 대해 자신을 '의제(義弟)' 라고 칭하고 있다. 이로써 보면 이들은 일찍이 만나 도원결의를 하였고, 광복회 결성의 서곡은 이미 당시에 울려 퍼졌던 것임을 알 수 있다.

일설에는 그가 육군무관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정황상 불가능한 일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김좌진의 서울생활은 그가 향후 독립투쟁을 전개하는 데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특히 새로운 인물들과의 교유는 그가 새로운 사상을 받아들이고 국권회복운동에 전념하는 커다란 자산이 되었다. 그는 계동에 있는 윤치성(尹致晟)의 집을 출입하였는데, 이곳에서 노백린(盧伯麟)·이갑(李甲)·유동열(柳東說) 등과 접촉하며 신식 군사학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흥미를 가졌다. 이들은 후에 신민회 회원이거나 광복회에 참여하여 박상진과 동지가 된 인물들이 많았다. 고전적인 군사학 지식이 고작이었던 김좌진에게 일본 육군사관학교와 구한국 군인 출신에게 들은 신식 군사학은 새로운 세상의 이야기였을 것이다.

그는 1907년 김항규(金恒圭)·김홍진(金弘鎭) 등과 함께 자진하여 상

투를 잘랐다고 한다. 이는 급속히 진행되던 일제의 침략과 식민지화에 대한 위기의식의 발로로 여겨지며, 이후 그가 본격적으로 국권회복운동에 나서는 각오를 다진 행동으로 이해된다.

1908년에는 오성학교(五星學校) 교감을 지내고 청년학우회원(青年學友會員) 및 한성신보(漢城新報) 이사로서 민족정신의 고취에 진력하였으며, 1910년에 일제가 한국을 강점하였을 때에는 이창양행(怡昌洋行)이란 무역회사를 설립하여 독립운동가들의 집합처로 삼는 한편 남북만주와 연락하는 비밀기관으로 하였다.

1915년에는 노백린·신현대(申鉉大)·윤홍중(尹洪重)·박성태(朴性泰)·기명섭(奇明燮)·김홍두(金弘斗) 등과 함께 박상진이 주도한 광복회(光復會)에 참가하여 국내 각지를 통하여 항일운동에 맹렬한 활동을 전개하던 중 일경에게 체포되어 서대문감옥에서 3년간 옥고를 치렀다. 1917년 출옥하였으나, 일경들이 또다시 체포하려 하자 두만강을 건너



사진 5 | 청산리전투 전적지 목비

만주로 망명하였다.

1919년 초 대한독립선언서(大韓獨立宣言書)를 서일(徐一)·여준(呂準)·유동열(柳東說) 등 38인과 함께 서명하여 발표하였으며, 동년 8월 7일에는 서일·현천묵(玄天默)·계화(桂和)·이장녕(李章寧)·김규식(金圭植)·이범석(李範奭)·조성환(曺成煥) 등과 정의단(正義團)을 근본적으로 개편하여 임전태세의 군정부(軍政府)를 편성하고 북로사령부 제2연대장 겸 간북총판국(墾北總辦局) 재무참사(財務參事)로 일하였다. 동년 12월에 북로군정서(北路軍政署)라고 개칭하고 진용을 정비할 때에 총사령관으로서 총재 서일을 보필하는 한편, 왕청현 십리평(汪淸縣十里坪)에 사관연성소(士官鍊成所)를 설치하고 400명의 독립군 간부를 양성하는 데 온 힘을 다하였다.

동북 만주지역의 독립군은 1920년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시베리아에 출병했던 체코 군대의 특별한 호의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무기를 구입하여 완전한 무장을 갖추고 많은 군자금과 무기를 확보하게 되었다. 이 사실을 탐지한 일본 육군성은 중국 군벌 장작림(張作霖)에게 압력을 가하는 한편 시베리아에 출병하였다가 남하하는 일본군 제19사단과 나남(羅南) 제20사단에 명령하여 북로군정서를 협공하게 하였다.

그가 왕청현(汪淸縣) 서대파구(西大坡溝) 청산리(靑山里)에 이르렀을 때 일본군 3대대가 무산(茂山)으로부터 습격해 온다는 정보를 듣고 곧 임전태세를 갖추어 10월 18일에 청산리 백운평(白雲坪) 전방 삼림속 유리한 전투지점에 독립군을 매복시키고 일본군의 내습을 대기하고 편의대(便衣隊)로 하여금 적의 병력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한편 적진 부근의 교포를 시켜 독립군의 병력은 미약하고 투지가 없다는 정보를 흘려 적으로 하여금 독립군을 경시하게 하였다. 그리고 독립군을 2개중대로 편성하여 제1중대는 그가 직접 지휘하고 제2중대는 연성대장(鍊成隊長) 이범석(李範奭)이 지휘하게 하였다.

일본군은 독립군의 병력이 보잘 것 없다는 말을 듣고 동월 20일 의

기양양하게 청산리를 3면으로 포위하고 기병대 일부를 가지고 대담하게 아무 저항도 받지 않고 백운평 삼림으로 진입하였다. 이때 그는 주도면밀한 작전지휘로 백운평 전방에 매복한 독립군에게 일제 사격을 명령하여 적의 전위부대를 전멸시켰으며 계속적인 전투를 통하여 일본군 연대장을 비롯하여 3,300여명을 섬멸하는 커다란 승리를 거두었다. 이는 소수의 병력으로 10배가 넘는 일군을 물리친 독립전쟁사상 최대의 승리였다. 그는 이곳 주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하들을 인솔하고 밀산(密山)으로 이동, 밀산에 집결한 10개의 독립운동단체를 통합하여 대한독립군단(大韓獨立軍團)을 결성하고 부총재에 취임하였다.

1921년에는 전 독립군을 인솔하고 노령 이만으로 건너갔다가 뒤에 자유시(自由市)로 다시 이동했으며 1922년에는 소련 당국의 배신으로 자유시참변을 겪게 되었다. 이후 북만주 영안(寧安)으로 탈출하여 1925년 3월 15일에는 김혁(金赫)·최호(崔灝)·나중소(羅仲昭)·조성환·박성태·유정근(柳正根)·허빈(許斌)·정신·이일세(李一世) 등과 함께 전 북로군정서 정신에 입각한 신민부(新民府)를 조직하였으며, 군사부 위원장겸 총사령에 선임되었다. 그리고 목릉현(穆陵縣) 소추풍(小秋風)에 성동사관학교(城東士官學校)를 설립하고 부교장으로서 교장 김혁 등과 아울러 독립군 간부양성에 전력을 다하였다.

동년 10월 10일에는 상해(上海)의 임시의정원(臨時議政院)에서 그를 임시정부 국무원(國務員)에 임명하였으나 사양하여 취임하지 않고 계속하여 만주에서 독립군을 양성하며 대일 항쟁에 전력을 기울였다. 1927년 2월 신민부 본부가 일본 경찰의 급습을 받아 중앙집행위원장 김혁 이하 12명의 간부가 체포되었다. 그는 신민부를 재정비하고 중앙집행위원장에 취임하여 신민부를 통할하는 한편 중국구국군사령관(中國救國軍司令官) 양우일(楊宇一)과 회담하여 일본군을 격퇴하기 위한 공동전선을 취하기로 합의하고 동년 8월에 중국 국민당 동삼성공작책임자 공패성(貢沛誠)·장령(將領)·악유준(岳維峻)·사가헌(史可軒) 등과 회동하여 한

중연합군을 조직하고 일본군을 섬멸할 계획을 세우던 중 일제의 압력을 받은 장작림이 공패성 등을 체포하고 탄압함으로써 좌절되었다.

1928년에는 참의부 · 신민부 · 정의부의 3개 단체통합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였으나 각 단체의 이해관계로 실패하고 혁신의회(革新議會)만을 구성하였다. 1929년에는 정신 · 민무(閔武) · 김종진(金宗鎭) · 이을규(李乙奎) · 유운초(劉雲樵) · 한규범(韓奎範) · 이종주(李鍾柱) · 조각산(趙覺山) · 이달(李達) 등과 함께 중동선(中東線) 일대에서 한족총연합회(韓族總聯合會)를 조직하고 주석에 취임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한편 영안현 일대의 동포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중동선 산시역(山市驛) 부근에 정미소를 설치하고 동년(음) 12월 25일 정미소에서 작업을 하던 중 공산주의자로 전향한 종전의 부하이며 일제 고등경찰에게 포섭되었던 김일성(金一星)의 교사를 받은 고려공산당(高麗共産黨) 청년회원이며 재중청년동맹원(在中靑年同盟員)인 박상실(朴尙實)이 등 뒤에서 쏜 흉탄을 맞고 순국하였다. 마지막 순간 그는 "할 일이 … 할 일이 너무도 많은 이때에 내가 죽어야 하다니 … 그게 한스러워서 …"라는 말을 남기고 순국하였다고 한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62년에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하였다.

(4) 남중희

본적 : 충남 홍성 결성 덕우

주소 : 만주

1927년 중국 훈춘(琿春) 석두하자(石頭河子)에서 신민부(新民府) 경무부장(警務部長)으로 활동했다. 김좌진과 동향 출신인 그는 줄곧 김좌진과 함께 독립군 활동을 전개했다. 신민부 간부로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던 그는 1928년 1월 일본 경찰과 중국군 1개 중대가 신민부를 습격하였을 때 중앙집행위원장 김혁(金赫) 등이 체포된 데 이어, 동년 2월 경리부 위원장 유정근(兪正根) 등과 함께 체포되었다. 그는 이 일로

1929년 징역 2년을 받아 신의주감옥에서 옥고를 치렀는데, 출옥 후 김좌진의 피살 사실을 알고는 은둔 생활을 하였다고 한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5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5) 방경한

본적 : 비공개

주소 : 중국 영안현 동방성

그의 망명을 전후한 시기의 기록은 자료가 불비하여 알 수 없다. 그는 1940년 중국 길림성(吉林省) 영안현(寧安縣) 동방성(東方城)에서 대종교(大倧敎) 제3세 교주인 윤세복(尹世復)으로부터 독립운동을 위한 거점 확보를 꾀하라는 지시를 받고 활동하였다. 1941년 항산(恒山) 광산지대에서 동지 30여 명과 함께 결사대에 편성되어 이성일(李成一)을 대장으로 하여 친일 부일배 소탕 및 일본군 시설의 파괴를 목적으로 활동을 펴나가던 중 일경의 총에 맞아 부상을 입었다고 한다.

1944년에는 최파(崔波) 결사대의 연락책으로 항일활동을 계속하였으며, 1945년 8월 10일에는 길림성 영안현 경내 산길에서 일본군 수송대와 만나자 지형을 이용하여 기습함으로써 수송대 전원을 사살하는 전과를 거두고 원대로 복귀하는 등 해방을 맞이할 때까지 투쟁을 벌였다고 한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하였다.

| 3 | 중국방면 활동

1) 중국 관내지역의 독립운동

(1) 한인사회의 형성

일제 강점기 해외 독립운동의 무대가 되었던 중국 관내는 당시 중국

동북군벌과 만주국의 영역인 중국 동북지방과 구분되는 중국 국민당정부와 중국 공산당정권의 관할구역을 가리킨다. 이에 상반되는 개념으로 동북 지역을 관외라고 칭한다.

중국 관내의 한인사회는 상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우선 상해는 국내와 지리적으로 가깝고, 각국의 외교 기관이 있었기 때문에 국제정세를 파악하기에 용이하였다. 무엇보다도 서구 열강의 조계지가 있었기 때문에 일제의 직접적인 탄압을 피할 수 있었다.

한인의 중국 진출은 19세기 후반 개항 이후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독립운동의 기반이 조성된 시기는 1910년 이후로 보아야 한다. 1910년을 전후로 독립운동가들의 정치적 망명이 시작되면서 한인을 위한 자치 단체 혹은 독립운동단체의 결성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2) 관내 지역의 독립운동

1910년 후반 한인 이주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여러 단체가 조직되어



사진 6 | 대한민국임시정부·임시의정원 신년 축하식(1921.1.1)

1945년까지 지속적인 항일투쟁을 이어왔다. 대표적인 단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이다. 중국 관내의 민족운동은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정치운동 측면이 강하였다. 이밖에도 다양한 단체가 독립운동을 펼쳤다.

신규식(申圭植)은 앞장서서 상해 독립운동을 위한 여건을 조성해 나갔다. 그는 국제정세 특히 중국정세를 파악하여 이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독립운동가의 상해 망명을 적극 장려하기도 하였다. 당시 상해로 망명한 인물은 대체로 애국계몽인사들이었다.

1912년 5월, 동제사(同濟社)가 성립되었다. 동제사는 본부와 지사를 두었고, 본부 이사장에는 신규식, 총재에는 박은식(朴殷植)이 선임되었다. 동제사는 비밀결사였기 때문에 구체적 활동 파악은 불가능하나 국권회복을 위한 단체였음에는 틀림없다. 동제사 결성은 신한혁명당의 결성(1915), 대동단결선언(1917), 신한청년당의 결성(1918), 임시정부 수립(1919)의 기반이 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이었던 일본이 승리하게 되자 독립운동 단체 운영이 힘들어졌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독립전쟁론을 실현하기 위해 신한혁명당(新韓革命黨)이 조직되었다. 신한혁명당은 본부와 지부를 두었는데, 북경에 본부를 두고, 상해를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이는 중국의 정세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당수 역시 광무황제로 추대하였다. 신한혁명당은 당시 러시아 지역의 권업회가 조직한 대한광복군정부와 독립전쟁 수행을 비밀리에 준비하였다. 이 계획은 성공하지 못하였지만 어려운 여건에서 힘을 모아 독립전쟁을 실현하려한 것은 높이 평가해야 한다. 그러나 국제 정세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것과 보황주의를 택한 것은 한계라고 할 수 있다.

1917년, 독립운동의 방략과 이론을 재정비하기 위해 대동단결선언을 작성하였다. 신규식·박은식·조소앙(趙素昻) 등이 중심인물이었다. 이들은 이 선언을 통해 국민주권설, 임시정부 수립 등을 주장하였다. 이 선

언에서 언급된 임시정부 수립은 당장 실현되지 못하였으나 1919년 상해 임시정부 수립으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다.

1918년 동제사의 전위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신한청년당(新韓青年黨)이 조직되었다. 신한청년당은 제1차세계대전을 겪고, 독립전쟁보다 외교활동에 집중하였다. 따라서 독립청원서 작성, 파리강화회의 대표 파견과 같은 활동을 전개하였다. 신한청년당은 임시정부 수립의 기반이 되었으나 외교활동만 견지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2) 중국 관내에서 활동한 홍성인

중국 관내에서 활동한 홍성인은 노을룡(일명 盧一龍)이 유일하다. 그의 본적은 홍성읍 오관리(五官里)이고 독립운동 당시 주소는 베이징 일련사(日蓮寺)로 되어 있다. 그는 1919년 중국 상해로 망명한 뒤 의열단(義烈團)에 가입하여 암살 및 파괴공작 활동을 전개하였다.

1924년 1월 중국이 국공합작(國共合作)을 성사시키며 항일투쟁을 전개하자, 그가 속한 의열단 역시 의열투쟁에서 대중투쟁으로 노선을 전환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24년 4월 김원봉(金元鳳)은 중국 국민혁명의 대본영이 된 광동(廣東)에 머물면서 국민정부와 한중연합을 통한 반제·반일투쟁을 강화할 것을 역설하였다. 그 결과 1926년 봄, 의열단은 장개석(蔣介石)으로부터 황포군관학교(黃埔軍官學校)의 입교를 허락 받았다.

그는 1926년 3월 김원봉·박효삼(朴孝三) 등 의열단원들과 함께 황포군관학교 제4기생으로 입교, 보병과에 소속되어 전술학·군제학·병기학·군대정치공작 등을 학습하고 10월 졸업하였다. 당시 4기생은 2,654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한적(韓籍) 출신이 24명이었다. 졸업 후 중국 국민혁명군(國民革命軍) 초급 장교로 임관한 그는 김원봉과 함께 광동에 머물며 의열단을 혁명정당으로 전환할 것을 결의하였다. 한편 동년 12월 일어난 광주봉기(廣州蜂起) 때에는 박건웅 등과 함께 참여하여 반일

혁명투쟁을 전개하였다. 그 후 1927년 4월 왕자량(王子良) 등과 함께 의열단 남창지방집행위원회(南昌地方執行委員會)에 소속되어 활동하면서 동년 8월 남창봉기(南昌蜂起)에 참여하여 혁명운동을 전개하였다.

1931년 후반기부터는 일제의 중국 대륙 침략으로 촉발된 중국민의 반일의식을 배경으로 김원봉 등과 함께 중국 국민당정부(國民黨政府)의 재정적 · 군사적 지원을 받으며 의열단의 항일투쟁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한중연합방안을 타진하였다. 그 결과 1932년 장개석의 원조로 김원봉이 중국 남경에 위치한 중국중앙육군군관학교(中國中央陸軍軍官學校) 교외의 탕산(湯山)에 조선혁명군사정치간부학교(朝鮮革命軍事政治幹部學校)를 설립할 수 있었다. 그는 1932년부터 1933년까지 조선혁명군사정치간부학교 제1기생 대부실(隊附室) 교관으로 부대 교련 등을 담당하며 사관생도를 지도하여 독립운동의 전위대를 양성하였다. 제1기의 수업기간은 1932년 10월 20일부터 1933년 4월 20일까지였는데, 교육인원은 26명이었다. 그를 비롯한 김원봉, 박건웅 등 13명이 교관으로 있었다. 그는 1기 교관 명단에만 보이는데, 그 까닭은 이후 김원봉의 비서가 되어 배신자를 처단하는 등의 다른 임무를 부여받았기 때문이다. 이는 이철호와 이집중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1933년 말에는 남경 중앙육군군관학교 교육총대(教育總隊) 제4대 교관으로 근무하였는데, 1934년 6월 현재 일제의 첩보기관 자료에 그가 이집중, 김종 등 한인들과 중국군 복무자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의열단이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받아 남경지역에서 비록 초급장교이기는 하나, 서서히 중국군 내에 자기 세력을 심어가며 정치적 기반을 구축해 가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는 1935년 북경에서 의열단원 김시현(金始顯) 등과 함께 한인 부일배(附日輩)를 처단하였고, 하남성(河南省) 개봉(開封)에서 일제 비밀 정보원인 중국인을 처단하는 등 활동을 전개하다가 1944년경 일경에 피체되어 순국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 4 | 대한민국임시정부 활동

1)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조직과 활동

1917년 상하이에서 활동하던 신규식·조소앙·박은식 등이 「대동단결 선언」을 발표하였다. 이 선언은 국내외에 흩어져 있는 전 민족이 대동단결하여 '유일무이(唯一無二)한 최고기관'을 설립하자고 제창한 문서이다. 융희황제가 1910년 주권을 포기한 것은 국민에게 양여된 것으로 보고 그 논리 위에서 임시정부를 수립하자고 제창하였다. 이를 위하여 민족대표들이 회의를 열자고 제의한 것이다. 비록 이는 실현되지 못하였지만 '임시정부' 수립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안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1919년 한민족은 거족적인 3·1운동을 통해 독립국임과 자주민임을 선언하였다. 한민족의 자주독립 열기는 임시정부의 출현으로 결실을 맺었다. 3·1운동 직후 선포된 임시정부는 8~9개나 되었다. 이렇게 선포된 임시정부 중에는 수립한 주체와 과정이 명확하게 밝혀진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전단으로만 알려진 경우도 있다(3·1운동 직후에 전단이나 보도기사만으로 알려지는 정부를 말한다. 서울 시내에 뿌려진 전단에 등장한 '조선민국임시정부'와 '대한민간정부'가 대표적이다. 이밖에 1919년 4월 15일자 『길림공화보』에 소개가 된 '고려임시정부'도 있었다.). 실제적인 인적 기반과 조직을 갖춘 정부는 세 곳으로 상해의 대한민국임시정부, 연해주의 대한국민의회, 국내에서 수립된 한성정부가 그것이었다. 이들은 통합운동의 결과 1919년 9월 상해에 통합 임시정부를 수립할 수 있었다. 통합 임시정부의 수립은 좌우의 합작을 이뤄낸 의미 있는 쾌거였다.

임시정부는 수립 직후부터 정부의 인력과 재정의 결정적인 공급선이

라 할 수 있는 연통부와 교통국을 설치하여 국내 행정을 확보하고 정보를 수집하고자 하였다. 연통부는 내무부 산하기관으로 국내에 정부의 기반을 확보하고, 행정기관의 통신, 자금모집 및 국내행정 파악에 그 목적을 두었다(실제로 임시정부는 평안도 · 함경도 등 북부지역에는 비밀리에 군수와 면장까지 임명하였고, 행정권을 확보하기도 하였다.). 이에 비해 교통국은 교통부 산하 조직으로 각 지방의 연락조직망으로, 주로 통신과 정보수집 및 전달기능을 갖고 있었다.

초기 임시정부는 외교활동이나 독립전쟁 등을 지도, 통합하는데 주력하였다. 특히 만주와 연해주의 독립군 단체를 정부 산하로 편제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리하여 서간도에서는 광복군총영을 조직하거나 주만육군참의부를 설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연통제와 교통국이 일제에 의해 붕괴되고 만주의 독립군 세력이 1920년 봉오동·청산리전투 이후 각지로 흩어지는 바람에 더 이상 군사활동을 주도할 수 없게 되었다.

임시정부가 독립운동을 통일적으로 지도할 정부로서의 영도력을 잃어가자, 그 해결책으로 국민대표회의 소집 방안이 제시되었다. 1923년 상해에서 열린 국민대표회의는 비록 대한민국임시정부에 대한 처리 문제를 주된 논제로 삼지만, 독립운동 세력의 통합이나 통일을 추구한 독립운동사에서 가장 중요한 회합이라 할 수 있다. 더구나 130명이 넘는 대표와 이를 수행한 인물들이 반년 가까이 상해에 머물며 회의를 진행하였다. 이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이른바 레닌자금으로 충당하며 좌우연합 회의의 성격을 지니고 진행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독립운동의 통일방안을 둘러싸고 기존의 임시정부의 헌법, 제도, 정책 기타 일체를 개선하자는 '개조론'과, 기존의 각 단체를 모두 해체하고 새로운 통일조직을 만들자는 '창조론'이 맞섰다. 결국 창조파와 개조파의 대립으로 민족운동의 통합도 좌절되었다.

임시정부 중심의 독립운동이 침체에 빠지고 임시정부의 외교노선에 실망한 무장투쟁노선주의자들이 상해를 떠나갔다. 게다가 1931년 7월 '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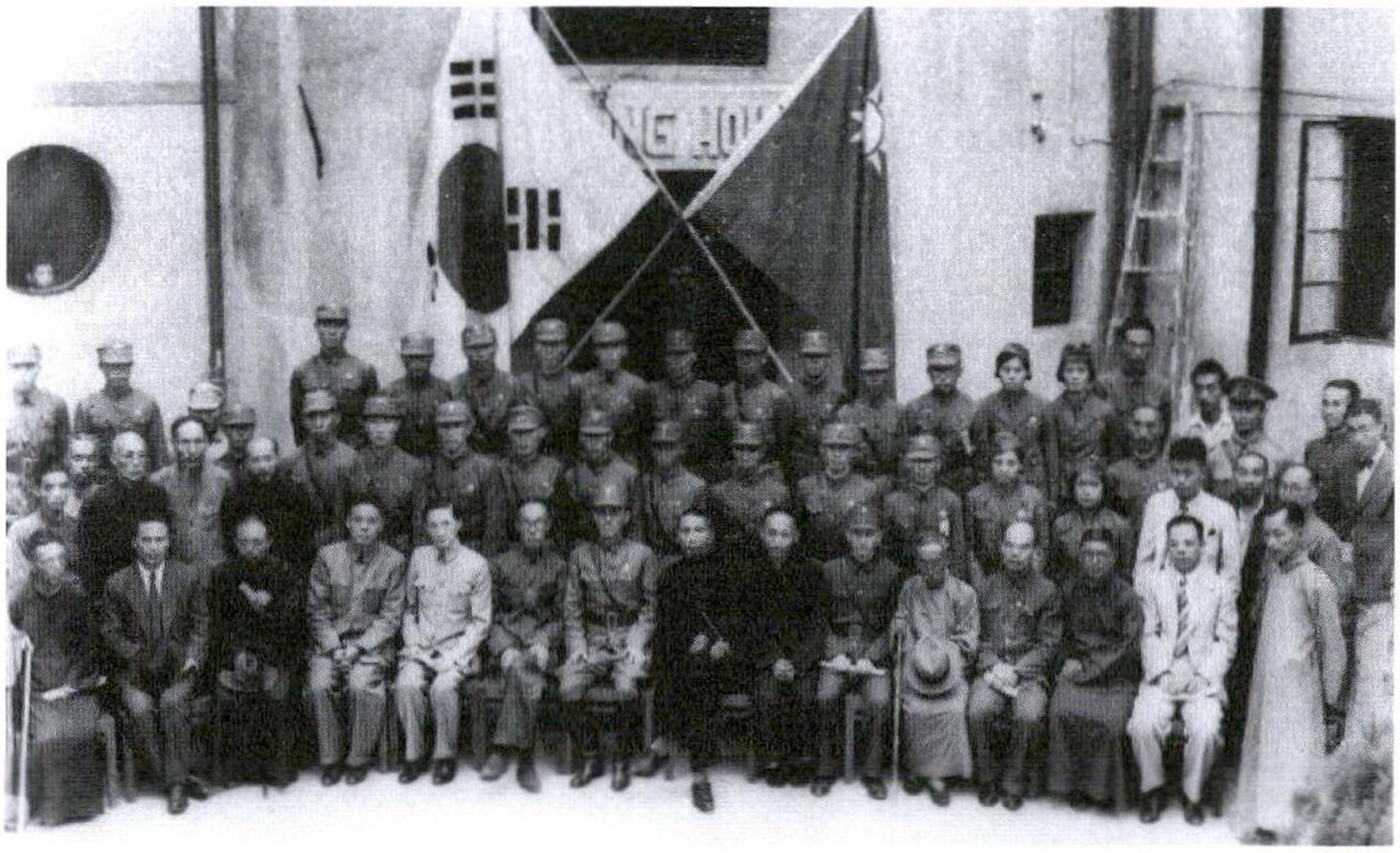


사진 7 | 광복군 총사령부 성립전례식(1940.9. 중경)

보산사건' 이 일어나고 같은 해 일본의 만주침략과 1932년 상해침략 속에서 중국 동북지역 및 관내지역의 한국독립운동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세 속에서 임시정부 국무회의는 김구의 제안에 따라 '새로운 국면을 타개' 하기 위한 항일 특무부대 한인애국단을 조직하였다.

한인애국단의 단원인 윤봉길의 홍구공원 투탄의거는 장기간 침체국면에 있던 임시정부에 활로를 열어 주었고 악화된 중국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중국인의 지지와 성원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곧 일제의 반격을 받아 임시정부는 상해를 떠나게 되었고 1940년 중경에 정착하기까지 8년여의 이동시기를 겪게 된다(상해를 떠나 항주(1932), 진강(1935), 장사(1937), 광주(1938.7), 유주(1938.10), 기강(1939)으로 이동하였다.).

임시정부는 소재지를 옮겨 다니는 동안에도 군사계획을 구체화하고 전시체제를 준비하였다. 특히 중국 중앙군관학교 낙양분교 한인특별반이 만들어지며 한인 청년들이 입교하게 되었는데 이들이 후일 광복군의 기간 요원이 되었다는 점에서 뜻있는 일이었다.

중경에 정착한 임시정부는 명실상부한 정부로서의 위상을 갖췄다. 민족주의 세력을 통일하고 한국독립당을 창당하여 세력기반을 확대하였고, 정부의 조직과 체제를 확대 정비한 것이 그 계기였다. 단일지도체제를 확립하여 주석이 강력한 지도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고 건국강령이 발표되며 정부의 위상이 크게 제고되었다. 중경시기에 임시정부가 거둔 가장 큰 성과는 중국관내 독립운동 세력을 임시정부로 결집시켰다는 점이다. 조선민족혁명당을 비롯한 좌익진영의 독립운동 세력이 임시정부로 참여한 것이다. 1942년 좌익진영의 무장세력인 조선의용대가 광복군에 편입하였고, 좌익 진영의 인사들은 의원으로 임시의정원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1944년에는 정부의 조직에도 좌익 진영 인사들이 참여하여 좌우 연합정부를 구성하였다. 한국광복군을 창설하여 연합군과 공동작전을 전개하고, 국내진입작전을 시도한 것도 중경시기에 수행한 대표적 활동이었다. 이로써 임시정부는 명실공히 민족의 대표기구이면서 독립운동 중심기구라는 위상을 확립하게 되었고,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다.

2)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활동한 홍성인

(1) 김우진

본적 : 충남 홍성 高道 上村 349

주소 : 中國 上海 自爾路 去益 24

김좌진의 친족으로 1919년 3월 서울에서 3·1운동이 전개되자 이에 참가하여 독립만세시위를 전개하다가 피체되어 옥고를 치렀다. 그 후 중국 상해로 망명하여 동년 4월 탄생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입법기관이자 독립운동 방략을 논의 결정하는 기구인 임시의정원(臨時議政院) 제3차 회의에서 의정원 의원으로 선임되어 임시의정원법(臨時議政院法)을 통과시키는 등 1925년까지 약 7년간 임시정부 기본법의 기초 수립 활동과 함께 조국 광복에 필요한 각 부 위원의 인선에 관여하기도 하였다.

1924년 1월 상해에서 임시정부의 후원 조직으로 결성된 대한청년동맹회(大韓青年同盟會)의 후보감찰위원(候補監察委員)으로 선임된 그는 당시 상해 근교가 중국 내전으로 인해 혼란해지자, 상해 프랑스 조계(租界)에 위치한 임시정부와 그 요인들을 보호할 목적으로 의경대(義警隊)를 조직하여 프랑스 관헌의 조계 경비를 돕는 등 프랑스와 원만한 관계를 맺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그 후 김원봉(金元鳳)이 이끄는 의열단(義烈團)에 가입하여 간부로 활동하였으며, 1925년 8월경 중국 북경으로 건너가 한인 학생들을 규합하여 학생회를 조직하고 조사부 위원으로서 새로 오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편의를 제공하고 항일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등 민족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다가 일제의 요주의 인물로 체포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2) 이상만

본적 : 충남 홍성 宋月里 25

주소 : 서울市 城東區 聖水洞 2街49(13통4반)



사진 8 | 경교장에서 김구(좌측)와 함께 한 이상만(가운데)

1914년 감리교 협성신학교를 졸업하고 다음해에 감리교의 목사가 되었다. 1919년 3월 한국독립운동본부(韓國獨立運動本部)의 지령으로 중국 북경에 파견되어 박정래(朴正來)·조두진(趙斗珍)·유장연(劉璋淵)·전재홍(田在弘)·유중한(柳重韓)·연병주(延秉柱)·최훈식(崔勳植) 등과

더불어 신대한동맹회(新大韓同盟會)를 조직하고 동 회장에는 박정래를 추대하였으며, 그는 동회 총무를 맡아 활동하였다.

이후 임시정부의 일원으로 여러 방면으로 활동을 계속하였으며, 1939년에는 임시의정원 의원으로 선임되어 의정활동에 참여하였다. 동년 9월 임시정부가 중경으로 이동 정착하자 동년 10월 의정원 정기의회에 참석하였다. 1940년 3월 13일 이동녕이 서거하자, 복상위원회(服喪委員會) 공사조(工事組) 주임으로서 치상(治喪)을 주관하였다. 이해 12월 5일 국무위원회에서 내무부 관할 하에 생계위원회를 설치하였는데, 그는 민병길, 심광섭과 함께 위원으로 선임되었다.

1941년 9월 회계원검사원으로 선임된 그는 이듬해 10월에는 회계검사원 검사관이 되었으며 임시의정원 의장이던 김붕준(金朋濬)의 탄핵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의정원은 김붕준이 '비정상적인 기도를 품고 여러 가지 비법적(非法的) 행동' 을 하였다고 결정하여 탄핵안을 가결하고, '비법선거' 의 무효를 선포하였다. 이에 따라 선거 감독관인 내무부장 조완구는 「내무부공고(內務部公告)」 제1호로서 22인 당선자의 무효를 선언하였다. 이는 한국독립당과 조선민족혁명당의 임시정부를 둘러싼 주도권 싸움의 결과였다. 뿐만 아니라 그는 광복군의 행동준승 9개항의 취소를 요구하는 등 조국의 광복을 위한 통일된 정국의 방향을 모색하는데 주력하였다.

1942년 2월 25일 임시의정원 의장과 생계검사원 원장이던 송병조가 서거하였을 때에도 치상위원으로 선임되어 장례를 주관하였다. 1943년 5월에는 한국독립당(韓國獨立黨)에 가입하여 중앙감찰 위원에 선출되었고, 생계부 생활위원으로 선임되었으며, 회계검사원으로서 회의 소집의 책임을 맡았다. 생계부 생활위원은 8월에 사임하였다.

1944년 5월 6일 국무회의에서 생계에 관한 제반 사항을 설계하기 위하여 임시로 생활설계위원회를 설치하였는데, 그는 황학수 등과 7인 위원으로 선출되었고, 10월 9일 개최된 임시의정원 회의에서 분과위원회

를 조직할 때, 최석순·이시영·신환·왕통 등과 제3과(재정·예산·결산) 위원에 선임되는 등 주로 임시정부의 재정과 생계 부문에서 활동하였다. 의정원회의에서 제5차 개헌을 단행하여 지도체제를 개편하게 되자, 동년 6월에 국무위원 겸 검사원장(檢查院長)이 되어 활약하였으며, 1945년에는 화중구(華中區) 한교선무단장이 되었다. 1946년 임시정부 주화대표단의 일원이 되어 해방을 맞이하여 중국 거주 동포의 귀국에 따른 영사업무를 담당하였다. 다음 해에는 대만 한교협회이사장(韓僑協會理事長)으로서 우리 교포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안전 귀국 등의 제반 업무를 처리하다가 과로로 인하여 병을 얻고 1949년에 귀국하여 요양 중 병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63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 5 | 한국광복군 활동

1) 한국광복군의 창군과 활동

대한민국임시정부는 1919년에 대한민국육군임시군제를 제정하는 등 조직 당시부터 군대를 보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남의 나라에서 무장한 군대를 보유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임시정부는 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한국광복군 창설계획을 세웠으나, 일본군의 점령지역이 확대되면서 중국 대륙 여러 곳으로 피난처를 옮겨 다녀야 했다. 중국의 임시수도였던 충칭에 정착하면서 비로소 1940년 9월 17일 광복군총사령부가 성립됐다.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광복군선언문을 발표하여 "광복군은 한중 두 나라의 독립을 회복하고자 공동의 적인 일본제국주의를 타도하며 연합군의 일원으로 항전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광복군 창설의 취지를 천명하였다.



사진 9 | 광복군 제3지대 성립 전례식 (1945.6.30)

그런데 1941년 11월 15일 중국군사위원회는 한국광복군을 통할 지휘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한국광복군행동9개준승(韓國光復軍行動九個準繩)' 을 요구하였다. 이는 광복군의 위상과 진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서, 매우 굴욕적인 것이었다. 이 준승은 임시정부의 통수권을 완전히 박탈함은 물론, 광복군이 한국 영토 안으로 진입한 이후에도 중국군사위원회의 군령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중국이 광복군의 창설은 인준하되, 임시정부와 단절시키고 중국군사위원회에 예속시켜 중국의 지원군으로 만들어, 광복 이후까지 예속 하에 두겠다는 것으로 광복군의 자주성을 크게 해치는 것이었다.

중국군사위원회가 한국광복군을 통할지휘하고 참모총장(何應欽)이 장악 운용한다는 것을 기본원칙(제1항)으로 한 8개 조항 중, 광복군의 자주성을 해친 조항은 다음과 같다.

– 광복군에 대한 임정의 통수권 완전 박탈(2항)

- 활동구역, 작전, 조직, 훈련, 초모, 편성 등 속박 규정(3~7항)
- 광복군이 한국 영토 안에 진입하였어도 중국 군사위원회의 군령을 접수(8항)
- 한국 영토 안에 진입하지 못할 경우 군사위원회가 광복군 운용을 처리(9항)

이 같은 중국군사위원회의 준승이 통보되자, 임시정부는 그의 수용 여부를 둘러싸고 격론을 벌였다. 결국, 11월 19일 개최된 제18차 국무회의에서 중국 측의 제의를 수락하기로 결정하였다. 임시정부로서는 분통이 터지는 일이었으나, 중국의 승인과 협조가 없이 광복군의 조직과 운영은 불가능했기 때문에 어찌할 수가 없었다.

임시정부는 임시의정원의 후원을 받아 9개 준승의 취소를 위한 교섭에 나섰다. 여러 차례의 교섭 끝에 1944년 8월 10일, 중국은 김구 주석에게 공함을 보내 9개 준승을 취소하고 한국광복군을 임시정부에 직속케 한다고 통보해 왔다. 그로부터 8개월 후인 1945년 5월 1일 새로운 군사협정인 '원조한국광복군판법(援助韓國光復軍辦法)'이 성립되었다.

이로써 임시정부와 한국광복군은 자주성을 회복하게 되었다. 광복을 불과 3개월 남긴 시점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지만, 대중국 외교의 중요한 성과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한국광복군은 중국에 파견되어 있던 미국전략사무국(OSS, Office of Strategic Service)과 협약을 맺고 특수공작훈련을 실시하였다. 1944년 '조선인학도육군지원병제도'와 '징병제도'가 실시되면서 일본군에 입대한 한국청년들이 남양(南洋)과 중국전선에 배치되기 시작하였고, 이들 중 일부가 일본군을 탈출하여 광복군으로 넘어왔다.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미국의 OSS책임자와 한미 간의 공동작전을 협의하였고, 이들을 국내에 침투시킨다는 국내진공작전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그 내용은 시안과 푸양에서 OSS훈련을 받은 광복군에 각종 비밀

무기를 주어 산둥(山東)에서 미국잠수함을 태워 본국으로 들여보내고, 이들로 하여금 국내의 요소를 파괴하거나 혹은 점령하게 한 후에 미국비행기로 무기를 운반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내진공작전을 실행에 옮기기 직전에 일본이 항복하고 말았다. 이렇게 광복군의 국내진공작전 실현 직전에 일본이 항복했기 때문에 광복 이후 한국독립문제에 대하여 임시정부의 발언권이 없어지고 말았다.

한국광복군의 창설은 독립운동전선에서 일관되어 온 항일무장투쟁의 전통과 그 노선을 배경으로 하여, 임시정부 주도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그 정신적 맥락은 대한제국의 국군을 계승하여 창설되었다.

한국광복군은 성립 후 점차 중국관내 독립운동 세력을 하나로 포섭해 나갔다. 한국청년전지공작대가 제5지대로 편입되고, 조선의용대가 제1지대로 편입되면서 중국관내 무장세력을 아우르는 군사통일체가 된 것이다. 이것은 광복군이 임시정부의 국군으로서 한민족 독립운동을 대표하는 군사조직의 위상을 갖게 된 것을 의미한다.

광복군은 창설과정에서부터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군대로 추진되어 독립성과 자주권을 가진 임시정부의 국군으로 창설되었다. 중국의 원조에 의한 것이 아닌 임시정부의 군사계획과 미주동포들의 재정적 지원에 기반한 것이었다. 이후 어쩔 수 없이 중국군사위원회의 통할지휘에 들어갔지만 계속해서 광복군의 독립성과 자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였다.

그리고 한국광복군은 영국군이나 미군과 합작하여 항일작전을 수행하고, 중국과도 동등한 지위에서의 연합작전을 추구하였다. 한국의 국군으로서 주체적이고 자주적인 지위로 항일전쟁에 참여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다. 또 광복군의 활동은 한동안 침체기에 빠졌던 임시정부의 지위와 위상을 회복시켜 독립운동을 주도할 주체로 공고화하는 역할을 하였다.

2) 한국광복군에서 활동한 홍성인

(1) 최덕휴

본적 : 충남 홍성 金馬 新谷 37

주소 : 中國 湖南省 桂東

일본군 제64사단을 탈출하여 중국군 제3전구 훈련반에서 훈련을 받고, 중국군 중위로 임명되어 제9전구 제8사단 공작위원회의 제2군 공작책으로 활약하였다. 그 후 광복군 제1지대 제3구대에 편입되어 항일활동을 전개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2년 대통령표창)을 수여하였다.

(2) 한필동

본적 : 충남 홍성 全当 富平 254

주소 : 서울 永登浦區 大方洞 山40

학병으로 장사(長沙)의 일군 제64부대 소속 중국군 포로 감시병으로 근무하다가 탈출하였다. 1945년 중경(重慶) 총사령부로 후송되었으며, 광복군 토교대(土橋隊)에 배속되어 임정 요인의 호위, 총사령부 지시에 의한 공작수행 등을 전개하던 중, 광복을 맞이하여 귀국하였다.

| 6 | 한용운의 국외 순유

홍성군 결성면 성곡리 출신 만해 한용운은 불교자주화와 혁신운동을 주도하였고, 3·1운동 때 민족대표 33인으로 만세운동을 주도하였으며, 일제와 추호의 타협이 없이 초지일관으로 올곧은 평생을 산 인물로 유명하다. 그런데 그의 생애와 사상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있다. 그것은 그가 망국을 전후하여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와 일본, 만주를 순유하며 독립운동의 방략을 모색하고 근대서구사상을 수용하였다



사진 10 | 한용운 생가

는 사실이다.

만해는 19세 때인 1897년 출가하였으나,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다가 1904년 초 고향에 들렀다 다시 백담사로 돌아갔다. 승려로서 그의 초기 생활은 스스로 말하였듯이 이런저런 상념으로 인해 '철저한 도승(道僧)'은 아니었다. 처음 의도와는 달리 인생에 대한 회의와 번민이 계속되고 젊은 혈기를 누르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 때 그에게 새로운 바깥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한 책이 『영환지략(瀛環志略)』이었다. 그는 이때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회술하였다.

> … 강원도 오대산의 백담사까지 가서 그곳 동냥중, 즉 탁발승이 되어 불도를 닦기 시작하였다. 물욕, 색욕에 움직일 청춘의 몸이 한갖 도포자락을 감고 고깔 쓰고 염불을 외게 되매 완전히 현세를 초탈한 행위인 듯이 보이나 아마 나 자신으로 생각하기에도 그렇게 철저한 도승은 아니었을 것이다. 수년 승방에 갇혀있던 몸은 그

에서도 마음의 안정을 얻을 길이 없어 『영환지략』이라 고 하는 책을 통하여 조선 이외에도 넓은 천지의 존재를 알고 그곳에 가서나 뜻을 얻어 볼까하여 엄모(嚴某)라는 사람과 같이 원산에서 배를 타고 서백리아(西伯利亞; 시베리아)를 지향하고 블라디보스토크(海蔘威)로 갔던 것이다. …

그는 또 다른 회고에서 자신의 입산 동기가 단순히 신앙 때문만이 아니라 입산한지 얼마 되지 않아 '세간 번뇌에 구사되어 무전여행으로 세계만유(世界漫遊)' 를 떠나게 된 것이라고 그 동기를 밝히기도 하였다.

> 나의 입산한 지 몇 해 안되어서의 일인데 나의 입산한 동기가 단순한 신앙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던 만큼 유벽(幽僻)한 설악산에 있은 지 얼마 아니하여 세간번뇌에 구사되어 무전여행으로 세계만유를 떠나게 된 것이다. 그때쯤은 나뿐 아니라 조선 사람은 대개 세계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별로 없었으므로 외국어 한마디도 모르는 산간의 한 사미(沙彌)로 돌연히 세계만유, 더구나 무전여행을 떠난 것은 우치(愚痴)라면 우치요 만용이라면 만용이었다. …

그에게 외부 세상에 대한 자극을 주고 세계여행을 꿈꾸게 한 『영환지략』은 중국 청나라 학자 서계여(徐繼畬, 1795~1873)가 1848년 저술한 책이다. 이 책은 아편전쟁 이후 서양의 근대 과학 기술 문명의 우수성을 깨달아 중국의 전통적 가치관은 지니되 서양적 수단을 채택해야 된다는 양무론(洋務論)에 입각하여 저술한 것이다. 즉, 중국과 서양의 현실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현실적 반성으로부터 서양의 지리와 역사를 소개



◇地獄에서 極樂을 求하라 … 한룡운씨 와 조감상◇

이십이일 오후에 경성감옥에서 가출옥한 조선불교계에 명성이 높흔 한룡운(韓龍雲)씨를 가회동(嘉會洞)으로 방문한즉 씨는 수척한 얼골에 정착한빗흐로 『내가 옥중에서 엇긴것은 고통속에서 괴로라 늣엇고 디옥속에서 현당 불구하라는 말이올시다』 내가정말으로는 여러번 그런한말을 보앗스나 실상몸으로 당하기는 처음인데다 틀사람은 엇더하얏는지모르나 나는그속에서도 괴로라으로 지낫습니다 세상사람은 고통을무서워하야구차로히피하고자하기때문에 비루한데에빠지고 불미한일을 또거듭되나니 한번엄숙한인생관아래에 고통의괄날을 밥는곳에 괴로라이거긔잇고 디옥을 항하야 드러간곳에는 그곳을 현당으로 알수잇스니우리의생각은 더욱위대하고 더욱고상하게가지어야 하겟다느끼신듯십흐며 앞흐로 불교과가를 학대인생관 흡말하야 흐르는물과가를 으로다시발머리를돌리어장린는 엇지하려』나 불은독 역시조선불교를위하야 일할터이나 자세한생각은 말할수업다』고하더라 (사진은 옥한룡운씨)

사진 11 | 한용운의 동아일보 인터뷰 기사(1921.12.22 가출옥 당시)

하였던 것이다.

이 책은 1850년을 전후하여 우리나라에 소개되었는데, 위원(魏源)의 『해국도지(海國圖志)』, 정관응(鄭觀應)의 『이언(易言)』과 함께 오경석, 유대치 등 초기 개화파 인사들에게 널리 읽히며 초기 개화사상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한용운은 이 책을 읽으며 우리나라의 현실을 반성하는 한편, 새로운 세계관과 세계질서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고 이를 직접 목격하고 체험하기로 작정하였던 것이다.

그가 세계여행을 떠나 블라디보스토크로 간 시기는 정확치는 않으나 대략 1905년경으로 볼 수 있다. 그는 이해 초봄 백담사에서 내려와 세계여행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서울로 향하였다. 도중 얼음이 녹아 흐르는 차디찬 가평천을 건너며 일체유심(一切唯心)을 절감하고 맨주먹으로 떠나는 세계여행에 대한 각오를 새로이 하였던 것이다.

경성에 도착한 그는 세계여행에 필요한 도움말을 듣지 못하고 스스로 지도와 견문한 바를 토대로 먼저 블라디보스토크로 가기로 여행 일정을 결정하였다. 배를 타기 위해 원산으로 가던 그는 동료 승려 두 명을 만나 일행이 되어 배에 올랐다. 전에 나룻배를 타 본 경험에 불과한 그는 신식의 큰 배에 경탄을 금하지 못하였다. 또한 블라디보스토크 항구에 접근하며 항구에 묻은 수뢰(水雷) 때문에 곧 바로 상륙하지 못하고 러시아 배로 갈아타고 입항하여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그들의 국방을 위한 국가적 설비에 놀라며 상대적으로 초라한 조선의 국방 형편을 한탄하였다.

그러나 부두 근방의 여관에 동행한 승려와 함께 투숙했던 그에게 예기치 않은 시련이 닥쳤다. 블라디보스토크 항구 부근에 거주하던 우리 교포 청년들이 머리를 깎고 그곳에 온 만해 일행을 일진회원으로 오인하여 행랑을 검색하고는 내일 처치하겠다는 사형 선언을 하고 여관 주인에게 도망치지 못하도록 감시를 명하고 돌아간 것이다. 당시 그곳에서는 이러한 오해로 말미암아 조선인끼리의 살육이 종종 있어 온 터였다.

만해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의 첫 밤을 집행을 기다리는 사형수의 심정으로 지새웠다. 그는 앉아서 죽느니 기지를 발휘하여 살 길을 찾아야겠다고 결심하였다. 모험심이 강하고 담력이 컸던 만해는 이튿날 새벽 여관 주인을 대동하고 그곳 교민대표 엄인섭(嚴寅燮)이란 자와 이노야(李老爺)의 집을 직접 찾아가 그들 행위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오해임을 설명하여 위기를 모면하였다.

여관으로 돌아온 그는 다른 일행을 안심시킨 뒤 갑갑한 마음을 풀려고 바닷가 모래사장으로 나갔다. 그는 여기에서 또 한 차례의 위기를 맞았다. 그를 미행한 5, 6명의 조선 청년들이 느닷없이 그에게 달려들어 바닷물로 던져 죽이려고 하였다. 위기일발의 순간, 몸집은 작으나 완력이 남달리 세었던 만해는 그들과 격투를 벌였다. 이때 중국 사람들이 이를 말렸고, 러시아 경관이 달려와 말려 그는 또 한 차례 죽음의 고비를 넘겼다.

동포간의 살육에 크게 낙담한 그는 대성통곡을 하고 여관으로 돌아왔다.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 없게 된 그는 원산으로 되돌아가고자 하였다. 그러나 원산까지 되돌아 갈 배 삯이 없어 50리길의 작은 바다만 배로 건너고 육지를 하염없이 걸어 연추(煙秋, 크라스키노)를 지나 두만강을 건너 고국으로 돌아왔다.

만해에게 있어서 블라디보스토크에서의 하룻밤은 크나큰 충격이었고, 외부 지향 의지가 좌절된 것으로서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었다. 이후 백담사에서 불경의 연구에 전력하던 그는 이때를 전후하여 양계초(梁啓超)의 『음빙실문집(飮氷室文集)』을 접하며 근대서구의 자유·평등사상을 수용하여 개혁사상 형성에 결정적 영향을 받았다. 중국 최고의 지성이며 사상가인 양계초의 『음빙실문집』은 1902년 10월에 초간본이 나온 이후 1910년까지 7회에 걸쳐 증보와 재간을 거듭한 것이다. 그 내용은 정치·시국·종교·교육·생계·학술·역사·전기·지리·잡문(雜文)·유기(遊記)·담총(談叢)·운문(韻文)·소설(小說) 등 제반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이 책은 구한말 우리나라에 소개되어 지식층과 사상계에 미친 영향이 매우 컸다. 특히 민족의식과 독립사상을 고취시켰다 하여 1910년 이후 일제에 의해 금서로 탄압 당하기도 하였다. 이는 중국과 우리나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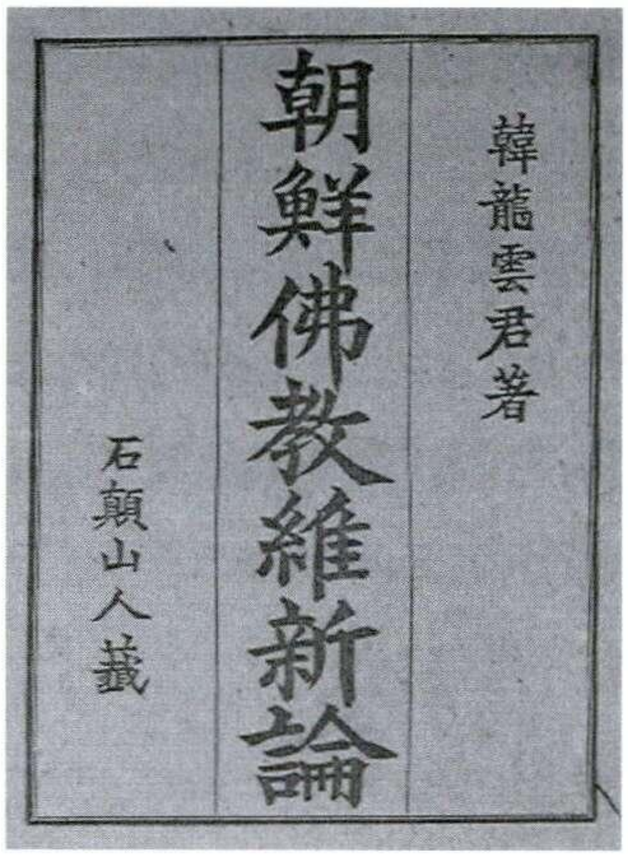


사진 12 | 조선불교유신론

- 1910년 12월 8일 백담사에서 완성
- 1913년 5월 25일 불교서관에서 발행
- 1908년 일본 유학을 다녀온 뒤, 침체한 조선 불교계의 문제점과 개혁안 제시
- 표지 서명 '朝鮮佛教維新論' 글씨는 석전 박한영이 씀

처하여 있던 당시의 정치·사회적 상황이 비슷하였고 문화적·역사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만해가 양계초의 영향을 크게 받았음은 그의 저술 『조선불교유신론』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다. 여기에 보면 그는 5회에 걸쳐 양계초를 직접 거론하고 있고, 칸트·베이컨·데카르트·플라톤·루소·뉴우튼·다아윈·헤겔·루터·존록·볼테르·괴테·홉스·스펜서·와트 등의 사상도 다양하게 소개하고 있다. 물론 만해는 그 자신이 이처럼 많은 서구 사상가들의 저작을 직접 보지 못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양계초를 통해 간접적이나마 서구 근대사상을 광범위하게 수용하여 그의 개혁사상을 형성하였음은 틀림없다. 한편 그는 1935년 『조광(朝光)』이란 잡지에 기고한 「최후의 5분간」이란 짤막한 수필에서도 양계초의 일화를 인용할 정도로 그를 깊이 흠모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백담사·건봉사·유점사 등지에서 교리를 연구하고, 설법에 힘쓰던 그는 1908년 4월 일본으로 건너갔다. 그 동기에 대해 그는 한반도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사나이의 도리가 아니고, 비단 불교문화뿐만 아니라 새 시대의 기운이 융흥하고 있던 일본의 모습을 보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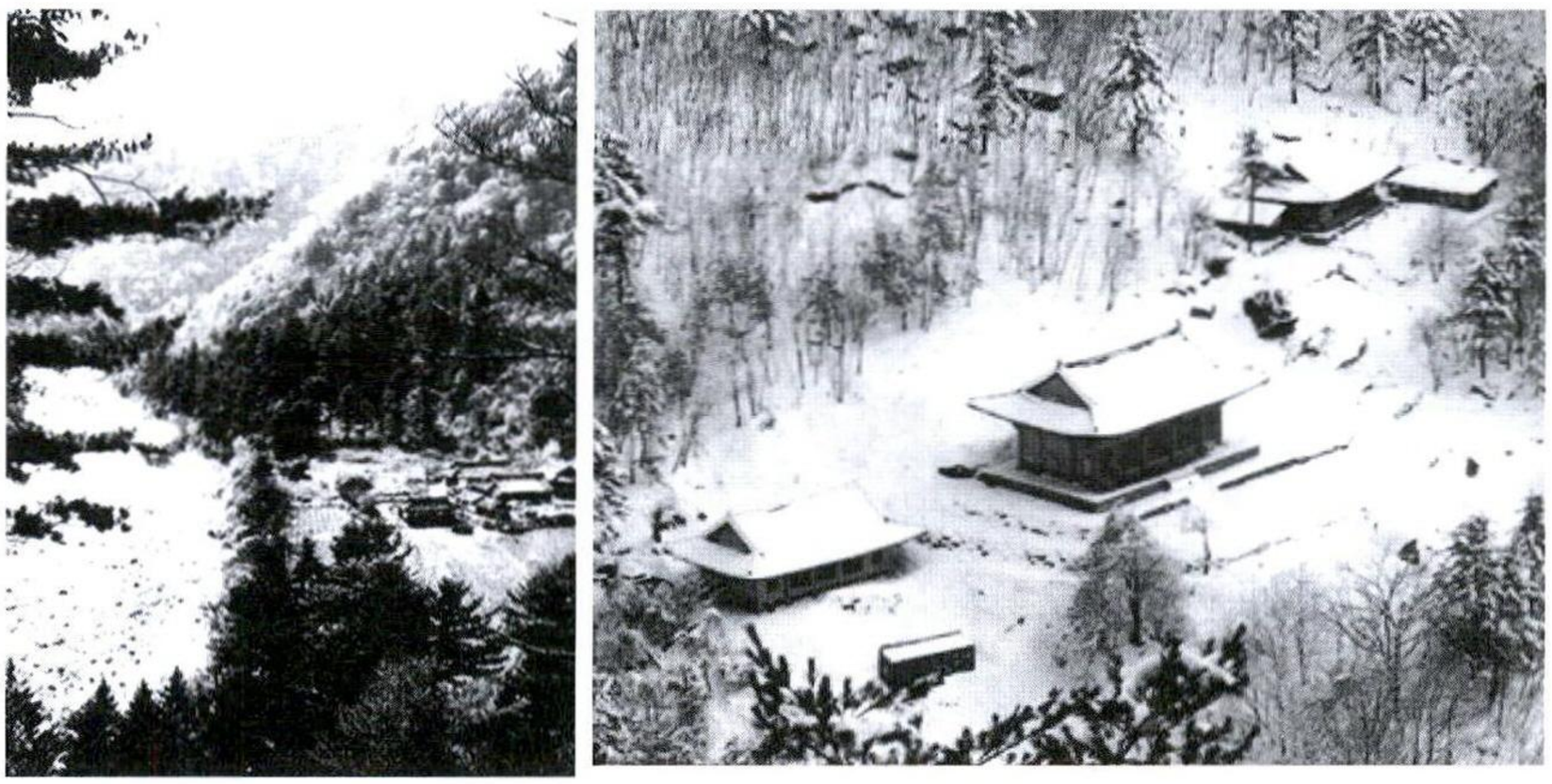


사진 13 | 백담사와 오세암 전경

고 있다.

시모노세키[馬關]을 거쳐 도쿄[東京]로 간 만해는 조동종(曹洞宗) 종무원(宗務院)을 찾아 갔다. 그는 조동종의 대표자인 홍진설삼(弘津說三)과 교우하고, 그의 주선으로 조동종 대학[駒澤大學]에 입학하여 일본어와 불교를 수학하며 천전(淺田)교수와도 교우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제기된다. 즉 당시 일본의 조선침략이 노골화되고 있었고, 침략의 선봉을 문화란 미명하에 일본불교가 수행하고 있던 때에 만해가 그 주역인 조동종 대표자와 교우하고 지원받은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이는 만해가 조선불교계 자체의 현실적 진단은 정확하고 개혁의지가 확고하였으나, 그 당시까지만 해도 아직 일제의 침략을 민족적 위기로까지는 간파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즉 그가 『조선불교유신론』을 저술한 때까지는 반봉건적 의식에서 탈피하지 못하다가 이회광(李晦光) 일파의 친일매불사건에 대응한 종지수호운동(宗旨守護運動)을 주도하며 반제의식이 형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만해에게 있어서 불과 몇 달 동안의 일본여행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시간이었다. 그는 일본에 머무는 동안 유학중이던 최린(崔麟)·고원훈(高元勳)·채기두(蔡基斗) 등과 교우하게 되었다. 이는 훗날 그가 우리 독립운동사상 최대의 분수령으로 평가되는 3·1운동을 최린 등과 함께 계획하고 주도한 계기를 마련해 주었던 것이다.

1908년 10월 귀국한 만해는 다시 동래(東萊) 범어사(梵魚寺), 지리산 등의 사찰을 돌며 불교의 대중화와 개혁운동에 노력하였다. 그러던 중 그는 경술국치(庚戌國恥) 직후부터 일본 세력을 등에 업은 이회광 일파의 친일매불 행위에 격분하여 이듬해 1월 송광사(松廣寺)·범어사에서 승려 궐기대회를 개최, 그들의 음모를 격파하였다.

1911년 가을, 만해는 우리 동포를 만나 망국의 설움을 서로 달래고 조국의 장래를 논의하고자 만주로 건너갔다. 그는 동포들에게 고국의 사

정을 전하고, 박은식(朴殷植)·이시영(李始榮)·윤세복(尹世復) 등의 민족지사들과 만나 독립운동의 방략을 상의하였다.

그러나 그는 이곳에서 다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았다. 일제의 첩자로 오인하여 그를 미행하던 독립군이 숲이 우거져 대낮에도 하늘이 보이지 않는 굴라재라는 고개에서 몇 발의 사격을 가해 온 것이다. 거의 죽기 직전, 불심이 깊었던 그는 아름다운 관세음보살의 환체를 보고 정신을 차려 피를 흘리며 인가를 찾았다. 다행히 중국인의 도움으로 대강 상처를 수습한 뒤 동포들의 마을로 와 달포동안을 치료하였다. 그러나 이때의 총상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그는 평생 체머리(요두증)를 흔들며 지내야 했다.

이같은 만해의 국외 순유와 서구 근대사상의 수용은 그가 반봉건의식과 함께 반제의식을 깨닫게 되는 과정을 반영하며 장차 불교를 통한 사회개혁과 독립투쟁의 선봉에 서는 배경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비록 그가 국외에서 수행한 구체적 독립운동은 아니지만, 그의 국외 순유는 국외에서 활동한 홍성인의 독립운동과 함께 중요하게 평가되어 마땅하다.

| **박걸순** | 충북대 사학과 교수

부록

참고 문헌

참고문헌

■ 신문류

《경향신문》, 《기호흥학회월보》, 《대한매일신보(국한문혼용판)》, 《대한매일신보(한글판)》, 《대한민보》, 《대한협회회보》, 《독립신문》, 《동아일보》, 《만세보》, 《매일신보》, 《신한민보》, 《유교부식회보》, 《제국신문》, 《조선일보》, 《조선중앙일보》, 《황성신문》

■ 문집류

김복한, 『지산집』

백낙관, 『추강집』

안병찬, 「통문」

안병찬, 『규당일기』

안창식, 『간호일기』

이　설, 『복암집』

임한주, 『홍양기사』, 『성헌선생문집』

홍　건, 『을감록』

홍순대, 『해암사록』

■ 일제시기사료

「慶興附近紅衣賊侵入(1900년 7월 26일)」, 『日新(한국사료총서 29)』,

국사편찬위원회
『고등경찰요사』(경상북도 경찰부, 1934)
『폭도에 관한 편책』
大正八年乃至同十年 朝鮮騷擾事件關係書類 共七册其四
大正八年乃至同十年 朝鮮騷擾事件關係書類 共七册其一
大正八年乃至同十年 朝鮮騷擾事件關係書類 共七册其七
법원판결문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ノ部 在地地四
朝鮮騷擾事件ニ關スル道長官報告綴
한국 내부경무국, 『고문경찰소지』, 1910
형사사건부 기록

■ 정부기관·충청남도·홍성군 등의 사료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기준」, 2018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 제1~5권, 1983
_____, 『한국독립운동사자료집』 제1~35집, 1970~1997
덕명초등학교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회, 『덕명학교 설립자 逸農 서승태 선생의 발자취와 그의 저서』, 2014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제3~5권, 1971
_____, 『독립운동사』 10권, 1980
_____, 『독립운동사자료집』 제1~14권, 1971~1973
청운대학교 홍성학연구소, 『홍성학』 1~7권, 2012~2019
충남대학교 내포지역연구단, 『근대 이행기 지역엘리트 연구』, 경인문화사, 2006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역사 속의 충남 여성 / 문화의 전승자들』-충남 여성문화사 총서 Ⅰ, 충청남도, 2018

_____, 『충남 여성의 삶과 자취 / 역사에 남긴 유산』-충남 여성문화사 총서 Ⅱ, 충청남도, 2018
_____, 『충남의 독립운동가』 1~2권, 2011
_____, 『갈산면지』, 2010
_____, 『결성면지』, 2014
_____, 『광천읍지』, 2010
_____, 『구항면지』, 2013
_____, 『금마면지』, 2008
_____, 『서부면지』, 2012
_____, 『은하면지』, 2011
_____, 『장곡면지』, 2010
_____, 『홍동면지』, 2017
_____, 『홍북면지』, 2008
_____, 『홍성읍지』, 2008
충청남도교육연구원, 『충남교육사』, 1982
충청남도지편찬위원회, 「충남지방의 3·1운동」, 『충청남도지』 제9권(일제강점기), 2006
_____, 『충청남도지』, 2008
홍성군지편찬위원회, 『홍성군지』, 1925
_____, 『홍성군지』, 2016
홍성문화원, 『사진으로 보는 홍성 100년사』, 2012
_____, 『홍성인물·문집 해설본』, 1998
홍성초등학교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회, 『홍성초등학교 100년사』, 2008
홍양사출판위원회, 『홍양사』, 1969
홍양사편찬위원회, 『홍양사』(전), 1996
홍주대관편찬위원회, 『홍주대관』, 홍성군, 2002

홍주성역사관, 『1919 홍성의 함성』, 2019
홍주향토문화연구회, 『홍주향토문화』 1~33집, 1991~2018
독립기념관 홈페이지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 사이트(http://oversea.i815.or.kr/).

■ 단행본 및 논문

강병식, 「한말 홍주성의병에 대하여」, 『민족사상』 2, 1984
김경미, 『한국 근대교육의 형성』, 혜안, 2009
김경수, 「한말·일제하 홍성지방의 감리교 수용과 확산, 지역엘리트의 형성」, 『한국기독교와 역사』 19, 한국교회사연구소, 2003
김광식, 『만해 한용운 연구』, 동국대학교 출판부, 2011
김상기, 「1895~1896년 홍주의병의 사상적 연원과 전개」, 『윤병석교수 화갑기념 한국근대사논총』, 지식산업사, 1990
_____, 「1906년 홍주의병의 홍주성 전투」, 『한국근현대사연구』 37, 2006
_____, 「김복한의 학통과 사상」, 『한국사연구』 88, 1995
_____, 「김복한의 홍주의병과 파리장서운동」, 『대동문화연구』 39권, 성균대학교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1
_____, 「복암 이설의 항일민족운동에 대한 고찰」, 『우강권태원교수 정년기념논총』, 1994
_____, 「수당 이남규의 학문과 홍주의병투쟁」, 『조선시대의 사회와 사상』, 조선사회연구회, 1998
_____, 「안병찬가의 민족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50, 2015
_____, 「윤석봉의 사상과 민족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53, 2016
_____, 「임한주의 사상과 독립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7, 2014
_____, 「조선말 홍주의병의 봉기원인과 전개」, 『수촌박영석교수화갑기

념논총』, 1992
_____, 「한말 일제하 홍성 유림의 형성과 민족운동」, 『한국근현대사연구』 31, 2004
_____, 「해방 후 광복단의 재건과 신도지부」, 『한국근현대사연구』 17, 한국근현대사학회, 2007
_____, 「호서유림의 파리장서운동」, 『한국근대사연구로의 동행』(충남대학교 국사학과 30주년 기념 학술발표회 발표문), 충남대학교 국사학과, 2019
_____, 「호서지역 파리장서 참여자와 '호서본'의 성격」, 『한국근현대사연구』 제73집, 한국근현대사학회, 2015
_____, 「홍성 유림의 독립운동과 민족교육」, 청운대학교 남당학연구소 편저, 『남당학과 홍주정신의 전개』-남당학 학술총서 4, 도서출판 보성, 2016
_____, 『의병전쟁과 의병장』, 경인문화사, 2019
_____, 『한말의병연구』, 일조각, 1997
_____, 『한말의병운동-전기 중기의병』, 선인, 2016
_____, 『한말 전기의병』,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_____, 『호서유림의 사상과 민족운동』, 지식산업사, 2016
김영범, 「1920년 서울 '암살단'의 결성과 의열투쟁 기획」, 『한국민족운동사연구』 79,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4
김영우, 「한말의 사립학교에 관한 연구〈Ⅰ〉」, 『교육연구』 1, 공주사범대학, 1984
_____, 「한말의 사립학교에 관한 연구〈Ⅱ〉」, 『교육연구』 3, 공주사범대학 교육문제연구소, 1986
김용달, 「농민운동」, 『한국사』 49, 국사편찬위원회, 2001
_____, 「일제의 농업정책과 농민운동」, 『동양학』 41, 동양학연구원, 2007

_____, 「일제하 홍성지역의 사회운동」, 『한국사학보』 19, 2005
_____, 「조선농회의 계통체제 수립과 초기사업(1926~32)」, 『한국근현대사연구』 4, 1996
_____, 『일제의 농업정책과 조선농회』, 도서출판 혜안, 2003
_____, 『한국독립운동의 역사』 28 (농민운동),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_____, 『한국독립운동의 인물과 노선』, 도서출판 한울, 2004김윤환, 『한국노동운동사』 Ⅰ, 청사, 1981
김진호, 「보령지역 3·1운동과 장서운동」, 『충청문화연구』 제15집, 충남대학교 충청문화연구소, 2015
_____, 「성주지역 3·1독립운동」, 『성주 3·1운동과 파리장서』, 성주군, 2019
_____, 「충남지방의 횃불독립만세운동」, 『3·1운동의 역사적 의의와 지역적 전개』, 한국사연구회편, 2019
_____, 「충남지역 3·1운동의 전개와 의의」, 『충남 3·1만세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100주년 기념 세미나』(발표문), 충남연구원, 2019
_____, 「홍성지방 3·1만세운동의 전개와 성격」, 『충남지방 3·1운동의 재조명』(발표문), 당진역사문화연구소·충남동학농민혁명단체협의회, 2019
_____, 「홍성지역의 3·1운동」, 『1919, 홍성의 함성』, 홍주성역사관, 2019
_____, 「홍성지역의 3·1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23집,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4
_____, 「홍성지역의 3·1운동의 전개」, 호서사학회 국제학술대회(발표문), 2003
_____, 『충남지방 3·1운동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김진호·박이준·박철규, 『한국독립운동의 역사』 20(국내3·1운동Ⅱ),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김태웅, 『신식 소학교의 탄생과 학생의 삶』, 서해문집, 2017
김형목, 「1880~1890년대 충남의 신문화형성」, 『충남도사(근대)』 8, 충청남도지편찬위원회, 2008
_____, 「구한말 홍성지역의 근대교육운동」, 『홍성의 근대교육 백년대계』, 홍주성역사관, 2014
_____, 「국채보상운동에서 21세기 국민통합을 모색하다」, 『국채보상운동과 여성구국운동의 재조명』, 도서출판 천지당, 2017
_____, 「기호흥학회 충남지방 지회 활동과 성격」, 『중앙사론』 15, 한국중앙사학회, 2001
_____, 「애국계몽운동의 전개와 성격」, 『내포의 한말 의병과 독립운동』,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17
_____, 「충남지방 국채보상운동의 전개양상과 성격」,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5,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0
_____, 「충남지역 근대사 연구현황」, 『충청학과 충청문화』 14,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12
_____, 「한말 국문야학의 성행 배경과 성격」,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0,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2
_____, 「한말 김광제의 현실인식과 계몽운동사상 위상」, 『한국민족운동사연구』 71,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2
_____, 「한말 애국계몽운동」, 『충남도사(근대)』 8, 충청남도지편찬위원회, 2008
_____, 「한말 야학운동의 기능과 성격」, 『중앙사론』 21, 한국중앙사학회, 2005
_____, 「한말 충청도 야학운동의 주체와 이념」,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8,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2
_____, 「한말 홍성지역 근대교육운동의 성격」, 『한국사의 탐구』, 최홍규교수논총간행위원회, 2005
_____, 『김광제, 나랏빚 청산이 독립국가 건설이다』, 도서출판 선인, 2012
_____, 『대한제국기 야학운동』, 경인문화사, 2005
_____, 『대한제국기 충청지역 근대교육운동』, 도서출판 선인, 2016
_____, 『배움의 목마름을 풀어 준 야학운동』, 서해문집, 2018
_____, 『충청도 국채보상운동』, 도서출판 선인, 2016
민황기·손세제, 「백야 김좌진의 민족의식과 국권회복운동」, 청운대학교 남당학연구소 편저, 『남당학과 홍주정신의 전개』-남당학 학술총서 4, 도서출판 보성, 2016
박걸순, 「1910년대 비밀결사의 투쟁방략과 의의」,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6,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3
_____, 「3·1운동기 국내비밀결사운동에 대한 시론」,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88
_____, 「북간도 간민회 선행조직의 추이와 성격」, 『한국근현대사연구』 제51권, 2009(『한국독립운동과 역사인식』, 역사공간, 2019 재수록)
_____, 『한용운의 생애와 독립투쟁』,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2
박민영, 『한말 중기의병-한국독립운동의 역사 10』,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박영석, 「백야 김좌진장군 연구」, 『국사관논총』 51, 국사편찬위원회, 1994
박 환, 『김좌진평진』, 도서출판 선인, 2010
서동일, 『1919년 파리장서운동의 전개와 역사적 성격』, 한국학중앙연구

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9
손인수, 『한국근대교육사 1885-1945』, 연세대학교 출판부, 1971
손재학, 『홍성군 사회운동소사(필사본)』
_____, 『회고록』(필사본), 「왜정36년간에 내가 겪은 실화」
송용재 편, 『홍주의병실록』, 홍주의병유족회, 1986
신용하, 「식량의 증산과 약탈」, 『한국사』 21, 국사편찬위원회, 1976
유준기, 「김상옥의 항일의열투쟁」, 『한국학연구』 2, 숙명여자대학교, 1992
유한철, 「홍주성의진(1906)의 조직과 활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 1990
윤시영, 『홍양일기』, 《향토연구》 11, 충남향토연구회, 1992
윤 완, 『대한제국말기 민립학교의 교육활동연구』, 도서출판 한결, 2001
이균영, 『신간회연구』, 역사비평사, 1993
이상근, 『애국계몽운동』, 『홍성대관』, 홍성대관편찬위원회, 2002
이성우, 「1910년대 독립의군부의 조직과 활동」, 『역사학보』 224, 역사학회, 2014.
_____, 「대한광복회 만주본부의 설치와 활동」, 『호서사학』 34, 호서사학회, 2003
_____, 「대한광복회 충청도지부의 결성과 활동」, 『한국근현대사연구』 12, 한국근현대사학회, 2000
_____, 「백야 김좌진의 국내민족운동」, 『호서사학』 44, 호서사학회, 2006
_____, 「이학순·이내수 부자의 민족운동」, 『한국사연구』 166, 한국사연구회, 2014
_____, 「주비단의 조직과 활동」, 『한국근현대사연구』 25, 한국근현대사학회, 2003
이성우, 『김좌진』, 역사공간, 2011

이승원, 『학교의 탄생』, 휴머니스트, 2005
이승윤, 『대한제국기 불교계의 동향과 국권회복운동』, 충남대박사학위 논문, 2019
_____, 「충청지역 종교계의 국채보상운동」, 『한국사상사학』 57, 한국사상사학회, 2017
이은숙, 「1905~1910년 홍주의병운동의 연구」, 숙명여대 박사학위논문, 2004
이진구, 「의사이용규전」, 『독립운동사자료집』 2,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이현종, 「기호흥학회의 조직과 활동」, 조항래 편저, 『1900년대의 애국계몽운동연구』, 아세아문화사, 1993
장규식, 「해방후 국가건설운동과 지역사회 동향 – 충청남도 홍성군 사례」, 『학림』 16, 1994
장석흥, 「1920년대 초 국내 비밀결사의 성격」, 『한국독립운동사연구』 7,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3
_____, 「광복단결사대의 결성과 투쟁노선」, 『한국근현대사연구』 17, 한국근현대사학회, 2007
_____, 「조선민족대동단연구」,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89
정내수, 「일제강점기 홍성지방의 민족운동과 사회운동」, 『충청남도 내포지역 지역엘리트의 재편과 근대화』 Ⅲ,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4
_____, 『호서사학』 40, 호서사학회, 2005
조성진, 「일농 서승태의 삶과 민족운동」, 청운대학교 남당학연구소 편저, 『남당학과 홍주정신의 전개』-남당학 학술총서 4, 도서출판 보성, 2016
조원찬, 「홍성지역의 향토사 연구현황과 자료」, 『충청문화연구』 창간호, 충남대 충청문화연구소, 2008

조재곤, 「한말 일제하 장시와 포구의 존재 양태-광천장과 옹암포시의 물류 유통구조를 중심으로」, 『한국근현대사연구』 46, 한국근현대사학회, 2008
주옥로, 「팔명학교를 찾아서(2)-호명학교-」, 『홍주향토문화』 2, 홍주향토문화연구회, 1991
한선애, 「일제시기 충남 홍성군의 보통학교 설립운동」, 『역사와 역사교육』 5, 웅진사학회, 2000
허재영, 『통감시대 어문교육과 교과서 침탈의 역사』, 도서출판 경진, 2010
홍영기, 『한말 후기의병 – 한국독립운동의 역사 11』,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황의천, 「파리장서운동과 보령·호서지역 유림」, 『보령문화』 17, 보령문화연구회, 2008

홍성의 독립운동사 1

발행일 | 2019년 12월 20일
발행인 | 김석환
발행처 | 홍성군
연구수행 | 청운대학교 홍성학연구소
편집·인쇄 | 선우(주) 디자인전문회사
주소 | 충남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105-1 전화 | 041 632 2363

이 책의 출판권은 저작권자와 선우(주)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비매품

필자

김상기 충남대 국사학과 명예교수
김형목 독립운동사연구소 연구원
이성우 충남대 충청문화연구소 연구원
김진호 충남대 충청문화연구소 연구원
김용달 전) 독립운동사연구소장
박걸순 충북대 사학과 교수

(집필순)

청운대학교 홍성학연구소 연구진

연구책임자 김경수 교수(청운대)
공동연구원 조성진 연구원(독립운동사연구소)
간 사 권미선 선생(청운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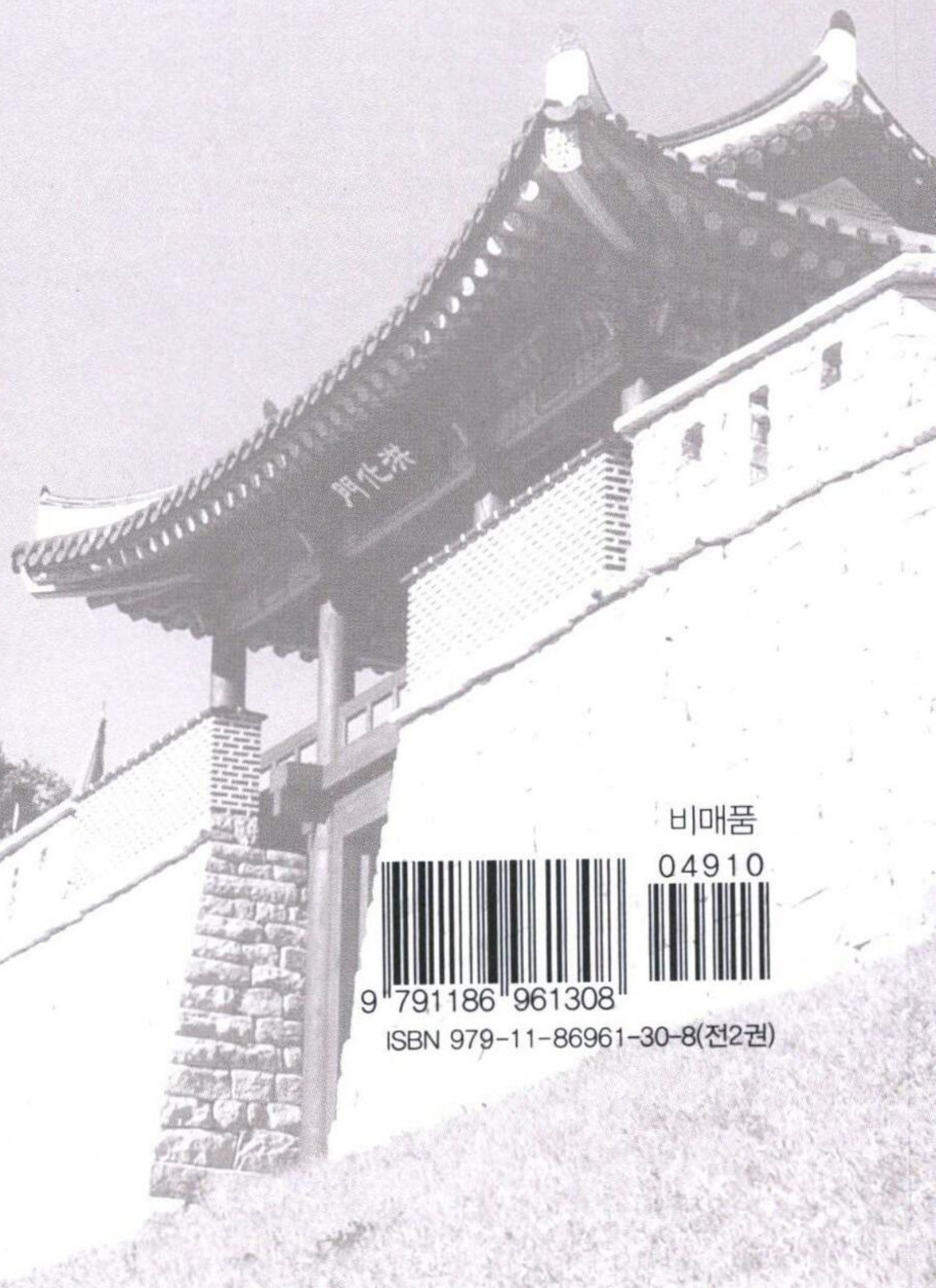
표지사진 **김좌진 동상, 홍주성전투 기록화(위) / 홍화문(아래)**



홍성의 독립운동사

한말에는 전국 최대 규모의 의병전쟁과
격렬한 무장투쟁이 전개되었던 지역입니다.
나라와 민족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분연히 일어나 구국운동을 전개하였던
충절의 고장인 것입니다.

– 발간사 중에서 –



비매품
04910
9 791186 961308
ISBN 979-11-86961-30-8(전2권)